헛갈리기 쉬운 조선어어휘들

교수 박사 김범주
박사 부교수 박길만

평 양 출 판 사
주체108(2019)년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말이 보여주는 표현의 풍부성은 아무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잘 나타낼수 있는 어휘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특히 조선어에는 뜻이 같은듯 하면서도 따져보면 그 뜻폭과 색채가 조금씩 다르고 문장,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어휘들이 아주 많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여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그 많은 어휘수단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각이한 문맥과 정황에 맞게 그것들을 정확히, 옳바로 리용함으로써 조선어의 우수성을 남김없이 꽃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흔히 혼돈하거나 혼동할수 있는 어휘들, 헛갈리기 쉬운 단어와 일부 토들을 뽑아서 그것들의 공통뜻과 차이뜻을 용례를 안받침하여 해설하였다.

일 러 두 기

① 책에는 혼돈하거나 혼동하여 헛갈리기 쉬운 근 800개에 달하는 어휘쌍들(서로 다른 어휘의 수 근 2 000개)의 공통뜻과 개별뜻을 실례를 안받침하여 올리였다.

혼돈, 혼동

【공통뜻】 어떤 대상,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것.

【개별뜻】

혼돈(混沌: 섞일 혼, 섞일 돈) 이것저것 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섞이거나 뒤엉키는것.

례: 아무것이나 순서대로 놓지 않거나 이것저것 섞어놓으면 혼돈하게 된다.

혼동(混同: 섞일 혼, 한가지 동) 서로 구별되는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것처럼 생각하면서 뒤섞는것.

례: 사람들은 흔히 처음 보는 쌍둥이들을 혼동하기가 일쑤이다.

② 어휘부류들은 찾아보기 편리하게 사람, 자연, 사회, 기타로 가르고 거기에 속한 어휘들을 다시 자모순으로 배렬하였으며 책의 뒤부분에 찾아보기를 주었다.

1. 사람과 관련된 어휘

가가대소, 앙천대소

【공통뜻】 크게 웃는 웃음.

【개별뜻】

가가대소(呵呵大笑: 꾸짖을 가, 꾸짖을 가, 큰 대, 웃음 소) 껄껄 소리를 내며 크게 웃는 모양이나 동작.

례: 《… 거듭되는 패배에 눈알이 뒤집힌 그들은 조선빨찌산이 험악한 산악지형을 리용하는것만 알았지 자기들의 병력과 화력이 조선빨찌산의 수십배나 된다는 사정은 잊어버리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정성을 운운했지요. 조선빨찌산들은 그 편지를 보고 가가대소했을것입니다.》 (장편소설 《두만강의 봄》)

앙천대소(仰天大笑: 우러를 앙, 하늘 천, 큰 대, 웃음 소) 어떤 보기 드문 희한한 웃음거리가 생겼을 때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것.

례: … 청년들에게서 모두매를 맞으며 한다는 수작이 《당신들이 우릴 때려죽이면 당신들은 일제경찰에 붙잡혀 사형을 받소.》 하고 비명을 질렀다. 동네청년들은 앙천대소를 하였다. (장편소설 《청년전위》 제2부)

가눔하다, 가늠하다

【공통뜻】 —

【개별뜻】

가눔하다 가누는 일을 하다.

《가누다》의 말뿌리 《가누》에 뒤붙이 《ㅁ》이 붙어 명사

《가눔》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다》가 붙어 《가눔을 하다.》가 줄어든 형태이다.

례: 그는 기운이 다 빠진 몸을 가눔하고 기를 써서 걷고 또 걸어 날밝을무렵에는 마침내 밀영에 가닿았다.

《가누다》는 《안정된 몸자세를 가지다, 기운이나 정신을 가다듬어 차리다.》의 뜻을 가진다.

례: 일행은 멈추어서서 폭풍에 떨리는 몸을 가누느라 비칭대였다.

무엇에 홀린것 같기도 하고 진창에 빠진것 같기도 하여 꼭 가위눌린것 같은 사색을 가누어낼수가 없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뢰》)

가늠하다 ① 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헤아려보다.

례: 쌀가루를 질지도, 되지도 않게 가늠하여 반죽해야 송편이 졸깃졸깃해진다.

② 일정한 체험이나 생각, 관찰로 얻은 짐작에 의해 판단하다.

례: 엄해보이는 그의 표정을 보아서는 그가 자기의 결심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가늠할수 없었다.(중편소설 《그들은 바다에서 자랐다》)

가담하다, 가입하다

【공통뜻】 일에 힘을 합치거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한 성원으로 되다.

【개별뜻】

가담하다(加擔: 더할 가, 멜 담) ① 어떤 조직이나 집단 또는 일에 들어 힘을 합치다.

② (부정적인 일에) 한짝이 되여 힘을 합치다.

례: 음모에 가담하다.

가입하다(加入: 더할 가, 들 입) ① 일정한 조직체의 성원으로 들

어가는것.

② 전화나 전신시설을 설치하고 교환대를 리용하는 기구에 들어가는것.

③ 사회적으로 벌리는 사업이나 모임에 들어가는것.

례: 그는 소망대로 작가동맹에 가입하여 마음껏 창작활동을 벌렸다.

가르다, 가리다

【공통뜻】 서로 분리시키다.

【개별뜻】

가르다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례: 편을 가르다.

가리다 여럿가운데서 일정한것을 따로 갈라내다.

례: 쌀에서 뉘를 가리다.

가르쳐주다, 배워주다

【공통뜻】 모르는것을 알게 하다. 두 단어가 본래는 그 뜻이 전혀 다른 말이였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있다.

【개별뜻】

가르쳐주다 모르거나 잊었던 일을 알게 하거나 대주다.

례: 나는 동생에게 우리 말을 가르쳐준다.

배워주다 가르쳐서 알게 해주다. 본래의 뜻은 《배우는 행동을 하여주다.》의 뜻 즉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립장에 서준다.》는 뜻이였다.

례: 《네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나 아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배워줄가? 자, 가르쳐주게나.》

그러나 지금은 뜻이 완전히 전의되여 《가르쳐서 알게 해주다.》로 되였다.

가르치다, 가리키다

【공통뜻】 알려주다.

【개별뜻】

가르치다 ① 주로 지식이나 사상을 알도록 일깨워주다.

례: 《우리 어머니는 수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원입니다.》

②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밝혀주고 일깨워주다.

례: 버릇을 가르치다.

가리키다 ① 어떤 방향이나 대상에 대하여 집어서 말하거나 무엇으로 짚어보이면서 신호하여 알리다.

례: 그가 가리키는 나무를 보니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② (어떤 사업이) 나아갈 앞길이나 방향을 밝히거나 제시하다.

례: 우리는 오직 사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가살, 간살

【공통뜻】 아양을 떠는것.

【개별뜻】

가살 교활하고 얄미운 태도.

례: 《나는 언제부터 선생을 한번 만나보고싶었지요.》 승훈의 말은 가살이 아니였다.(장편소설 《한피줄》)

간살 아양을 떠는 행동. 다시말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애교티를 나타내는 행동. 주로 《간살을 부리다.》 또는 《간살을 떨다.》로 쓰인다.

가친, 선친, 엄친

【공통뜻】 아버지.

【개별뜻】

가친(家親: 집 가, 친할 친)=가군(家君)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선친(先親: 먼저 선, 친할 친) 남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이르는 말.

례: 《그 사람이 우리 친구요. 선친이 정암문하에 다니신 까닭으로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요.》

엄친(嚴親: 엄할 엄, 친할 친) 엄한 어버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매우 존엄있게 부르는 말.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

【공통뜻】 헐치 않게.

【개별뜻】

가까스로 애를 써서 겨우 또는 빠듯하게.

《가까스로》는 형용사 《가깝다》(거리나 동안이 짧다.)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애를 써서 겨우》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동사 《참다》, 《견디다》, 《일어나다》 등과 결합되며 《빠듯하게》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형용사 《맞다》와 결합된다.

례: 그들은 렬차가 떠날 저녁무렵에야 가까스로 역전에 가닿았다.

그는 지팽이를 짚고 가까스로 일어났다.(동사와 결합)

나사못이 가까스로 맞아 들어갔다.(형용사와 결합)

간신히 《매우 어렵고 힘들게》라는 뜻으로 주로 동사와 결합되여 쓰인다. 《겨우》 또는 《가까스로》의 뜻을 다 가지고있으나 주로 행동과 관련되여 쓰이는 부사이다.

례: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적들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겨우 힘들게 또는 빠듯하게.

상대적으로 뜻폭이 넓으므로 《가까스로》, 《간신히》를 대신해서 두루 쓰는 경우가 많다. 《겨우》는 형용사 《겹다》(정도나 량이 지나쳐 당해내거나 참기 어렵다.)에서부터 파생

된 부사이다.

례: 나는 할머니가 곡상으로 담아준 밥을 겨우 먹었다.

가뜬하다, 홀가분하다

【공통뜻】 무거운 짐이 되는 느낌이 전혀 없다.

【개별뜻】

가뜬하다 ① (물건을 다루거나 쓰기에) 아주 홀가분하다.

례: 가뜬한 손짐.

② (차림새나 맵시가) 거침새가 없이 가볍고 단출하다.

례: 가뜬한 옷차림.

③ (마음이) 아주 가볍고 상쾌하다.

례: 마음이 가뜬해졌다.

홀가분하다 ① 거치장스러운것이 없이 간편하다.

례: 평생을 짊어지고 온 남달리 힘겨운 세상살이가 오늘에 와서야 갑자기 덜리는듯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지는것을 느꼈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② 힘에 부치거나 빽빽하지 않고 허분하다.

례: 칼이 칼집에 홀가분하게 들어갔다.

③ (사람이) 듬직하지 못하고 가볍다.

례: 봄순이는 결코 홀가분한 녀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책임성이 강하고 믿음성있는 듬직한 동무이다.

가엾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공통뜻】 애처롭다.

【개별뜻】

가엾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다.

례: 준보는 지붕밑에서 태여나지 못한 가엾은 생명에게 광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장편소설 《로동가정》)

불쌍하다 처지나 정상이 눈뜨고 볼수 없게 애처롭다.

례: 불쌍한 정상.

측은하다(惻隱: 슬플 측, 숨을 은) 저도 몰래 은근히 가엾고 애처롭다.

례: 옥희는 어머니없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순희에 대한 측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요사하다

【공통뜻】 진실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

【개별뜻】

간사하다(奸邪: 간특할 간, 간사할 사) 리해관계에 따라 남의 비위를 거짓으로 맞춰가며 요리조리 알랑거리는 솜씨가 능란하다.

례: 마름노릇을 하는 윤가는 상전에게 발라맞추며 마을의 소작인들을 등치고 간빼먹는 여우처럼 간사한 인간이였다.

간사한 계교. 간사한 웃음.

교활하다(狡猾: 간사할 교, 교활할 활) 겉과 속이 다르게 몹시 간사하고 능갈치다.

례: 도섭의 해사한 얼굴에 교활한 웃음이 떠올랐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요사하다(妖邪: 요망할 요, 간사할 사) 사람을 홀리게 간사하다.

례: 《방정맞고 요사한년 당장 물렀거라.》(고전소설 《흥부전》)

간상배, 정상배

【공통뜻】 부정한 방법으로 리득을 얻는자들.

【개별뜻】

간상배(奸商輩: 간사할 간, 장사 상, 무리 배) 남을 속여넘기는 방법으로 엄청난 리득을 얻는 교활한 장사군들.

례: 간상배들은 보리고개에 쌀가격을 폭등시켜 저들의 리속을 한껏 챙기였다.

정상배(政商輩: 정사 정, 장사 상, 무리 배) 정치를 돈벌이를 위한 사기와 협잡의 수단으로 리용하여 제 리속을 채우고있는 반동적정객들의 무리.

례: 해방직후 이 도시에는 별의별 정상배들이 흘러들어 제가끔 자기세력을 넓히기 위해 날뛰였다.

간소하다, 검소하다

【공통뜻】 요란하지 않고 소박하다.

【개별뜻】

간소하다(簡素: 간략할 간, 흴 소) 규모나 내용이 간단하거나 단출하고 수수하다.

례: 참으로 간소하게 차린 결혼식상이였다.

검소하다(儉素: 검박할 검, 흴 소) 사치하지 않으며 검박하고 수수하다.

례: 검소한 옷차림.

간소화, 비속화, 왜소화

【공통뜻】 차림새나 형식을 다 갖추지 않고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것.

【개별뜻】

간소화(簡素化: 간략할 간, 흴 소, 될 화) 규모가 크거나 형식이 복잡하던것을 줄여서 간단하게 하는것.

례: 관리기구를 간소화하다.

비속화(卑俗化: 낮을 비, 풍속 속, 될 화) 보잘것없이 너절하게 만들거나 속되게 하는것.

례: 작품을 비속화하다. 노래를 비속화하다.

왜소화(矮小化: 난쟁이 왜, 작을 소, 될 화) 본래보다 볼품없이 (난쟁이처럼) 작게 하여 품위를 떨구는것.

례: 작품의 형상을 실지보다 왜소화하는것은 나쁜 경향이다.

간종그리다, 간질거리다

【공통뜻】 —

【개별뜻】

간종그리다 어지럽게 흩어진것을 정리하여 가지런하게 거두다.

례: 자기 책상으로 돌아온 봉호는 글을 쓰던 종이장들을 간종그려서 책상빼람에 넣고는 인차 밖으로 나갔다.(중편소설《수성천》)

간질거리다 간지러운 느낌이 거듭되다.

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내려 코잔등이 간질거렸다.

간첩, 정탐

【공통뜻】 비밀을 몰래 알아내는 사람.

【개별뜻】

간첩(間諜: 사이 간, 정탐할 첩) 상대측의 비밀정보를 탐지하거나 암해행위를 전문으로 하는자.

례: 간첩암해책동. 로회한 일제의 고용간첩.

정탐(偵探: 엿볼 정, 더듬을 탐) 주로 다른 나라에서 비밀로 삼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몰래 빼내서 알아내는것 또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례: 정탐기관.

《일제의 준동이 심해졌소. 정탐이 처처에 숨어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고있소.》(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은하수》)

간파, 파악

【공통뜻】 알아차리는것.

【개별뜻】

간파(看破: 볼 간, 깰 파) 주로 드러나지 않은 속내를 빠개여 알아내는것.

례: 경기에서 이기자면 상대편의 의도를 잘 간파하는것이 중요하다.

파악(把握: 잡을 파, 잡을 악) 꽉 잡아서 쥔다는 뜻으로 사물현상의 본질이나 어떤 내용을 깨달아 자기 지식으로 터득하는것.

례: 관리위원장은 이제는 우리 농장에서도 양과 염소기르기가 파악이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집단사육을 발전시킬 전망계획을 세웠다.

갈다, 바꾸다

【공통뜻】 본래의 상태나 지위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교체하다.

【개별뜻】

갈다 이미 있는것을 다른것으로 바꾸다.

례: 일제는 조선사람의 성까지 갈려고 악착스럽게 굴었다.

바꾸다 일정한것을 주고 그대신 다른것을 받거나 또는 본래의것이나 낡은것을 딴것 또는 새것으로 되게 하거나 만들다.

《교체하다》의 의미로 어울려쓰이는 경우도 있다.

례: 철남이는 영수에게 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바꾸어 가지였다.

자리를 바꿔 앉으시오.

- 참고

신을 갈아 신다 ○

신을 바꾸어 신다 ○

감금, 구금, 연금

【공통뜻】 법을 위반한 사람의 외부접촉을 차단시키는 벌.

【개별뜻】

감금(監禁: 볼 감, 금할 금) 본래의 말뜻은 감옥에 가둔다는 뜻인데 몸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장소에 잡아가두고 바깥과의 관계를 일체 금하는 벌을 말한다. 《연금》보다 가혹한 벌

로 된다.

례: 류치장에 감금되였던 애국자들이 구원되여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아버지만은 돌아오지 않자 해옥은 막 울고싶었다.(장편소설 《준엄한 겨울》)

구금(拘禁: 거리낄 구, 금할 금) 사람을 잡아가두는것.

례: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광란적인 체포구금소동.

연금(軟禁: 연할 연, 금할 금) 아직은 감옥에 가두지 않은 《약한 감금》. 말자체의 뜻은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 《연금》은 마음대로 나다니거나 외부와의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형벌로서 어떠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도 할수 없게 되여있다.

례: 자택연금. 그는 지금 연금상태에 있다.

감동, 감탄, 감흥

【공통뜻】 무엇이 훌륭하다고 깊이 느끼는것.

【개별뜻】

감동(感動: 느낄 감, 움직일 동) 무엇을 크게, 깊이 느끼여 마음이 움직이는것.

례: 나는 그의 수기를 읽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감탄(感歎: 느낄 감, 탄식할 탄) 마음에 깊이 느껴 탄복하는것.

례: 교예사의 높은 기교에 관중은 모두 감탄하였다.

감흥(感興: 느낄 감, 일 흥) 깊이 감동되여 흥분되는것 또는 그러한 느낌.

례: 날을 따라 화려해지는 수도의 밤거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공통뜻】 좋은 감정을 품거나 흐뭇하게 생각하다.

【개별뜻】

감사하다(感謝: 느낄 감, 사례할 사)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

방에게 인사할 때 쓰이는 형용사로서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다.》의 뜻이다. 《고맙다》와 어울러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례: 자세히 설명해주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거나 잘해준데 대하여 마음의 느낌이 흐뭇하다.

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 고맙게 생각하다.

감정, 서정, 정서

【공통뜻】 심리적현상.

【개별뜻】

감정(感情: 느낄 감, 뜻 정)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현상.

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리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정(敍情: 펼 서, 뜻 정)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것.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생활의 다양한 계기들에서 발현되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작가, 예술인들자신의 정서 등을 묘사하는데서 나타난다.

례: 서정시. 서정서사시. 서정문.

정서(情緖: 뜻 정, 실마리 서) 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여러가지 감정이나 느낌.

례: 정서가 풍부하다.

② (심리학에서)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형태. 인간이 자기의 생활상요구와 자주적지향이 충족되고 안되는데 따라서 가지게 되는 쾌감과 불쾌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등은 정서의 표현형식이고 표현상태이다.

례: 감정과 정서.

《정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지만 《서정》이란 말은

주로 예술형상분야에서 쓰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서정》이라는 말을 이따금 쓰고있는데 그것은 대상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감싸주다, 두둔하다, 비호하다

【공통뜻】 잘못이나 결함을 묵인하다.

【개별뜻】

감싸주다 ① 무엇을 감싸거나 또는 감을듯이 싸주다.

례: 손바닥으로 상처를 감싸주다.

② 포근히 감싸듯 아끼여 따뜻이 보살펴주다.

례: 위대한 사랑이 해외동포들을 감싸주다.

③ 결함이나 부족점을 무원칙하게 두둔하고 비호해주다.

례: 동무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고 감싸주는것은 결코 동무를 사랑하는것이 아니다.

원래는 감아서 싸준다는 뜻이 비유적으로 《아끼여 보살펴주다.》의 뜻과 《결함이나 약점 등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다.》의 뜻도 가진다.

례: 결함보따리를 감싸주다. 허물을 감싸주다.

두둔하다 주로 잘못이나 결함을 범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역성(한쪽만 옳다고 하는것)을 들어주다.

례: 《어머니, 철없는 아이라고 자꾸 두둔해주기만 하면 나쁜 버릇이 자라나 어떻게 되겠나요.》

비호하다(庇護: 덮을 비, 보호할 호) 편들어서 두둔하며 감싸주다.

례: 《동문 엊그제부터 뚱딴지같은 풍막소릴 자꾸 하는데 최호산일 그런 식으로 비호하면 못쓰오.》(중편소설 《불꽃》)

갑갑하다, 답답하다

【공통뜻】 마음이나 행동이 시원스럽고 후련하지 못하고 안타깝다.

【개별뜻】

갑갑하다 (시원히 풀리거나 트이지 못하여) 안타깝게 답답하거나 적

적하여 지루하다.

례: 할머니는 하루종일 방안에 혼자 앉아있기가 갑갑하여 강 건너 동네까지 마실을 가군 한다.

답답하다 ① 공기가 너무 덥거나 탁하거나 그밖의 원인으로 하여 가슴이 시원하지 못하고 숨쉬기가 가쁘다.

례: 《방이 너무 더워 답답하니 창문을 열라.》

② 마음속이 시원하거나 후련하지 못하고 몹시 안타깝다.

례: 정세를 몰라 답답해하다.

③ 자리가 비좁거나 막히여 갑갑하다.

례: 답답한 굴길이 탁 트이다.

④ 일본새나 그밖의 어떤 행동거지가 패기가 없고 활달하지 못하며 너무 굼뜨거나 우물쭈물하는것이 몹시 갑갑하다.

례: 답답하게 일하다.

⑤ 생김새, 소리, 빛, 꾸밈새 등이 시원스럽고 환하지 못하다.

례: 눈이 작고 코와 입이 바투 붙은 답답하게 생긴 얼굴.

⑥ 사람의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옹졸하다.

례: 《에이, 답답한 사람아, 좀 속시원히 생각하는바를 말해보게나.》

강도, 도적

【공통뜻】 남의 물건을 빼앗는자.

【개별뜻】

강도(强盜: 강할 강, 도적 도) ①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

례: 강도들이 판을 치는 사회.

②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 인민을 압박착취하거나 략탈하고 침해하는자를 증오하여 이르는 말.

례: 강도 일제는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도적(盜賊: 도적 도, 도적 적) 국가 및 사회재산이나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행위 또는 그런짓을 하는자나 그런 무리.

례: 도적의 무리. 도적행위. 도적을 잡다.

강인하다, 강의하다

【공통뜻】 성격이나 마음이 매우 굳세다.

【개별뜻】

강인하다(强靭: 강할 강, 질길 인) 억세게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다.

례: 강인한 투지가 없이는 연장전에서 승리할수 없다.

강의하다(剛毅: 굳셀 강, 굳셀 의) 의지가 굳세고 강직하다.

례: 새것의 탄생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강의한 의지와 끊임없는 창조적탐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장편소설 《생명수》)

강하다, 강의하다

【공통뜻】 굳세다.

【개별뜻】

강하다 ① 세고 힘있다.

례: 강한 나라. 강한 팀.

② (마음이나 성미가) 단단하고 굳세다.

례: 그는 성격이 강하면서도 부드럽다.

③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

례: 자존심이 강하다.

강의하다(剛毅: 굳셀 강, 굳셀 의) 의지가 굳세고 강직하다.

례: 강의한 기질.

갖추다, 마련하다

【공통뜻】 있어야 할 무엇을 얻거나 준비하다.

【개별뜻】

갖추다 있어야 할 물건이나 재료, 감 또는 필요한 지식, 내용, 형식 등을 준비하다.

례: 그는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준비를 갖추다. 형식을 갖추다.

마련하다 주로 물건, 재료, 자재 등과 같은것이 없거나 모자라는 것을 준비하다.

례: 청소도구를 마련하다. 땔감을 마련하다. 애기옷을 마련하다.

같이, 함께

【공통뜻】 여럿이 서로 한꺼번에.

【개별뜻】

같이 ① 서로 다름이 없이.

례: 모형과 같이 만들었다.

둘은 얼굴모습이 비슷한데다가 목소리도 같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니 사람들은 그들이 쌍둥이인줄 알았다.

② 《비슷하게》 또는 《～처럼》의 뜻.

례: 《조립직장동무들과 같이 그렇게 이악스럽게 일하면 우리는 계획을 훨씬 앞당길수 있을거요.》

③ 바로 그대로.

례: 이미 알린바와 같이 래일 금요로동을 나갑니다.

④ 서로 함께 또는 서로 한꺼번에.

례: 학교로 같이 가다.

⑤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뒤에 쓰이면서 《그때》를 힘주어 이르는 말.

례: 매일같이 만나다.

함께 ① 여럿이 한데 어울려 또는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례: 오늘 먼저 가지 말고 래일 아침 9시에 우리 함께 떠납시다.

②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에 뒤이어 거의 때를 같이하여.

례: 밖에서 찾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였다.

③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과 동시에.

례: 잡지구독신청서와 함께 구독료를 내다.

④ 떨구어놓거나 빼놓지 않고 같이.

례: 교과서와 함께 참고서도 가져오다.

갸륵하다, 기특하다, 영특하다

【공통뜻】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대견스럽게 느껴지다.

【개별뜻】

갸륵하다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훌륭하고 기특한데가 있다.

례: 어머니는 농장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성을 다하는 봉임이의 갸륵한 마음씨가 몹시도 고마왔다.

기특하다(奇特: 기이할 기, 특별할 특) 하는 행동이나 쓰는 마음씨가 어른스럽게 신통하고 훌륭하다.

례: 할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화분에 물을 꼭꼭 주는 어린 손녀가 볼수록 기특했다.

영특하다(英特: 꽃부리 영, 특별할 특) 사람의 사고나 행동, 됨됨이 남달리 뛰여나고 훌륭하다.

례: 오빠를 대신하여 건설자가 되였다는 영특하고 웅심깊은이 자그마한 처녀…(장편소설 《평양시간》)

주로 어린이 또는 자기보다 아래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다.

거만하다, 건방지다, 오만하다

【공통뜻】 남을 깔보며 겸손치 못하다.

【개별뜻】

거만하다(倨慢: 거만할 거, 거만할 만) 자기밖에 없는것처럼 우쭐대며 건방지다.

례: 사람들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일군은 군중이 따르지 않는다.

건방지다 상대방을 깔보며 분수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것이 주제넘다.

례: 건방진 말투. 건방진 행동.

오만하다(傲慢: 거만할 오, 거만할 만) 건방지고 거만하다.

례: 유격구를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이리떼마냥 달려드는 오만하고 도도한 일제《토벌대》와의 판가리싸움에 남녀로소 할것없이 떨쳐나섰다.

《거만하다》와 《오만하다》는 제노라 하면서 코대가 높은것이며 《건방지다》는 행동이 주제넘는것을 뜻하므로 차이가 있다. 《거만하지》 않고도 《건방질》수 있으며 《건방지지》 않고서도 《거만할》수 있는것이다.

거부, 거절

【공통뜻】 막거나 반대하는것.

【개별뜻】

거부(拒否: 막을 거, 아니 부)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반대하는것.

례: 그는 사무실에 떨어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어로공이 되였다.(장편소설 《정복자들》)

거절(拒絶: 막을 거, 끊을 절) 요구나 의견 또는 물건을 주는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것.

례: 청원을 거절한다.

거장, 령장, 명장, 용장

【공통뜻】 일정한 분야의 뛰여난 인재.

【개별뜻】

거장(巨匠: 클 거, 장공인 장) 사상, 리론, 과학, 기술, 문학예술 등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특별히 뛰여난 사람.

례: 사상리론의 거장. 언어학계에서의 거장.

령장(靈將: 신령 령, 장수 장) 탁월한 군사전략과 령활한 령도예술을 지니고있는 백전백승의 군사적령도자.

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명장(名將: 이름 명, 장수 장) 이름난 군사지휘관, 장수.

례: 한산도는 임진조국전쟁때 애국명장 리순신장군이 왜적을 통쾌하게 쳐부신 옛 싸움터이다.

용장(勇將: 날랠 용, 장수 장) 날파람있고 용감한 장수.

례: 《그러나 이미 나는 눈잃은 준마라 용장을 섬길수 없고 날개잃은 수리개라 날고싶은데로 날지 못하게 되였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

거치다, 걸치다

【공통뜻】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을 경과하거나 통과하다.

【개별뜻】

거치다 ① (무엇에) 걸리여 스치다.

례: 한번 눈에 거친것은 다 기억하였다.

② 마음에 걸리거나 꺼리다.

례: 마음이 즐겁고 더는 거칠것이 없다.

③ 오거나 가는 길에 일정한 곳에 들리거나 지나가다.

례: 만경대를 거쳐 봉화리로 향했다.

④ 일정한 과정을 겪어지나다.

례: 그는 작업반장을 거쳐 직장장이 되였다.

걸치다 ① 긴 물건의 한쪽끝이나 중간이 어떤 물체에 얹히고 다른 한쪽끝이나 또는 두끝이 늘어지다.

례: 수건이 줄에 걸쳐있다.

② 전체적으로 거치거나 관계하다.

례: 이 내용은 여러차례에 걸쳐 토론된 문제였다.

③ 일정한 기간을 지나다.

례: 석달에 걸치는 전투기간.

④ 어떤 사물을 량쪽이 맞닿게 건너질러서 걸다.

례: 수로우에 통나무를 걸쳐놓아 건늠다리로 리용하다.

⑤ (옷이나 덮개 같은것으로) 몸이나 몸의 한 부분을 덮거나 감싸거나 하다.

례: 몸에 외투를 걸치다. 목에 수건을 걸치다.

거칠다, 덜퉁하다, 투박하다

【공통뜻】 말이나 행동이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설피다.

【개별뜻】

거칠다 ① 성미 또는 행동, 말투가 곱지 못하다.

례: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 거칠어 처음 대상하는 사람은 곁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②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어 어지럽고 지꺼분하다.

례: 메마르고 거친 황야.

③ 일이나 일솜씨가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설피다.

례: 거친 일솜씨.

④ 바탕이 곱거나 반반하지 못하고 껄껄하거나 가루나 모래, 흙 같은것의 알갱이가 굵다.

례: 살결이 거칠다. 가루가 거칠다.

⑤ 일이 험하고 힘들거나 음식이 변변치 못하다.

례: 거친 로동. 찬이 거칠다.

덜퉁하다 성미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여 일에서 놓치거나 흘려버리는것이 많다.

례: 덜퉁한 그 성미에 학습장정리는 어떻게 이처럼 깐깐히 했을가?

투박하다 ① 생긴 모양이 섭세하고 경쾌하지 못하고 맵시가 없는것이 우둔스럽다.

례: 투박하게 생긴 얼굴. 투박한 손.

② 말, 행동 같은것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

례: 그 말소리는 투박하였으나 그속에 담긴 진정은 가슴을 적셨다.

걱정, 근심, 상심, 수심, 시름

【공통뜻】 속을 태우거나 불안한 마음.

【개별뜻】

걱정 마음을 놓지 못하고 속을 태우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피는것.

례: 막내딸까지 시집보내고나니 어머니에게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었다.

밤에 아들애를 그 먼곳에 보내고나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근심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은근히 속을 태우는것.

례: 《모를 문제가 많으면 달라붙어 배워야지 근심만 하니 한숨밖에 나올게 있나?》

상심(傷心: 상할 상, 마음 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때문에 속을 몹시 썩이거나 병이 날 정도로 마음을 쓰는것. 주로 《상심하다》형으로 쓰인다.

례: 《그 일때문에 너무 상심마세요. 이제 점차 관계가 풀릴겁니다.》

수심(愁心: 시름 수, 마음 심) 걱정스러운 일때문에 시름을 놓지 못

하는 마음. 주로 《수심에 잠기다.》, 《수심이 비끼다.》, 《수심이 어리다.》형으로 쓰인다.

례: 반장은 요사이 무슨 일때문인지 때때로 수심에 잠겨있군 한다.

수심이 비낀 얼굴.

시름 마음에 걸리는 근심과 걱정.

례: 시름을 놓다. 시름을 덜다. 시름에 싸이다.

건강하다, 건장하다, 정정하다, 튼튼하다

【공통뜻】 병이 없이 튼튼하다.

【개별뜻】

건강하다(健康: 건장할 건, 편안할 강) 몸에 병 또는 탈이 생기지 않다.

례: 우선 몸부터 건강해야 많은 일을 할수 있다.

건장하다(健壯: 건장할 건, 장할 장) 앓지 않는 튼튼한 몸에 기력까지 왕성하다. 즉 건강한 몸에 활력이 넘치다.

례: 건장한 체력.

정정하다(亭亭: 정자 정) 본래의 뜻은 《무엇이 구불지 않고 곧다 또는 우뚝 솟아있다.》였는데 현재는 전의된 뜻으로 《나이많은 로인이 아직 허리가 구불지 않고 젊은이처럼 건장하다.》로 많이 쓰인다.

례: 우리 할아버지는 일흔이 훨씬 넘었으나 젊은이들 못지않게 정정하시다.

튼튼하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관계없이 어떤 가해지는 힘에 대한 견딜성이 세다.

례: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이다.

튼튼한 동맹. 나라의 튼튼한 터전.

건립, 건설

【공통뜻】 무엇을 새로 짓거나 만들어 일떠세우는 일.

【개별뜻】

건립(建立: 세울 건, 설 립) 탑, 동상, 비 등과 같은 기념비를 새로 만들어 세우거나 기관 또는 조직체 등을 새로 조직하는 일.

례: 대동강기슭에 주체사상탑이 건립되였다.

건설(建設: 세울 건, 베풀 설) ① 집, 설비, 시설과 같은것을 만들어 세우는 일.

례: 살림집건설. 발전소건설.

② 조직체나 기구를 조직하여 튼튼히 꾸리고 발전시켜나가는것.

례: 당건설. 국가건설.

③ 어떤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

례: 사회주의건설. 국방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

걷잡다, 걸잡다

【공통뜻】 –

【개별뜻】

걷잡다 ① 《걷어잡다》(손으로 걷어서 붙잡다.)의 준말.

례: 팔소매를 걷잡고 흐느끼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② 어떤 후과나 나쁜 결과를 수습하다.

례: 힘들 때일수록 락천적으로 살아야지 맥을 놓기 시작하면 걷잡기가 매우 힘들고 나중에는 영영 헤여나지 못한다.

③ 방향이나 갈래를 분간하여 잡아쥐다.

례: 아주머니의 커다란 눈에는 원망이라고 할지, 두려움이라고 할지 걷잡기 어려운 빛이 떨리고있었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걸잡다 걸가량으로 어림잡다.

례: 이 기세로만 생산한다면 걸잡아도 올해계획을 10월 10일 까지 수행할것 같다.

검독, 랑독, 정독, 탐독, 필독

【공통뜻】 글을 읽는것.

【개별뜻】

검독(檢讀: 살필 검, 읽을 독) 글이 잘되고 못됨을 검열하여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읽는것.

례: 출판에 앞서 원고를 잘 검독하는것은 편집일군들의 중요한 의무로 된다.

랑독(朗讀: 밝을 랑, 읽을 독) (주로 산문글을) 류창하게 소리를 내여 읽는것.

례: 반장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선화에게 회상기랑독을 부탁하였다.

정독(精讀: 정할 정, 읽을 독) 스쳐보거나 대강 읽지 않고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것.

례: 론문을 정독하며 요점을 발취하다.

탐독(耽讀: 즐길 탐, 읽을 독) 어떤 책이나 글을 류달리 즐기며 열심히 읽는것.

례: 요사이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영수는 밤이 깊도록 새로 나온 장편소설들을 탐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필독(必讀: 반드시 필, 읽을 독) 반드시 읽어야 하는것.

례: 필독도서.

검박하다, 소박하다

【공통뜻】 사치하지 않고 수수하다.

【개별뜻】

검박하다(儉朴: 검박할 검, 질박할 박)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고 수

수하다.

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검박하고 소박하게 생활해야 한다.

소박하다(素朴: 흴 소, 질박할 박) ①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이다.

례: 소박한 태도.

② 치레가 없이 수수하다.

례: 방은 소박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져있었다.

검질기다, 집요하다, 끈덕지다, 끈질기다

【공통뜻】 《질기다》의 뜻 즉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끊어지거나 멈춰서지 않는 성질을 나타낸다.

【개별뜻】

검질기다 ① 성질이나 행동이 지독할만큼 질기다.

례: 순희가 싫다고 선언했건만 곱슬머리청년은 그를 검질기게 따라다녔다.

②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없어지거나 수그러들지 않고 질기게 계속되다.

례: 불안한 생각이 검질기게 따라다녔다.

집요하다(執拗: 잡을 집, 우길 요) 매우 검질기고 지긋지긋하게 끈덕지다. 주로 부정적인 대상의 성질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굳어진 낡은 사상은 매우 집요하며 그것은 오직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끈덕지다 일솜씨나 행동이 끈기있고 꾸준하다.

례: 그가 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데는 아무 일이나 지긋이 달라붙는 끈덕진 성미가 있기때문이다.

끈덕지게 매달리다.

끈질기다 끈기있게 검질기다. 즉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매우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다.

례: 그는 놀음기가 있지만 일단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해나가는 완강한 기질도 있다.

끈질기게 달라붙다.

겁쟁이, 비겁쟁이

【공통뜻】 겁이 많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개별뜻】

겁쟁이(怯: 겁낼 겁) 겁이 많거나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례: 옥이는 겁쟁이여서 밤에는 제 집마당에마저 혼자서 나가지 못하는 애이다.

비겁쟁이(卑怯: 낮을 비, 겁낼 겁) 비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례: 《요쯤한 난관에 주저앉고 변절하다니, 비겁쟁이같으니!》

겨루다, 견주다

【공통뜻】 두 대상을 맞세워보다.

【개별뜻】

겨루다 경기나 경쟁에서 승부를 판결하기 위해 다투다.

례: 두 씨름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다 내여 승부를 겨루었다.

견주다 두 대상을 맞세워보거나 비겨보다.

례: 광철반장은 공장적으로 견줄만 한 상대가 없을만큼 이름난 장기선수이다.

겨레, 교포, 동포

【공통뜻】 같은 민족성원.

【개별뜻】

겨레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인민이나 민족.

례: 한피줄을 이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

교포(僑胞: 붙어살 교, 태 포)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잡고 사는 동포. 다른 말로 《해외동포》라고도 한다.

례: 만리타향에 살던 교포의 애국적소행. 해외교포조직.

동포(同胞: 한가지 동, 태 포) 한나라, 같은 민족에 속하는 사람.

례: 《동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격노하다, 격분하다

【공통뜻】 어떤 사실, 현상에 대하여 성나서 격동되다.

【개별뜻】

격노하다(激怒: 격동할 격, 성낼 노) 대방의 부정적처사에 대단히 노하여 요정낼 기세를 보이다. 주로 격분을 누를길 없어 성을 내여 부정적인것을 반대하는 행동에로 넘어갈 때 쓰인다.

례: 격노한 로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격분하다(激忿: 격동할 격, 분할 분) 부정적사실에 대하여 몹시 분하게 여기다.

례: 학급동무들은 규률을 어긴 철수의 행동을 두고 누구나 격분해하였다.

격멸, 섬멸, 소탕

【공통뜻】 적을 쳐부셔 없애버리는것.

【개별뜻】

격멸(擊滅: 칠 격, 멸할 멸) 전쟁이나 전투 등에서 적을 쳐부셔 없애버리는것.

례: 원쑤를 격멸하기 위한 성전에 나서다.

섬멸(殲滅: 무찌를 섬, 멸할 멸) ① 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무찔러 없애버리는것.

례: 포위섬멸.

② 제기된 일을 하나씩 완전히 제껴버리는것.

례: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을 벌려나가다.

소탕(掃蕩: 쓸 소, 방탕할 탕) 적들을 비자루로 쓸듯이 무찔러 없애버리는것.

례: 소탕작전.

격술, 무술

【공통뜻】 오래전부터 발생발전하여온 싸움하는 술법과 재주.

【개별뜻】

격술(擊術: 칠 격, 꾀 술) 우리 나라에서 발생발전하여온 맨몸으로 하는 치기술법의 한가지. 발, 손, 머리 등을 써서 차기, 찌르기, 받기 등의 여러가지 기법으로 상대방을 타격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위력한 술법이다.

례: 격술동작을 익히다.

무술(武術: 군사 무, 꾀 술) 창과 칼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다루기 등 싸움마당에서 쓰이는 재주와 술법.

례: 무술을 닦다.

격투, 결투

【공통뜻】 맞붙어서 싸우는것.

【개별뜻】

격투1(激鬪: 격동할 격, 싸움 투) 격렬하게 싸우는것 또는 그러한 싸움.

례: 고지를 사이에 두고 적들과의 격투는 종일토록 계속되였다.

격투2(格鬪: 이를 격, 싸움 투) 서로 맞붙어서 치고 때리며 싸우는 것 또는 그런 싸움.

례: 맹수와의 격투.

결투(決鬪: 결단할 결, 싸움 투) ① 서로 목숨을 내걸고 결판을 내

는 싸움.

례: 두시간 남짓한 결투끝에 손해본것은 싸움군들뿐이였다.

② (유럽의 귀족사회에서) 쌍방이 풀지 못할 원한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나 약속밑에 무기를 사용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벌리는 싸움. 동사 《결투하다》로 쓰인다.

견결하다, 견실하다

【공통뜻】 어떤 립장과 태도가 변덕스러움이 없이 확고하다.

【개별뜻】

견결하다(堅決: 굳을 견, 결단할 결)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의지나 지조, 태도가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고 굳세다.

례: 무인다운 견결한 기풍이 풍기다.

견실하다(堅實: 굳을 견, 열매 실) ① 주로 어떤 립장이나 태도에 따르는 행동이나 품성 같은것이 확고하고 철저하다.

례: 사상이 견실하다.

② (생활이) 건전하며 흐리터분하지 않다.

례: 생활을 견실하고 소박하게 꾸려나가다.

- 참고

견결한 의지 ○

견실한 의지 ×

결단, 결딴

【공통뜻】 —

【개별뜻】

결단(決斷: 결단할 결, 끊을 단) 결정적인 판단이나 단호한 결심을 내리는것.

례: 사내대장부가 한번 결단하면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

결딴 순수한 고유어로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아주 망그러지거나

못쓰게 되여버리는것. 주로 동사 《나다, 내다》와 결합하여 자주 쓰인다.

례: 어제 밤에 메돼지가 감자밭을 결딴냈다.

속담 《집안이 결딴나면 생쥐가 춤을 춘다.》

결별, 리별, 석별, 작별

【공통뜻】 함께 있다가 헤여지는것.

【개별뜻】

결별(訣別: 영결할 결, 분별할 별) ① 다시 만나지 않을것을 전제로 하고 갈라지는것.

례: 밤하늘을 찢는 조총소리는 결별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울렸다.

② 서로 사귀던 사람끼리 교제나 인연을 딱 끊고 영원히 갈라지는것.

례: 《이제부터 너와는 결별이다.》

리별(離別: 떠날 리, 분별할 별) 서로 갈라지며 헤여지는것. 《작별》, 《석별》, 《결별》보다 뜻폭이 넓다. 《리별》은 주로 오래동안 만나지 못할것을 전제로 하고 헤여지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례: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조국땅을 처음 디디여보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으며 어린시절에 눈물로 리별한 고국땅을 다시 밟아보는 동무들도 있었다.

석별(惜別: 아낄 석, 분별할 별) 섭섭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헤여지는것.

례: 창수는 순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밤깊도록 불러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작별(作別: 지을 작, 분별할 별) 인사를 하고 헤여지는것.

례: 그는 퇴원하는 날 아침에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자기를 돌봐준 간호원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리별》은 특별한 색채가 없이 갈라지는것을 나타내지만 《작별》은 주로 좋은 감정으로 서로 인사하며 갈라질 때, 《석별》은 애수한 감정으로, 《결별》은 나쁜 감정으로 갈라질 때 쓰는 말로 된다.

결백하다, 정직하다

【공통뜻】 행동이나 성품이 참답다.

【개별뜻】

결백하다(潔白: 깨끗할 결, 흰 백) (깨끗하고 희다는 뜻이 전의되여) 주로 마음씨나 행동이 흐리터분한데가 없이 깨끗하다.

주로 《청렴결백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이때에는 물질을 탐내는것과 같은 흐리터분한데가 없이 마음이나 품성이 깨끗하다는 뜻을 가진다.

례: 아버지는 한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시였다.

정직하다(正直: 바를 정, 곧을 직) 마음이 거짓이 없이 바르고 곧다.

례: 그들은 모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결사, 결성

【공통뜻】 조직체를 뭇는것.

【개별뜻】

결사(結社: 맺을 결, 두레 사) 정당, 사회단체 등의 조직체를 뭇는것.

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동사형태 《결사하다》로 많이 쓰인다.

결성(結成: 맺을 결, 이룰 성)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내오거나 이룩한것.

례: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더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되였다.

경탄하다, 탄복하다

【공통뜻】 매우 감탄하다.

【개별뜻】

경탄하다(驚歎: 놀랄 경, 탄식할 탄) 놀라울 정도로 몹시 감탄하다.

례: 심사원들은 경연에 참가한 유치원꼬마의 피아노독주를 보고 경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탄복하다(歎服: 탄식할 탄, 옷 복) 참으로 훌륭하다고 감탄하며 마음속으로 머리를 숙이다.

례: 영수는 교원들까지도 탄복하는 보기 드문 수재였다.

경험, 체험

【공통뜻】 어떤 일을 겪어보거나 치러본것.

【개별뜻】

경험(經驗: 지날 경, 징험할 험) 직접 겪어보거나 치르어본 과정 또는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교훈적인것의 모두를 이르는 말.

례: 경험을 쌓다. 경험이 많다.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

체험(體驗: 몸 체, 징험할 험) 자기 몸으로 직접 당하고 겪은 일 또는 그런 일을 직접 당하고 겪는것.

례: 나는 곡절많은 인생체험을 통하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 참고

경험을 배우다 ○ 다른 나라의 경험 ○

체험을 배우다 × 다른 나라의 체험 ×

경황망조(경황실조), 경황실색, 경악실색

【공통뜻】 몹시 놀라는것.

【개별뜻】

경황망조=경황실조(驚惶罔措: 놀랄 경, 두려울 황, 없을 망, 둘 조, 驚惶失措: 놀랄 경, 두려울 황, 잃을 실, 둘 조) 놀랍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면서 어찌할줄 모르는것.

례: 유격대의 불의의 타격을 얻어맞은 일제《토벌대》놈들은 경황망조하여 꽁무니를 뺐다.

경황실색(驚惶失色: 놀랄 경, 두려울 황, 잃을 실, 빛 색) 놀랍고 두려워 얼굴색이 달라지는것.

례: 임진조국전쟁시기 섬오랑캐들은 홍의장군이란 말만 들어도 경황실색하여 도망쳤다고 한다.

경악실색(驚愕失色: 놀랄 경, 놀랄 악, 잃을 실, 빛 색) 갑자기 놀라서 얼굴색을 잃는것.

례: 녀인은 경악실색하여 그 자리에 굳어졌다.

고난, 곤난

【공통뜻】 몹시 어려운것.

【개별뜻】

고난(苦難: 쓸 고, 어려울 난) 간고하고 어려운것.

례: 고난의 행군.

곤난(困難: 곤할 곤, 어려울 난) 형편이나 사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딱하며 어려운 상태나 조건.

례: 매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곤난하다.
어떤 곤난이 앞을 막아도 반드시 뚫고나가야 한다.

고뇌, 고심, 고충

【공통뜻】 몹시 마음을 쓰는것.

【개별뜻】

고뇌(苦惱: 쓸 고, 번민할 뇌) 고통과 괴로움.

례: 처량한 표정, 심각한 얼굴, 찡그러진 미간, 망연자실한 눈빛들, 방안의 사람들은 각각 제 표정이였으나 그 모든 표정은 한결같이 그 어떤 삭이기 어려운 고뇌를 담고있었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고심(苦心: 쓸 고, 마음 심) 몹시 마음을 쓰며 애써 노력하는것.

례: 자기들의 땀과 고심으로 이루어진 언제며 호수가 더욱 살붙이처럼 정이 쏠린다.(장편소설 《생명수》)

고충(苦衷: 쓸 고, 속 충) ① 속마음을 썩이는 괴로운 심정.

례: 남모르는 고충을 겪다.

②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례: 고충을 말하다.

고르다, 고루다

【공통뜻】 —

【개별뜻】

고르다 여럿가운데서 어떤것을 따로 갈라내다.

례: 상점에서 빨간 가방을 고르다.

고루다 고르롭게 하다.

례: 동무들은 삽질을 부지런히 하여 땅을 고루었다.

고리타분하다, 진부하다

【공통뜻】 새맛이 없이 케케묵다.

【개별뜻】

고리타분하다 ① 냄새가 고리고 매캐하다. 《고리다》는 《구리다》의 어음적변종이고 《타분하다》는 《따분하다》가 강조된 단어로서 《새맛이 없고 지루하다.》의 뜻이다.

례: 고기기름 타는 냄새와 종이 썩은 내가 뒤섞인 고리타분한 공기.

② (하는 행동이나 성미가) 새롭지 못하고 따분하다.

례: 그는 항상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따분하게 만들군 하였다.

진부하다(陳腐: 묵을 진, 썩을 부) 주로 사상이나 견해, 행동, 수법, 언어표현 등이 낡고 저속하거나 수준이 낮다.

례: 두서없이 엮어대는 그의 이야기는 진부하기 그지없어 청중을 실망시켰다.

고무하다, 사촉하다, 추동하다

【공통뜻】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

【개별뜻】

고무하다(鼓舞: 북 고, 춤출 무) 더 잘하거나 힘을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다.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기세를 올리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단어라고 볼수 있다.

례: 우리들은 서로 고무하면서 어려운 행군길을 이겨냈다.

사촉하다(使嗾: 하여금 사, 부추길 촉) 어떤 부정적행동을 부추기다. 부정적색채를 띤다.

례: 황지주의 사촉을 받은 경찰은 갑돌이를 끝내 감옥으로 끌어갔다.

추동하다(推動: 밀 추, 움직일 동) 어떤 일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부추기거나 떠밀어주다.

례: 북과 남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하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고민, 번민

【공통뜻】 마음속으로 모대기거나 괴로와하는것.

【개별뜻】

고민(苦悶: 쓸 고, 답답할 민) 무슨 근심걱정거리가 있거나 일이 꼬여서 속을 태우며 모대기거나 괴로워하는것.

례: 그는 요즈음 자기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보인것으로 하여 자주 고민에 싸이군 한다.

번민(煩悶: 번거로울 번, 답답할 민) 무슨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어수선한것으로 하여 속을 태우고 안타깝게 괴로워하는것.

례: 실험실패의 원인을 똑바로 찾지 못한 윤기사는 요사이 걷잡을수 없는 번민속에 날을 보내고있었다.

고발, 고소, 폭로

【공통뜻】 까밝혀 알려주는것.

【개별뜻】

고발(告發: 고할 고, 필 발) 어떤 죄행이나 어떤 사실을 국가 또는 사회기관에 알려주는것.

례: 오늘도 일본땅에는 조선인강제련행범죄를 고발하는 죽음의 고역장들이 곳곳에 널려져있다.

고소(告訴: 고할 고, 하소할 소) ① 어떤 범죄적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알려 법적처리를 해줄것을 제기하는것.

② 범죄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법적처리를 호소하는것.

례: 그의 론설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호전광들에 대한 신랄한 고소로 되였다.

폭로(暴露: 사나울 폭, 이슬 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추고있던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내여 발가놓는것. 《고발》보다 뜻폭이 넓은 단어로서 모르는 사실을 공개할 때에 두루 쓰인다.

례: 두사람만 알고있던 비밀이 폭로되였다.

고백, 자백, 자수

【공통뜻】 남이 몰랐던 일을 스스로 털어놓고 말하는것.

【개별뜻】

고백(告白: 고할 고, 흰 백) 숨긴 일이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남에게 그대로 솔직히 말하는것.

례: 철민은 오직 한가지 생각, 이밤에는 기어코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말리라는 그 한가지 생각에만 골몰하고있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자백(自白: 스스로 자, 흰 백) 기관이나 조직 또는 남들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과오나 허물을 스스로 고백하는것.

례: 《우리가 화적질하는걸 보지 못한 이상 우리의 자백을 받기 전에는 제놈이 우리를 화적으로 몰지 못하우.》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

자수(自首: 스스로 자, 머리 수) 법률술어로서 제가 저지른 엄중한 죄과에 대하여 법기관에서 다루기 전에 스스로 먼저 찾아가 말하는것. 주로 동사형태 《자수하다》로 많이 쓰인다.

례: 아무리 엄중한 죄를 지었어도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하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다.

고수, 사수

【공통뜻】 무엇을 지키는것.

【개별뜻】

고수(固守: 굳을 고, 지킬 수) 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든든히 지키는것.

례: 민족적독립의 고수.

② 신념이나 사상 같은것을 굳건히 다지여 흔들리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는것.

례: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

③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것.

례: 본태를 고수하다.

사수(死守: 죽을 사, 지킬 수) 목숨으로 지키는것.

례: 고지를 사수하여 결사전을 벌리다.

고치다, 개조하다, 수리하다

【공통뜻】 이미 있던것을 잘 쓸수 있게 다시 만들다.

【개별뜻】

고치다 ① 헐거나 못쓰게 된것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수리하다》와 뜻이 비슷한데가 있지만 뜻폭이 커서 사용범위도 넓다.

례: 고장난 기계를 고치다.

② 잘못이나 그릇된것을 바로잡다.

례: 결함을 고치다. 틀린것을 고치다.

③ (옷매무시나 몸가짐 같은것을) 단정하게 하다.

례: 자세를 고치며 대답하다. 모자를 반듯하게 고쳐쓰다.

④ 원래의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것으로 바꾸다.

례: 규정을 고치다. 신세를 고치다.

⑤ 병을 낫게 하다.

례: 배앓이를 고치다.

개조하다(改造: 고칠 개, 지을 조) 좋아지게 고쳐 만들거나 변화시키다.

례: 기술을 개조하다. 사상을 개조하다. 설비를 개조하다. 건물을 개조하다.

수리하다(修理: 닦을 수, 다스릴 리) 마사지거나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쓸수 있게 하다.

례: 뜨락또르를 수리하다. 집을 수리하다.

《고치다》와 《수리하다》는 못쓰게 된것을 다시 쓸수 있게 만드는것이라면 《개조하다》는 이미 있던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뜯어고친다는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고치다》와 《개조하다》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도 가지고있지만 《수리하다》는 이 경우에 쓸수 없다.

- 참고

고장난 시계는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

고장난 시계는 제때에 고쳐야 한다 ○

나타난 결함은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

나타난 결함은 제때에 고쳐야 한다 ○

고통, 진통

【공통뜻】 참기 어려운 아픔.

【개별뜻】

고통(苦痛: 쓸 고, 아플 통) 참기 어려운 육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례: 나라잃은 망국노의 처지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면할수 없었다.

진통(陣痛: 진칠 진, 아플 통) 본래의 뜻은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부들이 반드시 느끼게 되는 배아픔. 전의된 뜻으로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의미한다. 진통의 본뜻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아픔이고 장차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것이므로 전의된 뜻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는것이 옳다.

례: 새것이 탄생하고 승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진통을 겪게 된다.

골몰하다, 열중하다

【공통뜻】 무슨 일에 정신을 깡그리 바치다.

【개별뜻】

골몰하다(汨沒: 빠질 골, 빠질 몰) 다른 생각할 여유없이 어떤 한가지 일에만 파묻히다.

례: 《그 일때문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오. 이제 다 제대로 될것입니다.》

열중하다(熱中: 뜨거울 열, 가운데 중) 정신을 깊이 가다듬어 어느 한가지 일에 집중하다.

례: 학업에 열중하다. 집필에 열중하다.

공부, 수업, 학습

【공통뜻】 학문이나 기술 또는 글을 배우고 익히는것.

【개별뜻】

공부(工夫: 공업 공, 사나이 부) 옛날부터 쓰이여온 말로서 그 방법, 형식에는 상관없이 두루 배우고 익힌다는 뜻으로 주로 입말에서 많이 쓰인다.

례: 《군실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일하면 일할수록 더 잘 살수 있고 또 공부도 할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언니와 함께 매일 그림공부와 시짓는 공부를 하였어요.》

수업(授業: 받을 수, 업 업) ① 학교에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안에 교수요강에 있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일.

례: 수업시간. 수업이 끝났다.

② 학식이나 기술 같은것을 련마하는 일 또는 사람들이 자기를 수양하거나 자질을 높이는것.

례: 문학수업. 인간수업.

학습(學習: 배울 학, 익힐 습) 배우고 익히는 일.

정치리론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이며 전문지식과 일반지식,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한다.

례: 과학기술학습. 외국어학습.

공상, 망상

【공통뜻】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실현될 가망이 없는것을 그려보는 생각.

【개별뜻】

공상(空想: 빌 공, 생각 상)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머리속에 그려보는 희망적인 생각 또는 실현되지 못할것을 공연히 그려보는 허망한 생각.

례: 현대과학기술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꿈이 아니면 공상으로 여겨왔던 그러한 과제를 척척 해결해내고있다.

망상(妄想: 망녕될 망, 생각 상) 실현될수 없을뿐아니라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망녕된 생각.

※ 망녕되다－늙어서 로망하거나 정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고를 못하는것.

례: 언제 가도 이룩될 가망이 전혀 없을것 같은 독립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힌채 더이상 조선의 애국지사연하고 지내면서 왜놈들한테서 미움이나 사고 옥중고초랑 겪는다는 것이 과연 건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다운 처사이겠는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개선》)

공적, 공훈, 위훈

【공통뜻】 훌륭한 공로.

【개별뜻】

공적(功績: 공 공, 길쌈 적) 공로와 업적.

례: 그의 공적은 기계공업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데 있다.

공훈(功勳: 공 공, 공 훈) 일정한 부문의 사업 또는 전투에서 뛰여나게 세운 공로. 공훈이 대단히 크면 위훈이라고 한다.

례: 그는 후대교육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공로자이다.

공훈교원. 공훈기자. 공훈배우.

《공훈》은 주로 《세우다》와만 결합된다면 《공적》은 《쌓다》, 《있다》, 《크다》와도 결합되여 쓰인다.

위훈(偉勳: 클 위, 공 훈) 매우 뛰여나게 세운 큰 공훈.

례: 영웅적위훈. 사랑과 위훈. 로력적위훈.

교대, 교부, 교체, 교환

【공통뜻】 호상 바꾼다는 뜻.

【개별뜻】

교대(交代: 사귈 교, 대신 대) 어떤 일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것.

례: 마침 식당에서는 교대를 마친 로동자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서 저녁식사를 하고있었다.

교부(交付: 사귈 교, 부칠 부) 주로 증거로 될수 있는 각종 문건을

바꾸어주는것. 교체보다 뜻폭이 좁다.

례: 공민증교부. 증명서교부.

교체(交替: 사귈 교, 대신 체) 일정한 자리나 시간을 차지하고있던 사람, 사물, 제도 등을 다른 사람, 다른 사물, 다른 제도 등으로 바꾸거나 갈아놓는것.

례: 후반전에 들어가 일부 선수들을 교체하였다.
기계의 부속품을 교체하였다.

교환(交換: 사귈 교, 바꿀 환) 주로 어떤 물품이나 화폐, 생각 같은것을 호상 바꾸는것.

례: 화폐교환. 의견교환. 상품교환.

교학, 시학

【공통뜻】 학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지도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를 가진 사람.

【개별뜻】

교학(教學: 가르칠 교, 배울 학) 성급(중앙급)기관에서 산하교육기관의 교육행정 및 교수사업을 지도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

례: 《교육성에서 내려오신 교학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찾습니다.》

시학(視學: 볼 시, 배울 학)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관내 학교교육교양사업을 지도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

례: 군교육시학. 도교육시학.

교원, 선생

【공통뜻】 남보다 먼저 일정한 사상, 지식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고있는 사람을 존대하여 이르는 말.

【개별뜻】

교원(敎員: 가르칠 교, 인원 원) 일정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학

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직접적담당자 즉 학생들을 대상하여 직접 강의하는 사람.

례: 교원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이자 곧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생(先生: 먼저 선, 날 생) ① 교원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

례: 수학선생. 담임선생.

② 사회정치활동가 또는 일정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

례: 의사선생. 기자선생. 작가선생.

구두쇠, 깍쟁이

【공통뜻】 물질생활에서 린색한 사람.

【개별뜻】

구두쇠 돈이나 재물을 린색하게 몹시 아끼는 사람 즉 자기가 소비할것도 쓰기를 몹시 아까와하는 사람.

례: 《돈이 많으면 뭘 해. 다 꿰진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는 저런 구두쇠는 처음 봤어.》

깍쟁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린색한 사람 즉 리속이 너무 밝아 남에게 무엇을 주는데서 몹시 야박한 사람.

례: 그들은 무슨 개성에서 왔다는 깍쟁이 백삼장사의 이야기를 열이 나서 주고받는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구박하다, 수모하다

【공통뜻】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업신여기며 학대하다.

【개별뜻】

구박하다(驅迫: 몰 구, 다가들 박) (말을 채찍질로 몰아가듯) 못살게 굴며 학대하다.

례: 봉건사회에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으면 시

집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수모하다(受侮: 받을 수, 업신여길 모) 업수이여기고 깔보며 모욕하다.

례: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은 일제의 학정밑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피동형 《구박받다》, 《수모받다》도 많이 쓰인다.

구별, 분별, 판별

【공통뜻】 서로 다른것들을 갈라보는것.

【개별뜻】

구별(區別: 갈피 구, 분별할 별) 서로 다르거나 차이나는 점을 갈라보는것 또는 서로 갈라지는 성질이나 특성.

례: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하다.

분별(分別: 나눌 분, 분별할 별) ① 서로 다른것을 구별하여 가르는것.

례: 쌀에서 뉘를 분별해내다.

② 세상물정이나 돌아가는것을 알아서 헤아리거나 판별하는것 또는 그러한 능력.

례: 분별있게 행동하다.

판별(判別: 판단할 판, 분별할 별) 판단하여 갈라내는것.

례: 옳고그른것을 판별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다.

구분하다, 분류하다

【공통뜻】 대상이나 현상을 일정한 특성에 따라 갈라놓다.

【개별뜻】

구분하다(區分: 갈피 구, 나눌 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따로 갈라나누다.

례: 년대를 구분하다. 좋고나쁜것을 구분하다.

분류하다(分類: 나눌 분, 갈을 류) 같은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다.

례: 새로 나온 책들을 분류하여 도서목록을 만들다.

구불다, 휘다

【공통뜻】 곧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굽어지다.

【개별뜻】

구불다 곧바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굽어지다. 직선이 못되는 모든 대상에 두루 해당되는 말이다.

례: 길이 구불다. 나무가 구불다. 선이 구불다.

휘다 ① 곧은 물체가 구부러지다.

례: 자가 휘다. 등이 휘다.

② 뜻이나 마음을 굽히다.

례: 《청석골대장 같은 사람은 그저 인정으로 휘여야 하느니라.》(장편소설 《림꺽정》 제3부)

구상, 리념, 리상, 포부

【공통뜻】 아직 실현되지 못한것.

【개별뜻】

구상(構想: 얽을 구, 생각 상) ①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일 또는 그런 생각.

례: 구상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하다.

② 생활소재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만들기 전에 종자를 잡고 형상의 꽃을 피워보면서 작품을 무르익히는 문학예술의 창작과정.

례: 소설의 줄거리를 구상한다.

리념(理念: 다스릴 리, 생각 념) ① 관념이나 사상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떨어져 존재하는 리념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② 진리나 리상적인것에 대한 지향.

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리념. 사회주의리념.

리상(理想: 다스릴 리, 생각 상) ①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종국적목표에 대한 표상. 또는 앞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희망과 지향.

례: 《우리의 리상은 태권도훈련을 더 열심히 하여 민족의 억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것입니다.》

② 흠잡을데 없이 가장 훌륭하게 완성된것.

례: 그들의 가정은 여러모로 보아 리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포부(抱負: 안을 포, 질 부) 마음에 지니고있는 훌륭한 계획이나 희망.

례: 큰 포부를 품다. 아름다운 포부를 지니다. 미래에 대한 휘황한 포부. 크나큰 포부를 안다.

구슬리다, 달래다, 얼리다

【공통뜻】 말을 듣도록 타이르다.

【개별뜻】

구슬리다 ① 그럴듯한 말로 은근히 타일러 마음을 움직이다.

례: 철이는 산에 밤따러 가자고 영호를 은근히 구슬렸다.

② 이리저리 헤아려 생각하다.

례: 《그의 말을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구슬려 생각해보시오.》

달래다 ① 슬퍼하거나 언짢아하거나 격분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가지 말이나 수단을 써서 가라앉게 하다.

례: 그는 넘어진 어린애를 제꺽 안아 일으키고 울지 말라고 달래였다.

② 말을 듣도록 좋게 구슬리거나 타이르다.

례: 작업반장의 의견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철호를 잘 달래서 작업반에 그대로 두자는것이였다.

얼리다 ① 주로 어린아이를 귀여워하는 마음이나 태도로 달래다.

례: 우는 아이를 얼려서 그치게 했다.

② 요구에 응하거나 말을 잘 듣도록 그럴듯한 방법으로 구슬리다.

례: 《철이를 겨우 얼려서 유치원까지 데려다줬어.》

③ 《대상의 특성을 보아 무리하지 않게 작용하여 응하도록 하다.》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례: 큰 바위돌을 지레대로 슬슬 얼려서 뽑아냈다.

- 참고

참새 얼려잡겠다.

얼려키운 후레자식.

얼리고 뺨친다.

얼리고 등골뺀다.

구실, 핑게

【공통뜻】 잘못 또는 부정적인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감.

【개별뜻】

구실(口實: 입 구, 열매 실) 저지른 잘못을 무엇에 빙자할만 한 변명감.

례: 잘못은 솔직히 비판하고 고쳐야지 자꾸 구실을 찾아 변명하기 시작하면 언제 가도 자기 결함을 고칠수 없다.

핑게 ① 어떤 상태를 피하거나 진실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저러하게 내세우는 방패막이.

례: 핑게핑게 도라지캐러 간다. 핑게를 대다.

②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갖다대는 당치않은 리유나 근거.

례: 그는 집에 친척이 왔다는 핑게로 오늘 작업에 빠졌다.

구현하다, 관철하다, 실현하다

【공통뜻】 무엇인가를 수행하다.

【개별뜻】

구현하다(具現: 갖출 구, 드러날 현) 일정한 사상이나 내용이 실제

적인 사실로 나타나도록 하다.

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다.

관철하다(貫徹: 꿸 관, 사무칠 철) 어떤 로선이나 정책, 지시 등과 관련된 과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하게 철저히 집행하다.

례: 우리는 나라의 농업정책을 관철하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

실현하다(實現: 열매 실, 드러날 현) 목적이나 구상했던것을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놓다.

례: 계획을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구혼, 청혼

【공통뜻】 결혼할것을 요구하는것.

【개별뜻】

구혼(求婚: 구할 구, 혼인 혼) ① 결혼의 상대자를 구하는것.

례: 구혼자.

② 결혼의 상대자가 될것을 요구하는것.

청혼(請婚: 청할 청, 혼인 혼)=구혼 ②

군중, 대중

【공통뜻】 많은 사람들.

【개별뜻】

군중(群衆: 무리 군, 무리 중) ① 절대다수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

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② 한데 많이 모인 사람들.

례: 군중시위.

대중(大衆: 큰 대, 무리 중)=군중

례: 대중교양사업.

굳이, 부디

【공통뜻】 –

【개별뜻】

굳이 ①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례: 아바이는 젊은이들의 만류를 굳이 뿌리치고 작업장에 뛰여들었다.

② 고집스럽게.

례: 동무들은 떠나는 그의 가방안에 굳이 당과류를 넣어주었다.

《왜 하지 않겠다는것을 굳이 시키는거냐?》

부디 ① 바라건대 꼭 또는 아무쪼록. 주로 간절한 소원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다.

례: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부디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② 하필 또는 구태여.

례: 《부디 비오는 날 떠날게 뭐람.》

굳잠, 단잠, 발편잠, 속잠

【공통뜻】 만족스럽게 자는 잠.

【개별뜻】

굳잠 깊이 든 잠.

례: 귀뚜라미의 단조로운 노래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그들은 굳잠속에 녹아들어갔다.

단잠 ① 아주 달게 깊이 자는 잠.

례: 어머니는 단잠에 든 귀여운 딸애를 사랑스럽게 들여다보았다.

② 주로 《단잠으로》, 《단잠에》형으로 쓰이면서 도중에 깨지 않고 내처 깊이 자는 잠.

발편잠 근심이나 걱정 같은것이 없어서 마음을 놓고 편안히 쉬는 잠.

례: 《이제 여기에 어지돈물이 흘러들면 지난날의 물고생이 다 옛말로 될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발편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장편소설 《생명수》)

속잠 속으로 깊이 든 잠.

례: 속잠이 든듯 어머니는 잠깨는 기색이 없었다.(중편소설 《병사의 고향》)

궁냥, 궁리

【공통뜻】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것.

【개별뜻】

궁냥 사물을 처리하거나 밝히거나 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깊이 헤아리는 생각.

어음변화가 있기 전 단어(궁량)의 뜻은 《생각하는 정도나 량》이였지만 지금은 《어떤 방도나 묘책을 찾는 궁리》라는 뜻을 가진다.

례: 《그 자식 몸집은 작아도 궁냥이 깊어 마을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게부터 찾아가군 한다네.》

궁리(窮理: 궁할 궁, 다스릴 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헤아리며 깊이 생각하는것 또는 그렇게 하는 생각.

《궁냥》보다 뜻폭이 넓은 단어로서 주로 《궁리하다》, 《궁리가 트이다.》, 《궁리가 떠오르다.》 등으로 쓰인다.

례: 모두가 지혜를 합치고 궁리를 짜내니 안 보이던 예비도 많이 찾아낼수 있었다.

궁상맞다, 방정맞다, 청승맞다

【공통뜻】 매우 초라하고 꾀죄죄하다.

【개별뜻】

궁상맞다(窮相: 궁할 궁, 서로 상) ①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몹시 초라하고 꾀죄죄하다.

례: 외기러기처럼 처량하고 궁상맞은 그 꼴이 옆에서 보기에도 가슴에 저리여…(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② 궁기가 끼여보여 꺼림직하다.

례: 궁상맞게 울다. 궁상맞은 소리를 하다.

방정맞다 ① 말이나 행동이 몹시 주책없고 경망스럽다.

례: 방정맞게 웃다.

② 몹시 요망스럽게 굴어서 마음에 꺼려지고 언짢다.

례: 방정맞게 우는소리를 하다.

《보나마나 헛탕이야.》 하고 비꼬는 정섭이의 말에 《방정맞은 소릴 그만둬.》 하고 일선이가 쏘아붙였다.

청승맞다 《궁상맞다》가 강조되면서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궁상스럽게 보여 언짢다.

례: 산새나 물새나 밤에 우는 새들이란 모두 한모양으로 처량하고 청승맞은 소리를 낸다.

《궁상맞다》와 《청승맞다》가 궁상기어린 행동을 가리킨다면 《방정맞다》는 호들갑스러운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다.

궁색, 난색

【공통뜻】 —

【개별뜻】

궁색(窮塞: 궁할 궁, 막을 색) 어떤 처지가 매우 곤난하거나 살림이 몹시 가난한것.

례: 박수호는 자신의 궁색을 보이지 말자고 이런 너스레까지

피우는 그가 측은하게 여겨졌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난색(難色: 어려울 난, 빛 색) 매우 어려워하거나 딱해하는 기색.

례: 유상이도 어찌할수 없는듯 얼굴에 난색을 지으며 … 웅뎅이를 바라다보고만 있었다.(장편소설 《시련속에서》)

극단, 극도

【공통뜻】 그보다 더이상 없는것.

【개별뜻】

극단(極端: 다할 극, 끝 단) ① 더할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막다른 지경.

례: 극단의 경우에는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이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

② 맨 끄트머리.

례: 벼랑의 극단에 이르렀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③ 정상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는것.

례: 극단한 처사. 극단적인 행동.

극도(極度: 다할 극, 법 도) 더할수 없는 마지막 한계에 이른 정도.

례: 극도의 분격. 극도로 당황하다.

극진하다, 지극하다

【공통뜻】 마음이나 정성을 기울이는 정도가 더할나위 없다.

【개별뜻】

극진하다(極盡: 다할 극, 다할 진) 정성을 바치거나 마음을 기울이는 정도가 더할나위 없다.

례: 극진한 환대. 극진한 사랑. 극진한 간호.

지극하다(至極: 이를 지, 다할 극) 매우 극진하다.

례: 지극한 마음. 지극한 정성. 지극한 사랑.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기겁하다, 질겁하다

【공통뜻】 몹시 겁나하다.

【개별뜻】

기겁하다(氣怯: 기운 기, 겁낼 겁)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다.

례: 밖에서 뛰놀던 어린애는 우뢰소리에 기겁하여 울상을 하고 방에 뛰여들어왔다.

질겁하다(窒怯: 숨막힐 질, 겁낼 겁) 뜻하지 않은 정황에서 숨막힐 정도로 놀라서 질색하다.

례: 난데없는 총부리가 쑥 들어오는 바람에 그는 질겁해서 두손을 쳐들고 사시나무떨듯 했다.

기색, 내색

【공통뜻】 얼굴표정.

※ 표정—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등의 심리적상태가 얼굴에 내비친것.

【개별뜻】

기색(氣色: 기운 기, 빛 색) ① 심리적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얼굴빛.

례: 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색이 좋지 않다.

② 어떤 결과를 빚어낼수 있는 형세나 모양.

례: 먹장구름이 낮게 드리운 어두운 하늘은 금시 한소나기 쏟아질 기색이다.

내색(內色: 안 내, 빛 색)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의 표현.

례: 내색을 않다. 약한 내색을 보이다.

기인, 귀인

【공통뜻】 보통사람과 다른 사람.

【개별뜻】

기인(奇人: 기이할 기, 사람 인) 성질이나 행동이 보통사람과는 달리 기이한 사람.

례: 《기인이라고 할가 어쨌든 재미있고 유별난 사람이야.》

귀인(貴人: 귀할 귀, 사람 인) 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존귀한 사람.

례: 귀인을 맞이하다.

② 남의 불행과 고통을 보살펴 구원해주는 귀한 사람.

례: 아낙네는 마치 산속에서 옛말에 나오는 귀인이나 만난 듯 황홀한 눈길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장편소설 《피바다》 제2부)

기질, 소질

【공통뜻】 사람에게 있는 바탕적인 성질.

【개별뜻】

기질(氣質: 기운 기, 바탕 질) ① 본래부터 가지고있는 기력이나 체질.

례: 기질이 좋은 청년.

② 기백과 성질.

례: 기질이 있다. 사내다운 기질.

③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심리, 성미, 언어, 동작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개별적특성들의 총체.

소질(素質: 흴 소, 바탕 질) 본래부터 갖추어져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 발전의 바탕 또는 그 전제로 되는 특질.

례: 나라의 체육과 예술을 발전시키려면 뛰여난 소질을 갖춘 인재들을 잘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기피, 도피

【공통뜻】 피하는것.

【개별뜻】

기피(忌避: 꺼릴 기, 피할 피) 무슨 일을 하기 꺼리거나 싫어서 피하는것.

례: 《건설이 한창 바쁜 때에 내가 몸이 고단하다고 하여 하

루라도 전투장을 뜬다면 그것은 곧 이 불꽃튀는 전투를 기피하는것으로 되지 않소.》

도피(逃避: 도망할 도, 피할 피) ① 도망하여 피하는것.

례: 도피분자

②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것.

례: 현실을 도피하다.

③ 무엇을 몰래 숨기거나 빼돌리는것.

례: 금액을 도피시켰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공통뜻】 슬프거나 괴로운 느낌이 전혀 없이 기분이 좋다.

【개별뜻】

기쁘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다. 《슬프다》의 반대말이다.

례: 《어엿한 대학생이 된 너를 보니 기쁘구나.》

즐겁다 비위에 거슬리거나 꺼리끼는것이 없이 매우 흥겹고 기쁘다.

례: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유쾌하다(愉快: 기쁠 유, 상쾌할 쾌) 마음이 즐겁고 기쁘며 기분이 상쾌하다.

례: 두 소년은 사이좋게 종알거리면서 유쾌하게 걸어간다.

《즐겁다》와 《유쾌하다》는 서로 엇바꾸어 쓸수 있으나 《즐겁다》가 좀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수 있다.

개탄, 한탄, 통탄, 지탄

【공통뜻】 한숨을 쉬는것 또는 그런 한숨.

【개별뜻】

개탄(慨歎: 슬플 개, 탄식할 탄)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현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걱정하여 한스럽게 여기는것.

례: 주막집에서는 나라없는 망국노의 신세를 개탄하는 소리들이 연방 흘러나왔다.

한탄(恨歎: 한할 한, 탄식할 탄) 한스럽거나 원통한 일이 있어 한숨을 짓는것.

례: 오늘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나의 필력이 너무나 빈약한것을 한탄하지 않을수 없다.

통탄(痛歎: 아플 통, 탄식할 탄) 몹시 가슴아파하며 탄식하는것.

례: 어제날 나라없는 설음속에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를 통탄하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지탄(指彈: 가리킬 지, 탈 탄) ① 손가락으로 튀기는것.

② 찍어서 규탄하거나 비난하는것.

례: 파쑈적폭압은 인민들의 지탄을 받기마련이다.

게면쩍다, 멋적다, 쑥스럽다, 열적다

【공통뜻】 자기 모습 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어색하다고 느끼다.

【개별뜻】

게면쩍다 어쩐지 대할 낯이 없이 어색하고 부끄럽다.

례: 게면쩍게 웃다. 게면쩍게 생각되다. 게면쩍어 혀를 내밀다.

멋적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취하는 자세가 격에 어울리지 않다.

례: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가 멋적어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쑥스럽다 하는짓이나 모양이 어울리지 않게 우습고 싱겁다.

례: 장세반장은 아이들처럼 칭찬을 받는것이 어쩐지 쑥스러워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열적다 ① 어쩐지 어색하고 부끄러운데가 있다.

례: 열적은 태도.

덕호는 땀발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봉순을 뻔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봉순은 열적은듯이 웃어보이며 말했다.(장편

소설 《우리 마을》)

② 느낌이 싱겁고 멋적은데가 있다.

례: 어떤 전우가 그에게 안해와 애들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건 열적은 일이라고 일깨워준바도 있건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하기를 즐겼다.(중편소설 《포성》)

귀를 강구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도사리다

【공통뜻】 무엇을 잘 듣기 위해 애쓰다.

【개별뜻】

귀를 강구다 누구의 말을 엿듣거나 잘 듣느라고 주의를 집중하다.

례: 그는 수업시간에 귀를 강구고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깊이 듣는다.

귀를 기울이다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알기 위해 주의를 돌려 듣다.

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귀를 도사리다 신경을 모아서 긴장하여 듣다.

례: 그는 귀를 도사리고 안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엿듣고있었다.

귀순, 투항, 항복

【공통뜻】 상대방에게 굴복하는것.

【개별뜻】

귀순(歸順: 돌아올 귀, 순할 순) 적으로 맞서던 사람이 반항하는 태도나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는것.

례: 귀순공작.

투항(投降: 던질 투, 항복할 항) 항복하여 굽혀드는것.

례: 투항분자. 적에게 투항하다.

항복(降伏: 항복할 항, 엎드릴 복) ① (투쟁, 전쟁, 싸움 등에서) 패배하여 굴복하는것.

례: 항복을 받다.

② 상대편에게 잘못되였다고 굽히는것.

례: 《네 고집에 내가 항복했다.》

관계하다, 관련하다, 관여하다

【공통뜻】 사물현상들사이가 서로 이어져있다.

【개별뜻】

관계하다(關係: 닫을 관, 맬 계) 사물현상들이 서로 맺어지며 얽혀져있거나 련관되여있다.

례: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관계하지 않는 사물현상이란 있을수 없다.

관련하다(關聯: 닫을 관, 련할 련) 사물현상사이에 이러저러한 관계가 존재하여 서로 이어져있다.

례: 무엇보다도 생산정상화와 관련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렸다.

관여하다(關與: 닫을 관, 더불어 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함께 참가하다.

례: 정치에 관여하다. 남의 일에 관여하다.

관념, 관점

【공통뜻】 무엇을 보고 대하는 생각.

【개별뜻】

관념(觀念: 볼 관, 생각 념) ① 일정한 사물현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

례: 시간관념.

《당신에게 그런 관념이 지배했으니 그 사람을 잘못 볼수밖에…》

② (철학에서) 외부세계의 사물현상이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관념론과 유물론.

관점(觀點: 볼 관, 점 점) 사물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출발점 또는 사물을 보고 대하는 태도.

례: 군중관점. 사상관점.

관람자, 시청자

【공통뜻】 무엇을 보고 듣는 사람.

【개별뜻】

관람자(觀覽者: 볼 관, 볼 람, 사람 자) 주로 연극, 영화, 체육경기, 전람회 같은것을 현지에 직접 가서 구경하는 사람.

례: 이날 경기장에는 수만명의 관람자들이 모여들었다.
영화관람자. 전람회관람자. 체육경기관람자.

시청자(視聽者: 볼 시, 들을 청, 사람 자) TV 같은것을 보고 듣는 사람.

례: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백두산입니다.》

관습, 습관, 습성

【공통뜻】 여러번 반복하는 과정에 익혀지고 굳어진 버릇.

【개별뜻】

관습(慣習: 익을 관, 익힐 습)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오래동안 지켜 내려오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버릇되여온 질서와 규칙 즉 사회적으로 관례로 된 풍습.

례: 식생활관습. 낡은 관습. 관습적으로 쓰다.

습관(習慣: 익힐 습, 익을 관) 개별적사람의 굳어진 버릇 즉 어떤 일을 여러번 거듭하는 과정에 걸핏하면 되풀이하게 되는 정도로 굳어진 버릇.

례: 그에게는 식사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

습성(習性: 익힐 습, 성품 성) 버릇된 성질.

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존경어를 쓰는 습성

을 키워주어야 한다.

나쁜 습성은 버리고 좋은 습성을 키우다.

괄목하다, 주목하다

【공통뜻】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것.

【개별뜻】

괄목하다(刮目: 긁을 괄, 눈 목)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에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

례: 과학기술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우리가 내놓은 제품들을 보고 괄목할만 한 연구성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주목하다(注目: 물부을 주, 눈 목)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여 보다.

례: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만 한 문제는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한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합의에 관한것이였다.

나가다, 나아가다

【공통뜻】 앞으로 가다.

【개별뜻】

나가다 안에서 밖으로 또는 앞으로 옮겨가다.

례: 방안에서 나가다. 출발선으로 나가다.

《나가다》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파생된 뜻을 가진다.

나아가다 일정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다.

례: 고난앞에서도 두려움없이 제힘으로 뚫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

《나가다》는 주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고 《나아가다》는 주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다.

나그네, 손님

【공통뜻】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개별뜻】

나그네 자기 집을 떠나 려행중에 있거나 또는 다른 곳에 림시로 머물고있는 사람.

례: 고개마루에는 나그네의 다리쉼을 위하여 집 한채를 지어놓았다.

나그네가 도리여 주인노릇 한다.

손님 ① 《손님》은 《손》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 《～님》이 붙은 단어이다. 《손》은 남을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사람 또는 초청을 받고 찾아가거나 찾아온 사람을 말한다. 또한 《딴데서 와서 림시로 묵는 사람》(나그네)이라는 뜻도 가지고있다.

례: 어제 밤 지방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정초부터 오늘까지 손님을 치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② 봉사기관이나 봉사수단을 리용하고있는 사람.

례: 차에 탄 손님.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나누다, 노느다

【공통뜻】 몫을 가르다. 원래는 말뿌리가 하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뜻이 조금 다른 두 단어로 갈라졌다.

【개별뜻】

나누다 ① 몇개의 몫으로 따로따로 되게 가르다.

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세번 나누어주었다.

우의 문장에서는 《노느어주었다》라고 할수 없다.

② (수학에서) 어떤 수를 몇개의 똑같은 수로 쪼개다.

례: 10을 5으로 나누다.

③ 자리를 같이하여 음식을 함께 먹다.

례: 음식을 같이 나누다.

④ 말이나 의견 같은것을 서로 주고받다.

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⑤ 기쁨, 즐거움, 괴로움 같은것을 함께 겪다.

례: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다.

⑥ 한 근원에서 각각 갈라지다.

례: 한피줄을 나눈 형제.

《나누다》는 《노느다》의 뜻을 포괄하면서 여러가지 뜻을 가진다.

노느다 한가지 물건을 몇개의 몫으로 나누다. 주로 **나누다** ①의 뜻으로 쓰인다.

례: 《사과를 사왔으니 너희들끼리 노나먹어라.》

《이 사탕을 혼자 먹지 말고 동무들과 노나먹어라.》

나무라다, 타발하다, 꾸짖다

【공통뜻】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하다.

【개별뜻】

나무라다 ① 못마땅하게 여기며 흠집이나 부족점을 말하거나 탓하다.

례: 《그의 일솜씨는 정말 나무랄데 없지요.》

② 잘못에 대하여 알아듣도록 꾸짖어 말하다.

례: 《어린것이 몰라서 그랬으니 나무라지 말고 깨우쳐주어라.》

- 참고

달아매인 돼지가 누운 돼지 나무란다.

명필이 붓 나무라겠는가.

장님이 귀머거리 나무란다.

까마귀 오디를 나무랄 때가 있다.

쓸줄 모르는것이 책부터 나무란다.

타발하다 무엇에 대하여 맞갖지 않게 여기면서 투덜거리다.

례: 우리는 조건이 나쁘다고 타발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

사람을 타발하는것은 제일 나쁜 버릇이다.

꾸짖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다. 《나무라다》와는 달리 사람이외의 사물현상에 대하여서는 쓸수 없다.

례: 할아버지는 공부에 전력하지 않고 시간타발만 하는 손자녀석을 엄하게 꾸짖었다.

준절히 꾸짖다. 자신을 꾸짖다.

나발, 나팔

【공통뜻】 본래는 다 같은 악기의 이름.

【개별뜻】

나발[喇叭: 나팔 라(나), 입벌릴 팔(발)] ① 쇠붙이로 웃쪽이 좁고 끝이 퍼지게 만든 민족관악기의 한가지. 《나발》에서 《나》는 《라》가 바뀐 음이고 《발》은 《팔》이 바뀐 음이다. 지금은 《나팔》(본래의 뜻)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② 《함부로 떠벌이는 당치않은 말이나 허튼소리》를 욕으로 이르는 말.

례: 《남의 일에 헛나발 불지 말고 제 코나 씻으시라구요.》

개나발. 헛나발. 입나발.

③ (말체) (거듭하여 쓰이는 일정한 토의 구조에서 뒤부분에 쓰이여) 앞의것을 무시하거나 얕잡아서 이르는 말.

례: 《빚값이고 나발이고 아까 황지주가 몽땅 긁어가서 이젠 북데기밖에 남은것이 없네.》

나팔 나팔꽃모양으로 아구리가 퍼진 금관악기를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역전은 돌격대원들을 환송하는 나팔소리, 북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하였다.

나살, 나이

【공통뜻】 사람이 태여나 자라난 해수.

【개별뜻】

나살 (말체) 일정하게 든 나이를 홀하게 이르는 말. 부정적뜻빛갈이 강하다.

례: 나살이나 처먹은 사람. 나살이 아깝다.

나이 사람 또는 동식물이 나서자란 해수.

례: 나이가 많다. 나이를 세다.

누에의 나이는 자는 잠의 번수를 단위로 한다.

나약하다, 미약하다, 쇠약하다, 허약하다, 연약하다

【공통뜻】 몸이나 마음이 강하거나 세지 못하고 약하다.

【개별뜻】

나약하다(懦弱: 나약할 나, 약할 약) 주로 의지나 먹은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약하다.

례: 《사내대장부가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밀고나가야지 후과가 두려워 나약하게 물러선단 말이요.》

미약하다(微弱: 작을 미, 약할 약) 주로 힘이나 세력이 보잘것없이 약하다.

례: 미약한 존재.

《미약한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쇠약하다(衰弱: 쇠할 쇠, 약할 약) ① 앓거나 늙어서 기력이 빠지고 몸이 튼튼하지 못하다.

례: 앓고나서 몸이 쇠약해지다. 늙고 쇠약한 할아버지.

② 세력이 세지 못하다.

례: 봉건통치배들의 무능과 외래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하여 나라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허약하다(虛弱: 빌 허, 약할 약) ① 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약하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는 영양실조가 온 사람들을 가리켜 《허약자》라고 부른다.

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욕망이 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할수 없다.

② 든든하지 못하고 빈데가 있다.

례: 싸움에서 이기자면 상대의 허약한 점을 잘 리용해야 한다.

이 단어들은 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약하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적이나 구체적으로 보면 《쇠약하다》는 본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앓거나 늙어서 몸이 약해진것을 나타내며 《허약하다》는 이 뜻과 함께 본시부터 몸이 약한것을 나타낸다.

연약하다(軟弱: 연할 연, 약할 약) ① 사물이 든든하지 못하고 연하거나 약하다.

례: 연약한 나무가지.

② 몸이 실하거나 다부지지 못하고 약하다.

례: 그는 뼈대가 가늘고 연약해보였으나 남달리 의지가 강한 청년이였다.

③ 마음이나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나약하다.

례: 선희는 언뜻 보아 그의 가냘픈 몸매처럼 마음까지도 연약해보이기 쉬웠다.

난감하다, 난처하다, 난해하다

【공통뜻】 그 어떤 일이나 사정이 딱하고 어렵다.

【개별뜻】

난감하다(難堪: 어려울 난, 견딜 감) 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딱하고 결심을 내리기 어렵게 되다.

례: 아주머니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난감한 기색으로 서있더니 문득 생각난듯이 말을 이었다.

② 견디여내기 어렵다.

례: 아름찬 연구사업을 혼자서 계속한다는것은 아주 난감한 일이였으나 그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난처하다(難處: 어려울 난, 곳 처) 무슨 일을 처신하기 어려운 처

지에 있다.

례: 그는 이럴가저럴가 난처한 생각으로 다만 《글쎄요, 글쎄요.》 하고 머리만 기웃거리고있었다.

난해하다(難解: 어려울 난, 풀 해) 뜻을 리해하기 어렵거나 어떤 문제를 풀기 까다롭다.

례: 난해한 문제. 난해한 문구.

난치, 불치

【공통뜻】 치료하기 어려운것.

【개별뜻】

난치(難治: 어려울 난, 다스릴 치) 치료하기 어려운것.

례: 난치성질병.

불치(不治 아니 불, 다스릴 치) 치료할수 없거나 고칠수 없는것.

례: 불치의 병이라고 주위사람들은 손맥을 놓았으나 그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날조, 조작

【공통뜻】 그럴듯하게 지어내는것.

【개별뜻】

날조(捏造: 꾸며낼 날, 지을 조)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사실인듯이 꾸며내는것.

례: 터무니없는 날조.

조작(造作: 지을 조, 지을 작) 그럴듯하게 꾸며내거나 지어내는것.

례: 허위문건을 조작해내다.

남정, 장정

【공통뜻】 남자

【개별뜻】

남정(男丁: 사나이 남, 장정 정) 어른인 남자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남정들이 모두 총을 메고 전선으로 나가자 마을녀성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땅을 지키고 농사를 이악하게 지었다.

장정(壯丁: 장할 장, 장정 정)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한창때의 남자.

례: 장정로력.

맞은편에는 서른살 전후의 힘꼴이나 쓸만 한 장정이 앉아있다.

낯익다, 눈익다

【공통뜻】 눈으로 본 일이 있어서 설지 않고 익숙하다.

【개별뜻】

낯익다 주로 사람의 얼굴을 기본으로 어떤 대상을 이미 본적이 있어서 알수 있다는 뜻. 《낯이 익다.》가 줄어든 형태이다. 《낯익다》의 반대말은 《낯설다》이다.

례: 천리타향에서 낯익은 고향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다.

눈익다 주로 사물, 기술, 기능, 방법 등을 여러번 보아서 눈에 익숙하다는 뜻. 《눈에 익다.》라는 성구로부터 굳어져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 《눈익다》의 반대말은 《눈설다》이다.

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것을 여러번 보아 눈익었지만 막상 운전하자고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너스레, 넉두리

【공통뜻】 씨가 배기지 않은 온전치 못한 말 또는 말재간.

【개별뜻】

너스레 남을 웃기거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능청스러운 말이나 말솜씨. 주로 《너스레를 피우다.》, 《너스레를 부리다.》, 《너스레를 떨다.》로 쓰인다.

례: 아무리 너스레를 피워도 그의 굳은 얼굴은 펴질줄 몰랐다.

넉두리 ① 무당이 굿을 할 때 중얼대듯 도무지 리치에 맞지 않고 동이 닿지 않게 늘어놓는 허황한 말.

례: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가 하고 물은것부터가 이 일을 당하자고 귀신에게 홀려서 중얼거린 넉두리였다.(장편소설 《피바다》 제1부)

②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길게 늘어놓아 하소연하거나 마음속에 품었던것을 불평스럽게 늘어놓는 말.

례: 《에이구, 원통해라. 세상에 이렇게 원통한 일두 있느냐?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저 짐승같은 놈을 그냥 두었겠느냐. 엉, 으흐흐…》 어머니는 울며 넉두리를 하며 주먹으로 땅을 쳤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넌지시, 슬그머니, 은근히

【공통뜻】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기미가 드러나지 않게.

【개별뜻】

넌지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또는 슬그머니.

례: 총각은 처녀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슬그머니 ①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례: 방금까지 TV를 보던 옥희가 방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② 힘을 들이지 않고 서서히.

례: 슬그머니 당기다.

③ 혼자 마음속으로 은근히.

례: 슬그머니 성이 나다. 슬그머니 부아가 나다.

은근히(慇懃: 은근할 은, 은근할 근) 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깊게 또는 가깝고 다정하게.

례: 은근히 생각하다. 은근히 기대를 가지다.

② 눈에 띄지 않게 또는 남이 모르게 슬그머니.

례: 은근히 자기 주위에 사람을 끌다.

넘어지다, 자빠지다, 엎어지다

【공통뜻】 서있던것이 누운 상태로 되다.

【개별뜻】

넘어지다 ① 바닥에 쓰러지다.

례: 고목이 넘어지다.

② 마음이나 의지가 견디여 배기거나 지탱하지 못하다.

례: 한두번의 실패에 쉽게 넘어질 그가 아니였다.

자빠지다 ① 뒤로 넘어지다.

례: 뒤로 벌렁 자빠지다.

② (서있던 물체가) 모로 넘어지다.

례: 자빠진 기둥을 바로 세우다.

③ 《눕다》의 뜻으로 얕잡아 이르는 말.

례: 침대에 자빠져서 일어나지 않다.

④ (나돌아다니거나 활동하지 않고) 한곳에 들어박혀있다.

례: 황가는 동굴속에 자빠져서 때만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⑤ 일에 몹시 지치거나 탈이 생기여 일을 못하거나 앓아눕거나 하다.

례: 《고만한 일에 자빠져서 손털고 나앉으면 되겠소?》

⑥ 일을 내던지고 물러나며 배짱을 부리고 버티다.

례: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일이 없다.

엎어지다 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넘어지다.

례: 돌부리에 채워 엎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였다.

② 물건의 우가 아래로 되게 뒤집히다.

례: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 없다.

념려, 심뇌, 심려

【공통뜻】 걱정하는것.

【개별뜻】

념려(念慮: 생각 념, 생각할 려) 여러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생각.

례: 어머니는 내가 길을 잃을가봐 념려를 하였다.

심뇌(心惱: 마음 심, 번민할 뇌)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는것 또는 그러한 근심.

례: 《그래, 그새 남편의 소식도 모르고 심뇌가 많았겠구만.》 (장편소설 《금천강》)

심려 ① (心慮: 마음 심, 생각할 려) 마음을 쓰며 몹시 걱정하는것.

례: 어머니는 늘 몸이 약한 막내때문에 심려하군 하였다.

② (深慮: 깊을 심, 생각할 려) 깊이 념려하는것. 이때의 심려는 념려에 비하여 보다 걱정의 뜻이 강하다.

념원, 소원, 숙원

【공통뜻】 무엇을 바라는 마음.

【개별뜻】

념원(念願: 생각 념, 원할 원) 언제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히 바라는것.

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소원(所願: 바 소, 원할 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것.

례: 우리의 소원은 조국통일이다.

숙원(宿願: 잠잘 숙, 원할 원) 오래전부터 품고있는 간절한 소원. 《숙망》과 뜻같은 말로 쓰인다.

례: 토지개혁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원이였다.

노도같이, 질풍같이, 쏜살같이

【공통뜻】 무엇에 비유한 행동이나 움직임의 빠른 속도.

【개별뜻】

노도같이(怒濤: 성낼 노, 물결 도) 성난 물결(파도)같이. 주로 제압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섭게 밀려가거나 밀려올 때 쓰는 말이다.

례: 전쟁을 이겨낸 우리 인민은 새 조국건설에 노도같이 떨쳐나섰다.

질풍같이(疾風: 빠를 질, 바람 풍) 몹시 빠른 속도로 세게 부는 바람같이. 주로 막을새없이 빠르게 나가는 기세를 비유할 때 쓰인다.

례: 돌격명령이 내리자 질풍같이 성안으로 돌입한 기관총분대는 단숨에 포대를 점령하였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례: 자동차는 쏜살같이 달렸다.

노력, 로력

【공통뜻】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힘.

【개별뜻】

노력(努力: 힘쓸 노, 힘 력)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쓰는것 또는 그 힘.

례: 노력의 열매. 노력한 보람.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로력(勞力: 수고로울 로, 힘 력) ① 사회적필요로동에 종사할수 있는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활동의 힘 또는 그러한 힘을 들이는것.

례: 로력공수. 로력동원.

② 로력자(로력을 바쳐 일하는 사람).

례: 여러 사람들의 일을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었다.

노름, 놀음, 놀이

【공통뜻】 《놀다》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즐기는것》.

【개별뜻】

노름 (낡은 사회에서) 돈이나 물건을 대고 서로 따먹기를 하는 놀음. 같은 말로서 《도박》 또는 《투전》이 있다.

례: 노름에 미쳐나면 처도 팔아먹는다.

놀음 ① 휴식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면서 즐겁게 노는것.

례: 《철남이는 요새 놀음에 팔려서 숙제도 잘해오지 않습니다.》

② 부정적인 뜻으로 《노릇》을 이르는 말.

례: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굶어가는데 량반사대부들은 기생들을 끼고 술놀음을 벌려놓고 진탕거렸다.

③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것.

례: 사람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기는 놀음.

놀이 ①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것.

례: 윷놀이. 주패놀이.

② (교육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린이들속에서 조직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놀음.

례: 학교들에서는 과외시간에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조직하고 있다.

그림맞추기놀이.

누리다, 향유하다

【공통뜻】 행복이나 영예, 기쁨을 당해보다.

【개별뜻】

누리다 행복한 생활, 기쁨을 즐기거나 맛보다.

례: 통일된 하나의 강토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것은 온 민족의 지향이며 소망이다.

향유하다(享有: 누릴 향, 있을 유) 누리여 가지다.

례: 오늘 우리 인민이 향유하고있는 모든 정신문화적재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눈가림, 눈치레

【공통뜻】 실속없는것.

【개별뜻】

눈가림 남의 눈을 가린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얼핏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는것.

례: 《…하고싶지 않은 일을 남의 눈가림으로 해본적이 없어요.》(장편소설 《림꺽정》 제3부)

눈치레 실속은 전혀 없고 눈에만 보기 좋게 겉치레하는것.

례: 무슨 일에서나 눈치레하여 굼때려고 하는 태도부터 버리고 모든 일을 알심있게 하여야 한다.

늘쌍, 항상

【공통뜻】 언제나.

【개별뜻】

늘쌍 언제나 늘. 주로 입말체에서 쓰인다.

례: 《늘쌍 말썽을 부린다니까.》

항상(恒常: 항상 항, 항상 상) 늘. 언제나. 늘쌍.

례: 항상 준비하자.

능란하다, 능통하다, 능활하다

【공통뜻】 능하다.

【개별뜻】

능란하다(能爛: 능할 능, 무르익을 란) 일이 몸에 푹 배여 서투른데가 없이 솜씨가 있다.

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 능란한 일솜씨.

능통하다(能通: 능할 능, 통할 통) 어떤 일에 능숙할뿐아니라 환하게 통달하다.

례: 그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나리만큼 평로에 능통한 용해공이였다.

능활하다(能猾: 능할 능, 교활할 활) 매우 능청스럽고 교활하다. 부정적색채를 띤다.

례: 능활한 계책을 꾸미다.

능청스럽다, 천연스럽다

【공통뜻】 아닌보살하다.

【개별뜻】

능청스럽다 속으로는 엉큼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연스럽다. 부정적색채를 띤 형용사이다.

례: 《그 아주머닌 손님이 오는것을 늘 귀찮아하면서도 능청스럽게 또 오라고 저런단다.》

천연스럽다(天然: 하늘 천, 그럴 연) ① 아무러한 꾸밈도 없이 그대로인 느낌이 있다.

례: 천연스러운 목소리.

② 시치미를 뚝 떼여 아무렇지 않은듯 하다.

례: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천연스럽게 말하였다.

내색하다, 반색하다

【공통뜻】 속마음을 나타내다.

【개별뜻】

내색하다(內色: 안 내, 빛 색) 얼굴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다.

례: 꽃분이는 꽃이 싱싱할 때에 어서 거리에 들어서야 하겠는데 하는 조바심이 생겼으나 내색하지 않았다.(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반색하다 (매우 바라거나 기다리던 사람 또는 어떤 사실을 대하였을 때) 몹시 반가와하는 기색을 나타내다.

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려 굽어보는 꽃분이의 얼굴이 처음에는 겁질린듯 굳어지더니 다음순간 반색하는 빛이 활짝 피였다.(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뇌까리다, 지껄이다

【공통뜻】 《말하다》를 낮잡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

【개별뜻】

뇌까리다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말하다. 부정적색채를 띤다.

례: 함부로 뇌까리다. 거만하게 뇌까리다.

지껄이다 ① 《꽤 큰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의 뜻으로 쓴다.

례: 아이들은 집이 떠나갈듯이 지껄이다가 어느새 조용히 잠들고말았다.

② 《말하다》의 뜻으로 낮잡거나 욕으로 이르는 말.

례: 어린 영철이는 지주놈이 머슴신세에 무슨 공부인가고 지껄이며 매일같이 심술궂게 놀았지만 가슴속에 끓는 향학열만은 잠재울길이 없었다.

다망하다, 분망하다

【공통뜻】 매우 바삐 돌아가다.

【개별뜻】

다망하다(多忙: 많을 다, 바쁠 망) 여러가지 일이 겹쳐서 바삐 돌아가다.

례: 요즘 어머니는 교수사업의 다망한 속에서도 학위론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분망하다(奔忙: 달아날 분, 바쁠 망) 매우 바삐 돌아치다.

례: 도시계획설계가들은 매우 분망한 나날을 보내였다.

다정하다, 정답다, 친절하다

【공통뜻】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다.

【개별뜻】

다정하다(多情: 많을 다, 뜻 정) ① 인정이 매우 많다.

례: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

② 매우 정답고 교분이 두텁다.

례: 다정한 사이. 다정한 이웃.

정답다 ① 사귀는 정이 친근하고 가득하다.

례: 정답게 이야기하다. 정다운 사이.

② 인정이 넘쳐 친절하고 살뜰하다.

례: 어깨를 정답게 두드려주다.

③ 그리운 정을 느끼여 쏠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례: 정다운 학교. 정다운 어머니.

친절하다(親切: 친할 친, 간절할 절) 남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정답다.

례: 그 유격대원은 우리를 자기네 친부모처럼 매우 반갑게 그리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담배까지 권하였다.

단김에, 단숨에

【공통뜻】 즉시에 곧.

【개별뜻】

단김에 ①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달아오른 때를 리용하여 내처.

례: 《소뿔은 단김에 뽑으라.》 했다.

② 어떤 일이 성숙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에.

례: 《이왕 단김에 고개너머 발김까지 매고 갑시다.》

단숨에 ① 한번 숨쉬는 사이에.

례: 단숨에 물 한사발을 마시였다.

② 쉬거나 지체함이 없이 곧장.

례: 《맡은 일을 단숨에 해제끼는 청년분조원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웁시다.》

단련, 숙련

【공통뜻】 무엇을 견고한것으로 만드는것.

【개별뜻】

단련(鍛鍊: 단련할 단, 쇠불릴 련) ① 실천이나 시련을 통하여 몸이나 마음을 굳세게 하는것.

례: 처음 해보는 작업인것만큼 한동안 힘들었으나 점점 단련되여 지금은 제법 잘해나간다.

② 《귀찮거나 고통스러운 시달림》을 이르는 말.

례: 단련을 받다.

숙련(熟練: 익을 숙, 익힐 련) 기술이나 기능, 기교 등을 많이 해보아서 익숙하는것.

례: 이 공장의 로동자들은 한사람이 여러 기대를 맡아서 숙련된 솜씨로 천을 짜고있었다.

단절하다, 절단하다

【공통뜻】 끊어버리다.

【개별뜻】

단절하다(斷絶: 끊을 단, 끊을 절) 주로 사람호상간 또는 집단이나 국가호상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다.

례: 국교를 단절하다.

절단하다(絶斷: 끊을 절, 끊을 단) 옹근 물체를 동강이 나게 베거나 썰거나 잘라서 끊어버리다.

례: 금속을 절단하다.

달갑지 않다, 마깝지 않다, 언짢다

【공통뜻】 마음에 들지 않다.

【개별뜻】

달갑지 않다 마음에 달게 느껴지지 않고 귀찮다.

례: 그의 제의가 달갑지 않은지 모두들 말이 없었다.

마깝지 않다 마음에 맞지 않아 기분을 잡치다.

례: 분조장은 길을 묻는 손님의 말투가 거칠어서 그를 마깝지 않게 쳐다볼뿐 응답하지 않았다.

언짢다 ① 마음에 맞갖지 않거나 좋지 않다.

례: 그는 지금 자기 집 아래목이 아니라 덕수아저씨네 웃방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닫자 갑자기 언짢은 생각이 치밀어올랐다.

② 몸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례: 속이 언짢다.

달다, 달콤하다

【공통뜻】 쓴맛과 대치되는 뜻 또는 기분이 좋은 느낌.

【개별뜻】

달다 ① 꿀이나 사탕의 맛과 같다.

례: 사과가 달다.

② 입맛이 당기게 맛이 나다.

례: 물맛이 달다.

③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

례: 잠을 달게 자다.

④ 딴 의견이 없이 기꺼이.

례: 고생을 달게 여기다.

달콤하다 ①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

례: 달콤한 맛.

② 흥미를 가질만큼 아기자기한 느낌이나 맛이 있다.

례: 달콤한 이야기. 달콤한 추억.

③ 편하고 흡족하다.

례: 잠을 달콤하게 자다.

당돌하다, 되알지다, 야무지다

【공통뜻】 –

【개별뜻】

당돌하다(唐突: 당돌할 당, 갑자기 돌) ① 꺼리거나 어려워함이 없

이 올차고 다부지다.

례: 소녀는 당돌하게 일어서서 의문스럽던 문제를 묻는다.

② (웃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례의가 없이 주제넘고 건방지다.

례: 《좀 당돌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기사장동무에게 이 말을 꼭 해야겠어요.》

③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격에 맞지 않고 중뿔나다.

례: 그는 오랜 기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선 것이 너무 당돌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되알지다 ① 매우 야무지다.

례: 그 소리는 처음에는 둔중하게 천천히 두번, 다음에는 되알지고 크게 세번 울리였는데 마지막에는 은은한 메아리 같은 여운까지 남기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② 잘 여물어 단단하다.

례: 벼알이 되알지게 여물었다.

야무지다 ① 생김이나 성질이 굳세고 단단하다.

례: 야무지게 생기다.

② 매우 옹골차다.

례: 야무진 대답.

③ 소리가 매우 또렷하다.

례: 야무진 총성.

당황망조, 전전긍긍

【공통뜻】 몹시 불안해하거나 어쩔바를 몰라하는것.

【개별뜻】

당황망조(唐慌罔措: 당돌할 당, 두려울 황, 없을 망, 둘 조) 몹시 놀랍거나 다급하여 어찌할줄을 모르는것.

례: 이날 전투에서 불의의 습격을 받은 《토벌대》는 당황망

조하여 둥지를 터쳐놓은 개미떼처럼 사방으로 제각기 흘어져 도망쳤다.

전전긍긍(戰戰兢兢: 싸움 전, 조심할 긍) ① 어떤 화를 당하거나 일이 잘못될가봐 몹시 걱정하다.

례: 실험결과를 기다리는 기사장은 전전긍긍하며 담배만 줄곧 피웠다.

② 대책이 없어 어찌할바를 모르다.

례: 철이는 잃어버린 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골머리를 앓았다.

도망치다, 뺑소니치다

【공통뜻】 무엇이 두려워 본래 있던 곳을 피해 달아나다.

【개별뜻】

도망치다(逃亡: 도망할 도, 망할 망) (피하거나 쫓기거나 하여) 달아나다.

례: 방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밤으로 도망쳐 어디론가 가버렸다.

뺑소니치다 (주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정황이 두려워) 몸을 빼여 달아나다.

례: 《너 일하기 싫어서 뺑소니치누나.》

도깨비, 두억시니

【공통뜻】 《귀신》을 이르는 말.

【개별뜻】

도깨비 ①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험상궂은 장난을 한다는 환상적인 《귀신》을 이르는 말.

례: 도깨비에게 홀리우다.

② 일을 제멋대로 망탕 처리하거나 분별없이 행동하는 사람 또는 잡스럽고 유해로운짓을 망탕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두억시니 전날에 매우 사납고 못된짓만 골라한다는 《귀신》을 이르는 말.

례: 뒤엉킨 나무와 풀, 덩굴과 이끼의 습한 그늘에서 두억시니가 불쑥 튀여나와 덮치려들듯 온갖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생각이 덜미를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독촉하다, 재촉하다

【공통뜻】 어떤 행동을 다그치도록 요구하다.

【개별뜻】

독촉하다(督促: 독촉할 독, 재촉할 촉) 주로 남이 일이나 행동을 빨리 하도록 요구하다.

례: 《지금 기업소에서는 공사기일을 한해 앞당길것을 예견하고 모든 공정을 짜고있는데 새 시공방법이 어떻게 됐느냐고 독촉이 불같소.》(장편소설 《생명수》)

재촉하다(再促: 다시 재, 재촉할 촉) 일이나 행동을 빨리 할것을 거듭 요구하다.

례: 성철이가 앉으라고 재촉을 해서야 그도 자리에 앉았다.(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

동가슴, 등가슴

【공통뜻】 가슴.

【개별뜻】

동가슴 앞가슴의 가운데부분.

례: 어데서 무슨 모임을 하고 밀려오는지 얼굴이 구리빛같고 동가슴이 벌어진 청년들이 한꺼번에 십여명 들어섰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동가슴을 내밀고 기운차게 걸어가는 청년.

등가슴 가슴의 등쪽부분.

례: 등가슴이 결려서 숨쉬기 힘들다.

동무, 동지, 벗

【공통뜻】 목적과 지향이 같고 서로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개별뜻】

동무 ① 《한집단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례: 동무들의 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다.

② 같이 어울리여 사귄 사람.

례: 고향동무. 길동무. 말동무.

③ 보통 남을 무난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

례: 《이 책이 동무의것이 아닙니까?》

동지(同志: 한가지 동, 뜻 지) ①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

② 동무를 높이 이르는 말.

벗 ① 대등한 사회적처지나 비슷한 나이에서 두터운 정을 가지고 서로 믿고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

례: 나는 그와 다정한 벗으로 사귀였다.

② 같은 목적이나 지향을 가지고있는 친근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례: 벗과 원쑤. 세계의 벗들.

두드리다, 두들기다

【공통뜻】 손으로 잇달아 치거나 때리다.

【개별뜻】

두드리다 ① 소리가 나게 잇달아 다치다.

례: 문을 두드리다.

② 세게 때리거나 타격을 주다.

례: 꽃분이를 지팽이로 마구 두드리는 악착한 지주.

③ (비유적으로) 《량심》, 《심장》, 《가슴》 등과 같은 단어들과 결합되여 몹시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격동시키다.

례: 판문점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민족의 소망을 담은것으로 하여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두드렸다.

두들기다 《두드리다》와 같은데 그에 비해 세게 치거나 때리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두렵다, 무섭다

【공통뜻】 겁이 나고 불안하다.

【개별뜻】

두렵다 ① 위험이나 위협을 느끼여 겁나고 불안하다.

례: 그의 서슬푸른 말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고인듯 느껴져 경철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② 좋지 않은 일이 생길가보아 조심스럽고 불안하다.

례: 그를 만나는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을것 같지 않다.

무섭다 ① 위험이 닥쳐올것 같아서 기를 펼수 없게 마음이 불안하다.

례: 《토벌대》놈들은 대낮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날가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② 해롭고 위험하다.

례: 앞길에 가로놓였던 무서운 장애를 헤쳐나가다.

③ 정도나 수준 등이 매우 대단하거나 심하다.

례: 무서운 추위. 무서운 속도. 무서운 고통.

드러내다, 들어내다

【공통뜻】 겉으로 나타나게 하다.

【개별뜻】

드러내다 ① 속에 있어 가려져있던것을 겉으로 나타내게 하다.

례: 땅을 깊이 파서 암층을 드러냈다.

②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널리 알려지게 하다.

례: 간첩의 정체를 드러내다.

들어내다 ① 안에 있던것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례: 김치움에서 독들을 들어내다가 새끼로 엮는 일이 벌어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은하수》)

② 있던것을 없애치우다.

례: 낡은 가구들을 들어내고 새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들볶다, 보채다

【공통뜻】 남에게 어찌하도록 요구하며 부산을 피우다.

【개별뜻】

들볶다 ① 쓸데없는 잔소리와 잡다한 요구를 자꾸 들이대여 남을 못살게 굴거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다.

례: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들볶으면 사업에서 실적을 낼수 없다.

② 떠들면서 부산을 피우다.

례: 그는 갑자기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몹시 들볶았다.

보채다 ① 어린애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가시게 굴며 칭얼거리다.

례: 보채는 아이를 달래다.

② 매우 극성스럽게 조르며 빨리 움직이도록 하다.

례: 《어서 입을 벌리라구.》 리상녀는 숟가락에 죽을 떠들고 앉아서 보채였다. 청년은 한참 마주보다가 마지못해 입을 벌리였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대강대강, 대충대충

【공통뜻】 구체적이며 세밀하지 못하게.

【개별뜻】

대강대강(大綱大綱: 큰 대, 벼리 강) 세밀하지 못하고 큰 선에서만 기본적으로.

례: 학습을 수박겉핥기식으로 대강대강하는 버릇을 뿌리뽑

아야 한다.

대충대충 일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매우 적당히.

례: 김주현은 그사이에 있은 일들을 대충대충 이야기하면서 박철산의 입이 벌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

대결하다, 대항하다

【공통뜻】 상대방과 맞서 다투다.

【개별뜻】

대결하다(對決: 대할 대, 결단할 결) 서로 맞서서 이기고지거나 옳고그름을 판가리하다.

례: 북과 남은 서로 대결할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항하다(對抗: 대할 대, 겨룰 항) 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하다.

례: 무장한 적들과는 무장으로 대항해야 한다.

② 도전한 상대와 맞서 승부를 겨루다.

례: 씨름대항경기.

대경실색, 망연자실

【공통뜻】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라는것.

【개별뜻】

대경실색(大驚失色: 큰 대, 놀랄 경, 잃을 실, 빛 색) 크게 놀라서 얼굴빛까지 잃는다는 뜻.

례: 조선인민혁명군의 장백진출과 군사적위세앞에서 적들은 대경실색하였다.

망연자실(茫然自失: 아득할 망, 그럴 연, 스스로 자, 잃을 실) 주로 예상치 않은 비통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멍청하니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뜻.

례: 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였다.

대담하다, 용감하다, 용감무쌍하다

【공통뜻】 겁나하거나 소심해하지 않다.

【개별뜻】

대담하다(大膽: 큰 대, 쓸개 담) ① 무엇을 겁내거나 걱정하지 않다.

례: 한개 소대의 력량으로 한개 대대를 습격하는 대담한 작전.

② 쬐쬐하지 않고 통이 크다.

례: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다.

《겁이 많다.》, 《쪼물짝하다》의 반대뜻을 가진다.

용감하다(勇敢: 날랠 용, 구태여 감) 두려움을 모르며 기운차고 씩씩하다.

례: 평시에는 얌전하던 그가 이번 습격전투에서 그렇게 용감할줄은 미처 몰랐다.

용감무쌍하다(勇敢無雙: 날랠 용, 구태여 감, 없을 무, 쌍 쌍) 견줄만 한 대상이 없으리만큼 매우 용감하다. 《용감하다》를 더욱 강조한 말이다.

례: 용감무쌍한 우리의 비행사들은 대지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대답, 대꾸

【공통뜻】 상대방의 말에 응하는것.

【개별뜻】

대답(對答: 대할 대, 대답할 답) ① 부르거나 묻거나 무엇을 시킬 때 응하는것.

례: 선생님이 자기를 지명하자 영철이는 《예!》 하고 대답하며 일어섰다.

② 제시한 물음이나 답을 구할것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

을 풀어서 설명하는것.

례: 《열에서 다섯을 덜면 몇인지 대답하시오.》

③ 기대나 요구에 응하는것 또는 일정한 사회적문제에 응하여 답을 주는것.

례: 소설은 인생의 참다운 행복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다.

대꾸 ① 남의 말에 응대하여 말하는것 또는 그 말.

례: 형이 이젠 자자고 말했으나 봉수는 《응!》 하고 대꾸하고는 그냥 책을 보았다.

② 남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반항하거나 맞서는 태도로 말하는 것. 《대답》에는 아무러한 뜻빛갈이 없지만 《대꾸》에는 부정적인 뜻빛갈이 있다. 《말대꾸》, 《대꾸질》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손치 않은 대답에 대하여 표현할 때 쓰게 된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공통뜻】 대를 이어가며 오랜 기간.

【개별뜻】

대대손손(代代孫孫: 대신할 대, 손자 손) 아득한 조상으로부터 먼 후대에 이르는 긴 세대 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

례: 우리 민족은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단일민족이다.

자자손손(子子孫孫: 아들 자, 손자 손) 여러 대로 자손들이 태여나는 동안.

례: 그림에는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에서 자자손손 장수하면서 살려는 우리 선조들의 념원과 깨끗하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들어있다.

대접, 접대

【공통뜻】 손님에 대한 봉사.

【개별뜻】

대접(待接: 기다릴 대, 접할 접) ① 마땅한 례의로 사람을 대하는것.

례: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까지 30년을 지주집 머슴살이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는 손님대접을 받는것보다도 차라리 한가족처럼 지내고싶소.》

② 찾아온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서 접대하는것.

례: 점심대접.

접대(接待: 접할 접, 기다릴 대) ① 주로 봉사기관에서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중을 들어주는 일. 《접대》라는 말은 공식적이거나 직업적인 봉사의 경우에 쓰인다. 그리고 식당이나 려관, 관광지 등에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을 《접대원》이라고 한다.

례: 이 려관의 접대원들의 접대가 극진하여 우리일행은 먼 려행의 피로를 쉽게 풀수 있었다.

② 남을 대접하는것.

례: 손님접대.

데우다, 데치다

【공통뜻】 열을 가하여 덥게 하다.

【개별뜻】

데우다 열을 가하여 덥히다.

례: 겨울에는 음식을 데워 먹어야 한다.

데치다 끓는 물에 잠간 넣고 슬쩍 익히다.

례: 시금치를 데치다.

되먹다, 돼먹다

【공통뜻】 —

【개별뜻】

되먹다 도로 먹거나 다시 먹다.

례: 고양이가 먹던 먹이를 개가 되먹었다.

돼먹다 말이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마땅하다.

례: 《말하는 투가 돼먹었거던.》

《돼먹지 않게》, 《못 돼먹다》형으로 많이 쓰인다.

량해하다, 사과하다

【공통뜻】 미안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리해를 바라다.

【개별뜻】

량해하다(諒解: 믿을 량, 풀 해) 잘못된 일이나 미안을 끼치는 일에 대하여 사정을 헤아려 그럴수 있으리라고 리해하다.

례: 량해를 바라다. 량해를 구하다.

《량해를 구하다.》는 곧 《사과》를 하는것으로 되며 《량해하다》는 곧 《사과》를 쾌히 접수하고 받아들이는것으로 된다.

사과하다(謝過: 사례할 사, 지날 과) 자기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다.

례: 그는 영희에게 자기의 본의아닌 실례를 무어라고 사과했으면 좋을는지 몰랐다.

련락병, 전달병, 전령병

【공통뜻】 무엇을 전달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별뜻】

련락병(連絡兵: 이을 련, 얽힐 락, 군사 병) 군사체계에서 지휘관을 따라다니며 련락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병사.

례: 대대장 련락병.

전달병(傳達兵: 전할 전, 사무칠 달, 군사 병) ① 주로 림시로 근무를 서면서 상급의 지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수행하는 군인.

② ＝전령병

전령병(傳令兵: 전할 전, 하여금 령, 군사 병)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사령부나 지휘부에 직속되여 주로 전투명령을 전달하거나 호위의 임무를 맡은 전투원.

례: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 전령병이였던 로투사는 생의 마지막까지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

련마하다, 연마하다

【공통뜻】 반복하여 갈고 닦다.

【개별뜻】

련마하다(鍊磨: 단련할 련, 갈 마) 학문이나 기술을 힘써 배우고 닦다.

례: 사격술을 련마하다.

학생들은 몸을 단련하고 지식을 련마했다.

연마하다(硏磨: 갈 연, 갈 마) ① 돌이나 쇠붙이 같은것을 반들반들 윤이 나게 갈거나 닦다.

례: 대리석을 연마하다.

② 공구로 가공품의 겉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다.

례: 연마공구.

《연마》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련마》는 추상적인 것에 대하여 이른다고 할수 있다.

련습, 연습

【공통뜻】 무엇을 반복하여 익히는것.

【개별뜻】

련습(練習: 익힐 련, 익힐 습) 배운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번 반복하여 익히는것.

례: 노래련습. 련습문제. 예술체조련습.

연습(演習: 넓힐 연, 익힐 습) 일정한 목표의 행동이나 과정을 완성

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나 공정, 방식 등을 실지그대로 관통하여보면서 익히는것 다시말하여 어떤 기술이나 기능 또는 그밖의것을 그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 실지행동을 그대로 해보면서 련습하는것이다.

례: 무대연습. 공연연습. 군사연습.

렬등민족, 약소민족

【공통뜻】 민족.

【개별뜻】

렬등민족(劣等民族: 용렬할 렬, 무리 등, 백성 민, 겨레 족) 민족배타주의자들이 다른 민족을 여러 방면에서 뒤떨어진 민족이라고 깔보면서 이르는 말.

례: 일제는 조선민족을 《렬등민족》으로 취급하면서 조선사람들을 인간이하로 학대하고 멸시하였다.

약소민족(弱小民族: 약할 약, 작을 소, 백성 민, 겨레 족) 정치, 경제, 군사적힘이 약하고 작은 민족.

례: 해방전 약소민족으로 렬강들에게 여지없이 찢기우고 뜯기우며 그 빛마저 잃었던 조선민족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되였다.

령도, 지도, 향도, 인도

【공통뜻】 일정한 목적실현에로 사람들을 이끄는것.

【개별뜻】

령도(領導: 거느릴 령, 인도할 도) 이끌고나가는 위치에 서서 어떤 계급이나 조직 또는 인민대중을 통솔하고 지도하는것 즉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며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것.

례: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지도(指導: 가리킬 지, 인도할 도) ①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일

정한 방향으로 이끄는것 또는 그렇게 하는 일.

례: 과외학습지도.

②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가장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는것.

례: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

향도(嚮導: 접때 향, 인도할 도)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길을 인도하는것 또는 인도하는 사람이나 사물.

례: 향도무선기.

인도(引導: 끌 인, 인도할 도) 방향을 알려주며 이끄는것.

례: 옳은 길로 인도하다.

로고, 신고

【공통뜻】 몹시 애쓰는것.

【개별뜻】

로고(勞苦: 수고로울 로, 쓸 고) 몹시 피로할 정도로 애쓰는 수고.

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다. 끝없는 사색과 로고.

신고(辛苦: 매울 신, 쓸 고) 매우 괴롭게 애쓰는것 또는 그러한 고생.

례: 간난신고. 병으로 신고하다.

로독, 과로

【공통뜻】 피로와 피곤.

【개별뜻】

로독(路毒: 길 로, 독할 독) 먼길에 지치고 시달리여 생긴 피로 또는 병.

례: 그사이 고생을 했으니 며칠 쉬면서 로독을 풀고 가라는 권고에 못이겨 여적까지 묵고있었다.

과로(過勞: 지날 과, 수고로울 로) 무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고하여 몸에 생기는 피로.

례: 추위와 허기와 과로에 나가넘어진자, 공포에 얼이 빠진자, 이런것들을 골라내고 남은것들이 겨우 전투 비슷

한 흉내를 내다가 또 유격대의 기관총세례를 받고 눈벌에 나딩굴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루명, 오명

【공통뜻】 사실과 맞지 않는 더러워진 이름 또는 그러한 평.

【개별뜻】

루명(陋名: 더러울 루, 이름 명) 사실과 맞지 않는 억울하게 당하는 허물.

례: 루명을 쓰다. 루명을 벗다.

오명(汚名: 더러울 오, 이름 명) ① 더러워진 명예.

례: 얼마후 그들이 《거부기》작업반의 오명을 벗기 위해 남몰래 밤작업까지 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② =루명

리행, 실행

【공통뜻】 실지행동으로 무엇을 해놓는 일.

【개별뜻】

리행(履行: 밟을 리, 다닐 행) (일정한 규정, 약속, 의무, 책임 등을) 실지로 실행하거나 집행하는것.

례: 북과 남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

실행(實行: 열매 실, 다닐 행) (무엇을 이룩하기 위하여) 실지로 행동하는것.

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것이다.

리용, 사용

【공통뜻】 무엇을 일정한 목적에 써먹는것.

【개별뜻】

리용(利用: 리로울 리, 쓸 용) 꼭 필요하거나 적중한데 리롭게 효과적으로 요긴하게 쓰는것.

례: 설비의 합리적리용.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다.

사용(使用: 하여금 사, 쓸 용) 무엇을 필요하거나 소용되는데 두루 쓰는것.

례: 미장칼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말리운 다음에 보관해야 한다.

《리용》과 《사용》은 일부 경우에 엇바꾸어 쓸수 있으나 많은 경우 구별하여 쓸 필요성이 있다. 《사용》은 《무엇을 쓴다.》는 뜻이라면 《리용》은 《무엇을 사용하여가지고 다른 무엇을 하여내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랭정하다, 랭철하다

【공통뜻】 사고와 판단에 감정이 섞이지 않다.

【개별뜻】

랭정하다(冷靜: 찰 랭, 고요할 정) 사고하고 판단하는것이 리성적이고 침착하다.

례: 그는 잠간동안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랭정한 두뇌로 자기를 반성해보았다.

랭철하다(冷徹: 찰 랭, 사무칠 철) 무엇을 판단하는데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리성적이고 투철하다.

례: 군사지휘관들에게는 랭철한 판단력과 강의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랭혹하다, 혹독하다

【공통뜻】 모질다.

【개별뜻】

랭혹하다(冷酷: 찰 랭, 혹독할 혹) 인정사정이 없이 쌀쌀하고 혹독하다.

례: 그의 비판은 언제나 랭혹하였다.

랭혹한 태도.

② 추위가 지독하게 맵짜다.

례: 랭혹한 추위.

혹독하다(酷毒: 혹독할 혹, 독할 독) ① 몹시 악독하다.

례: 일제의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피하여 화전민이 되였건만 망국노의 처지는 어데 가나 마찬가지였다.

② 모질고 독하다.

례: 혹독한 욕설. 혹독한 추궁.

③ 정도가 심하다.

례: 혹독한 추위.

례찬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

【공통뜻】 훌륭하다고 여기며 칭찬하다.

【개별뜻】

례찬하다(禮讚: 례절 례, 칭찬할 찬) ① 매우 좋게 여기며 찬양하다.

례: 그는 금강산의 절경에 대한 례찬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② 존경하며 찬양하다.

례: 그는 자기의 옛 스승을 몹시 례찬했다.

찬미하다(讚美: 칭찬할 찬, 아름다울 미) 아름답고 훌륭한것이라고 칭찬하다.

례: 우리 시대의 근본요구를 떠나서 지난날의 낡은것을 덮어놓고 찬미하며 되살리려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허용될수 없다.

찬양하다(讚揚: 칭찬할 찬, 날릴 양) 높이 칭찬하다.

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 애국심을 높이 찬양한 시가작품들이 많이 발굴되였다.

마구잡이, 주먹치기

【공통뜻】 세밀하고 깐깐하게 하지 못하는 일.

【개별뜻】

마구잡이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헤아려보지 않고 닥치는대로 마구 하는짓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례: 그는 자물쇠가 걸린 문짝을 마구잡이로 빠개고 들어가려고 했다.

첫눈에 덜렁덜렁하는 마구잡이인줄 알았더니 일에서는 깐깐하기 그지없었다.

주먹치기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타산이나 계획이 없이 어림짐작으로 해치우는것.

례: 생각나는대로 주먹치기로 일하는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마땅히, 모름지기, 응당

【공통뜻】 반드시 그렇게.

【개별뜻】

마땅히 리치나 형편으로 보아 《의례히》 또는 《반드시》, 《응당》 등의 뜻. 형용사 《마땅하다》에서 나왔으며 확정적인 예측, 단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

례: 《죄를 범한자에게는 마땅히 벌이 따를것이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마땅히 상이 차례질것입니다.》

모름지기 ① 반드시, 마땅히.

례: 《우리 청년들은 모름지기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똑똑히 내다보고 그속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자기스스로 찾아내야 할것입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②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모름지기》의 본래 뜻은 《마땅히, 반

드시》였다. 그러던것이 지금은 주로 《모르긴 해도》, 《아마》로 쓰이고있다.

례: 모릅지기 래일쯤 비가 올것 같다.

응당 =응당히(應當: 응할 응, 마땅할 당) 《마땅히 또는 당연히》. 동사 《응당하다》에서 나온 부사이다.

례: 조선사람이라면 응당 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막상, 정작

【공통뜻】 다 같은 부사로서 《실지로》.

【개별뜻】

막상 주로 이미 생각해오던바와는 다른 경우와 맞다들었을 때 《실지로》.

례: 눈으로 볼 때는 쉬운것 같았으나 막상 제가 해보자니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작 무엇에 직면하여 실지로 또는 진짜로.

례: 겉보기는 보송보송하나 정작 내짚으면 걸직한 물기가 헐어빠진 신창으로 스며드는 그 땅에 큼직한 발자국들이 새겨졌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만고대죄, 석고대죄

【공통뜻】 죄를 지은것.

【개별뜻】

만고대죄(萬古大罪: 일만 만, 옛 고, 큰 대, 죄 죄) 오랜 력사에서 류례가 없는, 만년이 가도 씻을수 없는 큰죄.

례: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지은 만고대죄를 반드시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석고대죄(席藁待罪: 자리 석, 짚 고, 기다릴 대, 죄 죄)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벌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과에 대하여 처분을 기다리는것》을 이르는 말.

례: 《자네가 큰일을 저질렀네. 자네가 내 처지에 량반들속에 끼여든것만두 과남한 일인데 그런 큰 량반을 욕보였으니 무사할수 있나? 사또께 그대루 여쭐 일이 아닐세. 석고대죄하게.》(장편소설 《림꺽정》 제2부)

말뚝잠, 새우잠

【공통뜻】 불편스러운 모양을 하고 자는 잠

【개별뜻】

말뚝잠 말뚝을 박아넣은것처럼 곧게 앉아서 거북하게 자는 잠.

례: 눈을 감으면 말뚝잠에 들어버릴것 같았다.

새우잠 새우모양으로 등을 꼬부리고 불편하게 자는 잠.

례: 그 녀자는 이따금씩 무릎우에 얼굴을 틀어박고 새우잠을 자는 어린 소녀애의 포대기를 여미여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말째다, 까다롭다

【공통뜻】 무엇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

【개별뜻】

말째다 ①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기가 거북하고 불편하다.

례: 몸이 말째다.

한시간쯤 걸으니 털모자 량옆에 고드름이 달리고 속옷은 땀으로 흠뻑 젖고 신은 소가죽처럼 꽛꽛하게 얼어서 걸음을 옮겨디디기가 말째였다.

② 사람이나 무슨 일감이 다루기가 헐하지 않다.

례: 그 부분들이 까다로운것이여서 가공하기가 참 말째다.

말째게 놀다. 말짼 사람.

까다롭다 ① 요구나 조건, 내용 같은것이 복잡하거나 힘든것이여서 풀기 어렵다.

례: 시험에 나온 두번째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왔으나 그는 별

로 머리를 쓰지 않고 제꺽 문제를 풀어냈다.

② 대하거나 다루기에 별스럽게 조련치 않다.

례: 까다로운 성격. 까다로운 사람.

③ 말이나 글 같은것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엉키거나 걸려서 리해하기에 힘들다.

례: 《말 한마디를 해도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오?》

글을 까다롭게 쓰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공통뜻】 무슨 일이나 행동수행에 선뜻 나서지 못하다.

【개별뜻】

망설이다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궁리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다.

례: 할가말가 망설이는 눈치.

주저하다(躊躇: 머뭇거릴 주, 머뭇거릴 저) 말이나 행동, 일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다.

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면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다. 그런 때일수록 대담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돌진하여야 한다.

맛갖지 않다, 시답지 않다

【공통뜻】 마음에 들지 않다.

【개별뜻】

맛갖지 않다 마음이나 비위 또는 입맛에 들지 않다.

례: 지나가던 손님이 반말투로 길을 묻자 분조장은 《모르오.》라고 퉁명스레 대답하고는 맛갖지 않은 눈길로 그를 돌아보았다.

시답지 않다 마음에 내키지 않다.

례: 무한이는 꼬마인 봉기가 따라가겠다는것이 매우 시답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반대할수는 없었다.

맞추다, 맞히다

【공통뜻】 맞게 하다.

【개별뜻】

맞추다 ① 개개의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갖다대다.

례: 기계를 뜯었다가 맞추다.

②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들어맞거나 어울리게 하다.

례: 발을 맞추다.

③ 요구하는 답을 맞게 대다.

례: 알아맞추다.

④ 일정한 대상이나 정도에 맞게 하다.

례: 간을 맞추다.

⑤ 의도, 의향 등에 맞게 하다.

례: 마음을 잘 맞추다.

맞히다 주로 《쏘았거나 던졌거나 떨군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치게 명중시키다.》의 뜻을 가진다. 단어 《맞다》에 시킴의 뜻을 가진 상토 《히》가 붙은 단어이다.

례: 목표판을 맞히다.

나무우에 앉아있는 새를 돌멩이를 던져 맞히다.

맞이하다, 즈음하다

【공통뜻】 어떤 기념일을 당하다.

【개별뜻】

맞이하다 ① 사람을 례의로써 받아들이다.

례: 손님을 따뜻이 맞이하다.

② 명절이나 기념일, 생일 같은것이 다가오는것을 맞는 일을 하다.

례: 설명절을 즐겁게 맞이하다.

즈음하다 어떤 날이나 사실 등을 기념하거나 당하다.

례: 대학창립 60돐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기념모임을 가지였다.

《즈음하여》는 주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기념일이나 중요한 사변이 있은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쓴다.

멱살, 목살

【공통뜻】 목의 한 부분.

【개별뜻】

멱살 목의 앞쪽부분의 살 또는 그 부분.

례: 그는 무서운 힘으로 지주의 멱살을 한껏 높이 들어올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동댕이쳤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광복의 해발》)

목살 목과 혀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살.

례: 강마른 목살밑에서 울대뼈가 움찔거렸다.

면밀하다, 세밀하다

【공통뜻】 구체적이고 빈틈이 없다.

【개별뜻】

면밀하다(綿密: 솜 면, 빽빽할 밀) 놓치거나 흘러보내는것이 없이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

례: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다.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다.

세밀하다(細密: 가늘 세, 빽빽할 밀) 사소한것까지 주의를 돌려 아주 구체적이며 자세하다.

례: 의사는 강심주사를 놓은 다음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진찰하기 시작했다.

멸사, 결사

【공통뜻】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것.

【개별뜻】

멸사(滅私: 멸할 멸, 사사로울 사) 개인인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

례: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멸사복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결사(決死: 결단할 결, 죽을 사) 죽음을 각오하는것.

례: 용감한 전투원들은 결사대를 뭇고 돌격전에로 나갔다.

멸살, 몰살

【공통뜻】 모조리 죽는것.

【개별뜻】

멸살(滅殺: 멸할 멸, 죽일 살) 깡그리 다 죽여서 모조리 없애버리는것 또는 깡그리 다 죽어서 모조리 없어지는것.

례: 《…우리는 슬프더라도 울지 맙시다. 왜놈들을 멸살시킬 날이 멀지 않았어요.》(장편소설 《피바다》)

몰살(沒殺: 빠질 몰, 죽일 살) 주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곳에서 모조리 죽는 죽음. 동사형태 《몰살하다》, 《몰살되다》로 많이 쓰인다.

례: 적들은 대홍단벌 복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몰살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명석하다, 명철하다, 명쾌하다

【공통뜻】 무엇을 분석하는것이 명백하고 리치에 맞다.

【개별뜻】

명석하다(明晳: 밝을 명, 밝힐 석) 사고하고 분석하는것이 리치에 맞게 명백하고 똑똑하다.

례: 명석한 두뇌.

명철하다(明哲: 밝을 명, 밝을 철) 사물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정확하고 리치에 밝다.

례: 제기된 문제에 명철한 해답을 주었다.

명쾌하다(明快: 밝을 명, 쾌할 쾌) ① 말이나 글의 내용이 명백하여 듣기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

례: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주었다.

② 명랑하고 쾌활하다.

례: 기분이 명쾌하다.

명칭, 이름

【공통뜻】 개개의 대상들을 다른것과 구별하기 위해 정해 붙인 말.

【개별뜻】

명칭(名稱: 이름 명, 일컬을 칭) 일컫는 이름 즉 무엇이라고 지어부르는 이름.

례: 조직의 명칭. 당의 명칭.

이름 ①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마다에 지어서 붙인 말.

례: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

② 사물현상을 다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하여 부르는 말.

례: 마을이름. 책상이름. 나라이름.

③ (《높다》와 함께 쓰이여) 평판이나 소문이 난 부름말이나 칭호.

례: 세상에 이름난 강서약수.

④ (주로 《~의 이름으로》형으로 쓰이여) 《앞에서 지적한 칭호를 가지고》의 뜻.

례: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회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낸다.

⑤ 내용이나 사실과 맞지 않게 허짜로 불러 가리키는 말 즉 그에 해당한 자격이나 가치, 구실이 없으면서 가지고있는 명칭.

례: 이름좋은 하늘타리.

이름이 속기원이지 아직 재빠르게 받아쓰지 못한다.

명함, 성함, 존함

【공통뜻】 이름을 높이여 이르는 말.

【개별뜻】

명함(名銜: 이름 명, 자갈 함) ① 이름과 벼슬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또는 이름과 함께 직책, 신분, 주소 등을 밝혀 적은 종이쪽》을 이르는 말.

례: 명함을 주고받다. 명함장.

② 이름을 높이여 이르는 말.

례: 《선생님의 명함은 들은지 오래되였습니다.》

성함(姓銜: 성 성, 자갈 함) 사람의 《성과 이름》을 높이여 이르는 말.

례: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존함(尊銜: 높을 존, 자갈 함) 존귀한 명함.

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갈 쟁쟁한 인재들을 수많이 배출한 대학이다.

모략, 음모

【공통뜻】 나쁜 일을 꾸미는것.

【개별뜻】

모략(謀略: 꾀 모, 간략할 략) 사실을 외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책동.

례: 독립군들은 일제의 모략과 정탐파괴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동족끼리 싸우는 류혈적인 참극까지 빚어내고 있었다.

음모(陰謀: 그늘 음, 꾀 모)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꾀하는것 또는 그런 꾀. 내놓고 알리지 않게 뒤에서 모해하여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는 뜻도 있다.

례: 음모를 꾸미다. 음모가 드러나다. 음모적방법으로 해치다.

모습, 모색

【공통뜻】 사람의 생김새.

【개별뜻】

모습(貌襲: 모양 모, 껴입을 습) ① 사람의 생김생김이나 됨됨이 또

는 겉모양.

례: 아버지의 모습.

② 자연이나 사회 및 사물의 나타난 겉모양.

례: 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참모습.

모색(貌色: 모양 모, 빛 색) ① 얼굴의 생김새나 차린 모습.

례: 모색이 신통히도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② 본래의 모습이나 모양새.

례: 제 모색을 나타내다.

《모습》은 사람의 생김뿐아니라 사물이나 사회의 모양까지도 나타내지만 《모색》은 주로 사람의 얼굴생김새를 가리킨다.

목숨, 생명

【공통뜻】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게 하는 기본힘.

【개별뜻】

목숨 ①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게 하는 기본힘.

례: 목숨이 붙어있다.

② (《목숨으로》형으로 쓰이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죽음을 무릅쓰고.

례: 목숨으로 담보하다.

생명(生命: 날 생, 목숨 명) ① (살아있는) 목숨.

례: 생명의 은인.

② 물질에 대한 자체동화능력과 자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운동하는 물질의 존재형식. 물질대사, 자라기, 기르기, 감수성, 번식, 유전, 진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의 고유한 속성이다.

③ 어떤 사물현상의 가장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기능이 작용하면서 그 존재가 유지되게 하는것 또는 그러한 기능을 목숨에 비겨 이르는 말.

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목숨》은 고유어이고 《생명》은 한자어로서 서로 뜻이 비슷하나 뜻폭에서는 같지 않으므로 잘 골라 써야 한다.

몸가짐, 몸단장, 몸차림

【공통뜻】 사람의 외모를 가꾸는 일.

【개별뜻】

몸가짐 몸의 움직임이나 몸을 거두는 자세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품행. 여기에는 앉음새, 누움새, 서있는 자세, 옷매무시 등이 속한다.

례: 갑자기 고분고분한 몸가짐이 된 녀자애는 발가락으로 모래알을 굴렸다.(장편소설 《평양시간》)

몸단장(丹粧: 붉을 단, 단장할 장) 몸을 거두고 옷차림을 꾸미는것.

례: 《몸단장을 곱게 하니 다들 선남, 선녀같구만!》

몸차림 옷, 신발, 모자 같은것으로 몸의 차림새를 갖추는것 또는 그 차림. 옷차림은 몸차림의 한 측면이다.

례: 몸차림은 사람들의 정신상태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몸소, 손수, 친히

【공통뜻】 《자신이 직접》이라는 뜻을 가진 행동부사.

【개별뜻】

몸소 친히 자기 몸을 움직여 직접.

례: 학장선생님이 몸소 신입교원들을 위한 모범강의에 출연하였다.

손수 《자신의 손으로 직접》의 뜻으로 높이여 이르는 말.

례: 할아버지는 손수 집에서 키운 도마도를 따서 손님들앞에 내놓았다.

친히 《자신께서 직접, 몸소》의 뜻으로 높여 이르는 말.

《몸소》 또는 《손수》에 친절성이 더 부여된 부사이다.

《몸소》에도 쓰일수 있고 《손수》에도 쓰일수 있다.

례: 할머니께서 친히 담근 갓김치를 온 가족이 모여앉아 맛있게 먹었다.

이 단어들은 그 뜻이 비슷하므로 엇바꾸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정확히 가려 써야 한다. 《몸소》와 《친히》는 《자신께서 직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지만 《손수》는 주로 손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쓴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몸소》는 주로 몸으로 직접 하는 행동에 대해 쓴다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몸집, 몸뚱이

【공통뜻】 사람 또는 동물의 몸체.

【개별뜻】

몸집 몸의 덩치.

례: 몸집이 크다. 몸집이 작다.

몸뚱이 ① 팔과 다리, 머리를 제외한 몸의 부분.

례: 몸뚱이와 팔. 몸뚱이와 다리.

② 《몸》을 얕잡아 이르는 말.

③ 물건의 《본체》를 얕잡아 이르는 말.

례: 고지릉선의 적기관총화점이 희미한 달빛에 몸뚱이를 드러내놓았다.

묘리, 묘책

【공통뜻】 기묘한 생각.

【개별뜻】

묘리(妙理: 묘할 묘, 다스릴 리) 반드시 그렇게만 되여야 하는 묘한 원리.

례: 묘리를 생각해내다. 깊은 묘리를 깨치다. 묘리를 가르쳐주다.

묘책(妙策: 묘할 묘, 꾀 책) 기묘하거나 신통한 대책.

례: 묘책을 생각해내다. 묘책을 발견하다. 신통한 묘책이 떠오르다.

묘사, 소묘

【공통뜻】 방불하게 그리는것.

【개별뜻】

묘사(描寫: 본뜰 묘, 쓸 사) 그림이나 언어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

례: 초상묘사. 성격묘사. 심리묘사. 자연묘사.

미술에서 인물의 성격창조는 얼굴에 대한 묘사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소묘(素描: 흴 소, 본뜰 묘) 미술부문에서 연필, 붓, 숯, 철필 등을 리용하여 한가지 색갈로 어떤 대상, 현상의 기본특징을 잡아서 방불하게 그린 그림 또는 그렇게 그리는 방법.

례: 이번 소묘경연에서는 6살 난 유치원꼬마가 1등을 하였다.

무랍없다, 허물없다

【공통뜻】 사람을 대하는데서 조심하거나 어려워하는 티가 전혀 없다.

【개별뜻】

무랍없다 몹시 사이가 가까와 어려워하는 티가 전혀 없다. 주로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대할 때, 같은 나이끼리에서 많이 쓴다.

례: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랍없이 지내왔다.

허물없다 체면이나 틀을 차리거나 조심하는 기미가 없이 소탈하게 대하다. 주로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대할 때에 또는 같은 나이에서 많이 쓴다.

례: 그는 로동자들의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았다.

무정하다, 매정하다

【공통뜻】 정다운 태도나 인정이 전혀 없다.

【개별뜻】

무정하다(無情: 없을 무, 뜻 정) 남의 사정에 아랑곳없거나 또는 인정이나 애정이 없다.

례: 혜영은 무정한 남편의 말이 몹시 야속하여 눈물을 흘리였다.

매정하다(埋情: 묻을 매, 뜻 정) 얄미울 정도로 인정이 전혀 없다.

례: 《원, 세상에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보다보다 처음이요.》

묵과하다, 융화하다

【공통뜻】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다.

【개별뜻】

묵과하다(默過: 묵묵할 묵, 지날 과)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거나 두둔하여 그대로 넘기다.

례: 그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묵과하는 성미가 아니였다.

융화하다(融和: 녹을 융, 화할 화) ① 옳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타협하다.

례: 《아무리 친구지간이래도 이번 일은 절대로 융화할수가 없네.》

②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화합하다.

묵도, 묵상

【공통뜻】 세상을 떠난 사람을 머리숙여 추모하는것.

【개별뜻】

묵도(默禱: 묵묵할 묵, 빌 도) 세상을 떠난 사람의 령전이나 사진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추모하는것. 동사형태로는 《묵도하다》로 쓰인다.

묵상(默想: 묵묵할 묵, 생각 상) ① 눈을 감고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는것.

례: 묵상에 잠기다.

②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모하여 머리를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는것. =묵도

례: 희생된 동지를 그리며 잠시 묵상하였다.

묵인, 허용, 용납, 용서

【공통뜻】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내버려두거나 받아들이는것.

【개별뜻】

묵인(默認: 묵묵할 묵, 알 인) 덮어두지 말아야 할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슬며시 인정하는것.

례: 동무가 귀중하면 할수록 그의 결함을 묵인하지 말고 제때에 타일러주어야 한다.

허용(許容: 허락할 허, 얼굴 용) ① 어떤 행동을 할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닥 잘되지 않은 일을 보고도 막거나 추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것.

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② 표준이나 정량이 못되거나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거나 허락할수 있는 한계로 되는것.

례: 허용한계. 허용수치.

용납(容納: 얼굴 용, 들일 납) 남의 말이나 행동, 요구 등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허락하는것.

례: 불쌍한 어린것에게 조촐한 명절날의 즐거움을 주자는 가난한 지성의 이 간절한 소원도 현실은 용납해주지 않았다.(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용서(容恕: 얼굴 용, 용서할 서) 지은 죄나 과오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처리하는것.

례: 용서 못할 죄행. 관대하게 용서받다.

모르고 한 잘못이니 용서해주다.

문초, 심문

【공통뜻】 무엇을 밝히기 위하여 따져 묻는것.

【개별뜻】

문초(問招: 물을 문, 부를 초)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하는것.

례: 문초를 당하다.

심문(審問: 살필 심, 물을 문) ① 법기관일군들이 사건의 정확한 취급처리를 위하여 피심자, 피소자, 증인, 감정인들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받아내는 소송행위.

례: 심문을 받다.

② 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묻는것.

문의, 질문

【공통뜻】 무엇을 알려고 하는 물음.

【개별뜻】

문의(問議: 물을 문, 의논할 의) 물어서 의논하는것.

례: 《그 문제는 철수동무와 문의하고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 전화번호문의.

질문(質問: 바탕 질, 물을 문) 무엇을 알아보거나 밝히기 위해 묻는것.

례: 그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초조감으로 가슴을 태우고 섰다가 그 어떤 용단을 내여 지금 기압이 몇기압이나 되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장편소설 《령마루》)

지금은 대체로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

뭇다, 묶다

【공통뜻】 따로따로 있던것을 한데 모아 하나로 만들다.

【개별뜻】

뭇다 ①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어떤 짝, 패거리 또는 조직체를 만들다.

례: 학습소조를 뭇다. 조직을 뭇다.

② 여러개를 한데 붙이거나 이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다.

례: 짐배를 뭇다. 뗴를 뭇다.

묶다 ① 무엇을 한데 붙어있도록 끈으로 동이다.

례: 짐을 묶다.

② 손발이나 몸을 얽어 동이다.

례: 손발을 묶다.

③ 여럿을 하나에 집결시키거나 망라하다.

례: 분산된 력량을 한데 묶다.

④ 여러가지 전문별지식이나 자료, 문제들을 일정한 체계로 배렬하거나 연설, 담화, 론문 등과 같은 글들을 년대별 또는 부문별, 내용별로 체계화하여 책으로 편찬하다.

례: 경험집을 묶다.

미덕, 미풍

【공통뜻】 아름다운 문화도덕적측면.

【개별뜻】

미덕(美德: 아름다울 미, 덕 덕)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 또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행위.

례: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덕들이 수없이 발휘되고있다.

미풍(美風: 아름다울 미, 바람 풍) 아름다운 생활기풍.

례: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을 사랑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이다.

아름다운 문화도덕적측면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므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덕》을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풍》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미덕》은 어디까지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을 의미하며 《미풍》은 그러한 생활양식과 생활기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심쩍다, 미타하다

【공통뜻】 미덥지 않아 안심할수 없다.

【개별뜻】

미심쩍다(未審: 아닐 미, 살필 심) 확실하지 못하여 어딘가 의심하며 마음을 못 놓다.

례: 지난밤 대덕령 주막집에서 잤는데 앞에서 들어오는 길손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두루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미타하다(未妥: 아닐 미, 편안할 타) 무엇이 타당하지 않거나 견고하지 못한데가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다.

례: 그는 언제나 남먼저 직장에 나가 교대전에 미타한 곳을 미리 살펴보군 하였다.

미혹, 매혹

【공통뜻】 마음이나 정신이 쏠리는것.

【개별뜻】

미혹(迷惑: 혼미할 미, 미혹할 혹) 무엇에 홀려서 거기에만 정신이 빠지거나 정신이 혼동되여 갈팡질팡하는것. 주로 부정적뜻빛갈을 가진다.

례: 낡은것에 미혹되고 거기만 매달리면 새것을 볼수 없으며 새것에 민감할수 없다.

매혹(魅惑: 호릴 매, 미혹할 혹) 마음이 쏠리여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것. 주로 긍정적뜻빛갈을 가진다.

례: 같이 앉아있던 군정들조차도 그 소리에 매혹되여 모든것을 잊은듯 영식이를 바라보았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장편소설 《임오풍운》)

미욱하다, 우둔하다

【공통뜻】 지혜롭지 못하거나 곰살스럽지 못하고 둔하다.

【개별뜻】

미욱하다 하는짓이 미련하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둔하다. 주로 행동거지를 놓고 하는 말이다.

례: 미욱하게 놀다.

우둔하다(愚鈍: 어리석을 우, 둔할 둔) 어리석고 둔하다.

례: 조선속담 《우둔한 놈 범잡는다.》는 이것저것 리치를 따지고 경우를 잴줄 모르는 우둔한 사람이 범과 같은 큰 짐승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지 않고 어떤 일에 덤벙 뛰여든 사람이 뜻밖에 큰일을 하였을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미욱하다》는 보통 고집스럽고 우직스러운 경우에 쓴다면 《우둔하다》는 주로 꾀가 없이 어리석은 경우에 쓴다.

민첩하다, 민활하다

【공통뜻】 느낌이나 행동이 매우 빠르다.

【개별뜻】

민첩하다(敏捷: 민첩할 민, 빠를 첩) 행동이 재빠르고 날래며 능란하다.

례: 요술사는 민첩한 동작으로 한꺼번에 세마리의 비둘기를 손바닥우에 꺼내놓았다.

민활하다(敏活: 민첩할 민, 살 활) 빠르고 날쌔다.

례: 정찰병들은 민활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적들끼리 맞불질하도록 붙여놓고 그 틈을 타서 유유히 돌아왔다.

밀고나가다, 벌려나가다

【공통뜻】 무슨 일을 전개해나가다.

【개별뜻】

밀고나가다 ① 어떤 물체를 앞으로 밀어서 나가다.

례: 밀차를 밀고나가다.

② 어떤 사업이나 일을 맡아 떠밀고나가다.

례: 《이번 목장건설을 우리 청년들이 도맡아 본때있게 밀고 나갑시다.》

벌려나가다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운동이나 전투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나가다.

례: 모든 단위에서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매진, 전진

【공통뜻】 힘차게 나가는것.

【개별뜻】

매진(邁進: 갈 매, 나아갈 진) 앞으로 기운차게 나아가는것.

례: 그는 오직 실험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있다.

전진(前進: 앞 전, 나아갈 진) ① 앞방향으로 나가는 운동. 뒤방향으로 움직이는 《후진》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례: 전진과 후진.

대렬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였다.

② 어떤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투쟁을 벌려나가는것.

례: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 노도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③ 력사발전의 길을 따라 보다 새로운 단계에 이르거나 향해가는것.

례: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울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④ 수준이나 질적상태가 높은 단계에로 올라가는것.

례: 확실히 림선생의 새 치료법도입으로 환자의 회복에서 전진이 있었다.

매혹되다, 반하다, 현혹되다

【공통뜻】 어디에 마음이 몹시 끌리다.

【개별뜻】

매혹되다(魅惑: 호릴 매, 미혹할 혹) 마음이 끌리여 사로잡히다.

례: 우리는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에 완전히 매혹되여서 오래도록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다.

반하다 ① (이성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여 마음이 끌리다.

례: 롱을 즐기는 작업반장은 《아무래도 요즘 복실이가 근수에게 반한거야. 처녀체면에 총각을 홀리기까지 하는걸 보니.》 하고 한바탕 웃었다.

② (인품이나 활동 등에) 매혹되여 마음이 이끌리다.

례: 나는 모든 일을 명백하게 맺고 끊는 그의 성품에 완전히 반하였다.

③ 어떤 사물현상에 대하여 마음에 끌리여 어쩔줄 모르거나 황홀해지다.

례: 가수의 노래에 반하다.

현혹되다(眩惑: 어지러울 현, 미혹할 혹) 얼떨떨해지거나 제정신을 못 차리게 홀리우다.

례: 딱따구리가 내는 기막히게 묘한 소리에 현혹된 봉길은 새초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반목, 질시

【공통뜻】 나쁜 감정으로 대하는것.

【개별뜻】

반목(反目: 돌이킬 반, 눈 목) 서로 뜻이 달라 사이가 나빠지면서 아니꼽게 보는것.

례: 《오늘 이와 같이 험악한 지경으로 독립군들간의 반목을 조장하고있는 사실 등 이 모든것을 종합하여보면 표범수는 매우 심상치 않은 놈입니다.》 하고 그는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질시(嫉視: 미워할 질, 볼 시) 나쁜 감정으로 대방을 매우 밉게 보는것.

례: 그 싸늘한것속에는 적의가 있었고 질시가 있었고 격분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밟다, 밞다

【공통뜻】 다리를 움직이다.

【개별뜻】

밟다 다리를 들었다놓으면서 발바닥을 땅이나 기타 어떤 대상에 대고 누르는것.

례: 땅을 밟다. 종이를 밟다.

밞다 자가 아니라 보폭(한걸음사이 길이) 또는 발(두팔을 벌린 길이), 뼘(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사이 길이)을 단위로 하여 거리를 헤아리다.

이로부터 체육용어 《밞아달리기》는 높이뛰기, 장대뛰기, 삼단뛰기를 할 때 발구르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조절하며 달려나오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방해, 훼방

【공통뜻】 남의 일이 순조로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것.

【개별뜻】

방해(妨害: 해로울 방, 해로울 해) 남의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헤살(남이 일이 안되도록 훼방하는노릇)을 놓아서 해를 끼치는것.

례: 방해책동.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

훼방(毁謗: 헐 훼, 헐뜯을 방) ① 남의 일이 잘되는것을 방해하는것.

례: 《누가 어떤 훼방을 놓아도 나는 이 위임을 충실히 집행하겠소.》

②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것.

례: 그따위 가소로운 중상과 훼방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지조를 굽힐 덕성이는 아니였다.

변장, 위장

【공통뜻】 본래의 모양을 가리우는것.

【개별뜻】

변장(變裝: 변할 변, 꾸밀 장)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바꾸어 입거나 얼굴모습을 달리 바꾸거나 꾸미는것.

례: 무장소조는 오직 목적달성을 위하여 놈들과의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느라고 먼길을 에돌기도 하고 정황에 따라 변장도 하였다.(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위장(僞裝: 거짓 위, 꾸밀 장) 사물의 본 모양이나 본질 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지를 거짓으로 보이게 하거나 또는 거짓을 실지처럼 보이도록 꾸미는것.

례: 그러나 놈들은 철저히 위장한 전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짐작으로 쏘아대고있었다.(장편소설 《청년전위》)

병사, 전사

【공통뜻】 (일반적으로) 군관이 아닌 군인.

【개별뜻】

병사(兵士: 군사 병, 선비 사) ① 《군대의 전사, 사관》을 통털어 이르는 말.

② 《군인》을 따로 이르는 말.

례: 조국을 지켜싸우는 병사.

전사(戰士: 싸움 전, 선비 사) ① 군사칭호에서 맨 아래직위 또는 그 직무에 있는 군인.

례: 갓 입대한 전사.

② 《군관이외의 모든 군인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지휘관과 전사.

③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싸우는 군인.

례: 그 전사동무는 적의 화점을 자기 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무당당, 위풍당당

【공통뜻】 위엄있고 기세가 높은것.

【개별뜻】

보무당당(步武堂堂: 걸음 보, 군사 무, 집 당) (걸음걸이 또는 행진하는 기세가) 위엄있고 씩씩하고 어엿한것.

례: 보무당당하게 전진하는 열병대오.

대오는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류창한 군악소리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거리를 행진하였다.

위풍당당(威風堂堂: 위엄 위, 바람 풍, 집 당) 위풍이 대단하고 기세가 도도한것. 《위풍》은 위엄이 있는 풍채나 기세를 말한다.

례: 우리 선수들이 위풍당당하게 경기장으로 입장하자 응원자들은 힘찬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복수심, 적개심, 증오심

【공통뜻】 미워하는 마음.

【개별뜻】

복수심(復讐心: 다시 복, 원쑤 수, 마음 심) 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마음.

례: 생활에서의 쓸데없는 복수심은 백해무익하다.

② 원쑤를 갚으려는 마음.

례: 침략자들의 비행기폭격으로 한날한시에 부모를 잃은 영수의 가슴속에는 원쑤에 대한 복수심이 활화산처럼 끓어번졌다.

적개심(敵愾心: 대적할 적, 성낼 개, 마음 심) 원쑤에 대해 증오하고 분격하는 마음.

례: 참다운 애국심을 가질 때라야 불타는 적개심도 가질수 있다.

증오심 [憎惡心: 미워할 증, 악할 악(오), 마음 심] 몹시 미워하는 마음.

례: 소설을 읽고난 나는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본능적, 선천적

【공통뜻】 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것.

【개별뜻】

본능적(本能的: 근본 본, 능할 능, 적실할 적) 본능에서 나오거나 본능에 속하는(것).

날 때부터 자기를 보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수행하는 행동이나 성질, 반응으로 되는것이다.

례: 동물의 모든 활동은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인 활동이다. 여기에는 먹는 본능, 새끼를 낳아 키우는 본능 등이 있다. 사람의 본능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조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현이 억제되고 극복되기도 한다.

선천적(先天的: 먼저 선, 하늘 천, 적실할 적) 성질, 체질, 질병 같은것을 날 때부터 몸에 지닌 곧 타고난 성질의(것).

례: 그는 선천적으로 음감에 밝은 사람이였다.

《선천적》의 반대말은 《후천적》이며 선천적인 성질에 대하여 《천성》이라고도 말한다.

부지런하다, 꾸준하다

【공통뜻】 어떤 일을 쉬지 않고 근기있게 하다.

【개별뜻】

부지런하다 몸을 움직이거나 일하는품이 재고 꾸준하며 열성이 있다. 《부지런하다》는 주로 사람의 《근면성》과 관련된 형용사로서 《게으르다》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례: 부지런히 익히다. 부지런히 일하다.

꾸준하다 일을 하는데서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끈기있게 해나가는데가 있다.

《꾸준하다》는 오분열도식으로 하지 않고 끝장을 볼 때까지 지꿎게 달라붙는 일본새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주로 《인내성》, 《완강성》과 관련된 형용사이다.

례: 꾸준한 성미. 꾸준한 일본새.

과학기술을 습득하자면 꾸준하고 이악하게 열성적으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부치다, 붙이다

【공통뜻】 –

【개별뜻】

부치다1 힘이 모자라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다. 또는 힘에 겹거나 해내기 어렵다.

례: 기운이 부치다. 힘에 부친 일.

부치다2 부채 같은것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다.

례: 부채를 부치다.

부치다3 기름을 바른 지짐판 같은데서 물을 넣고 갠 가루나 푼 닭알 또는 그것을 씌운 음식감을 펴서 익히다.

례: 닭알을 부치다.

부치다4 우편물이나 그밖의 물건을 체신수단이나 운수수단 또는 인편을 통하여 보내다.

례: 편지를 부치다. 소포를 부치다. 철도로 부치다.

부치다5 논밭을 갈아서 농사짓다.

례: 논을 부치다. 밭을 부치다.

붙이다1 ① 들이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례: 풀로 붙이다. 벽에 붙이다. 종이를 붙이다.

② 불이 옮겨 달리거나 당기게 하다.

례: 담배에 불을 붙이다.

③ 서로 겨루게 하다.

례: 경쟁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④ 쌍을 이루게 하거나 둘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주다.

례: 쌍을 붙이다.

다투어서 말도 안하던 영수와 철만이를 붙여주었다.

⑤ 어디에 선발되거나 들어가 생활하게 하다.

례: 유치원에 붙이다. 대학에 붙이다. 직장에 붙이다.

⑥ 어떤 일거리에 소속시켜 하게 하다.

례: 로력을 붙이다. 견습공을 붙이다.

《정희동무를 붙여주겠으니 같이하시오.》

⑦ 주되는것에 더 보충하다.

례: 농촌문화주택을 창고까지 붙여지었다.

⑧ 어떤 돈에 리자 같은것을 더하다.

례: 리자를 붙이다. 부가금을 붙이다.

⑨ 어떤 대상에 달리거나 속하게 하다.

례: 별명을 붙이다. 딱지를 붙이다. 버릇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⑩ 일정하게 사이가 있어야 할 두 부위를 거의 맞닿게 하다.

례: 책상을 벽에 붙이다. 옆에 바싹 붙이다.

⑪ 씨앗 같은것을 땅에 뿌리다.

례: 씨를 붙이다.

⑫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 떨어지지 않게 하다.

례: 입맛을 붙이다. 정을 붙이다. 마음을 붙이다.

⑬ 근거, 리유, 구실 등을 대다.

례: 구실을 붙이다.

붙이다2 ① 말을 걸다.

례: 곁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붙이다.

② 희망이나 기대 같은것을 걸다.

례: 앞날에 대한 큰 희망을 붙이다.

③ (일부 명사와 함께 쓰이여) 때리다.

례: 몽둥이로 한대씩 붙이다.

④ 토의나 심의 등에 내놓고 토론하게 하다.

례: 토의에 붙이다. 공개심사에 붙이다.

⑤ (《비밀》, 《의문》과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이여) 그런 상태로 있게 하다.

례: 비밀에 붙이다. 의문에 붙이다.

⑥ (주로 《눈》과 함께 쓰이여) 잠을 자다.

례: 잠간 눈을 붙이다.

⑦ (손을 모자가까이에 펴올려) 인사를 하다.

례: 차렷자세로 서서 경례를 붙였다.

⑧ 지긋이 자리잡다.

례: 엉치를 붙이다.

⑨ (윷놀이에서) 말을 밭에 달다.

례: 세번째 말을 붙이다.

이와 같이 《부치다》와 《붙이다》는 소리가 같을뿐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뜻으로 널리 쓰이는만큼 잘 가려서 써야 한다.

부흥, 부활

【공통뜻】 다시 일떠서는것.

【개별뜻】

부흥(復興: 다시 부, 일 흥) 다시 일어나거나 일떠서 흥하게 하는 것 또는 다시 건설하는것.

례: 《강성부흥아리랑》. 경제의 부흥. 부흥발전.

부활(復活: 다시 부, 살 활) ①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것. ② 낡고 시들어가거나 몰락해가던것이 다시 활기를 띠고 왕성해지는것.

례: 죽지 않은 조선, 살아있는 온 조선이 자기의 부활될 앞날을 예감하고 기쁨에 겨워 흥성거렸다.(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압록강》)

분노, 의분

【공통뜻】 몹시 성이 난것.

【개별뜻】

분노(憤怒, 忿怒: 성낼 분, 성낼 노; 분할 분, 성낼 노)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것 또는 그렇게 난 성.

례: 가느다란 피발이 건너간 유순한 커다란 눈에 눈물이 핑 어리더니 그속에서 분노의 빛이 이글거리며 내뻗쳤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의분(義憤: 옳을 의, 성낼 분)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정의감에서 일어나는 분노.

례: 당시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분을 자아냈다.

의분에 몸을 떨다.

분수없다, 주책없다, 오새없다

【공통뜻】 분별없이 행동하다.

【개별뜻】

분수없다(分數: 나눌 분, 셈 수) ① 무엇을 분별할만 한 능력이 없다.

례: 《점잖은 모임에 분수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잘못하면 망신이나 당하기 쉽지.》

② 아무런 대중이나 짐작이 없다.

례: 《그렇게 분수없이 자주 찾아가면 내 립장이 어떻게 되겠나.》

주책없다=주책머리없다 리치를 가려볼만 한 주견이나 주대가 없다.

례: 《참, 내가 주책없는 소리도 하지.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 산에서 한지잠을 자며 다니는데 무엇을 또 자식들에게 바라겠습니까?》(장편소설 《피바다》 제1부)

오새없다 사물의 속내를 분간하는 능력이나 분수가 없다. 주로 《셈이 들지 않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례: 《아주바이, 좀 비키오. 남녀평등권인줄 모르고 쩍하면 녀자들앞에 나서서 오새없이 그런당이.》(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

분장, 화장

【공통뜻】 얼굴을 꾸미는것.

【개별뜻】

분장(扮裝: 꾸밀 분, 꾸밀 장) ① (문학예술에서) 배우의 외모를 역인물의 성격에 맞게 꾸미는것 즉 배우의 외모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여러가지 조형수단을 가지고 역인물의 성격적특성에 맞게 살릴것은 살리고 누를것은 누르면서 배우의 외모를 역인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인간초상을 창조해내는것 또는 그러한 예술.

례: 분장사. 분장미술. 배우의 분장.

② 허위와 날조로 정체를 감추고 위장하는것.

례: 애국자로 분장한 매국노.

화장(化粧: 될 화, 단장할 장) 분이나 연지 같은것을 바르고 매만져서 주로 얼굴을 아름답게 치장하는것.

례: 화장을 짙게 하다.

분통, 통분, 원통

【공통뜻】 몹시 분하고 억울한 마음.

【개별뜻】

분통(憤痛: 분할 분, 아플 통) 몹시 분하고 원통해하는 마음.

례: 분통이 터지다. 분통이 치밀다. 분통한 심정.

통분(痛憤: 아플 통, 분할 분) 원통하고 분한것.

례: 통분한 마음.

원통(寃痛: 원통할 원, 아플 통) 분하고 억울하거나 가슴아픈것.

례: 사랑하는 부모를 원쑤들에게 빼앗긴 그 원통한 마음을 참을수가 없었다.

일제에게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긴 조선사람은 그 몇이던가!

《분통》이나 《통분》에는 분하다는 뜻이 더 강하다면 《원통》에는 억울하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다.

불구다, 불쿠다

【공통뜻】 부피가 커지거나 량이 늘어나게 하다.

【개별뜻】

불구다 ① (물체를) 물기를 머금거나 공기나 누기가 들어차서 부피가 커지게 하다.

례: 콩을 불구다. 쌀을 불구다.

②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거나 늘어나게 하다.

례: 인원을 불구다. 량을 불구다.

불쿠다 《불구다》를 세게 이르는 말.

례: 콩을 불쿠다. 량을 불쿠다.

불구대천의 원쑤, 철천지원쑤

【공통뜻】 가장 악독한 원쑤.

【개별뜻】

불구대천의 원쑤[不俱戴天의 怨讐: 아니 불, 함께 구, 일 대, 하늘 천, 원망할 원, 원쑤 쑤(수)] 한하늘을 함께 이고 살수 없는 극악한 원쑤.

철천지원쑤[徹天之怨讐: 사무칠 철, 하늘 천, 갈 지, 원망할 원, 원쑤 쑤(수)] 하늘에 사무치는 원쑤 즉 두고두고 잊을수 없도록 원한이 뼈에 사무쳐있는 간악한 원쑤.

례: 일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불우하다, 불운하다

【공통뜻】 처지나 신세가 불행하다.

【개별뜻】

불우하다(不遇: 아니 불, 만날 우) 때를 잘못 만나 이러저러하게 불행하다.

례: 불우한 이국살이. 불우한 인생. 불우한 신세.
일제때 머슴군의 집에서 태여나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린시절부터 불우한 처지에서 배를 곯으며 자라난 그가 오늘은 현대적인 큰 공장의 지배인으로 되였다.

불운하다(不運: 아니 불, 운전할 운) 운수가 좋지 못하다.

례: 순실은 한쪽다리를 못쓰는 불운한 아기가 되였다.(장편소설 《생명수》)

비굴하다, 비렬하다

【공통뜻】 됨됨이나 하는짓이 너절하다.

【개별뜻】

비굴하다(卑屈: 낮을 비, 굽힐 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며 남에게 굽실거리는것이 너절하고 추하다.

례: 비굴한 태도.

비렬하다(卑劣, 鄙劣: 낮을 비, 용렬할 렬; 더러울 비, 용렬할 렬) 됨됨이나 하는짓이 너절하고 루추하다.

례: 불행한 사람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것은 비렬한짓이다.

비난, 조소

【공통뜻】 남이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나 평가.

【개별뜻】

비난(非難: 아닐 비, 어려울 난) ① 남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나무람하거나 나쁘게 말하는것.

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만 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터무니없이 사실에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것.

례: 사회주의에 대한 비난을 업으로 삼다.

조소(嘲笑: 조롱할 조, 웃음 소) 놀려대며 비웃는것 즉 비웃음. 《조소》도 물론 어떤 일이나 행동을 허물이나 잘못으로 본다는 뜻에서 《비난》과 공통뜻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나쁘게 말하거나 나무람하는것이 아니라 비꼬아 말하거나 비웃음으로 대한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비난과 조소》라는 단어결합형태로 많이 쓰인다.

례: 억쇠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웃고있었으나 눈에는 싸늘한 조소가 어려있었다.

비방, 비양

【공통뜻】 비웃는것.

【개별뜻】

비방(誹謗: 비방할 비, 헐뜯을 방) 대방을 비웃고 헐뜯는것.

례: 비방과 중상.

비양 빗대여놓고 빈정거리며 놀리는것. 흔히 조소와 야유가 섞인 웃음을 동반한다. 해학보다는 비판이 신랄하고 풍자보다는 약하

므로 주로 희극작품, 재담, 우화창작의 표현수법으로 많이 쓰인다.

례: 《그것도 좋지. 경제적이니까. …》 금방 아저씨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속으로는 비양하는 태도가 력력히 보인다.

빌리다, 꾸다

【공통뜻】 도로 주기로 약속하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구하다.

【개별뜻】

빌리다 주로 물건 같은것을 얼마동안 쓰다가 되돌려주기로 하고 누구에게서 얻다.

례: 책을 빌려보다.

《빌려주다》는 그와는 반대로 물건의 소유자가 그것을 다시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림시로 준다는 뜻을 가진다.

꾸다 주로 없거나 모자라는 재산(돈, 쌀, 자재, 원료 등) 같은것을 후에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남에게서 얻다.

례: 남의 돈을 꾸다.

《꾸다》는 꾼것을 소비해버리고 그대신 그와 맞먹는 가격을 가진것이나 같은 종류의 대상을 보상한다는데 《빌리다》와의 차이가 있다.

배심, 배짱, 배포

【공통뜻】 주대를 굽히지 않음.

【개별뜻】

배심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주대를 굽힘없이 지켜내는 힘.

례: 배심이 든든하다.

열번 지고도 한번 이기면 이길수 있다고 하는것이 장기군들의 배심이다.

배짱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굴복함이 없이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돌려세우지 않는 굳센 의지와 태도.

례: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 안할 로광부의 배짱이 있다.(장편소설 《령마루》)

배포(排布, 排鋪 헤칠 배, 베 포; 헤칠 배, 펼 포) 천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벌려놓았다는 뜻으로서 마음속에 꿋꿋이 품고있는 속생각.

례: 선삯을 먹여놨으니 아무렇게 다루어도 달아나지 못하리라는 배포같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배포가 유하다.》라는 말은 급하거나 복잡한 환경에도 서두르지 않고 배짱좋게 늦잡는 태도가 있다는 뜻이다.

례: 군복을 입은 두 사나이는 토방에 걸터앉더니 배포유하게 판을 차리고 이것저것 많이 묻는것이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베다, 자르다, 켜다, 썰다

【공통뜻】 날이 있는 연장(일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을 리용하여 옹근것을 갈라놓다.

【개별뜻】

베다 ① 날이 있는 기구로 자르거나 끊다.

례: 가위로 천을 베다. 낫으로 벼를 베다.

② 이발로 자르거나 끊다.

례: 그는 이발이 없어서 떡을 베여먹을수 없으므로 잘금잘금하게 칼로 잘라서 주어야 한다.

③ 날이 있는 기구에 의해 상처를 입다.

례: 식칼에 손을 베다. 유리에 발을 베다.

자르다 ① 물체의 일정한 부분을 동강이 나도록 가로 베거나 몸체에서 일부를 떼내여버리다.

례: 통나무를 도끼로 자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다. 칼로 오이를 자르다. 가지를 자르다. 꼬리를 자르다.

② 불필요한것을 끊어서 없애다.

례: 화면을 자르다.

③ 말이나 일을 길게, 오래 끌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매듭을 짓다.

례: 말을 자르다. 요긴한 대목에서 자르다.

④ 남의 요구나 의견 같은것을 딱 거절하거나 들어주지 않다.

례: 적들의 부당한 제의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다.

⑤ 기구 같은것을 줄이다.

례: 기구정원을 자르다.

⑥ 주어오던 공급이나 지출을 중지하다.

례: 자재를 자르다. 공급을 자르다.

⑦ 맺었던 관계를 끊어버리다.

례: 거래를 자르다.

⑧ 일정한 직위에서 처벌로 떼여버리다.

례: 위기에 처한 적들은 서로 책임을 넘겨씌우며 목을 자르기 시작했다.

⑨ 지불하는 돈가운데서 그 일부를 떼내여 지불하지 않다.

례: 돈을 자르다. 월급을 자르다.

켜다 ① 어떤 물체의 세로방향으로 톱을 대고 베다. 켜는 행동은 칼이나 도끼, 자귀 등과 같은 도구로는 할수 없고 톱으로 해야 하므로 주로 《톱으로 켜다.》의 형태로 쓰인다.

례: 나무를 켜다. 박을 켜다.

② 일부 줄악기의 줄에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다.

례: 바이올린을 켜다.

썰다 ① 주로 날이 있는 연장이나 그와 비슷한것으로 토막토막을 짓거나 매우 잘게 베여낸다는 뜻.

례: 작두로 마른풀을 썰어 젖소와 돼지에게 주다.
칼로 무우를 썰다.

② 어떤 공간을 가로질러 나가다.

례: 비행기가 하늘을 썰며 지나갔다. 포탄이 공기를 썰며 날아갔다.

③ 어떤 분위기를 깨뜨리다.

례: 풀벌레가 정적을 썰며 찌르륵찌르륵 울었다.

사랑, 애정

【공통뜻】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바치는 마음.

【개별뜻】

사랑 ①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심정으로 지성껏 대하거나 잘되도록 바라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것. 《사랑》의 본래 뜻은 《깊은 생각》이였는데 점차 뜻이 전의되여 여러가지 뜻을 가지게 되였다.

례: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② 남녀사이에서 존경과 믿음의 정을 가지고 서로 귀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위하고 그리는 열렬한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것.

례: 청춘남녀들의 사랑관계는 고상하고 숭고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믿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사물을 몹시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것.

례: 일터에 대한 사랑. 나라재산에 대한 사랑.

애정(愛情: 사랑 애, 뜻 정) 사랑하는 마음과 정.

례: 애정을 표시하다. 자식에 대한 애정.

《사랑》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두루 쓸수 있다는 점에서 《애정》에 비하여 뜻폭이 넓다.

사색, 추리

【공통뜻】 깊이 생각하는것.

【개별뜻】

사색(思索: 생각 사, 찾을 색) 무엇을 풀거나 찾아내기 위하여 깊이 헤아리며 생각을 더듬고 사고를 거듭해나가는것.

례: 사색과 탐구.

머리속에서는 캄캄한 밤하늘보다 더 넓은 사색의 세계가 펼쳐져있어 또다시 무수한 문제들이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추리(推理: 밀 추, 다스릴 리) ① 사리를 미루어서 생각하는것.

례: 《내가 가만 추리해보니 잃어버렸다던 책을 교실에 두고 온것 같애.》

② (론리학에서) 이미 진리성이 검증된 여러개의 판단들사이의 론리적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판단을 끌어내는것.

례: 판단과 추리.

살뜰하다, 알뜰하다

【공통뜻】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일하는데서 착실하고 실속있다.

【개별뜻】

살뜰하다 ①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깊고 세밀하거나 마음쓰는 품이 아련하고 지극하다.

례: 살뜰한 정. 살뜰하게 대해주다. 살뜰한 어머니. 살뜰한 말.

② 잔재미가 있게 착실하고 실속있다.

례: 살림을 살뜰하게 꾸리다.

알뜰하다 ① 일하고 살림을 꾸리는데서 허술한데가 없이 착실하고 깨끗하다.

례: 알뜰한 일솜씨. 집안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다.

②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참되다.

례: 어머니의 알뜰하고 뜨거운 사랑은 나의 박사메달에도 깃들어있다.

③ 생김새가 나무랄데 없이 맺히고 아릿답다.

례: 《참, 곱게 생긴 색시요. 얼굴이랑, 손이랑, 몸매랑 보오. 구장은 나막신같이 생겼어두 누인 얼마나 알뜰하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광복의 해발》)

삶, 생

【공통뜻】 사는것 또는 생명.

【개별뜻】

삶 ① 고유어동사 《살다》에서부터 그것을 대상화하여 나온 명사로서 《사는것》 즉 《살아서 활동하는것 또는 살아있는것》의 뜻을 가진다.

례: 삶과 죽음. 진정한 삶을 누리다.

② 목숨이나 생명.

례: 참된 삶에 대한 애착.

생(生: 날 생) ① =삶

례: 생을 마치다. 고귀한 생.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은 작가.

② 익히거나 말리우지 않은것 또는 가공하지 않은것.

례: 익히지 않고 생으로 그냥 먹다. 생나무.

《삶》은 고유어이고 《생》은 한자말이므로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에도 《삶과 죽음》, 《생과 사》와 같이 구별된다.

상처, 종처

【공통뜻】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생긴 허물.

【개별뜻】

상처(傷處: 상할 상, 곳 처) ① 몸의 한 부분을 다쳐서 상한 자리.

례: 상처가 다 아물다.

② 피해를 입은 자취.

례: 전쟁의 상처를 가시다.

③ 마음을 괴롭히는것.

례: 마음의 상처.

종처(腫處: 헌데 종, 곳 처) 살갗속이 곪아서 헌데가 생긴 자리나 그 헌데.

례: 칠성이란 아이는 종처가 나서 다리를 전다.(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상처》가 주로 외부적요인에 의해 생긴것이라면 《종처》는 사람 몸안이 곪아서 생긴 허물이다.

서글프다, 슬프다

【공통뜻】 마음이 서럽고 언짢다.

【개별뜻】

서글프다 외롭고 허전하거나 섭섭하고 언짢다.

례: 서글픈 웃음. 서글픈 생각.

슬프다 원통하거나 불쌍한 일을 당하거나 보았을 때 언짢은 생각이 가슴에 차며 눈물겹도록 마음이 쓰라리다.

례: 지난날에 슬프고 고통스럽던 이야기들만이 가득찼던 우리 고장도 오늘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슬프다》는 《서글프다》에 비하여 언짢은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다. 《서글픈 웃음》이라고는 하지만 《슬프다》에는 웃음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선입견, 속단

【공통뜻】 확고하지 못한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

【개별뜻】

선입견(先入見: 먼저 선, 들 입, 볼 견) 사물현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미리부터 마음속에 가지는 이러저러한 느낌

이나 생각.

례: 무슨 일에서나 선입견을 가지면 문제의 옳바른 해결방도를 찾을수 없다.

속단(速斷: 빠를 속, 끊을 단) 어떤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서둘러 결론이나 판단을 내리는것 또는 그런 결론이나 판단.

례: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속단하면 일을 그르칠수 있다.

선잠, 풋잠

【공통뜻】 깊이 자지 못하는 잠.

【개별뜻】

선잠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흐뭇하게 자지 못한 잠.

례: 어제도 온종일 일을 한 그들로서는 피로가 덮쳐들어 선잠을 깨기가 참으로 죽기보다 싫었다.

풋잠 잠든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잠.

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샐녘에야 풋잠에 들었던 명진이는 까치울음소리에 놀라 깨여났다.

선정하다, 선택하다

【공통뜻】 여럿가운데서 고르다.

【개별뜻】

선정하다(選定: 가릴 선, 정할 정) 여럿가운데서 필요하거나 더 나은것을 골라서 정하다.

례: 배역을 선정하다. 품종을 선정하다.

선택하다(選擇: 가릴 선, 가릴 택) 여럿가운데서 필요하거나 더 나은것을 뽑거나 골라잡다.

례: 영실은 화초원에서 여러가지 꽃들을 돌아보다가 탐스럽게 활짝 핀 백일홍화분 하나를 선택하였다.

성가시다, 시끄럽다

【공통뜻】 귀찮다.

【개별뜻】

성가시다 몹시 귀찮게 싫다.

례: 잠자리에 누웠으나 모기가 성가시게 달라붙어 좀처럼 눈을 붙일수 없었다.

시끄럽다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 어떤 객관적사실이 자기에게 아무러한 리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주어 귀찮다.

례: 빈 마차 한대가 덜거덩덜거덩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그의 곁을 지나갔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성가시다》와 《시끄럽다》는 그 의미의 공통성으로 하여 엇바꾸어 쓸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맥에 맞게 더 적중한 표현을 골라 써야 한다.

성미, 성품, 품격, 품성

【공통뜻】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말.

【개별뜻】

성미(性味: 성품 성, 맛 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 비위를 두루 이르는 말.

례: 그는 어릴 때부터 한번 옳다고 생각한것은 끝까지 해내는 성미였다.

성품(性品: 성품 성, 성품 품) 사람의 성질과 성격, 품성의 갖춤새를 이르는 말.

례: 그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점잖고 의젓하다고 할수 있다.

품격(品格: 성품 품, 격식 격) ① 사람의 품성과 인격.

례: 고결한 품격.

② 품위 즉 인간의 정신적 및 물질적인 창조물의 가치와 무게.

례: 작품의 품격을 높이다.

품성(品性: 성품 품, 성품 성) 사람의 생활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기질과 품격.

례: 그는 실천투쟁속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좋은 품성을 가지게 되였다.

성벽, 승벽

【공통뜻】 사람의 성미나 버릇.

【개별뜻】

성벽(性癖: 성품 성, 성벽 벽) 일정한 경향성을 띤 굳어진 성미나 버릇.

례: 《그의 성벽이라고 할지 그는 날만 훤하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집안팎을 깨끗이 치워놓고야 무슨 일이건 시작한답니다.》

승벽(勝癖: 이길 승, 성벽 벽)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

례: 타고난 승벽때문에 어떤 경우에나 지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남이는 지금도 내가 너희들한테 질소냐 하는 마음으로 두주먹을 쥐고 공을 몰고 나갔다.

《승벽을 부리다.》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쓴다는 뜻이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공통뜻】 가식이 없이 참되고 바치는 마음이 진실하다.

【개별뜻】

성실하다(誠實: 정성 성, 열매 실) 아무 가식이나 거짓이 없고 정성스럽고 참되다.

례: 만복동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언제나 성실하였으며 그것을 반드시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충실하다(忠實: 충성 충, 열매 실) 충직하고 성실하다. 즉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더없이 지성스럽다. 《충실하다》는 주로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 표현뒤에서 쓰이게 된다.

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다.

성심, 작심, 직심, 착심

【공통뜻】 —

【개별뜻】

성심(誠心: 정성 성, 마음 심) 정성스러운 마음 또는 성실한 마음.

례: 무비가 대강 정돈되면서 봉학이는 백성들을 옳게 다스리는데 성심을 다하였다.(장편소설 《림꺽정》 제2부)

《성심성의로》는 《성의를 다하여》의 뜻을 가진다.

례: 그는 언제나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심성의로 풀어주군 하였다.

작심(作心 지을 작, 마음 심) 마음을 단단히 지어먹는다는 뜻. 흔히 《작심하다》로 쓰인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지어먹은 마음이 겨우 사흘밖에 못 간다는 뜻이다.

례: 철호는 작심을 단단히 하고 수학공부에 달라붙었다.

직심(直心: 곧을 직, 마음 심) ① 한번 마음먹은 그대로 꿋꿋이 지켜나가는 대바르고 꾸준한 마음.

례: 마음이 곱고 겸허하고 일에 직심인 유상은 어느모로 보든지 믿을수 있는 사람이였다.(장편소설 《시련속에서》)

② 참되고 곧은 마음.

례: 일을 서로 다투어 하려는 그들의 직심이 뜨겁게 가슴에 안겨온다.

착심(着心: 붙일 착, 마음 심) 무엇에 마음을 붙이거나 다잡아 명

심하는것.

례: 그는 들뜬 기분을 깨끗이 가시고 착심해서 공부에만 열중했다.

섞갈리다, 헛갈리다

【공통뜻】 어느것, 어느쪽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

【개별뜻】

섞갈리다 한데 뒤섞이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례: 차례를 섞갈리다. 기억을 섞갈리다.

헛갈리다 비슷한 대상들이 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섞이여 어느 한 대상을 잘못 보았거나 잘못 리해하다.

례: 길을 헛갈리다. 순서를 헛갈리다. 이름을 헛갈리다.

소망, 희망

【공통뜻】 바라는것.

【개별뜻】

소망(所望: 바 소, 바랄 망) 바라는바.

례: 소망이 이루어지다. 소망대로 되다.

희망(希望: 바랄 희, 바랄 망) ① 앞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것.

례: 희망에 넘치다. 희망을 안고 살다. 희망의 등대.

② 앞으로 잘될수 있는 가망.

례: 병이 나을수 있는 희망이 있다. 뚫고나갈 희망이 보이다.

《희망》은 《소망》에 비해 뜻폭이 넓다.

● 참고

희망에 넘친 생활	○	희망이 보이다	○
소망에 넘친 생활	×	소망이 보이다	×

솔선, 우선

【공통뜻】 앞서서 먼저.

【개별뜻】

솔선(率先: 거느릴 솔, 먼저 선) 남보다 앞서서 먼저.

례: 솔선 모범을 보이다. 어려운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다.

우선(于先: 어조사 우, 먼저 선) 무엇보다먼저 선참으로.

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

《솔선》은 《앞장서 먼저》라는 뜻이 강조되고 《우선》은 《선참으로》라는 뜻이 강조된다. 또한 《솔선》은 《우선》에 비하여 행동성이 더 강조된다.

- 참고

솔선 모범을 보이다 ○ 우선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 ○

우선 모범을 보이다 × 솔선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 ×

수더분하다, 후더분하다

【공통뜻】 마음이 좋다.

【개별뜻】

수더분하다 ① 무엇이 수량적으로 푼푼하게 많다.

례: 사과를 수더분하게 따들이다.

② 성질이 까다롭지 않고 서글서글하다.

례: 지휘관들의 믿음과 친형과 같은 보살핌이 있는 곳, 전사들의 익살섞인 롱담과 수더분한 마음들이 숨쉬고있는 곳, 웬 일인지 버들치이야기를 하던 서동길의 얼굴이 떠올랐다.(장편소설 《돌파구》)

후더분하다 남에 대하여 쓰는 마음이 후하고 따뜻하다.

례: 그날 우리는 이 고장 사람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후더분한 인정에 저마다 감동되였다.

《후더분하다》는 주로 정신적느낌에서 만족스럽거나 흐뭇한 느낌을 가질 때에 쓰인다.

수재, 천재, 영재

【공통뜻】 재능이 있는 사람.

【개별뜻】

수재(秀才: 빼여날 수, 재주 재) 남달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사람.

례: 수재교육.

천재(天才: 하늘 천, 재주 재) 하늘이 낸 뛰여난 재능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

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영재(英才: 꽃부리 영, 재주 재) 세상에서 비할바없이 뛰여나고 영명한분.

례: 창조와 건설의 영재.

수치, 창피

【공통뜻】 부끄러운것.

【개별뜻】

수치(羞恥: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 창피하고 부끄러운것.

례: 보통생이 있다는것은 우리 학급의 수치이다.

창피(猖披: 날칠 창, 헤칠 피) 체면이 깎이는 일을 당하여 몹시 부끄러운것. 《창피》의 본래 뜻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는 뜻으로 체면이 깎이는 일을 하여 몹시 부끄러운것.

례: 부부로 가장한다는것때문에 처음부터 창피해서 붉게 달아오른것이 200여리 떨어진 이곳에 올 때까지 그냥 식을새가 없는 모양이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수치》는 일반적으로 폭넓게 부끄러운 감정을 표현하지만 《창피》는 주로 개별적으로 남앞에서 체면이 깎이우는 일을 당했을 때의 부끄러운 감정을 표현한다.

● 참고

민족의 수치 ○ 수치스러운 참패 ○

민족의 창피 × 창피스러운 참패 ×

순진하다, 천진하다

【공통뜻】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진실하다.

【개별뜻】

순진하다(純眞: 순수할 순, 참 진)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맑고 순수하며 참답다.

례: 순진한 마음. 순진하고 마음씨고운 처녀.

천진하다(天眞: 하늘 천, 참 진) 아이처럼 꾸밈이나 거짓말을 전혀 모르며 세상물정도 아직 어둡다.

례: 천진한 생각.

스스럼없이, 허물없이

【공통뜻】 체면을 차리지 않는것을 나타내는 부사.

【개별뜻】

스스럼없이 수집어하거나 멋적어하고 주저하는 티가 없이 또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례: 영희는 선생님앞에서 스스럼없이 자기 잘못을 다 털어놓았다.

허물없이 체면을 차리거나 조심하는 티가 없이 아주 가깝거나 소탈하게.

례: 허물없이 대해주다.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다.

습득, 터득, 체득

【공통뜻】 무엇인가를 획득하는것.

【개별뜻】

습득(習得: 익힐 습, 얻을 득) 지식, 기술, 방법 등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의것으로 하는것.

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다.

터득(攄得: 터놓을 터, 얻을 득) 어떤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것.

례: 그 리치를 터득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체득(體得: 몸 체, 얻을 득) ① 실지 자기가 체험하여 알게 되는것. ② (사상, 리론, 기술 등을) 깊이 깨달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드는것.

례: 그는 직장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지만 선반다루는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더니 이제는 기능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고있다.

승낙, 승인, 허락

【공통뜻】 청을 들어주는것.

【개별뜻】

승낙[承諾: 이을 승, 허락할 락(낙)] 주로 남이 무엇을 청하는 경우에 그것을 들어주는것.

례: 명희가 가방안의 소설책을 꺼내보자고 하자 선희는 승낙하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승인(承認: 이을 승, 알 인) ①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것. ② 무엇을 하려는것을 허락하는것.

례: 갑석은 여러번 전투에 참가할것을 상부에 제기했으나 공작관계로 매번 승인되지 않았다.

허락(許諾: 허락할 허, 허락할 락) ① 어떤 제의나 요구에 대하여 승낙하고 들어주는것.

례: 《듣자니 영수동무가 처녀 부모들의 허락을 받겠다구 찾아갔댔다면서?》

② 어떤 행동이나 사실에 대하여 좋다고 인정하는것.

례: 조직은 그의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행동을 허락하

지 않았다.

《승낙》, 《승인》, 《허락》은 상대방의 청을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서로 어울려쓸수 있다.

시늉, 흉내

【공통뜻】 그럴듯하게 본따는 행동.

【개별뜻】

시늉 어떤 동작을 진짜인것처럼 꾸며 하는짓.

례: 철이는 혼자서 잘 놀다가 어머니가 오는것을 보고는 그만 어딘가 아픈 시늉을 한다.

흉내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짓.

례: 장난군 후손이는 입을 딱 벌리고 턱을 약간 떨면서 말더듬이의 흉내를 내다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었다.

시샘, 질투

【공통뜻】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개별뜻】

시샘=시기(猜忌: 시기할 시, 꺼릴 기) ① 《시새움》의 준말로서 자기보다 잘되거나 발전하는것을 공연히 싫어하는것 즉 남이 잘되는것을 공연히 배아파하며 대방을 미워하는것.

례: 옥순이에 대한 부러움과 시샘이 일시에 일어났다.

② 이성관계에서 상대자가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는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다.

례: 남편에 대한 공연한 시샘.

질투(嫉妬: 미워할 질, 새암할 투)=새암 ① 남이 잘되는것, 저보다 앞서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것 등을 공연히 미워하며 깎아내리려 하는 마음 또는 그런짓.

례: 질투심과 시기심.

②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데로부터 그와 가까이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짜로 미워하고 멀리하는것. 고유어로 《강새암》이라고도 한다.

례: 사랑과 질투.

시치미를 떼다, 아닌보살하다

【공통뜻】 모르는척 하다.

【개별뜻】

시치미를 떼다 자기가 하고도 짐짓 안한체 하거나 알고도 모르는체 하다. 부정적색채가 없다.

례: 잘 웃긴다고 해서 희극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가 아주 시치미를 떼고 능청을 부리는통에 모두가 웃어댔다. (《현대조선문학선집》 12)

※ 시치미—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주소를 적어 꽁지우의 털속에다 매여두는 네모난 뿔. 매의 꽁지에 단 표식을 떼여 누구의것인지 모르게 하고도 모르는체 하였다는데로부터 유래.

아닌보살하다 일반적으로 《시치미를 떼다.》와 뜻이 같으나 차례진 나쁜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모르는척 하는 경우에도 쓴다. 얄미운 감정적색채가 있다.

례: 무고한 로동자를 죽음에로 내몬 광산주는 아닌보살하더니 어느새 꼬리를 사렸다.

식은땀, 진땀

【공통뜻】 더워서 흐르는 땀과 다른 땀.

【개별뜻】

식은땀 몸이 쇠약해지거나 마음에 뜻밖의 큰 충격이 일거나 하여 덥지 않아도 흐르는 땀.

진땀 몹시 바빠맞거나 애쓰며 크게 맥을 뺄 때 흐르는 땀.

례: 오랜 농사군들도 한두해는 진땀을 빼는것이 간석지농사라고 하였다.

신사숙녀, 요조숙녀

【공통뜻】 말쑥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개별뜻】

신사숙녀(紳士淑女: 띠 신, 선비 사, 맑을 숙, 녀자 녀) 《신사숙녀》란 신사와 숙녀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신사》란 낡은 사회에서 주로 말쑥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를 가리키던 말이고 《숙녀》란 현숙한 녀자라는 뜻으로 역시 낡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여 몸단장과 행동을 점잖게 하는 녀자 다시말하면 교양과 덕행이 갖추어진 녀자를 이르던 말이다.

요조숙녀(窈窕淑女: 고요할 요, 안온할 조, 맑을 숙, 녀자 녀) 행실이 참하고 얌전한 녀자.

례: 외금강의 기걸한 모습은 마치 대장부와 같고 내금강의 아담한 경치는 요조숙녀와 같다.

신조, 좌우명

【공통뜻】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고 의거하는것.

【개별뜻】

신조(信條: 믿을 신, 가지 조) 《굳게 믿는 조항이나 조목》이라는 뜻 즉 《사업과 생활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면서 굳게 믿는 사상이나 명제》.

례: 시에서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인민의 성실하고 례절바른 풍속과 생활신조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좌우명(座右銘: 자리 좌, 오른쪽 우, 새길 명) 항상 자기옆에 갖추어놓고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거울로 삼고 늘 그것에 기초하여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는,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는 말. 명제, 명언, 격언 같은것이 리용된다.

례: 인생의 좌우명.

신중하다, 심중하다

【공통뜻】 무엇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고 무게있게 대하다.

【개별뜻】

신중하다(愼重: 삼가할 신, 무거울 중) 어떤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고려하여 차근차근하다.

례: 신중한 표정. 신중하게 말하다.
사람문제는 언제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심중하다(深重: 깊을 심, 무거울 중) ① 생각이 깊고 대하는 태도가 무게있다.

례: 제품의 질제고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② 아주 크고 심각하다.

례: 심중한 결함. 손실이 아주 심중하다. 심중한 문제.

《신중하다》와 《심중하다》는 《신중한 표정》, 《심중한 표정》에서와 같이 어울러쓰는 경우도 있지만 뜻이 엄연히 구별되므로 정확히 가려 써야 한다.

- 참고

심중한 문제	○	심중한 결함	○
신중한 문제	×	신중한 결함	×

실증, 론증, 고증

【공통뜻】 증명하는것.

【개별뜻】

실증(實證: 열매 실, 증험할 증)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는것.

례: 이번 영화촬영을 통하여 그가 정극과 희극 그 어느것에나 다같이 능통한 만능배우라는것이 실증되였다.

론증(論證: 론할 론, 증험할 증) ① 주장이나 견해의 옳은것과 그른것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리론적으로 증명하는것 또는 그 증명.

례: 그의 론문에는 아직도 자료분석이 미약하고 론증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② (론리학에서) 어떤 명제가 진리라는것을 론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흔히 진리성이 이미 밝혀져있는 다른 명제들에 근거하게 된다.

고증(考證: 상고할 고, 증험할 증) 옛날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일정한 근거에 기초하여 리론적으로 밝히는것.

례: 력사소설은 방대한 옛 사료들을 고증하여 써야 한다.

심리, 심정

【공통뜻】 마음과 관련한 어휘.

【개별뜻】

심리(心理: 마음 심, 다스릴 리) ① 마음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리치.

례: 군중의 심리. 인간의 심리. 아동심리를 잘 알다.

② (심리학의 개념으로) 《주위세계의 사물현상과 그에 대한 태도가 뇌수에 반영되여 이루어진 주관적, 관념적인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 심리는 감각, 사고, 감정, 의지 등의 형태로 주위세계를 반영한다.

심정(心情: 마음 심, 뜻 정) ①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감정.

례: 영옥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고야말았다.

② 좋지 않은 심사.

례: 《아따, 실컷 할퀴다가 지주댁에 바치라구. 그까짓 한톨 더 먹는다고 얼마나 살찌겠나.》 김선달도 심정이 나서 부르짖는다.(장편소설 《고향》)

심보, 심술

【공통뜻】 온당치 못한 마음.

【개별뜻】

심보 부정적으로 이르는 《어떤 마음을 먹거나 쓰게 되는 속바탕》.

례: 대성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심보가 어쩌면 저렇게까지 삐뚤어질수 있을가 하는 기이한 생각도 들었다.(장편소설 《생명수》)

심술(心術: 마음 심, 꾀 술) ① 지꿎게 남을 성가시게 하거나 남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례: 심술이 많은 사람. 심술궂은 놀부.

② 온당치 못하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

례: 영철이는 어머니가 얼리였으나 심술을 부리며 그냥 울어댔다.

심사, 심의

【공통뜻】 일정한 자격이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사업.

【개별뜻】

심사(審査: 살필 심, 살필 사) 자격이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하는것.

례: 심사사업. 노래경연심사.

심의(審議: 살필 심, 의논할 의) 심사하고 토의하는것.

례: 학위론문심의. 작품을 심의하다. 심의된 문건.

심장, 염통

【공통뜻】 사람이나 동물의 피순환계통의 가장 중요한 기관.

【개별뜻】

심장(心臟: 마음 심, 오장 장) ① =염통

례: 심장수술. 심장의 박동.

② 《가장 뜨겁고 순결한 마음》을 비겨 이르는 말.

례: 피끓는 심장으로 다진 그 맹세. 심장깊이 간직하다.

③ 《비위좋은 마음보나 담력》을 비겨 이르는 말.

례: 무쇠같은 심장.

⑤ 《어떤 사물현상의 존재와 발전에서 중심, 중추》를 비겨 이르는 말.

례: 기계의 심장부분.

염통(사람이나 동물의) 피순환계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쉽없이 운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 기관.

례: 염통이 곪는줄은 몰라도 손톱 곪는줄은 안다.

자고자대, 자화자찬, 자아도취

【공통뜻】 스스로 자랑하거나 만족해하는것.

【개별뜻】

자고자대(自高自大: 스스로 자, 높을 고, 스스로 자, 큰 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크게 한다는 뜻으로 잘난체 하며 우쭐대는것.

례: 자고자대는 자기 발전을 억제할뿐아니라 자기자신을 망치는 나쁜 품성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화자찬(自畵自讚: 스스로 자, 그림 화, 스스로 자, 칭찬할 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으로부터) 제가 한 일을 자기스스로 칭찬하는것.

례: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객관에서 받아야 하며 자화자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아도취(自我陶醉: 스스로 자, 나 아, 질그릇 도, 취할 취) 자기자신 또는 자기가 하는것에 스스로 마음이 쏠리여 취하다싶이 만족해하는것.

례: 조는듯 눈을 반쯤 감고 자아도취에 잠겨있던 그는 이윽고 눈을 크게 떴다.

자기, 자신

【공통뜻】 본인을 가리키는 말.

【개별뜻】

자기(自己: 스스로 자, 몸 기) ① 말하는 사람이 자기스스로를 가리키는 말.

례: 《내가 자기 결함도 모를것 같애?》

② 이야기되는 사람이나 일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 사람을 다시 되받아서 가리키는 말. 높여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례: 그들은 전화의 영웅들처럼 자기들도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③ 《저》나 《제》의 뜻으로 행동이나 이야기의 주인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

례: 자기도 추워하면서 다른 동무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④ 《나의》 또는 《내가 속한》, 《해당 조직성원이 속한》의 뜻을 나타낸다.

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

자신(自身: 스스로 자, 몸 신) ① 자기스스로. 제 몸.

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② 다름아니고 바로 앞에서 가리킨 사람 스스로임을 강조하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지적을 받게 될 때 쓰이는 말.

례: 그자신이 선택한 길.

자애롭다, 인자하다

【공통뜻】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넘치다.

【개별뜻】

자애롭다(慈愛: 자애로울 자, 사랑 애) 주로 아래사람에 대하여 인자하고 따뜻한 사랑의 정이 많거나 또는 그런 느낌이 있다.

례: 룡진은 말을 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앞에 머리를 숙였다. (장편소설 《붉은 흙》)

인자하다(仁慈: 어질 인, 자애로울 자) 품성이 어질며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이 풍부하다.

례: 인자하신 어머님의 미소.

자중, 자숙, 자계

【공통뜻】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것.

【개별뜻】

자중(自重: 스스로 자, 무거울 중) ① 말이나 몸가짐을 조심하며 스스로 신중하게 하는것.

례: 그는 마음을 누르고 자중하여 반장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② 자기스스로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것.

자숙(自肅: 스스로 자, 엄숙할 숙) 자기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것.

례: 그는 매사에 심중하고 자숙하여 행동하였다.

자계(自戒: 스스로 자, 경계할 계) 스스로 자신을 다잡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는것.

례: 일본은 《독도령유권》문제를 놓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계할줄 알아야 한다.

자제력, 참을성

【공통뜻】 자기를 견제하는것.

【개별뜻】

자제력(自制力: 스스로 자, 지을 제, 힘 력) 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감정 같은것을 스스로 눌러서 가라앉히는 힘.

례: 그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누구를 향한것인지 알지 못할 저주와 규탄을 내리는가 하면 비애와 원한이 맺힌 탄식을 터뜨리기도 하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참을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 때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괴롭거나 격분스러울 때 그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는 성질.

례: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참을성을 나약성으로 오산하지 말라.》

장군, 장사, 장수

【공통뜻】 힘이 센 사람.

【개별뜻】

장군(將軍: 장수 장, 군사 군) ① 《큰 무력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례: 리순신장군.

② 일부 나라들에서 《장령》을 이르는 말.

③ 《힘이 매우 센 사람》을 이르는 말.

례: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하게 생긴것이 꼭 장군이다.

장사(壯士: 장할 장, 선비 사) 몸이 우람하고 힘이 억센 사람.

례: 힘장사.

장수(將帥: 장수 장, 장수 수) ①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대장.

례: 하늘이 낸 장수.

② 몸집이 크고 힘이 뛰여나게 센 사람.

례: 힘장수.

장기, 특기

【공통뜻】 남달리 뛰여난 재주.

【개별뜻】

장기(長技: 긴 장, 재주 기) 가장 능한 재주.

례: 그의 장기는 비수던지기였다.(장편소설 《평양성사람들》)

특기(特技: 특별할 특, 재주 기) 남달리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또는 재간.

례: 특기동작. 그의 특기는 곧추치기이다.

장돌뱅이, 장사군

【공통뜻】 자기 리득을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

【개별뜻】

장돌뱅이 ① (낡은 사회에서) 이 장, 저 장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례: 《이모부는 돌아가시구 이종형이 등짐장사를 한다나 봐요.》 《네 이종이 장돌뱅이란 말이지.》

② 장마당에서 《싸구려》를 불러대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례: 장돌뱅이들은 분합, 허리띠, 갑사댕기, 망건당줄, 꽃미투리, 염낭 등의 추석비음거리를 막대기에 꿰여들고 돌아다니며 악마구리 끓듯 싸구려를 불렀다.(장편소설 《두만강》 제2부)

장사군 일정한 리득을 목적으로 상품 또는 여러가지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상업적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례: 과일장사군. 남새장사군.

저미다, 에이다

【공통뜻】 베다.

【개별뜻】

저미다 ① 엷게 베여내다.

례: 사과를 깎아 저미여 접시에 담다. 고기를 저미다.

②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고 아리고 쓰리다.

례: 살을 저미는듯 한 느낌이 들다.

③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

례: 가슴이 저미는듯 아팠다.

에이다 ① 《에다》(칼로 도려내듯이 베다)의 피동형.

례: 살을 에이는듯 한 맵짠 추위.

② 홈이 지게 깎아내다.

례: 떼뭇는 로동자들이 통나무모서리를 에이기도 하고 짜르기도 하느라 톱질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왔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동트는 압록강》)

저지시키다, 제지시키다

【공통뜻】 무엇을 더 하지 못하게 하다.

【개별뜻】

저지시키다(沮止: 멈출 저, 그칠 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엇이 되지 못하게 밀막아치우다.

례: 적들의 공격을 저지시키다. 시위대렬을 저지시키다.

제지시키다(制止: 지을 제, 그칠 지) 주로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도덕륜리상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유해로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더 하지 못하게 누르거나 중지시키다.

례: 직장장은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발언을 즉시 제지시켰다.

전념, 전심

【공통뜻】 모든것을 다하는것.

【개별뜻】

전념(專念: 오로지 전, 생각 념) 오로지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하거나 그 일에만 정신을 바치는것.

례: 학습에 전념하다.

전심(專心: 오로지 전, 마음 심) 어떤 일을 위하여 마음을 오로지 한곬으로 기울이는것.

례: 아버지는 연구사업에 전심하고있다.

전력, 정력

【공통뜻】 온갖 힘.

【개별뜻】

전력(專力: 오로지 전, 힘 력) 오직 어느 한가지 일에 마음과 힘을 다 바치는것.

례: 학생은 공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정력(精力: 정할 정, 힘 력) 온갖 정신적 및 육체적힘.

례: 그는 연구사업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전하, 폐하

【공통뜻】 왕과 그 가문의 족속들을 높여 부르는 말.

【개별뜻】

전하(殿下: 집 전, 아래 하) 주로 군주국가에서 왕이나 그의 처 또는 왕의 족속들을 높여 이르는 말.

폐하(陛下: 섬돌 폐, 아래 하) 황제제도에서 황제가 오르는 섬돌이라는 뜻에서 《황제》, 《황후》, 《태왕태후》, 《황태후》 등을 최대로 높이는 동시에 자신을 낮추며 이르는 말.

황제에게는 직접 아뢰지 못하고 섬돌밑에 있는 대신들에게 말하여 그가 황제에게 아뢰도록 되여있는 봉건적황제제도의 질서에서 유래된 말이다.

정열, 열정

【공통뜻】 열렬한 마음이나 태도.

【개별뜻】

정열(情熱: 뜻 정, 뜨거울 열) ① 감정이 불같이 열렬한것 또는 그러한 열렬한 감정.

례: 정열적으로 말하다. 정열을 쏟아붓다.

② 사람의 확고한 지향성과 결부된 강하고도 깊은 정서와 의지의 표현.

례: 아무 일에서나 정열이 없으면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열정(熱情: 뜨거울 열, 뜻 정) ① 뜨거운 정열.

례: 그들은 창조와 탐구의 열정을 안고 굴함없이 과학의 요

새를 점령해나가고있는 쟁쟁한 청년지식인들이다.

② 문학에서 《일정한 작품에 일관되여있는 사상적지향》을 이르는 말.

례: 작품에 반영되여있는 높은 사상과 강한 열정.

조기다, 족치다

【공통뜻】 치거나 때리다.

【개별뜻】

조기다 ① 마구 때리거나 두들겨패다.

례: 봇나무의 가느다란 통장작은…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그의 엉뎅이와 등때기를 사정없이 조기는데 더욱 적당한듯 하였다.

② 일자리가 크게 나도록 해제끼다.

례: 맡은 일을 본때있게 조겨 오늘중으로 끝냅시다.

족치다 ① 혼쌀이 나게 사정없이 몹시 치다.

례: 몽둥이로 미친개를 족치다.

② 드립다 욱박지르거나 달구다.

례: 그들은 금란이의 집을 수색해보든가 금란이만 족치면 병천이를 붙잡을수 있다고 떠들었다.(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1부)

③ 짓찧어서 쭈그러지게 하거나 (큰것을) 깨뜨려 작게 만들다.

례: 족쳐서 박살을 내다.

조롱, 희롱, 우롱

【공통뜻】 대방을 놀리거나 비웃는것.

【개별뜻】

조롱(嘲弄: 조롱할 조, 희롱할 롱) 대방을 비웃으며 놀려주는것.

례: 남들은 색시의 치마그늘에 컸다고 모두들 그를 조롱하였다.(단편소설 《귀농》)

희롱(戱弄: 희롱할 희, 희롱할 롱) ①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대방을 놀려주는것.

례: 두 령감은 서로 희롱하는 친한 사이이다.

②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놀리다.

례: 1929년 기차에서 일본학생들이 조선녀학생을 희롱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것을 동기로 하여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은 전국적범위에서 대중적인 반일투쟁으로 고조되였다.

③ 즐기며 놀거나 놀리다.

례: 시내물은 달빛을 희롱하며 잔잔히 흘러간다.

우롱(愚弄: 어리석을 우, 희롱할 롱) 어리석게도 대방을 우습게 깔보면서 심히 놀리는것.

례: 세계의 여론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제국주의자들의 궤변.

조마조마하다, 초조하다

【공통뜻】 마음을 조이다.

【개별뜻】

조마조마하다 (닥쳐올 일에 대하여) 마음이 죄여들고 불안스럽다.

례: 원통굴리기재주를 보여주는 교예사는 우정 실수할듯말듯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였다.

초조하다(焦燥: 탈 초, 마를 조) 안타깝게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례: 그는 초조해서 절반도 안 탄 담배를 던져버리고 실성한 사람모양으로 나무밑을 왔다갔다했다.

존경, 존중

【공통뜻】 높이 우러러 대하는것.

【개별뜻】

존경(尊敬: 높을 존, 공경할 경) 높이 우러러 소중히 받드는것 또는 공손히 례절있게 높이 받들고 대하는것.

례: 웃어른들을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미덕이다.

존중(尊重: 높을 존, 무거울 중) 아주 높이 대하고 귀중히 여기는것.

례: 웃사람을 존중하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다. 대중을 존중히 여기다.

※ 《존경》에는 여러가지 뒤붙이가 직접 붙을수 있지만 (《존경토》, 《존경심》, 《존경어》) 《존중》은 《존중시》를 내놓고는 대체로 《존중하다》형태로 쓰임.

졸도, 현훈

【공통뜻】 정신이 아찔하다.

【개별뜻】

졸도(卒倒: 군사 졸, 꺼꾸러질 도) 갑자기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거나 거꾸러지는것 또는 그런 증세.

례: 아들의 불상사앞에서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졸도하였다.

현훈(眩暈: 어지러울 현, 무리 훈) 정신이 아뜩하여 어지러운것. 현훈을 느끼는 증세를 《현훈증》이라고 한다.

례: 년세가 많아서인지 할아버지는 가끔 현훈을 호소하기도 한다.

졸렬하다, 옹졸하다

【공통뜻】 사람의 준비정도가 어리다.

【개별뜻】

졸렬하다(拙劣: 졸렬할 졸, 용렬할 렬) 수준이 매우 낮아 서투르고 유치하다.

례: 자기의 혼란된 마음을 안해의탓으로 돌리는것이 그릇된 짓이며 다른 일에서의 불만을 여기까지 연장시킴은 졸렬한짓이라고 여겼다.(중편소설 《강물은 한곬으로》)

옹졸하다(壅拙: 막을 옹, 졸렬할 졸) 생각이나 성품이 막히거나 트이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너그럽지 못하다.

례: 영남이는 동무들한테 한번 비판받으면 며칠씩 그들과 말도 하지 않는 옹졸한 애였다.

좀상스럽다, 좀스럽다

【공통뜻】 보잘것없이 자질구레해보이다.

【개별뜻】

좀상스럽다 좀스러운 느낌이 있거나 매우 좀스러워보이다.

례: 난쟁이키에 좀상스런 몰골을 한 일본장교.

좀스럽다 ① 보잘것없이 규모가 작다.

례: 사사로운 그 일은 좀스럽기 짝이 없어 스스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었다.

② 생각이 쬐쬐하고 도량이 좁다.

례: 《사내대장부가 왜 그렇게 좀스러운가. 집안에서 잔소리만 하고.》

종알거리다, 토달거리다

【공통뜻】 혼자소리로 자꾸 말하다.

【개별뜻】

종알거리다 남이 알아들을수 없게 작은 목소리로 자꾸 혼자말을 하다.

례: 순이는 아버지한테 안겨서 무엇이라고 자꾸 종알거리였다.

토달거리다 주로 아이들이나 젊은 녀자들이 무엇이 못마땅하여 혼자소리로 종알거리다.

례: 철옥은 무엇이 못마땅해서인지 토달거리며 뜨락또르를 멈춰세웠다.

《토달거리다》는 《투덜거리다》와 같은 계렬의 말로서 불평스럽게 종알거리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불평이 있을 때도 《종알거리다》고 하지만 반드시 불평이 있을 때만 쓰는것은 아닌것이다.

좇다, 쫓다

【공통뜻】 누구의 뒤를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하다.

【개별뜻】

좇다 ① 누구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뜻을 따라 그대로 하다.

례: 봉남이는 낚시에 고기가 물렸는데도 낚아챌 생각을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만 하는 그 사람이 하도 수상해 《낚시군》이라고 하는 그자의 뒤를 좇아가기로 결심했다.

②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하다.

례: 생각을 좇다.

쫓다 ① 억지로 몰아내여 떠나게 하다.

례: 그는 별안간 새여나오는 한숨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어지러운 환영을 쫓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② 짐승 같은것을 잡을 때 계속 따르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대다.

례: 범을 함정있는 곳으로 쫓았다.

③ 잠이나 졸음, 잡념 같은것을 물리쳐버리다.

례: 졸음을 쫓다.

④ 달아나는것을 잡기 위해 따르다.

례: 어로공들이 배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명태떼를 쫓다.

⑤ 남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맹종맹동하다.

례: 《벼슬살이를 어떻게 인정을 쫓아한단 말이냐?》(장편소설 《림꺽정》 제2부)

⑥ 《생각을 좇다》를 세게 이르는 말.

례: 그는 어떻게 하면 창의고안을 성공시킬것인가 하는 생각만을 쫓고있었다.

증정하다, 진정하다

【공통뜻】 성의의 표시로 무엇을 드리다.

【개별뜻】

증정하다(贈呈: 줄 증, 드릴 정) 어떤 물건을 성의나 사례, 축하나 기념 등의 표시로 드리다.

례: 선물증정식. 축기를 증정하다.

진정하다(進呈: 나아갈 진, 드릴 정) 스스로 나서서 드리다. 주로 경의를 표시하거나 추모하여 화환이나 꽃다발 또는 꽃바구니를 드릴 때 쓰는 말이다.

례: 우리는 애국렬사릉을 찾아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지새다, 지새우다

【공통뜻】 밤과 관련된다.

【개별뜻】

지새다 밤의 어둡이 가시면서 날이 밝아오다.

례: …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가사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지새우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밝히다.

례: 그는 밤을 지새우며 학습에 열중했다.

지청구, 꾸지람

【공통뜻】 탓하며 욕하는 말.

【개별뜻】

지청구 ①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는것 또는 그런 핀잔이나 책망.

례: 《나살이나 건사한 어른이 뭘 그렇게 애들처럼 떠드시오?》 의사가 지청구를 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② 지꿎게 조르며 못살게 구는것.

례: 《아니, 철없는것들이 또 아저씨에게 지청구댔구만.》

꾸지람 주로 아래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걱정하며 엄하게 지적하여 하는 말.

례: 철이는 오늘 또 할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었다.

지향, 의향

【공통뜻】 바라는 방향.

【개별뜻】

지향(志向: 뜻 지, 향할 향) 이룩하려는 어떤 목표에로 뜻이 향하는것 또는 쏠리는 의지.

례: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나깨나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불타는 지향을 가지고 강도 일제와 싸웠다.

의향(意向: 뜻 의, 향할 향)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품고있는 생각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

례: 《동무의 의향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재간, 재능, 재주

【공통뜻】 어떤 일에 능한 솜씨.

【개별뜻】

재간(才幹: 재주 재, 줄기 간) ① 이러저러한 활동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재능이나 솜씨.

례: 있는 재간을 다 발휘하다.
손재간. 목수재간.

② (주로 《있다》, 《없다》와 함께 규정어 다음에만 쓰이여) 방법이나 방도.

례: 도대체 그의 생각을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재능(才能: 재주 재, 능할 능) 이러저러한 활동을 가장 성과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슬기와 능력.

례: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재주 ① 솜씨있게 잘하는 능력이나 슬기, 묘한 기술이나 솜씨.

례: 재주가 뛰여나다. 말타기재주.

② =재간 ②

재미, 흥미

【공통뜻】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맛.

【개별뜻】

재미 ① 아기자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것 또는 그것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

례: 글공부에 점점 재미를 붙이고 열중하게 되니 때로는 밥을 굶고 공부하면서도 배고픈 생각마저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② 보람이나 성과.

례: 이번 실험에서 처음에는 재미를 보지 못했으나 두번째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③ (말체로) 만나서 안부를 물을 때의 《사업과정이나 생활을 꾸려나가는데서 느끼고있는 기분상태》.

례: 《요즘 재미가 어떤가?》

※ 《재미》와 관련된 성구속담

재미난 골에 범난다.

재미는 누가 보고 성은 누구한테 내느냐.

재미끝에 쉬쓴다.

콩볶아 재미낸다.

털토시를 끼고 게구멍을 쑤시여도 제 재미.

오이를 거꾸로 먹어도 제 재미.

흥미(興味: 일 흥, 맛 미) ① 흥을 돋구어주는 맛이나 멋.

례: 흥미있는 책. 흥미있는 이야기.

② 긍정적으로 가지는 관심.

례: 《그 기술혁신안이 흥미가 있단 말이요.》

③ (심리학에서)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적 및 정서적지향성. 일정한 대상을 더 잘 리해하며 그 대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려는 욕망이다.

제기하다, 제의하다

【공통뜻】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내놓다.

【개별뜻】

제기하다(提起: 끌 제, 일어날 기) 해결 또는 토의를 목적으로 어떤 문제나 의견을 내놓다.

례: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다.

제의하다(提議: 끌 제, 의논할 의) 의견이나 안을 내놓다.

례: 회의에서는 동무들의 한결같은 제의에 의해서 박동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착각, 환각

【공통뜻】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느끼는것.

【개별뜻】

착각(錯覺: 섞을 착, 깨달을 각) 사실과는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것 또는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

례: 언니의 목소리를 어머니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환각(幻覺: 헛보일 환, 깨달을 각)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그 무엇이 있는것처럼 생각하거나 생각되는것.

례: 할머니는 때때로 환각이 오는지 오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아까 온게 누구였던가 하고 묻군 한다.

착하다, 참하다

【공통뜻】 주로 온순하고 부드럽다.

【개별뜻】

착하다 《악하다》의 반대말로서 마음씨나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

례: 착한 행동. 착한 마음. 착한 학생.

몇달전에 특수용접공이 된 종하는 사람이 착하고 줄나서 말하기에 앞서 얼굴부터 붉혔다.

참하다 ① (생김새가) 얌전하고 곱다.

례: 참하게 생긴 얼굴.

② (성질이) 찬찬하고 얌전하다.

례: 참한 녀학생.

찬동, 찬성

【공통뜻】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긍정하는것.

【개별뜻】

찬동(贊同: 도울 찬, 한가지 동) 어떤 행동이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좋다고 하면서 의견을 같이하는것.

례: 반장은 영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찬성(贊成: 도울 찬, 이룰 성) 어떤 행동이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좋다고 지지하는것. 주로 《반대》와 상반되는 뜻으로 쓰인다.

례: 그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동무들의 새로운 발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였다.

《찬성》은 《찬성투표》, 《찬성자》, 《찬성토론》 등과 같이 다른 명사와 결합되여 쓰일수 있지만 《찬동》은 《찬동을 표시하다.》, 《찬동을 받다.》, 《찬동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찬찬하다, 깐깐하다, 꼼꼼하다

【공통뜻】 성미나 행동이 덜퉁하지 않고 차근차근하다.

【개별뜻】

찬찬하다 성미나 행동이 덤비지 않고 자세하며 침착하고 차근차근 하다.

례: 그 의사는 어느때나 찬찬하게 진찰을 하고 이것저것 환자에게 물어본 다음에야 처방을 내리군 한다.

깐깐하다 성미나 행동이 빈틈이 없이 세밀하고 자세하다.

례: 그는 언제나 모든 원고를 깐깐하게 읽어보고 잘못된것을 잡아주는 책임성높은 편집원이다.

꼼꼼하다 성미 또는 행동이 놓치거나 빈틈이 없게 자세하고 찬찬하다.

례: 《어머니가 오시면 집일을 잘 돌봐주실거예요. 원래 꼼꼼한 성미니까요.》(장편소설 《령마루》)

참견, 참례

【공통뜻】 어떤 일에 참가하는것.

【개별뜻】

참견(參見: 참여할 참, 볼 견) 남의 일이나 해당치 않는것에 쓸데없이 끼여들어 어찌어찌하라고 말하거나 시키는것.

례: 남의 일에 참견하다. 쓸데없는 참견.

참례(參禮: 참여할 참, 례절 례) 일정한 례식(결혼식, 약혼식, 장례식 등)에 참가하는것.

례: 부모는 일가집제사에 참례를 가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다.

창격전, 육박전

【공통뜻】 적과 직접 맞다들어 하는 싸움.

【개별뜻】

창격전(槍擊戰: 창 창, 칠 격, 싸움 전) 적과 맞다들어 총창, 총탁으로 적을 찌르고 치며 싸우는 전투. 창격전은 육박전의 한가지 형식.

례: 어떤 때는 썩어넘어진 진대나무를 사이에 두고 창격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육박전(肉迫戰: 고기 육, 다가들 박, 싸움 전) 적들과 직접 맞붙어서 몸을 내대고 쏘고 찌르고 까고 하는 전투.

례: 총창을 비껴들고 육박전에로 나아갔다.

창조, 창출

【공통뜻】 새롭게 만들어내는것.

【개별뜻】

창조(創造: 비로소 창, 지을 조) (그전에 없던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지어내는것.

례: 세월은 걸음마다 조국의 력사우에 창조와 위훈의 거창한 대기념비를 세우며 달음질친다.

창출(創出: 비로소 창, 날 출) (그전에 없던것을) 새롭게 만들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것.

례: 《서로서로 리해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화해할줄도 아는 큰 심장— 이게 바로 지성도가 있는 대학생들의 심장이고 이것들이 부딪쳐서 우정이라는 값높은 세계를 창출해내는것이 아닐가.》(장편소설 《대학시절》)

처넣기, 쳐넣기

【공통뜻】 속이나 일정한 구역안에 들여보내거나 들게 하는것.

【개별뜻】

처넣기 속이나 일정한 구역안에 되는대로 마구 넣는것.

례: 《그런건 창고에나 처넣어라.》

쳐넣기 속이나 일정한 구역안에 때려서 들여보내는것.

례: 배구경기가 시작되자 우리 선수들은 강한 쳐넣기로 련속 점수를 올리였다.

철면피하다, 후안무치하다

【공통뜻】 뻔뻔스럽다.

【개별뜻】

철면피하다(鐵面皮: 쇠 철, 낯 면, 가죽 피) (낯가죽이 철판과 같다는 뜻으로) 주로 뻔뻔스럽고 렴치가 없다.

례: 철면피한 행동.

후안무치하다(厚顔無恥: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낯가죽이 두꺼워 전혀 부끄러워하는것이 없이 뻔뻔스럽다.

례: 후안무치한 섬나라족속들.

청렴하다, 청염하다

【공통뜻】 맑고 깨끗하다.

【개별뜻】

청렴하다(淸廉: 맑을 청, 청렴할 렴) 무엇을 탐내는 일이 없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례: 원래 창수는 녀성들처럼 조용하고 온순할뿐아니라 마음이 대줄기처럼 곧고 청렴한 사람이다.

청염하다(淸艶: 맑을 청, 고울 염) ① 어떤 모습이 맑고 아름답다.

례: 남수는 순희의 청염한 자태에 매혹되였다.

② 맛이나 냄새가 향기롭고 감미롭다.

례: 식초는 맛을 청염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여름음식에는 좋은 조미료이다.

촉기, 총기

【공통뜻】 다같이 인식능력을 나타냄.

【개별뜻】

촉기(觸氣: 찌를 촉, 기운 기) ① 감촉되는 기운.

② 사물현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예리하게 느끼는 눈치나 기운.

례: 동석준로인의 길지 않은 말속에는 많은 뜻이 스며있다는

것을 촉기빠른 분옥은 깨달았다.(장편소설 《새봄》)

총기(聰氣: 귀밝을 총, 기운 기) 리해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비상한 기운.

례: 순희는 총기가 어찌나 좋은지 지난번에 가르쳐준 력사책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었다.

추동, 휘동

【공통뜻】 어떤 행동수행에로 부추기는것.

【개별뜻】

추동(推動: 밀 추, 움직일 동) 어떤 일을 밀고나가도록 부추기거나 고무하는것 또는 밀어서 앞으로 움직여나가는것.

례: 시인 조기천선생은 우리 인민을 새 조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 시들을 많이 썼다.

휘동(麾動: 지휘할 휘, 움직일 동) ① 앞에 나서서 자기와 함께 행동할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부추기는것. 《선동》과 거의 뜻이 같다.

례: 영수는 물고기잡으러 가자고 아이들을 휘동했다.

② 지휘하여 움직이는것.

례: 인수는 3,7제를 받아내자며 마을청년들을 휘동해가지고 지주집으로 달려갔다.

추하다, 흉하다

【공통뜻】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

【개별뜻】

추하다(醜: 더러울 추) ① 무엇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례: 《방이 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오.》

② 말, 행동, 심보가 못되고 너절하다.

례: 돈만 아는 추한 심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자의 말에 작인들은 비위가 왈칵 뒤집혔다.

③ 얼굴이 못생겨서 보기에 흉하다.

례: 얼굴이 추하다.

흉하다(凶: 흉할 흉) ① 생김새가 보기 싫게 험상궂고 징그럽다.

례: 어린애는 흉하게 생긴 두꺼비를 보고 무섭다고 울어댔다.

② 좋지 않고 불길하다.

례: 흉한 징조. 흉한 기별.

③ 보기 싫게 사납거나 언짢다.

례: 흉한 인상. 글씨가 흉하다. 보기 흉하다.

④ 엉큼하고 불순하다.

례: 원쑤들의 흉한 계책. 흉한 마음.

축복, 축하, 축원

【공통뜻】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것 또는 그런 인사.

【개별뜻】

축복(祝福: 빌 축, 복 복) 앞날의 행복을 바라는것.

례: 갈매기들도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그들을 축복하듯 흰 깃을 한껏 펼치고 배전을 가볍게 돌고 있었다.

축하(祝賀: 빌 축, 축하할 하) 좋은 일로 되는 사실에 대하여 기쁘다고 인사하는것 또는 그런 인사.

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축원(祝願: 빌 축, 원할 원) 소원하는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것.

출현, 출연

【공통뜻】 나타나는것.

【개별뜻】

출현(出現: 날 출, 드러날 현) 보이지 않았던 어떤 대상이나 현상

이 나타나는것.

례: 력사의 새시대는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과 그 불멸의 자욱으로 시작된다.

200m목표 출현.

출연(出演: 날 출, 넓힐 연) 연단이나 무대에 나서서 강연, 연설, 공연 등을 하는것. 《출현》보다 뜻폭이 좁다.

례: 공연에 출연하다. 강연회에 출연하다.

친척, 인척

【공통뜻】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일정한 사회적집단.

【개별뜻】

친척(親戚: 친할 친, 겨레 척) 피줄 또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련결된 사람들의 일정한 사회적집단. 피줄로 련결된 친족과 혼인으로 맺어지는 인척으로 구성된다.

례: 일가친척.

인척(姻戚: 혼인 인, 겨레 척)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

례: 인척관계.

침울하다, 우울하다

【공통뜻】 명랑하지 못하다.

【개별뜻】

침울하다(沈鬱: 잠길 침, 답답할 울) ① 기분이나 분위기 등이 무겁게 가라앉아 명랑하지 못하고 답답하다.

례: 얼마전까지도 늘 침울한 기색으로 묻는 말에도 잘 대답하지 않던 박동무의 얼굴에 노상 웃음발이 서있는것을 보아 가정에 무슨 희한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②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스산하다.

례: 시꺼먼 구름이 잔뜩 낀 침울한 날씨.

우울하다(憂鬱: 근심 우, 답답할 울) 근심스러워 명랑하지 못하고

답답하거나 활기가 없다.

례: 부끄러움과 고민 그리고 자책에 뒤섞여 그는 요사이 몹시 우울해졌다.

쾌락, 희열

【공통뜻】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개별뜻】

쾌락(快樂: 쾌할 쾌, 즐거울 락) 유쾌해하며 즐거워하는것.

례: 고대로마의 노예주들은 검투노예들의 격투를 극장무대나 곡마장에 펼쳐 많은 돈벌이를 하였고 그들이 피를 흘리며 숨져가는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다.

희열(喜悅: 기쁠 희, 기쁠 열) 기쁨과 즐거움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것.

례: 희열에 넘친 얼굴. 생의 희열.

탐방, 탐사, 탐색, 탐조, 탐지

【공통뜻】 보이지 않는것을 찾아내는것.

【개별뜻】

탐방(探訪: 더듬을 탐, 찾을 방) ① 어떤 사실의 내용이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것.

례: 하나의 붓자루를 탐방의 지팡이로 삼아 …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리라.

② 명승지나 고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것.

례: 세계에 이름난 묘향산을 탐방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

탐사(探査: 더듬을 탐, 살필 사) 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이나 바다속의 물고기자원 같은것을 조사하여 알아내는것.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 등이 있다.

례: 지질탐사. 바다탐사.

탐색(探索: 더듬을 탐, 찾을 색) 드러나지 않은 사물현상을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이리저리 조사하여 살피는것.

례: 바다밑탐색. 자료탐색.

탐조(探照: 더듬을 탐, 비칠 조) 주로 어둠속에 있어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빛을 멀리 비치는것. 《탐조등》은 어둠속에 있는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밝은 빛을 내여 멀리 비치는 기구이다.

탐지(探知: 더듬을 탐, 알 지) ① 어떤 비밀에 속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 같은것을 은밀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밝혀내는것.

례: 비밀탐지. 적정탐지.

② 대상물자체가 복사하는 신호에 의하여 또는 대상물에서 반사되여 돌아오는 신호에 의하여 그 대상물의 자리표와 특성을 판정하는것.

례: 물고기떼탐지. 전파탐지.

터무니없다, 어처구니없다, 어이없다

【공통뜻】 리치에 맞지 않아 말이 안 나가도록 기가 막히다.

【개별뜻】

터무니없다 하는짓이 전혀 허황하고 엉뚱하여 어이없다.

례: 터무니없는 거짓말.

어처구니없다 《어이없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례: 《난 처음부터 그가 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짓이라구 감촉했지. 아니나다를가 한달도 못돼 그 엉터리가 잡혔구려.》

어이없다 하도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할수 없다.

례: 《정말 어이없어서.》

통달하다, 암송하다

【공통뜻】 어떤 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다.

【개별뜻】

통달하다(通達: 통할 통, 사무칠 달) 일정한 내용이나 일정한 부문의 지식, 기술 같은것을 환히 꿰들어 알다.

례: 그는 콤퓨터조작체계를 완전히 통달하고있다.

암송하다(暗誦: 어두울 암, 외울 송) 글을 보지 않고 외우다.

례: 외국어단어를 암송하다. 본문을 암송하다.

태연자약하다, 태연하다

【공통뜻】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개별뜻】

태연자약하다(泰然自若: 클 태, 그럴 연, 스스로 자, 같을 약) 강한 심리적충격이나 자극을 받을수 있는 어떤 사실을 대하거나 체험하면서도 자기를 본래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표정이 변하거나 하지 않고 매우 태연하다.

례: 옥이는 명남이의 편지를 받고 제아무리 태연자약하려 해도 처녀들앞에서 울렁거리는 마음을 숨길수는 바이 없었다.

※ 바이—전혀 또는 감히.

태연하다(泰然: 클 태, 그럴 연)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 않으며 평상시 그대로이며 례사롭다.

례: 그는 아무 거리낌없는듯 태연하려고 애썼으나 그의 어조에는 어딘가 두려워하는 눈치가 알렸다.(중편소설 《탄전의 주인》)

포섭, 포용

【공통뜻】 받아들이는것.

【개별뜻】

포섭(包攝: 쌀 포, 끌 섭) 적대관계에 있거나 서로 다른 처지에 있던 사람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대하여 자기편으로 관대히 받아주고 감싸주는것.

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참된 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폭넓은 포섭정책과 관대정책.

포용(包容: 쌀 포, 얼굴 용)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것.

례: 언제나 도량이 넓게 남의 결함을 포용할줄 아는 성인이 되여야 한다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였다.(장편소설 《높새바람》)

피곤, 피로

【공통뜻】 무슨 일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

【개별뜻】

피곤(疲困: 피곤할 피, 곤할 곤) 잠을 못 자거나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것.

례: 나는 너무 피곤하여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피로(疲勞: 피곤할 피, 수고로울 로)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프거나 피로와진 상태.

례: 며칠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다나니 피로가 겹쌓였다.

《피곤》은 단순히 잠이 모자라서 지친 상태이므로 자고나면 풀리지만 《피로》는 휴식없이 일하여 지친 상태이므로 잠을 자는것과 함께 일정한 기간 안정해야 풀린다는데 차이가 있다.

한담, 여담

【공통뜻】 기본적인것이 아닌 이야기.

【개별뜻】

한담(閒談: 한가할 한, 말씀 담) 한가로운 시간 다시말하여 시간상

겨를이 있을 때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나 그리 요긴하지 않은 이리저러한 이야기.

례: 이 바쁜 모내기철에 한담이나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는가.

여담(餘談: 남을 여, 말씀 담) 나머지 이야기라는 뜻으로 본문제와 그리 관계가 없이 흥미로 곁달아서 하는 말.

례: 그들의 사업토론은 잠간 여담으로 흘러갔다.
그와 관련하여 여담삼아 한가지 할 말이 있다.

한생, 생애

【공통뜻】 일생.

【개별뜻】

한생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례: 세월의 가장 험한 바람받이에서 한생을 걸어가시는 아버님이시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생애(生涯: 날 생, 물가 애) 살아있은 한평생동안.

※ 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한생에 대하여 쓰는 말.

례: 시인 조기천의 생애와 창작활동.

항해, 항행

【공통뜻】 바다나 하늘에서 주어진 자리길을 따라다니는것.

【개별뜻】

항해(航海: 배 항, 바다 해) ① 배로 바다를 건느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다니는것.

례: 《항해권》이란 배로 바다를 건느거나 배를 타고 바다우로 다닐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바다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배길을 따라 목적지로 배를 인도하는것.

항해는 항법에 따라 지문항해, 천문항해, 무선항해, 가도항해로 나눈다.

항행(航行: 배 항, 다닐 행) 배, 비행기, 우주비행선 같은것을 타고 항로를 따라 혹은 비행자리길을 따라 일정한 목적지까지 떠가거나 날아다니는것. 《항행하다》로 많이 쓰인다.

《항해》보다 《항행》의 뜻폭이 넓다. 그것은 《항》자가 《배》만 가리키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구》들까지 가리키기때문이다. 따라서 《항로》(航路)라고 하면 배길과 비행기길을 다 가리키고있다.

헛총, 헛방

【공통뜻】 바로 맞히지 않은것이나 못한것.

【개별뜻】

헛총 대방을 위협하거나 소리만을 낼 목적으로 총부리를 아무데나 대고 쏘는것 또는 총알을 재우지 않고 방아쇠만 당기여 쏘는 시늉만 하는것.

례: 헛총을 놓다. 헛총질을 하다.

헛방 ① 쏘아서 과녁을 맞히지 못하는 총질이나 활질.

례: 그가 쏘는 화살에는 헛방이 없었다.

②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례: 《갔던 일은 헛방을 놓고 왔네.》

혈친, 혈육

【공통뜻】 피줄이 같은 사람.

【개별뜻】

혈친(血親: 피 혈, 친할 친) 피줄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척.

혈육(血肉: 피 혈, 고기 육) ① 피와 고기.

②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례: 혈육 한점 없는 고아의 신세.

호걸, 영걸, 인걸, 준걸

【공통뜻】 도량이나 기개가 뛰여난 사람.

【개별뜻】

호걸(豪傑: 호걸 호, 호걸 걸) ① 도량이 넓고 기개가 뛰여난 사람.

례: 호걸남아.

② 무예와 용맹이 뛰여난 사람.

례: 영웅호걸.

영걸(英傑: 꽃부리 영, 호걸 걸) 뛰여나게 영특한 큰 인물.

례: 《내가 싸울 때에 군사를 이끌어줄 영걸이 없어서 수백 수천이 풍찬로숙을 하다가도 끝내는 말년에 이 몰골로 됐지만 인제 너희들 대에야 아무렴 그렇게 되겠니?》(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인걸(人傑: 사람 인, 호걸 걸) 걸출한 인물 또는 훌륭한 인재.

례: 세상이 어지러우매 인걸이 난다 하였거니와 우리 겨레는 이렇게 망국의 암흑속에서 민족재생의 태양을 맞이하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준걸(俊傑: 뛰여날 준, 뛰여날 걸)＝준사 재주나 지혜가 뛰여나 큰 일을 할만 한 사람.

호방하다, 호탕하다

【공통뜻】 시원시원하고 사내답다.

【개별뜻】

호방하다(豪放: 호걸 호, 놓을 방) 걸걸하고 시원시원하다.

례: 호방한 성격. 호방한 웃음.

호탕하다(豪宕: 호걸 호, 호탕할 탕) 성격이 활달하고 기운차거나 웃는 모양이 막힌데 없이 기운차고 사내답다.

례: 호탕한 성격. 호탕하게 웃다.

혼돈, 혼동

【공통뜻】 어떤 대상,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것.

【개별뜻】

혼돈(混沌: 섞일 혼, 섞일 돈) 이것저것 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섞이거나 뒤엉키는것.

례: 아무것이나 순서대로 놓지 않거나 이것저것 섞어놓으면 혼돈하게 된다.

혼동(混同: 섞일 혼, 한가지 동) 서로 구별되는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것처럼 생각하면서 뒤섞는것.

례: 사람들은 흔히 처음 보는 쌍둥이들을 혼동하기가 일쑤이다.

혼몽, 혼미

【공통뜻】 정신이 흐려진 상태.

【개별뜻】

혼몽(昏夢: 어두울 혼, 꿈 몽) 꿈속에 잠기듯 정신이 흐려지고 가물가물한 상태. 주로 동사 《혼몽하다》상태로 많이 쓰인다.

례: 혼몽한 정신에서 깨여나다.

혼미(昏迷: 어두울 혼, 미혹할 미) 의식이 흐려져서 깊은 잠에 든것 같다가 깨우면 알아차린듯 하다가 다시 자는것.

례: 혼미상태에 빠진 환자.

후손, 후예

【공통뜻】 후대.

【개별뜻】

후손(後孫: 뒤 후, 손자 손) ① 여러대가 지난 뒤의 자손.

례: 강철우는 자기가 강감찬장군의 후손이라고 흰소리를 쳤다.

② 후대.

후예(後裔: 뒤 후, 옷깃 예) 피줄과 풍속을 면면히 이어온 후손.

례: 그는 비록 낯설은 땅에서 살아오지만 단군민족의 후예로서 그의 몸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다.

흐리멍텅하다, 흐리터분하다

【공통뜻】 무엇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분명치 않다.

【개별뜻】

흐리멍텅하다 ① 밝거나 똑똑하지 못하고 흐리다라는 뜻으로 《명확하다》, 《또릿하다》의 반대말로 쓰인다.

례: 흐리멍텅한 화면. 흐리멍텅한 정신. 흐리멍텅한 얼굴. 언어표현에서 명료성을 보장하려면 흐리멍텅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② 날씨 같은것이 정신이 들도록 개여있지 못하다.

례: 흐리멍텅한 하늘.

흐리터분하다 ① 흐리여 맑거나 산뜻하지 못하고 어지럽거나 답답하다.

례: 정신이 흐리터분하다. 흐리터분한 날씨.

② 깨끗하지 못하고 어지러운데가 있다.

례: 흐리터분한 생각. 흐리터분한 요소.

흐지부지, 유야무야(우야무야)

【공통뜻】 분명치 않은 모양.

【개별뜻】

흐지부지 말과 행동, 사업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게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하는 모양 또는 그 한계나 결과가 분명치 못한 모양.

례: 한때 떠들던 그 문제는 흐지부지하다가 그대로 밀어두고말았다.

유야무야(有耶無耶: 있을 유, 조사 야, 없을 무, 조사 야)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것 또는 하던 일을 도중에서 그만두는것 즉 있는것 같기도 하고 없는것 같기도 한것. 주로 동사형태 《유

야무야하다》로 쓰인다.

례: 허수아비처럼 유야무야한 존재.

흥치, 흥취

【공통뜻】 흥을 돋구는 멋.

【개별뜻】

흥치(興致: 일 흥, 이를 치) ① 흥겨웁고 고상한 멋.

례: 물찬 제비처럼 창공에 미끈한 자태를 드러낸 평양대극장을 배경으로 하여 봄비에 젖어 실실이 늘어진 수양버들이 더욱 거리의 흥치를 돋군다.

② =흥취

흥취(興趣: 일 흥, 흥취 취) 흥을 돋구는 멋.

례: 어떤 학문이든지 처음 배울 때에는 심오한것 같기도 하고 무미건조한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가면 갈수록 흥취가 나며 책을 손에서 놓고싶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공통뜻】 무엇을 해내기에 헐치 않다.

【개별뜻】

힘들다 ① 힘이 쓰이여 없어지다.

례: 군내 인민들이 힘들여 거기에다 길을 냈다.

② (형용사로 쓰이여) 어렵거나 곤난하다.

례: 제시간에 돌아오기는 힘들게 되였다.

힘든 걸음을 걷다. 알아듣기 힘든 말.

어렵다 ① 여간해서는 해내기 힘겹다.

례: 어렵고 힘든 일에 청년들이 앞장서자!

파기 어려운 굳은 땅.

② 곤난과 시련이 많다.

례: 어려운 난관.

③ 딱하고 난처하다.

례: 차마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주저하였다.

④ (말이나 어떤 문제의 뜻을) 리해하기가 까다롭다.

례: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쉬운 말을 써야 한다.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

⑤ 지난날에 가난한탓으로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례: 전후시기 어렵게 사는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을 조직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⑥ (존경하거나 인끔에 눌리워 마음놓고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 인끔—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

례: 그에게는 작은아버지가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⑦ (행동이) 간단치 않거나 조련찮다.

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까?》

⑧ (《~기》형 다음에 쓰이여) 그럴 가능성이 적다.

례: 자주 만나기 어렵다.

해답, 회답

【공통뜻】 어떤 문제에 대답을 주는것.

【개별뜻】

해답(解答: 풀 해, 대답할 답)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것 또는 풀어놓은 답.

례: 그는 아는것이 많아 아무것이나 물어봐도 척척 해답을 주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부른다.

회답(回答: 돌아올 회, 대답할 답) 편지나 물음, 련락 등에 대하여 상대편에게 대답을 보내는것 또는 그 대답. 외교사업에서 공식적인 문건에 의견이나 대답을 보내는것도 여기에 속한다.

례: 회답편지. 회답서한.

해박하다, 정박하다

【공통뜻】 폭넓게 알다.

【개별뜻】

해박하다(該博: 갖출 해, 넓을 박) 여러 방면으로 지식이 넓다.

례: 일군들은 누구나 다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되여야 군중의 존경과 믿음을 받게 된다.

정박하다(精博: 정할 정, 넓을 박) 여러 방면의 지식을 그것도 세세한데까지 깊이 알다.

례: 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자면 모든 것에 정박해야 한다.

해석, 해설

【공통뜻】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설명하다.

【개별뜻】

해석1(解釋: 풀 해, 풀 석) 뜻과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것 또는 그 설명.

례: 이 단어의 뜻에 대하여 해석하시오.

해석2(解析: 풀 해, 쪼갤 석) ① 사물현상을 분석하여 리론적으로 연구하는것.

② (수학에서) 도형과 그 관계를 기호나 수식으로 나타내고 풀이하는 일.

례: 해석수학.

해설(解說: 풀 해, 말씀 설)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것.

례: 로인들은 자세한 해설을 듣고서야 협동조합의 우월성을 느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행동, 행위

【공통뜻】 어떤 움직임.

【개별뜻】

행동(行動: 다닐 행, 움직일 동) ① 몸을 움직여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일을 하는것.

례: 실천적인 하나의 행동이 열백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때가 있다.

② 말하는것을 포함한 사람의 모든 움직임.

례: 말도 사상의 표현이고 행동 역시 사상의 표현으로 된다.

행위(行爲: 다닐 행, 할 위) 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회의 관심사로 되는 말이나 행동.

례: 위법행위. 언어행위. 훌륭한 행위. 나쁜 행위.

②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공민의 실천활동.

례: 공민적자각을 더 잘 준수하려는 행위.

회고, 회상

【공통뜻】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것.

【개별뜻】

회고(回顧: 돌아올 회, 돌아볼 고)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것.

례: 그는 자기의 곡절많은 과거에 대하여 회고하는듯 잠시 묵묵히 앉아있었다.

회상(回想: 돌아올 회, 생각 상)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는것 또는 그 생각.

례: 이야기는 어느덧 저마다의 고향의 순박한 풍속이며 아름다운 산천에 대한 회상으로 넘어갔다.

《회고》는 오래된 지난 일을 경과한 과정에 대해 오늘의 립장에서 돌이켜 생각해본다는 뜻이 있고 《회상》은 오래된 일이건, 가까운 일이건 관계없이 지난 일에 대해 주로 인상적인 사실을 기억을 더듬어 생각할 때 쓰인다. 이와 함께 《회고》는 《돌이켜본다》는 뜻이 더 강조되며 《회상》은 《생각한다》는 뜻이 더 강조된다.

활달하다, 활발하다

【공통뜻】 좀스럽지 않고 시원시원하다.

【개별뜻】

활달하다(豁達: 너그러울 활, 사무칠 달) 탁 티여서 넓고 시원시원하다.

례: 그는 생긴것그대로 성격 또한 활달했다.

활발하다(活潑: 살 활, 활발할 발) 성격이 시원시원하거나 모습이 생기있고 기운차다.

례: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황겁히, 황급히

【공통뜻】 정신없이.

【개별뜻】

황겁히(惶怯: 두려울 황, 겁날 겁) 두렵고 겁이 나서 정신없이.

례: 나무에서 황겁히 뛰여내린 철이는 벗어진 신짝을 집어들고 골목길로 냅다 뛰였다.

황급히(遑急: 급할 황, 급할 급) 허둥지둥하도록 다급하게 서둘러.

례: 대렬이 소년단야영소를 향하여 떠났다는 말을 듣자 철수는 황급히 야영가방을 메고 뛰여갔다.

깔보다, 얕잡아보다

【공통뜻】 남을 낮추어보다.

【개별뜻】

깔보다 남을 홀하게 대하거나 낮추보다. 업신여기는 느낌이 있다.

례: 부자집 아들은 명식이가 못사는 집 아이라고 깔보며 그를 마구 때렸다.

얕잡아보다 실제보다 낮추어서 하찮게 대하다.

례: 철수는 이번 탁구경기에서 상대방을 얕잡아보다가 그만 지고말았다.

꺼리다, 꺼리끼다

【공통뜻】 꺼림하게 여기다.

【개별뜻】

꺼리다 해로울것 같아서 싫어하며 피하거나 마음에 꺼림하게 여기다.

례: 그는 옷자락만 공연히 매만지며 선뜻 말하기를 꺼리였다.

꺼리끼다 꺼림직하거나 어색하게 생각되다.

례: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싶어 꺼리끼는 점도 없지 않다.

꽁하다, 옹졸하다, 용렬하다

【공통뜻】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거나 트이지 못하다.

【개별뜻】

꽁하다 ① 마음이 트이지 못하고 말없이 속으로만 좁게 생각하는 성질이 있다.

례: 꽁한 성격.

② 마음속에 은근한 앙심이 있다.

례: 순애는 아침에 인옥이와 다툰 일때문에 꽁해가지고 교실에 홀로 앉아있었다.

옹졸하다(壅拙: 막을 옹, 용렬할 졸) 마음이나 생각이 좁고 좀스럽다.

례: 《사내자식의 속통이 그렇게 아낙네들보다도 옹졸해가지구서야 어디에 쓰겠나?》

용렬하다(庸劣: 떳떳할 용, 용렬할 렬)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다.

례: 정작 동무들의 뜨거운 충고를 받고보니 자기가 얼마나 용렬한 인간이였는가를 되새겨보게 되였다.

꾸리다, 꾸미다

【공통뜻】 무엇을 손질하다.

【개별뜻】

꾸리다 ① 싸서 묶다.

례: 짐을 꾸리다.

② (장소나 건물 같은것을) 쓰기 좋도록 만들거나 손질하여 요구하는대로 만들다.

례: 실험실을 꾸리다. 집을 꾸리다.

③ (조직이나 기관 같은것을)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구성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다.

례: 핵심력량을 꾸리다.

④ (살림이나 생활 같은것을) 알뜰하고 규모있게 차리거나 마련하다.

례: 살림을 꾸리다.

꾸미다 ① (보기에나 쓰기에 좋도록) 매만져 차리거나 손질하여 다듬다.

례: 문장을 꾸미다. 머리를 꾸미다.

② 어떤 물건을 매거나 바느질하여 만들다.

례: 이부자리를 꾸미다. 그물을 꾸미다.

③ 거짓이나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지어내다.

례: 거짓말을 꾸며내다. 음모를 꾸미다.

④ 마음에 없는것을 억지로 지어내다.

례: 일행은 그 웃음이 동지들을 위하여 우정 꾸미는 웃음이라는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그 웃음을 쳐다본 한순간이나마 마음이 개운해져서 은근히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⑤ 어떤 일을 짜고 만들어내다.

례: 작전을 꾸미다. 일을 꾸미다. 극을 꾸미다.

꿰들다, 꿰뚫다

【공통뜻】 무엇에 대하여 잘 알다.

【개별뜻】

꿰들다 ① 무엇을 꿰여서 쳐들다.

례: 고기덩이를 꼬챙이에 꿰들다.

② 어떤 내용이나 사정을 환하게 잘 알고있다.

례: 작업반장은 반원들의 성격과 취미, 준비정도는 물론 그들의 가정형편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꿰들고있었다.

③ 남의 허물이나 약점 같은것을 끄집어들다.

례: 동무의 잘못을 꿰들고 다니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꿰뚫다 ① 무엇을 꿰여서 맞구멍이 나게 뚫다.

례: 화살이 과녁을 꿰뚫었다.

차굴이 산허리를 꿰뚫고 지나갔다.

② 사물의 본질이나 사건, 형세의 내막을 헤아려 환히 내다보거나 들여다보다.

례: 앞날을 꿰뚫어보다. 남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다.

③ 무엇에 익숙하여 막힘없이 잘 알다.

례: 운전사인 그는 차의 기관상태를 환히 꿰뚫고있었다.

④ (난관이나 어려움 같은것을) 끝까지 헤쳐나가거나 이겨내다.

《꿰뚫다》가 주로 무엇에 대하여 그 속내용까지 깊이 알고있다는 뜻을 가진다면 《꿰들다》는 주로 무엇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 알고있다는 뜻을 가진다.

아둔하다, 암둔하다

【공통뜻】 무엇을 보고 깨닫는데서 매우 무디다.

【개별뜻】

아둔하다 머리를 쓰는데서 매우 둔하다. 《총명하다》, 《령리하다》의 반대뜻이다.

례: 《사흘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다는게 겨우 서른장을 넘겼습니다. 워낙 생겨먹기가 아둔한데다가 또 늦게 공

부를 시작했기때문에…》

암둔하다(闇鈍: 어두울 암, 둔할 둔) 보고 들은것, 체험한것이 없어 사리에 밝지 못하거나 정세발전과 시대적추세에 어둡고 무디며 어리석고 둔하다.

례: 연구실의 울타리속에만 파묻혀있던 허일은 우리 나라 광업의 구체적인 실태와 생산현장실정에 너무도 암둔했다. (장편소설 《지하의 별들》)

아명, 애명

【공통뜻】 성을 붙이지 않은 림시적인 이름.

【개별뜻】

아명(兒名: 아이 아, 이름 명) 아이때의 이름.

례: 순명의 아명은 《바위》였다.

애명(愛名: 사랑 애, 이름 명) 사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지어낸 림시이름.

례: 병사시절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때 우리 1945년생들에게는 군사복무의 전기간 해방동이라는 애명이 덧붙어있었다.

안색, 신색

【공통뜻】 얼굴빛.

【개별뜻】

안색(顔色: 얼굴 안, 빛 색) 심리적작용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빛갈이나 상태.

례: 흐려진 안색. 밝은 안색.

신색(神色: 귀신 신, 빛 색) 남을 높이여 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빛》을 이르는 말.

례: 《얼굴이 불깃불깃한게 신색이 아주 좋구나.》

안치다, 앉히다

【공통뜻】 ㅡ

【개별뜻】

안치다 어떤것을 삶거나 찌기 위하여 솥에 넣다.

례: 쌀을 가마에 안치다. 닭을 잡아서 안치다.

앉히다(《앉다》의 사역형으로서) ① 엉치를 바닥에 붙이고 웃몸을 세우게 하다.

례: 결상에 앉히다. 땅바닥에 앉히다.

② (어떤 물건이나 시설 같은것을) 일정한 곳에 자리잡게 하거나 차려놓다.

례: 골안에는 경기장을 앉혔다.

③ (문제나 과제 같은것을) 잡아 정하다.

례: 과제로 앉히다.

④ (어떤 문구 같은것을) 따로 자리잡아 기록하다.

례: 명제를 앉히다. 제목을 큰글자로 앉히다.

⑤ 어떤 직위나 일자리에 있게 하다.

례: 기사장으로 앉히다.

⑥ (떠있던 물질이) 모여 쌓이거나 들어붙다.

례: 앙금을 앉히다.

일부 경우에 《안치하다》를 《안치다》, 《앉히다》와 혼돈하여 쓰고있는데 《안치하다》는 《령구를 안치하다.》, 《진렬품을 안치하다.》와 같이 《일정한 곳에 소중히 모시거나 정히 배치하다.》를 뜻하는 말이므로 잘 가려 써야 한다.

앞서, 앞질러

【공통뜻】 보다 먼저.

【개별뜻】

앞서 ① 이보다 먼저.

례: 앞서 떠난 사람.

② 지난번에.

례: 《앞서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우리들이 전적지답사에 곧 떠난다는것을 알려주었소.》

③ 아예 미리.

례: 《미리미리 생각해서 앞서 해두었더라면 이렇게 바삐 서둘지 않아도 되지요?》

④ 《～에》형의 명사와 함께 쓰이여 《그보다 전에》.

례: 발표에 앞서 론문을 돌려보기로 하였다.

앞질러(동사 《앞지르다》의 접속형) 남보다 빨리 행동하여 앞을 차지하거나 또는 남의 말이나 행동, 생각에 앞서서.

례: 중대장은 대원들을 인솔하고 적을 앞질러 먼저 고개길에 당도하였다.

앞질러 말하다. 앞질러 해놓다.

약바르다, 약삭바르다

【공통뜻】 지나치게 눈치가 빠르다.

【개별뜻】

약바르다 ① 매우 약고 령리하다.

례: 사실 옥분이는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거동은 누구보다도 약발랐다.

②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다.

례: 바둑경기에서는 언제나 약바른 선남이가 이기군 하였다.

약삭바르다 ① 깜찍스럽게 약바르다.

례: 그애는 약삭바르고 빨라서 이 골짜기안의 일은 죄다 알고있었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② 얄미울 정도로 남의 생각이나 의도를 미리 알아채고 앞질러

자기의 리속에 맞게 행동하는것이 날쌘데가 있다. 주로 부정적 뜻빛갈을 가진다.

례: 취새끼처럼 약삭바른 송치환은 신종섭의 첫 대답소리를 듣고 벌써 자기의 실언을 알아차린듯 얼른 말투를 바꾸었다.(장편소설 《적후의 별들》)

어리석다, 어리숙하다, 어리숭하다

【공통뜻】 모자라고 둔하다.

【개별뜻】

어리석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둔하다.

례: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눈감고 아웅하는 수작에는 속지 않아.》

어리숙하다 좀 어리석거나 어수룩하다.

례: 사람들은 그가 뒤에서 제 리속만 차리면서 겉으로는 어리숙한체 한줄을 모르고 그저 무던한 사람으로만 여겨왔다.

어리숭하다(아리숭하다) ① 그런지 안 그런지가 똑똑치 않아 떨떨하다.

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지 기억에 어리숭하다.

② 얼핏 보기에 어리석은듯 하다.

례: 성길이는 이제 겨우 여덟살이 되여 어리숭해보이지만 실지로는 열살 넘은 아이같이 여무지고 당돌한 아이이다.

어망간, 어망결

【공통뜻】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개별뜻】

어망간=어망중 갑작스럽게 당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례: 어망간에 형빈이는 어리둥절해서 순임의 뒤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장편소설 《태양의 아들》)

영식이가 집으로 가자고 하자 덕일이는 어망중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였으나 마음속에서는 돌아갈 결심이 서지 않았다.

어망결 정신이 매우 얼떨해진 사이.

례: 갑룡이는 이렇게 입을 열었으나 갑자기 어떻게 둘러댈지 몰라 어망결 망설이다가 계속하였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얼간이, 얼뜨기

【공통뜻】 똑똑치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

【개별뜻】

얼간이 소금을 쳐서 약간 절인것이라는 비유적뜻으로 왕성하지 못하고 한풀 죽은 사람 즉 좀 모자라거나 똑똑치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례: 《너 같은 얼간이에게 일을 맡긴 내가 잘못이지.》

얼뜨기 얼뜬한 사람 즉 멍청하고 얼떨떨한 사람을 이르는 말.

례: 《그 왜놈들이 행패질하는걸 눈뜨고 보고만 있었단 말이지. 그래 그 마을에 얼간이, 얼뜨기들만 남아있었단 말인가!》

여무지다, 오돌차다

【공통뜻】 사람의 성품이나 체모가 허수한데가 없이 단단하고 알차다.

【개별뜻】

여무지다 동사 《여물다》(낟알이나 열매 같은것이 알이 들어 익다.)에서 나온 형용사로서 생김새, 성질이나 마음, 의지 같은것이 굳세고 단단하다.

례: 여무지게 생긴 총각. 여무진 생각.

오돌차다 허수한데가 없이 매우 단단하고 여무지다. 애칭적인 뜻빛갈을 가진다.

례: 령리하고 오돌차게 보이는 소년.

《아버지의 원쑤를 갚게 해주십시오.》 영식의 오돌찬 말소리가 방안을 울렸다.(장편소설 《전선지구》)

연분, 인연

【공통뜻】 서로 맺어지는 관계.

【개별뜻】

연분(緣分: 인연 연, 나눌 분)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뗄수 없고 피할 길 없는 관계.

례: 그 역시 연분이라 할는지 하여간 그는 생각밖에 장가를 잘 들었다.(단편소설 《농부 정도룡》)

인연(因緣: 인할 인, 인연 연) 서로 까닭이 있어서 맺어지는 관계.

례: 한영희네 집 역시 교하에 있어서 두 집안의 인연은 각별하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오견, 오판, 오측, 오인

【공통뜻】 그르게 된것.

【개별뜻】

오견(誤見: 그를 오, 볼 견) 잘못된 생각이나 그릇된 견해.

례: 사물현상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는 사람은 오견을 가지기마련이다.

오판(誤判: 그를 오, 판단할 판) 잘못된 판단.

오측(誤測: 그를 오, 헤아릴 측) ① 잘못 측량하거나 잘못 측정하는것.

례: 이 지역은 특별히 기형적이여서 오측이 많은지라 서뿔리 결론을 내릴수가 없었다.

② 잘못 추측하거나 판단하는것.

오인(誤認: 그를 오, 알 인) 잘못 알거나 잘못 인정하는것.

례: 너무나 다정한 말씀에 그의 눈굽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

혀있었는데 다난한 반생이 회상되여 흘리는 눈물로 오인될수 있었다.(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

오로지, 오직

【공통뜻】 단 하나만을 뜻하는 부사.

【개별뜻】

오로지 오직 한곬으로.

례: 오로지 한가지 생각.

오직 여럿가운데서 단 하나만 또는 달리는 되지 않고 다만. 쓰일 때에는 《오직 …만》, 《오직 …뿐》, 《오직 하나…》의 형식을 취한다.

례: 《오직 그 사람뿐인가? 딴 사람은 오지 않았던가?》

요청, 소청, 간청

【공통뜻】 청하는것.

【개별뜻】

요청(要請: 긴요할 요, 청할 청) 긴요한 요구나 그 요구를 청하는것.

례: 철옥은 노래를 부르라는 동무들의 요청을 뿌리칠수 없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청(所請: 바 소, 청할 청) 청하거나 바라는바.

례: 《분명 무슨 소청이 있을것 같은데 내앞에서 서슴없이 말해보게.》

간청(懇請: 정성 간, 청할 청) 매우 간절하게 청하는것 또는 그 청.

례: 아바이는 우리들의 간청에 못이겨 메고지에서 싸우던 당시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유서, 유훈, 유언

【공통뜻】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나 글.

【개별뜻】

유서(遺書: 남길 유, 글 서) 유언을 쓴 글.

례: 유서를 남기다.

유훈(遺訓: 남길 유, 가르칠 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가르침.

유언(遺言: 남길 유, 말씀 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죽기 전에 부탁하여 남긴 말.

례: 아버지의 유언.

이쁘다, 예쁘다

【공통뜻】 곱살하게 생기다.

【개별뜻】

이쁘다 곱고 아름답다.

례: 방안에서는 이쁘게 생긴 처녀가 수를 놓고있었다.

예쁘다 귀염성스럽게 이쁘거나 매우 탐스럽고 아름답다.

례: 옥이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서니 양복을 입었을 때와는 판판 다르게 숙성해보이고 훨씬 더 예뻐보인다.

인정하다, 인증하다

【공통뜻】 –

【개별뜻】

인정하다(認定: 알 인, 정할 정)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거나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이러이러하다고 확정하다.

례: 인정을 받다. 사실을 인정하다.

인증하다(引證: 당길 인, 증험할 증) 어떤 사실이나 내용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데서 근거자료를 끌어다가 증거로 삼다.

례: 모든 공리와 자명한 사실은 구태여 인증할 필요가 없다.

일거량득, 일거량실

【공통뜻】 한가지 일을 하여놓고 두가지 결과를 보게 되는것.

【개별뜻】

일거량득(一擧兩得: 한 일, 들 거, 두 량, 얻을 득) 한가지 일을

하여 두가지 리득을 보는것.

례: 토끼를 많이 쳐서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털가죽으로는 모자, 외투를 만드니 이거야말로 일거량득이다.

일거량실(一擧兩失: 한 일, 들 거, 두 량, 잃을 실) 한가지 일을 하여 두가지 손실을 보는것.

례: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모두다 잃는 일거량실이 될것 같다. (장편소설 《고향》)

일편단심, 허위단심

【공통뜻】 애를 쓰는 마음.

【개별뜻】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일, 쪼각 편, 붉을 단, 마음 심) 한쪼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오직 한곬으로만 바쳐지는 참답고 극진한 마음》을 의미한다.

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하다.

허위단심 우리 말 고유어로서 일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 허위적거리며 갖은 애를 쓰는 모양을 의미한다.

례: 그는 귀한 약재인 산삼을 구하려고 허위단심을 하며 심산속을 훑었다.

부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례: 허위단심 그는 어슬녘에야 건설장에 도착했다.

고유어 《허위대다》는 《허우적거리다》라는 뜻이며 따라서 《허위단심》에서 《허위》는 《허우적거림》을 가리키는 말로 된다.

일떠서다, 일어서다

【공통뜻】 사람이 분발하거나 건물이 새로 건설되다.

【개별뜻】

일떠서다 ① 힘차게 일어서다.

례: 모두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② 주로 건축물이나 기념비와 같은 창조물이 새로 건설되여 땅우에 솟아나다.

례: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밤깊도록 그칠줄 몰랐다.

일어서다 ① 몸을 일으켜 서다. 이 경우는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상태에서 서는 행동을 이르는 말로 된다.

례: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가겠습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② 다시 추서거나 새로 생기다.

례: 고층건물들이 수풀처럼 일어섰다.

병을 털고 일어서다.

③ 《겉으로 두드러지거나 우로 솟다.》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례: 바위돌을 때리는 개울물이 길길이 일어섰다.

잃다, 잊다

【공통뜻】 무엇을 놓쳐버리다.

【개별뜻】

잃다 ① 주로 《가지고있던 어떤 대상을 떨어뜨리거나 놓치거나 하여 없게 되다.》의 뜻을 가진다.

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열쇠를 잃어버리다.

② (낡은 사회에서) 도적을 맞거나 손해를 보게 되다.

례: 소매치기때문에 돈지갑을 잃어버렸다.

③ 권리나 자격, 지위나 명성 등을 빼앗기다.

례: 나라의 자주권을 잃다.

④ 의식이나 생리적현상 같은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례: 리성을 잃어버리고 분별없이 행동하다. 신념을 잃다.

시력을 잃다. 입맛을 잃다.

⑤ 자기곁에서 떨어져나가 멀어지거나 갈라지다.

례: 군중을 잃어버리면 일군의 자격도 상실된다.

⑥ 동지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헤여지다.

례: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났다.

⑦ 무엇을 얻지 못하고 놓쳐버리다.

례: 모내기철을 놓치면 숱한 알곡을 잃어버리게 된다.

⑧ 방향, 길 같은것을 찾지 못하여 잘못 들어서다.

례: 《이곳에 오는 길을 잃어버려 밤새껏 고생했구만.》

잊다 ①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이 안 나다.

례: 배운 내용을 잊어버려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② (응당 하여야 할 일이나 지녀야 할 립장, 정신적풍모 등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저버리다.

례: 《벌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

본분을 잊다. 의무를 잊다.

③ 자기가 하려던 일을 머리에 새겨두지 못하여 놓치다.

례: 가지고 오려던 책을 깜빡 잊었다.

④ 어떤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하지 않다.

례: 근심을 잊다. 시름을 잊다.

⑤ 어떤 일에 정신이 팔리여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닥친 일을 느끼지 못하다.

례: 공부를 하느라 잠도 끼니도 잊었다.

애걸, 복걸, 애원

【공통뜻】 소원하는것.

【개별뜻】

애걸(哀乞: 슬플 애, 빌 걸) 어떤 요구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

게 비는것. 동사형태 《애걸하다》로 많이 쓰인다.

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것을 알게 된 방지주는 항일유격대원들앞에서 두손을 살살 비벼대면서 애걸했다.

복걸(伏乞: 엎드릴 복, 빌 걸) 엎드려서 비는것.

례: 《글쎄, 왜들 이러세요! 저를 보시구 참으세요. 최선생! 저를 보구 제발 이러지 마세요. …》 하고 애걸복걸을 한다.

혼자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주로 《애걸》과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애원1(哀願: 슬플 애, 원할 원) 요구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타게 간절히 바라는것.

례: 눈물어린 애원.

애원2(哀怨: 슬플 애, 원망할 원) 슬프게 원망하는것.

례: 망국노의 운명을 애원하며 해외로 떠나갔던 애국지사들…

애달프다, 애모쁘다

【공통뜻】 마음이 안타깝다.

【개별뜻】

애달프다 ① 마음이 안타깝게 쓰리거나 쓰라리다.

례: 유격대에 들어와 총을 잡은 그는 자기의 애달픈 처지를 남몰래 슬퍼만 하던 어제날의 복순이가 아니였다.

② 마음이 애처롭고 쓸쓸하다.

례: 애달프게 우는 소쩍새소리.

애모쁘다 (정겹기는 하나 성화를 받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타고 안타깝다.

례: 《세살이나 되는게 온종일 떼만 쓰니 정말 애모빠죽겠구나.》

애꿎다, 애끊다

【공통뜻】 마음이 몹시 괴롭다.

【개별뜻】

애꿎다 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일을 당하여 억울하다. 본래는 《걱정이 될만큼(애를 먹을만큼) 나쁘고 언짢다.》의 뜻으로 쓰이였던것이 지금은 《억울하다》의 뜻으로 쓰이고있다.

례: 옥이는 어머니한테서 애꿎게 꾸지람을 들었다.

②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거나 또는 애매하다.

례: 그는 아직도 분이 삭지 않아서 길을 걸으면서 애꿎은 돌멩이만 걷어찼다.

애끊다 몹시 슬프거나 매우 근심스럽거나 안타까와서 간이나 밸이 끊어지는듯 하다. 원래 《밸(창자)》을 《애》라고 말했던것과 관련된다. 옛날 기록을 보면 《애》는 오늘날의 《밸》을 뜻하는 말이였는데 《근심걱정이 있어서 못 견딜 정도로 몹시 괴로울 때》를 《애가 끊어지다, 애가 타다, 애를 말리다.》라는 표현으로 써왔다. 이처럼 《밸》의 뜻을 《애》로 표현한 관습의 한가지 실례가 《애끊다》이다.

례: 《철룡아―》, 《오빠―》 애끊는 그 부르짖음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먼 벌판으로 여운도 없이 사라졌다.(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애끊는 심정.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

【공통뜻】 믿음스럽지 못한데가 있다.

【개별뜻】

의문스럽다(疑問: 의심 의, 물을 문) 의심스럽게 생각되거나 잘 리해되지 않아 묻고싶은 생각이 있다.

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것이 있으

면 서슴없이 말씀해주십시오.

의심스럽다(疑心: 의심 의, 마음 심) ① 확실한 근거는 없이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만 한데가 있다.

례: 의심스러운 행동.

② 사람을 믿지 못할만 한데가 있다.

례: 의심스러운 사람 쓰지 말고 쓰는 사람 의심하지 말라.

2. 사회와 관련된 어휘

가격, 값

【공통뜻】 사물의 가치나 쓸모.

【개별뜻】

가격(價格: 값 가, 격식 격) 돈으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례: 가격의 일원화. 가격공간.

값 ① =가격

② 물건을 사고팔 때에 주고받는 돈.

례: 값을 물다.

③ 어떤 사물이 지니고있는 중요성이나 의의.

례: 값있는 일.

④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나 역할.

례: 나이값을 하다. 체통값을 하다.

⑤ 무엇을 한데 대하여 돌아오는 대가나 갚음이나 보람.

례: 노력한 값이 있다.

⑥ 《수학》 량을 보이는 수.

⑦ 수학에서 변수가 어떤 구체적경우에 대표하는 정한 수.

례: 상수와 변수의 값.

가결, 표결

【공통뜻】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것.

【개별뜻】

가결(可決: 옳을 가, 결단할 결) 주로 회의에서 토의에 붙인 문제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것.

례: 전원찬성의 가결을 보았다.

표결(表決: 걸 표, 결단할 결) 회의에서 상정된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것.

례: 표결에 붙이다. 표결에 참가하다.

가난하다, 구차하다, 극빈하다

【공통뜻】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가 약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서로 어울러쓸수 있다.

【개별뜻】

가난하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가 약하다는 뜻으로 《구차하다》, 《극빈하다》를 대신하여 두루 쓸수 있다.

례: 가난한 살림.

구차하다(苟且: 구차할 구, 또 차) ①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는 뜻.

례: 구차한 살림.

② 말이나 행동에서 남을 대하기 떳떳하지 못하다.

례: 구차한 변명. 말하기 구차하다.

극빈하다(極貧: 다할 극, 가난할 빈) 《가난한 정도가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다.》의 뜻으로 주로 굶어죽기 직전의 가난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례: 《해방전에 우리 집은 하도 극빈하여 자식 둘을 굶겨죽였수다.》

가렬하다, 맹렬하다, 처절하다, 치렬하다

【공통뜻】 전투나 경기 등의 기세나 형편이 세차고 맵짜다.

【개별뜻】

가렬하다(苛烈: 까다로울 가, 매울 렬) (전투나 투쟁, 경기 등의 기세나 형편이) 혹독하고 세차다.

례: 가렬한 전투.

맹렬하다(猛烈: 사나울 맹, 매울 렬) (전투나 투쟁, 경기 등의 기세나 형편이) 사납고 세차다.

례: 아군의 맹렬한 공격에 겁을 먹은 적들은 한시간도 못되여 퇴각하였다.

처절하다(悽絶: 슬플 처, 끊을 절) ① (피어린 투쟁이) 치렬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다.

례: 처절한 격전장.

② 몸서리칠 정도로 몹시 끔찍하다.

례: 원쑤들에게 두팔을 빼앗긴 그를 만나보니 처절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치렬하다(熾烈: 성할 치, 매울 렬) (전투나 투쟁, 경기 등의 기세나 형편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세차고 맵짜다.

례: 적아간의 공방전이 사흘째 되는 날 전투는 더욱 치렬하게 번져졌다.

가정, 가족

【공통뜻】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

【개별뜻】

가정(家庭: 집 가, 뜰 정) ①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한세포.

례: 화목한 가정을 꾸리다.

② 가족이 사는 집을 직장, 학교 등과 상대해서 이르는 말.

례: 가정방문.

가족(家族: 집 가, 겨레 족) 결혼과 피줄에 의하여 가장 가깝게 련결된 사람들의 작은 집단. 그 중심은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와 자매, 숙부와 조카 등 가장 가까운 친족과 방계만이 포함된다. 례외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

람도 가족성원으로 포함된다.

례: 휴식일에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나갔다.

- 참고

가정을 꾸리다 ○ 가정환경 ○

가족을 꾸리다 × 가족환경 ×

가요, 노래, 음악

【공통뜻】 예술의 한 형태.

【개별뜻】

가요(歌謠: 노래 가, 노래 요) (한자어로서) 가사와 선률이 하나로 결합된 형식의 성악작품. 《노래》와 뜻이 같으므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다만 《노래》가 입말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에 《가요》는 문학예술문체나 글체에서 쓰인다는데 차이가 있다.

노래 ① (고유어로서) 일정한 가사를 곡에 맞추어 불러서 사상감정을 나타내는것 또는 그러한 예술작품을 이르는 말. 《가요》와 같다고 할수 있다.

례: 한편의 좋은 노래는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한다.

② 높이 찬양하거나 칭송하는것을 이르는 말.

례: 이 강산 하도 좋아 제비들도 목청껏 노래한다.

음악(音樂: 소리 음, 음악 악) 소리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 음악은 연주수단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어진다.

례: 민족음악. 음악을 감상하다.

각별하다, 특별하다, 유별나다

【공통뜻】 보통이 아니거나 범상치 않다.

【개별뜻】

각별하다(各別: 각각 각, 분별할 별) 태도나 행동 등이 각근히 다르다.

례: 막내자식에 대한 부모의 각별한 애정. 각별하게 관심을

돌리다.

특별하다(特別: 특별할 특, 분별할 별) 보통과는 훨씬 다르다. 《각별하다》, 《유별나다》의 뜻까지 포섭하고있는 뜻폭이 넓은 단어이다.

례: 《서로가 좋으면 되지 그 무슨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

유별나다(有別: 있을 유, 분별할 별) 보통보다는 다른데가 있다.

례: 그후부터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갔는지 경서가 있는 방은 여느 방들보다 유별나게 언제나 깨끗하였다.

간담회, 청문회

【공통뜻】 물음과 대답이 있는 모임.

【개별뜻】

간담회(懇談會: 정성 간, 말씀 담, 모일 회) 서로 묻는 말에 친절하고 성의있는 대답을 주고받는 모임.

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계의 간담회도 널리 조직하였다.

청문회(聽問會: 들을 청, 물을 문, 모일 회) 어떤 사람의 연설 또는 그의 설교를 듣고 물어보는 모임.

례: 청문회를 마련하다.

간판, 현판

【공통뜻】 무엇을 쓰거나 그려서 내붙이는 판.

【개별뜻】

간판(看板: 볼 간, 널 판) ① 주로 상점과 같은 봉사기관 그밖의 일정한 조직체의 이름이나 사업종목 등을 찾아오는 사람이 알아볼수 있는 곳에 써서 붙이는 물건.

례: 우리가 수원에 갔을 때에는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나붙었고 토지개혁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②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만적으로 리용하

는 명목.

례: 그는 허리안정이라는 간판밑에 작업장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현판(懸板: 달 현, 널 판) 어떤 현대적건물이나 기관, 기업소의 출입문 또는 글자나 그림을 새기여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벽에 달아놓는 간판.

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현판. 공장현판.

거저, 그저

【공통뜻】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개별뜻】

거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례: 《그렇게 푸짐한 대접을 받고도 거저 돌아간단 말이요?》

그저 ① 아무런 리유나 까닭, 조건이 없이 그대로.

례: 그저 지금 있는 로력만 가지고도 잘하면 계획을 할수 있다.

②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례: 《그저 앉아 기다린다고 그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③ 어쨌든.

례: 《그저 딱 한번만 보내주십시오.》

거점, 지탱점

【공통뜻】 의거하게 되는 지점.

【개별뜻】

거점(據點: 웅거할 거, 점 점) ① 일정한 활동을 하는데서 의거해야 할 중심적인 지점이나 대상.

례: 우리 식물소조는 학교온실을 거점으로 소조활동을 벌려왔다.

②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들과 구역들에 여러가지 방어축성물들과 차단물들을 배합하여 원형방어를 할수 있게 설비한 방어중심점.

례: 《이번 싸움의 목적은 적들을 이 골안에 오래 잡아두자는것이요. 그러니 뭐니뭐니해도 거점구축에 힘을 집중해야 하오.》

지탱점(支撑點: 고일 지, 버틸 탱, 점 점) 오래 버티거나 견디여낼수 있는 지점 또는 방어구역에서 근거지로 삼는 가장 중요한 부분.

례: 적들은 마지막 지탱점인 이 고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격식, 형식, 형태

【공통뜻】 갖춤새.

【개별뜻】

격식(格式: 격식 격, 법 식) 규정이나 틀에 맞춘 일정한 갖춤새.

례: 그 어떤 격식도 없이 시작된 협의회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형식(形式: 얼굴 형, 법 식) 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례: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우아한 계절옷들이 많이 출품되였다.

② 내용을 이루고있는 요소들사이에 맺어지는 내적인 결합구조와 그것의 존재방식.

례: 내용이 형식을 규제하기는 하지만 형식은 때때로 내용에 반작용한다.

③ 《문예》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형상수단들과 형상수법들의 총체》를 이르는 말.

형태(形態: 얼굴 형, 맵시 태) ① 사물의 모양과 생김새.

례: 가구의 형태. 옷형태.

② 일정한 구성체계를 가진 형식이나 요소.

례: 경제형태. 투쟁형태.

③ 언어에서는 《문법적형태》의 준말.

례: 형태단어.

견고하다, 든든하다, 튼튼하다

【공통뜻】 굳세다.

【개별뜻】

견고하다(堅固: 굳을 견, 굳을 고) 어지간해서는 파괴되거나 허물어지지 않게 굳고 든든하다. 주로 건축물의 견딜성과 관련하여 쓰인다.

례: 견고하게 쌓은 성벽.

든든하다 ① 쉽게 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세고 질기다.

례: 든든한 비날론바줄.

② 무엇을 힘있게 꼭 잡거나 박거나 매거나 조이여 헐겁게 놀거나 풀려나가지 않게 하다.

례: 못을 든든하게 박다.

③ 병이 없고 실하여 건강하다.

례: 아이들을 든든하게 키우다.

④ 사상정신적면에서 원만하고 미덥다.

례: 든든한 사람들로 대오를 꾸리다.

⑤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배심이 있다.

례: 속이 든든해서 뻗쳐댔다.

⑥ 결심, 각오 등이 굳세다.

례: 마음을 든든히 먹다.

⑦ 일정한 곳 또는 일정한 사업이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박다.

례: 농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다.

⑧ 배가 불러 허수한감이 없다.

례: 든든하게 먹고 길을 떠나다.

튼튼하다 ① 물건이 외부의 힘에 견딜수 있게 세며 질기다.

례: 바줄이 튼튼하다.

② 몸에 병이 없고 건강하거나 든든하다.

례: 로동속에서 단련된 건강하고 튼튼한 창호는 누구보다도 추위를 덜 탔다.

③ 경제적인 기초, 밑천 같은것이 강하고 미덥다.

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

④ 사상정신적으로 견결하고 굳세다.

례: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다.

경제계, 기업계, 산업계

【공통뜻】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마련하는 분야.

【개별뜻】

경제계(經濟系: 지날 경, 건늘 제, 계통 계) 경제적활동이 진행되는 사회적분야. 기업계나 산업계를 다 망라하는 뜻폭이 넓은 단어이다.

례: 정치계와 경제계. 다른 나라 경제계의 소식.

기업계(企業系: 바랄 기, 업 업, 계통 계) 생산, 건설, 교통, 운수, 류통, 그밖의 경제분야에서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분야.

례: 기업계의 애국적인사들이 마련한 지성어린 선물.

산업계(產業系: 낳을 산, 업 업, 계통 계) 주로 농업을 제외한 경제의 모든 생산분야 즉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그리하여 산업건설에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운수, 체신 및 기본건설부문에서 생산능력과 시설들의 확대를 위하여 진행하는 경제건설이 다 포함된다.

례: 그의 연구성과는 산업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경위, 보호, 보위, 호위

【공통뜻】 지키는것.

【개별뜻】

경위(警衛: 깨우칠 경, 막을 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신변을 경계하여 지키는것.

례: 경위대원. 경위중대.

보호(保護: 보존할 보, 보호할 호) ① 건강이나 어떤 대상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돌보아 지키는것.

례: 건강을 보호하다. 유용동물의 보호증식. 조직을 보호하다.

② 잘못됨이 없이 보존되도록 하는것.

례: 철길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보위(保衛: 보존할 보, 막을 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방위하는것.

례: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사업.

호위(護衛: 보호할 호, 막을 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특수한 대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는것.

례: 호위병.

공납금, 월사금

【공통뜻】 (착취사회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바치는 돈.

【개별뜻】

공납금(公納金: 공평할 공, 들일 납, 쇠 금) (착취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운영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납부금항목들을 제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돈.

례: 우리 나라에서는 공납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자기 희망을 꽃피운다.

월사금(月謝金: 달 월, 사례할 사, 쇠 금) ① 지난날 학생들이 매달마다 학교에 물게 되였던 돈.

② (낡은 사회에서) 다달이 스승에게 바치는 사례금.

례: 해방전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공장, 기관, 기업소

【공통뜻】 경영활동의 단위.

【개별뜻】

공장(工場: 공업 공, 마당 장) 사회적생산조직을 분업에 따라 나눈 가공공업의 기본단위로서 원료나 재료를 가지고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본생산단위. 따라서 제철소, 제강소와 같이 선철이나 강철을 생산하는것도 공장이며 닭, 돼지와 같은 집짐승을 현대적인 공업적방법으로 길러 고기와 알을 생산하는 기업소도 공장이라고 한다.

례: 강철공장. 닭공장. 돼지공장.

기관(機關: 틀 기, 닫을 관) 사회생활의 이러저러한 령역에서 일정한 기구정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

례: 정권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기업소(企業所: 바랄 기, 업 업, 바 소) 생산조직체인 공장을 포함하여 건설, 교통, 운수, 류통, 그밖의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는 사업체 즉 경영단위를 말한다. 독자적인 경영활동의 단위, 바로 여기에 기업소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공정성, 형평성

【공통뜻】 꼭같이 대하거나 평가하는 성질.

【개별뜻】

공정성(公正性: 공평할 공, 바를 정, 성품 성) 어느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을 바르고 공평하게 대하는 성질.

례: 《법정은 한사람의 호소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에 기초하

는것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해서 론거를 세우게 됩니다.》(중편소설 《벗》)

형평성(衡平性: 저울대 형, 평평할 평, 성품 성) 무엇을 재는데서 어느쪽에도 기울어짐이 없이 또는 평등하게 하는 성질.

형평이란 곧 저울대의 수평을 이르는 말이다.

례: 사건취급에서는 언제나 형평성을 고수해야 한다.

공포, 공표, 반포, 발포, 발표, 선포

【공통뜻】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공개하다.

【개별뜻】

공포(公布: 공평할 공, 베 포) 세상에 발포하여 널리 알리는것.

례: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표(公表: 공평할 공, 겉 표) 공개하여 세상에 발표하는것.

례: 성적을 공표하다. 합동군사연습 공표.

반포(頒布: 나눌 반, 베 포) 일반이 다 알도록 세상에 널리 공포하는것.

례: 훈민정음의 반포.

《짐이 이 조서를 특별히 너로 쓰라 함은 네 직간하던 충성을 천하에 반포코저 함이라.》(고전소설 《옥루몽》)

《반포하다》는 오늘에 와서 거의 쓰이지 않지만 력사서술에서는 필요한 단어이다.

발포(發布: 필 발, 베 포) 법령이나 정강 등과 같은 법적성격을 띠는 내용을 발표해서 알리는것.

례: 헌법발포. 로동법령발포.

발표(發表: 필 발, 겉 표) 어떤 내용이나 사실 같은것을 세상에 알리는것 또는 생각이나 사상을 글이나 말로 드러내여 나타내는것.

《공포》, 《공표》, 《반포》, 《발포》, 《선포》중에서 가장 뜻폭이 넓은 단어이다.

례: 성명발표. 론문발표. 읽은책발표모임.

선포(宣布: 베풀 선, 베 포) 어떻게 하겠다고 정식으로 널리 발표하는것.

례: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세워졌다는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였다.

공연, 상연, 상영

【공통뜻】 예술작품을 군중에게 보여주는것.

【개별뜻】

공연(公演: 공평할 공, 넓힐 연) 가극, 연극, 무용,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앞에 출연하는것.

례: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공연은 무대우에서만이 아니라 공공장소, 아무 곳에서나 진행할수 있다. 여기에 공연과 상연의 본질적차이가 있다.

상연(上演: 웃 상, 넓힐 연) 주로 무대우에서 예술공연 같은것을 하여 군중에게 보여주는것.

례: 오늘 평양대극장에서는 혁명가극 《피바다》에 대한 상연이 있다.

상영(上映: 웃 상, 비칠 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영화를 돌리는것.

례: 어제 대동문영화관에서는 예술영화 《생의 흔적》이 상영되였다.

공원, 유희장, 유원지

【공통뜻】 사람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나무들을 많이 심고 여러가지 유희기구들을 차려놓은 곳.

【개별뜻】

공원(公園: 공평할 공, 동산 원) 문화생활과 휴식과 교양을 위하여 여러가지 나무들을 가꾸고 일정한 교양시설과 체육오락기구 갈

은것을 차려놓은 곳.

례: 개선청년공원. 공원관리원.

유희장(遊戲場: 놀 유, 희롱 희, 마당 장) 여러가지 유희시설이 집중되여 설치되여있는 휴식장.

례: 만경대유희장. 대성산유희장.

유원지(遊園地: 놀 유, 동산 원, 땅 지) 도시와 그 주변의 풍치 좋은 곳에 유람하기 좋게 문화휴식시설을 갖춘 록화된 지역.

례: 대성산유원지.

교과서, 교재

【공통뜻】 학교교육에 필요한 재료.

【개별뜻】

교과서(敎科書: 가르칠 교, 과목 과, 글 서) 학교교육을 위해 해당 교수요강에 따라 과목별로 씌여 출판된 책.

례: 대학교육에서는 교과서밖의 내용도 폭넓고 깊이있게 주어야 한다.

교재(敎材: 가르칠 교, 재목 재) 교과서를 포함하여 교수에 필요한 재료(각종 교양자료, 교수자료)와 학생들이 리용하는 참고서적을 비롯한 학습재료. 《교재》는 《교과서》보다 뜻폭이 넓다.

례: 학습교재.

국가, 나라

【공통뜻】 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이 하나의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가장 큰 집단.

【개별뜻】

국가(國家: 나라 국, 집 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권력기관.

례: 국가의 성격. 국가수반.

나라 사람들이 일정한 넓이의 땅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령역에 걸쳐 공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공고한 집단. 《국가》보다 뜻폭이 넓다.

례컨대 《사회주의나라》는 《사회주의국가》로, 《나라의 형편》을 《국가의 형편》으로, 《나라의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바꾸어 써도 된다. 이때의 《나라》는 주로 《국가》의 령역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달나라, 별나라, 꿈나라》 등을 《달국가, 별국가, 꿈국가》라고 할수 없다. 이것은 《나라》의 뜻폭이 《국가》보다 넓다는것을 보여준다. 《나라의 자원》을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시, 국책, 시책, 정책

【공통뜻】 정치를 반영한 여러가지 시책.

【개별뜻】

국시(國是: 나라 국, 이 시) 국가에서 세운 정책상의 기본방침.

례: 남존녀비와 녀필종부는 유교사상인것만큼 그것을 국시로 하고있는 봉건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남녀차별문제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고전소설 《류충렬전》)

국책(國策: 나라 국, 꾀 책) 나라의 정책이나 시책.

례: 국책을 론하다.

시책(施策: 베풀 시, 꾀 책) 정책을 실시하는 일 또는 그런 정책.

례: 우리 국가의 모든 시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것이다.

정책(政策: 정사 정, 꾀 책) 주로 당이나 정부가 자기의 정치적강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로선이나 과업 및 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정책작성의 기준으로 삼다.

국제, 세계

【공통뜻】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관계되는것.

【개별뜻】

국제(國際: 나라 국, 즈음 제) ① 나라들사이에 관계되는것 즉 국제라는 말은 서로 관계를 가지는 면에서의 나라와 나라와의 사이라는 뜻을 가진다.

례: 국제문제. 국제무대. 국제경기.

② 여러 나라사이에 공통적인것.

례: 국제도량형단위. 국제과학용어.

③ 여러 나라를 포괄하는것.

례: 국제전람회.

세계(世界: 세상 세, 지경 계) ① 인류사회의 면에서 본 지구.

례: 세계지도. 세계력사.

② 인류사회전체 또는 지구우의 모든 나라.

례: 주체78(1989)년 우리 나라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봉화가 여기 5월1일경기장에서 올랐다.

③ 일정한 사물현상의 어떤 범위나 분야 또는 령역.

례: 우주세계. 동물세계.

④ 사상감정이나 심리적생활현상의 어떤 령역.

례: 시의 세계에 잠기다.

⑤ 우주의 개별적범위.

례: 달의 세계. 별의 세계.

⑥ 철학에서 인류사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사물현상의 총체.

례: 물질세계. 객관적세계.

군기, 군풍

【공통뜻】 군대의 면모.

【개별뜻】

군기(軍紀: 군사 군, 벼리 기) 군대의 엄격한 규률과 기풍.

례: 군기를 확립하는것은 군대의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군풍(軍風: 군사 군, 바람 풍) 군사와 관련된 모든 실천활동에서 나타나는 군인들의 사상과 도덕 및 생활풍조.

례: 군풍이 바로서있지 못한 군대는 백전백패한다.

규범, 규칙

【공통뜻】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적질서.

【개별뜻】

규범(規範: 법 규, 법 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질서.

례: 도덕규범. 행동규범. 문법규범.

규칙(規則: 법 규, 법 칙) ① 정해놓은 질서나 규범.

례: 축구경기규칙. 통행규칙. 생활규칙.

② 어떤 현상들의 호상관계가 반영되여있는 질서.

례: 문법은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 있어서 단어의 결합에 관한 규칙의 집대성이다.

《규범》은 《규칙》에 비하여 의무성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릇, 사발

【공통뜻】 무엇을 담기 위한 기구.

【개별뜻】

그릇 음식이나 그밖의것을 담는 물건을 통털어 이르는 말. 그릇은 그 재질에 따라 나무그릇, 유리그릇, 사기그릇, 수지그릇 등으로 나누인다.

사발(沙鉢: 모래 사, 바리 발) 밥이나 국을 담는데 쓰이는 사기로 된 그릇. 사발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국사발, 물사발, 밥사발 등으로 쓰인다.

근무, 복무

【공통뜻】 사회적인 일에 종사하는것.

【개별뜻】

근무(勤務: 부지런할 근, 힘쓸 무) ① 일정한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것.

례: 근무시간.

② 보초나 경비 등을 맡아서 서는 일.

례: 직일근무. 근무교대.

복무(服務: 옷 복, 힘쓸 무) ① 어떤 부문이나 초소에서 일정한 임무와 직무를 맡아 일하는것.

례: 군사복무. 복무년한.

② 몸바쳐 이바지하는것.

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근본, 기본

【공통뜻】 바탕이나 토대로 되는것.

【개별뜻】

근본(根本: 뿌리 근, 근본 본) ① 무엇이 처음부터 지니고있는 본질적바탕이나 뿌리로 되는것.

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근본담보이다.

② 자라난 환경과 출신.

례: 《인물이 무슨 소용인가? 근본이 미천한걸.》

기본(基本: 터 기, 근본 본) 어떤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사상리론적해석에서 기초나 토대로 되는것.

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 기본원리와 근본원리는 내용과 그 성격으로 보아 서로 어울리쓸수도 있음.

례컨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이며 기본원리라고도 말할수 있음.

글머리, 머리글, 머리말

【공통뜻】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언급하는 글이나 말.

【개별뜻】

글머리 글의 첫머리. 어떤 글을 쓰는데서 서두를 떼는것으로서 《내용전개》, 《마무리》 또는 《맺는말》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례: 모든 글에서 글머리를 어떻게 떼는가 하는것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끄는가 못 끄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머리글 주로 책(교과서나 참고서와 같은 단행본)의 앞머리에 그 내용을 전일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함축하여 쓴 글.

머리글은 책의 앞머리에 쓰이는데 《머리글》이라고 쓰지 않고 때로는 《편집부로부터》 혹은 《책을 내면서》 등의 소개제목으로도 쓸수 있다.

머리말 ① 책이나 론문 등의 첫머리에 그 내용과 관계된 사실이나 집필목적을 간단하게 적은 글.

《머리말》에서 《말》은 넓은 의미에서 문자로 표기된 《글》까지 포괄하므로 《머리글》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례: 책의 머리말.

② 연설이나 강연, 토론 등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과 관계되는 사실이나 목적을 간단하게 먼저 하는 말.

례: 그의 연설에서는 언제나 머리말이 인사처럼 붙어다니군 한다.

기, 기발, 기치

【공통뜻】 무엇을 상징하기 위하여 천이나 종이 같은것으로 나붓기게 만든것.

【개별뜻】

기(旗: 기발 기)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무엇을 상징하기 위하여 천이나 종이 같은것을 일정한 양식과 빛갈에 맞추어서 나붓기게 만든것. 기는 보통 날리기 위해 대에 매여달거나 꽂는다.

례: 공화국기. 붉은기.

기발 ① =기

례: 기발을 휘날리며 노래를 부르다.

② =기치

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한다.

기치(旗幟: 기발 기, 기발 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 행동강령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것.

례: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기구, 도구

【공통뜻】 어떤 일을 할 때 쓰이는 기재.

【개별뜻】

기구(器具, 機具: 그릇 기, 갖출 구; 틀 기, 갖출 구) 세간, 도구, 그릇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실험기구. 측량기구.

도구(道具: 길 도, 갖출 구) ①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기구.

례: 로동도구. 생활도구.

②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쓰는 수단.

례: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기계, 기대

【공통뜻】 여러가지 기구와 부분품들의 통일적인 련관으로 이루어진 장치.

【개별뜻】

기계(機械: 틀 기, 기계 계) 일정한 운동을 하며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통일적으로 련결되여 작용하는 기구들과 부분품들로 이루어진 장치. 《기대》보다 뜻폭이 넓다.

례: 모내는기계. 공작기계. 정밀기계.

기대(機臺: 틀 기, 집 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되는 기계나 설비. 《기대》는 개개의 기계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례: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다.

기밀, 비밀

【공통뜻】 필요한 성원외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되는 내용.

【개별뜻】

기밀(機密: 틀 기, 빽빽할 밀) 밖으로 새여나가서는 안되는 국가적, 군사적 또는 기타 조직체의 중요한 일.

례: 기밀문건. 국가적인 기밀. 군사기밀.

비밀(秘密: 감출 비, 빽빽할 밀) ① 알고있어야 할 성원밖에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되는것.

례: 군사비밀. 국가비밀. 동굴속의 비밀.

② 관계자밖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숨기는것.

례: 《이 일은 비밀에 붙여두자.》
비밀투표. 비밀회합.

③ 자연이나 과학연구분야 같은데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것.

례: 바다의 비밀. 우주의 비밀.

《기밀》은 《비밀》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그 뜻의 범위가 훨씬 제한되여있으므로 《기밀》이라고 쓸 자리에는 《비밀》을 대신하여 쓸수 있다.

기실, 사실

【공통뜻】 《실지》의 뜻.

【개별뜻】

기실(其實: 그 기, 열매 실) 실지에 있어서.

례: 형은 혼자 중얼거리기는 했으나 기실은 동생더러 들으라고 한 말이였다.

《그건 나도 압니다.》 인풍이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만 무심결에 이렇게 대답했으나 기실 그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자신도 몰랐던것이다.

사실(事實: 일 사, 열매 실) ① 실제로 있은 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현상이나 사건.

례: 사실이 증명한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② (부사적으로 쓰이여) 실지로. 정말로.

례: 사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

《기실》과 같은 뜻으로 어울러쓰이기도 한다.

기적, 혁신

【공통뜻】 어떤 일에서의 높은 수준.

【개별뜻】

기적(奇蹟: 기이할 기, 자취 적)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신기한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놀라운 큰 성과나 사실.

례: 그는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하였다.

혁신(革新: 가죽 혁, 새 신) 낡은것을 뜯어고치여 새롭게 하는것 또는 종래의것과 크게 달라지게 새롭게 들고나오는것.

례: 로력적혁신.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적

과 혁신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기준, 표준

【공통뜻】 도달하거나 목표로 될만 한것.

【개별뜻】

기준(基準: 터 기, 대패 준)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 삼는것 또는 그러한 표준

례: 실천은 진리의 기준이다.

5번을 기준으로 하여 2보간격으로 벌려설것!

표준(標準: 표할 표, 대패 준) ① 여러 사물을 평가할수 있는 기준 또는 그것으로 되는 사물.

례: 표준으로 삼다. 표준시간.

② 표본이나 규범적인것으로 되는것.

례: 표준설계. 표준공장.

우의 두 단어의 근본차이는 기준이 뜻폭이 넓은데 비하여 표준은 뜻폭이 좁다는것이다. 즉 본보기로 될수 있는 기준만이 표준으로 된다.

기초, 토대

【공통뜻】 존재와 발전의 바탕.

【개별뜻】

기초(基礎: 터 기, 주추 초) ①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밑받침.

례: 소음과 진동이 심한 기계는 그 기초를 따로 설치하고 기계와 기초사이에 탄력성있는 깔개를 깔도록 해야 한다.

② 존재와 발전의 바탕.

례: 기초지식. 리론적기초.

③ 주로 《～ㄴ 기초우에서》의 형으로 쓰이여 근거로 되는 조건을 나타낸다.

례: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적들의 약점을 잘 파악한 기초우에서 그에 맞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토대(土臺: 흙 토, 집 대) ① =기초 ②

례: 오늘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토대로 된다.

② (철학이나 경제학에서)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제도 즉 생산관계의 총체.

례: 토대와 상부구조.

③ 생활이나 활동의 밑천.

례: 살림살이토대.

④ 건축물의 기초가 놓일 지반.

기한부, 시한부

【공통뜻】 한정된 시간.

【개별뜻】

기한부(期限附: 기약할 기, 한정 한, 붙을 부) 주로 요구의 측면에서 어느때까지라고 기한을 붙이는것.

례: 해당한 현금으로 지불할것을 기한부로 약속했다.

시한부(時限附: 때 시, 한정 한, 붙을 부) 주로 법적인 성격을 띠는 조항이나 결정을 리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는데서 한정된 시간조건을 붙이는것. 시한부에 따르는 시간이 초과되면 권리를 잃거나 얻게 된다.

례: 시한부로 여유를 주다. 시한부로 허용하다.

기호, 부호

【공통뜻】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 정한 표식.

【개별뜻】

기호(記號: 기록할 기, 이름 호)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자나 글자밖에 보충적으로 쓰이는 표식.

례: 수학기호. 음악기호. 론리학기호.

《언어의 기호설》에서는 언어가 《기호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부호(符號: 병부 부, 이름 호) ①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기호.

례: 문장부호에는 《 》, •, ?, !, :, 〈 〉 등이 있다.

② 체신 및 군사부문에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요소.

례: 군사지도에 표기된 부호.

기약, 계약, 예약

【공통뜻】 약속하는것.

【개별뜻】

기약(期約: 기약할 기, 언약할 약) 언제라고 때를 정하여 하는 약속.

례: 언제 돌아온다고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났다.

계약(契約: 글 계, 언약할 약) 무엇을 리행하는데서 서로 관계되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하는 약속.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적고 량측의 관계자가 도장을 찍고 확인한 서류이다.

례: 계약을 맺다. 계약을 어기다.

예약(豫約: 미리 예, 언약할 약) 미리 계약하는것 또는 그 계약.

례: 출판물의 예약. 호텔을 예약하다.

긴요하다, 요긴하다

【공통뜻】 무엇에 필요되다.

【개별뜻】

긴요하다(緊要: 긴할 긴, 요긴할 요)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요구되다.

례: 대중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을 위해서도 긴요한 문제로 나선다.

요긴하다(要緊: 요긴할 요, 긴할 긴) 주어진 대상이나 정황에 알맞게 필요하다.

례: 나는 형님이 배워준 수학공식을 응용문제를 푸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다.

개건하다, 재건하다

【공통뜻】 다시 일떠세우다.

【개별뜻】

개건하다(改建: 고칠 개, 세울 건) 뒤떨어진것을 보다 선진적인것으로 고쳐 다시 건축하거나 건설하는것.

례: 개건공사. 기술개건.

재건하다(再建: 다시 재, 세울 건) ① (망하였거나 없어졌던 나라나 조직, 사업체 같은것을) 다시 일떠세우는것.

② 파괴되였거나 낡아진 도시와 마을 또는 어떤 건물 같은것을 다시 새로이 일떠세우다.

례: 파괴된 공장을 재건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개관, 개괄

【공통뜻】 대체적으로라는 뜻.

【개별뜻】

개관(槪觀: 대개 개, 볼 관) 대체적으로 보거나 관찰하는것 또는 그 관찰.

례: 국제정세를 개관하다.

개괄(槪括: 대개 개, 묶을 괄) 어떤 내용을 대체적인 줄거리만 추려 묶은것.

례: 선생님께서는 강의내용을 개괄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개관식, 개소식, 개통식, 개업식, 개원식, 조업식

【공통뜻】 어떤 기관이나 공장,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개별뜻】

개관식(開館式: 열 개, 집 관, 법 식) 《사적관, 박물관, 전람관, 도서관…》과 같이 《관》자가 붙은 기관을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전람관개관식. 박물관개관식.

개소식(開所式: 열 개, 바 소, 법 식) 《휴양소, 정양소, 료양소…》와 같이 《소》자가 붙은 기관을 처음으로 운영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휴양소개소식. 탁아소개소식. 야영소개소식.

개통식(開通式: 열 개, 통할 통, 법 식) 새로 낸 길, 철도, 다리 등과 같은것을 지나다니기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철길개통식. 다리개통식.

개업식(開業式: 열 개, 업 업, 법 식)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영업을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개업식날자를 정하다.

개원식(開院式: 열 개, 집 원, 법 식) 《병원, 학원, 과학원…》등과 같이 《원》자가 붙은 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동물원개원식. 병원개원식.

조업식(操業式: 잡을 조, 업 업, 법 식) 공장, 기업소 같은데서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할 때 가지는 공식적인 의식.

례: 새로 건설되는 공장의 조업기일을 앞당기자!
발전소조업식.

개명, 문명

【공통뜻】 일정하게 문화수준이 발전된것.

【개별뜻】

개명(開明: 열 개, 밝을 명) 열리고 밝아진다는 뜻으로 (뒤떨어지고 깨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깨고 문명해지는것.

례: 《대학생》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은 그가 산판에서 제일 유식하고 개명한 청년이기때문이였다.(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문명(文明: 글 문, 밝을 명) ①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걸쳐 이룩된 사회적진보와 인류에 의하여 창조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총체.

례: 고대문명.

② 발전된 문화수준에 있는것.

례: 식생활을 문명하게 하다.

개성, 특성, 특징

【공통뜻】 다른것과 구별되는 성질 또는 징표.

【개별뜻】

개성(個性: 낱 개, 성품 성) 주로 다른 사람이나 작품과 구별되는 그 사람이나 작품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 사람의 개성은 보통 성격, 취미, 품성 등에서 나타난다.

례: 문학작품창작에서는 언제나 개성이 뚜렷한 주인공을 그려야 한다.

특성(特性: 특별할 특, 성품 성) 그것에게만 있거나 그것을 특징지을수 있는 성질.

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특성》은 한 사물현상을 다른 사물현상과 구별하기 위해

밝히는 성질로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상, 현상의 속성이 다 포함될수 있다.

특징(特徵: 특별할 특, 부를 징) 다른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표징.

례: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운동이라는데 그 근본특징이 있다.

게시, 게재, 계시

【공통뜻】 무엇을 보여주는것.

【개별뜻】

게시(揭示: 들 게, 보일 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붙이거나 걸어놓는 방법으로 보여주는것.

례: 입학시험성적을 게시하다. 영예게시판.

게재(揭載: 들 게, 실을 재) 글이나 그림 등을 신문 또는 잡지에 싣는것.

례: 중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찬양하는 기사를 크게 게재하였다.

계시(啓示: 열 계, 보일 시) 무엇을 깨우쳐 보여주는것.

례: 그날 나는 할아버님에게서 많은 계시를 받았다.

계급, 계층

【공통뜻】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개별뜻】

계급(階級: 섬돌 계, 등급 급)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처지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례: 로동계급. 농민계급.

계층(階層: 섬돌 계, 층 층) 사회에서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일정한 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례: 계급과 계층. 사회계층.

계략, 계책

【공통뜻】 묘한 생각이나 행동.

【개별뜻】

계략(計略: 헤아릴 계, 간략할 략) 깊이 헤아려 생각해낸 대책이나 방법.

례: 하루밤을 꼬박 뜬눈으로 밝히며 온갖 계략을 다 짠 배가는 이튿날 읍거리의 큰 지주 양가를 찾아갔다.(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계책(計策: 헤아릴 계, 꾀 책) 무엇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며내는 계략이나 책동.

례: 《영순이가 눈을 깜박이는걸 보니 또 그 머리에서 신묘한 계책이 나오려는것 같아.》

계렬, 계통

【공통뜻】 서로 련관된 체계.

【개별뜻】

계렬(系列: 계통 계, 벌릴 렬) 일정한 사물들이 서로 련관되여있거나 한갈래로 이어져있는것.

례: 계렬생산.

계통(系統: 계통 계, 거느릴 통) 하나의 체계로 서로 련관되여있는 부분들의 통일적조직.

례: 신경계통

괴멸, 궤멸, 사멸, 전멸, 파멸

【공통뜻】 망해서 없어지는것.

【개별뜻】

괴멸(壞滅: 무너질 괴, 멸할 멸) 조직이나 체계, 군대 등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무너져 망하는것.

례: 박제구의 최후와 그의 중대의 괴멸은 뜻밖의 소식이였다. (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궤멸(潰滅: 무너질 궤, 멸할 멸) 주로 어떤 대상이 붕괴되여 없어

지는것.

주로 《궤멸하다》, 《궤멸되다》의 형태로 쓰인다.

례: 파쑈도이췰란드군을 완전히 궤멸시킨 베를린함락작전.

사멸(死滅: 죽을 사, 멸할 멸) 죽어 없어지고 망하는것.

례: 낡은 사물의 사멸과 새로운 사물의 발생은 사물발전의 법칙이다.

전멸(全滅: 온전 전, 멸할 멸) 죄다 죽어 없어지고 망하는것.

례: 기철분대장은 《너희들은 포위되였다. 지체없이 투항하라. 대항하는 날에는 전멸이다.》라고 적들에게 소리를 쳤다.

파멸(破滅: 깰 파, 멸할 멸) 파괴되여 완전히 멸망하는것.

례: 력사는 침략과 전쟁을 즐기는자들은 결국 자기가 지른 불에 타 파멸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진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공통뜻】 없어서는 안되게 귀하다.

【개별뜻】

귀중하다(貴重: 귀할 귀, 무거울 중) 귀하고 중요하다.

례: 귀중한 자료. 귀중한 책.

소중하다(所重: 바 소, 무거울 중) 무엇을 간직하는데서 매우 귀중하다.

례: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과거, 종래

【공통뜻】 지나간 시간.

【개별뜻】

과거(過去: 지날 과, 갈 거) 지나간 시간 또는 지나간 생활이나 과정.

례: 과거와 현재, 미래.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학적시간은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과거》로 된다.

례: 과거시칭.

종래(從來: 좇을 종, 올 래) 지난날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내려오는 동안.

례: 종래의 견해.

과시하다, 시위하다

【공통뜻】 위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다.

【개별뜻】

과시하다(誇示: 자랑 과, 보일 시) 자랑스럽게 보여주다.

례: 보천보전투는 일제의 가혹한 폭압밑에서도 조선인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조국해방을 위한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시위하다(示威: 보일 시, 위엄 위) 기세나 위력을 떨쳐 보여주다.

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우리 민족예술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한 대걸작이다.

과제, 과업, 숙제

【공통뜻】 맡아서 해결하거나 풀어야 할 문제.

【개별뜻】

과제(課題: 일과 과, 문제 제) ① 맡겨진 과업.

례: 증산과제. 계획과제.

② 부과된 과업.

례: 연구과제.

③ 해결하여야 할 문제.

례: 발전소건설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④ 학교수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학생자신이 할 학습이나 실습 또는 연구문제.

례: 선생님에게서 과제를 받다. 과제를 주다.

과업(課業: 일과 과, 업 업) (개인이나 집단앞에 나선)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일이나 임무.

례: 조국통일은 온 민족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숙제(宿題: 잠잘 숙, 문제 제) ①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예습 또는 복습을 해오도록 주는 과제. 주로 소학교나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하여 쓰는 말이다.

례: 국어숙제. 수학숙제.

② 앞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

례: 여러해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기술문제가 풀렸다.

광범하다, 광범위하다

【공통뜻】 많거나 넓다.

【개별뜻】

광범하다(廣汎: 넓을 광, 넓을 범) 해당한 대상이나 지역이 많거나 넓다.

례: 광범한 지역. 광범한 군중. 광범한 근로자들.

공화국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급 주권기관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대표들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광범위하다(廣範圍: 넓을 광, 법 범, 에울 위) 무엇이 포괄하는 지역이나 대상이 대단히 많거나 널리 분포되여있다. 범위의 뜻이 강하다.

례: 올림픽경기에는 현재 광범위한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고있다.

권능, 권한

【공통뜻】 일정한 권리.

【개별뜻】

권능(權能: 권세 권, 능할 능) ① 권리와 직능.

례: 권능을 옳게 정하다.

②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능력.

례: 정치도덕적권능을 상실하다.

권한(權限: 권세 권, 한정 한)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한계).

례: 권한이 있다. 권한이 없다. 권한을 행사하다.

노전, 돗자리, 멍석, 삿자리

【공통뜻】 식물의 껍질이나 줄기를 리용하여 만든 깔개.

【개별뜻】

노전 구름나무껍질, 갈대, 수수대, 조짚 등으로 결어서 만든 깔개.

례: 구름노전을 깐 방.

돗자리 주로 왕골이나 골풀 같은것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발이 가늘게 엮은 깔개.

례: 돗자리를 방에 깔다.

멍석 짚을 결어 만든 큰 깔개. 흔히 낟알 같은것을 널어 말리우는데 쓰인다.

례: 이윽고 멍석을 트시던 할아버님께서 뛰여나오셨다.(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삿자리=노전

례: 그놈들은 농뒤와 천정, 삿자리밑까지 샅샅이 뒤지는것이였습니다.(장편소설 《동트는 압록강》)

돗자리와 삿자리는 주로 방안에 깔고 멍석은 마당에 펴놓는다.

농장, 농촌

【공통뜻】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지역이나 지구.

【개별뜻】

농장(農場: 농사 농, 마당 장) ①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단위.

례: 청산협동농장.

② 일정한 기관이나 직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리하는 땅.

례: 부업농장.

농촌(農村: 농사 농, 마을 촌) 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지역이나 지구.

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다.

② 농민들이 살고있는 시골이나 마을.

례: 아담한 농촌마을.

다, 모두, 전체

【공통뜻】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개별뜻】

다 조금도 남겨놓거나 빼놓지 않고 있는대로.

례: 함지같이 큰 그릇에 담은 밥을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다》는 주로 《일정한 량》의 측면을 강조하여 말할 때 쓰인다.

례: 이 책을 다 읽었다.

하던 일을 다 하였다.

모두 서로 다른 대상을 《빼놓지 않고 다》라는 뜻으로 주로 《일정한 수》의 측면을 강조하여 말할 때 쓰인다.

- 참고

책을 다 읽어라.

책을 모두 읽어.

첫 문장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끝까지 남기지 말고 다 읽어라.》의 뜻이지만 두번째 문장의 뜻은 《모두(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이다. 첫 문장의 경우에 《다》를 앞에 놓아 《다 책을 읽어라.》고 하면 《모두 책을 읽어라.》의 뜻으로 된다. 이와 같이 《모두》를 쓸 자리에는 어느 경우에나 《다》를 통용할수 있으나 《다》를 쓸 자리에는 어느 경우나 《모두》를 통용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체(全體: 온전 전, 몸 체) 여럿이 있는것을 빠짐없이 몰아서 합한것을 통채로 또는 모든 부문, 모든 대상. 일반적으로 《책을 다 읽어라.》를 《책을 모두 읽어라.》고 하지 않듯이 《책을 전체 읽어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들전체 운동장에 모이시오.》에서 《전체》는 《모두》와 통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다》로도 통용할수 있다. 그러나 《전체 조선인민》에서 《전체》는 《다》나 《모두》로 통용할수 없다. 그것은 《전체》가 언제나 명사로서 다른 단어를 규정할수 있지만 《다》나 《모두》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규정어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모두》의 뜻을 규정어로 쓸 때에는 관형사 《모든》을 써야 한다. 《다》와 《모두》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것이 다냐?》, 《나는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잘 생겼다.》, 《우리모두의 성과이며 자랑이며 기쁨이다.》라고 표현할수 있으나 다른 명사앞에서 규정어로 쓰이지는 못한다. 《전체》는 명사로서 흔히 《부분》, 《일부》의 뜻과 상반되는 뜻을 가진다.

단막극, 사이극, 토막극

【공통뜻】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짧은 형식의 극.

【개별뜻】

단막극(單幕劇: 홑 단, 장막 막, 심할 극) 무대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개념으로서 막이 여러번 닫겼다열렸다 하는 일이

없이 한막으로 된 극.

사이극 하나의 전일적인 사상을 주제로 한 예술공연의 도중에 막과 막사이에 하는 짧은 형식의 극.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는 측면에서 막과 막사이에 하는 토막극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며 공연시간이 짧다는 측면에서 《단막극》, 《사이극》, 《토막극》은 공통성을 띠고있다. 그러나 그 출연목적에서는 약간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사이극》은 말그대로 공연도중에 지루감을 없애거나 다음 공연의 준비시간을 얻기 위해 하는 극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 형식에서도 《사이극》이나 《토막극》은 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극이지만 《단막극》은 웃음이 필연적인것이 아니다. 토막극, 재담 등과 같은것으로서 막간극이라고도 한다.

토막극 생활의 한토막을 보여주는 짤막한 극. 토막극은 긍정적인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거나 또는 비웃음과 풍자로써 부정적인것, 낡고 뒤떨어진 사상잔재를 폭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막극은 간단한 내용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것이 특징적이다.

단번에, 한꺼번에

【공통뜻】 한번에.

【개별뜻】

단번에(單番: 홑 단, 차례 번) 시도했거나 목적했던 일을 단 한번에.

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단번에 알아맞추었다.

한꺼번에 ① 동시에 모두.

례: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② 한번의 동작으로 동시에.

례: 손더듬으로 붕어를 한꺼번에 2~3마리씩 잡아냈다.

단상, 수기, 수필, 실기

【공통뜻】 자기가 체험했거나 목격한 사실을 적은 1인칭(나)의 글.

【개별뜻】

단상(斷想: 끊을 단, 생각 상) 짧은 산문형식으로 어떤 사회적문제에 대한 사색과 체험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잡지나 신문글의 한 형태. 수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주위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의있는 현상이나 사실을 놓고 그와 련관된 다른 사실까지 끌어들여 자유분방하게 전개하는 글이라면 단상은 주어진 대상, 현상 그자체만 놓고 자기의 토막생각과 느낌을 적는데 머무르는 글이다.

수기(手記: 손 수, 기록할 기)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중에서 의의있고 교훈적인것을 간명하게 적는 이야기글.

자기자신의 사업과 생활과정에 직접 체험한 사실, 자신의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며 교훈적인 내용을 자서전적으로 쓰면서도 지나온 생활을 다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의의가 있는 어느 한 단면의 생활을 부각시킨다. 즉 심각한 문제가 주어져있고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는 생활의 어느 한 측면과 사실만을 가지고 쓴다.

수필(隨筆: 따를 수, 붓 필) 현실생활에서 받은 체험과 함께 그에 대한 느낌을 적은 산문형식의 글.

필자의 느낌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으며 주위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의있는 현상을 놓고 그와 련관된 다른 사실까지 끌어들이며 자유분방하게 내용을 전개한다. 수필은 서정성과 정론성이 매우 강하다.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 수필은 필자의 사상감정과 느낌을 주정풀이의 형식으로 표현하며 시대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의 폭이 넓다.

실기(實記: 열매 실, 기록할 기) 있은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글.

실기는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적은 1인칭글이기는 하지만 수기와는 다르다. 수기에서는 글의 주인공이 언제나 《나》이지만 실기에서는 《나》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단서, 실마리

【공통뜻】 무엇을 해명하는데 요긴한 자료.

【개별뜻】

단서(端緖: 끌 단, 실머리 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조사하기 위한 실마리. 주로 《단서를 잡다.》, 《단서로 되다.》, 《단서를 찾다.》로 쓰인다.

례: 사건의 단서를 바로잡아야 범인을 신속정확히 잡을수 있다.

실마리=실머리 ① 감았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

례: 윤희는 헝클어진 실뭉구리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

②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고리.

례: 그는 이 단순한 원리에서 새로운 기술적문제를 풀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단평, 론평

【공통뜻】 어떤 사실, 사건에 대한 비평글.

【개별뜻】

단평(短評: 짧을 단, 평론할 평)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등 출판보도물에서 쓰이는 짧은 형식의 비평적인 기사.

론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실과 사건을 취급하며 내용이 짧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론평(論評: 론할 론, 평론할 평) 신문, 방송, 통신 등에서 일정한 사회정치적사변들을 분석평가하는것 또는 그렇게 하는 기사형식의 하나.

사회여론의 초점으로 되는 문제의 본질과 그에 대한 해당측의 립장과 견해를 밝힌다.

단어, 어휘

【공통뜻】 뜻을 가진 언어적단위.

【개별뜻】

단어(單語: 홑 단, 말씀 어) 혼자서도 말뜻을 나타낼수 있는 말소리의 덩어리. 단어는 뜻을 나타내는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낱말》이라고도 한다.

어휘(語彙: 말씀 어, 모을 휘) 단어뿐만아니라 단어의 등가물 즉 단어처럼 쓰이는 성구를 통털어 이르는 말.

성구란 하나의 전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성구에는 여러가지 속담과 함께 속담이라고는 할수 없는 공고한 단어결합(《눈이 빠지다.》, 《눈에 나다.》 등)들도 속한다.

담요, 모포, 포단, 요포

【공통뜻】 덮개나 깔개.

【개별뜻】

담요 굵게 뽑은 털실이나 목화실 같은것으로 두껍게 짜거나 눌러서 만든 깔개나 덮개.

모포(毛布: 털 모, 베 포) =담요

포단 ① =요포

② 어린아이를 업거나 덮어줄 때 쓰는 작은 이불. 《포대기》라고도 한다.

요포 ① 사람이 눕거나 잠잘 때 펴는 깔개. 모피그대로 만들거나 천으로 짓고 그속에 솜을 두는 방법으로 만든다.

② =담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응당하다

【공통뜻】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되는것이 리치에 맞다.

【개별뜻】

당연하다(當然: 마땅할 당, 그럴 연) 무슨 일이 그렇게 되는것이 마땅하다.

례: 맑은 흐름만을 바라는 그 마음에 흐린 물이 역겨워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것이였다.(중편소설 《그가 걷는 길》)

마땅하다 ① 그렇게 하거나 되는것이 리치에 맞아 옳다.

례: 공부를 잘하는것은 학생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② 대상이나 행동 같은것이 어떤 조건이나 정도에 어울리게 알맞다.

례: 봄씨붙임에 마땅한 시기.

어머니는 딸을 어서 시집보내고싶었으나 별로 마땅해보이는데가 없었고 더우기는 제가 아직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해서 버썩 우기지 못했다.

응당하다(應當: 응할 응, 마땅할 당) 마땅하고 정당하거나 또는 당연하고 당당하다.

례: 《이번 김매기경쟁에서 1등을 한 선녀가 치마저고리감을 가지는것은 응당한 일이야.》

닻, 돛

【공통뜻】 배의 한 구성부분.

【개별뜻】

닻 배가 멎어있을 때 물결에 밀려가지 못하도록 만든 기구.

례: 닻을 올리다.

《닻을 감다.》라는 말은 배가 떠나려고 닻줄을 감아올린다는 뜻이다.

돛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를 가게 하기 위하여 대에 다는 넓은 천 등으로 만든 바람받이.

례: 돛을 달다. 돛을 내리다. 흰 돛.

더불어, 아울러

【공통뜻】 함께.

【개별뜻】

더불어 함께, 한가지로.

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아울러 따로 하지 않고 합쳐서 함께 또는 그와 더불어.

례: 책과 아울러 연필도 샀다.

《아울러》는 《~와(과)》 다음에도 쓰고 이음토 《~고》나 《~면서》 다음에도 쓰며 한문장이 끝난 다음 그것을 받아서 다음 문장의 첫머리에도 쓰는것과 같이 자유롭게 쓰이면서 《~와(과) 함께》 또는 《그와 함께》의 뜻을 나타내며 글말과 입말에 다 쓰인다. 그러나 《더불어》는 언제나 토 《~와(과)》 다음에만 쓰이면서 《(그를 따라서) 함께》의 뜻을 나타내며 주로 글말에서 쓰인다.

더하다, 보충하다

【공통뜻】 무엇을 보태다.

【개별뜻】

더하다 ① 더 보태여 많아지게 하다.

례: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된다.

② 더 심해지다.

례: 상처의 아픔이 더하다.

보충하다(補充: 기울 보, 채울 충) 모자라는것을 보태여 채우다.

례: 그는 자기의 연구성과를 실험을 통하여 더욱 보충하고 완성하여나갔다.

덕망, 덕성

【공통뜻】 덕이 있는 품성.

【개별뜻】

덕망(德望: 덕 덕, 바랄 망) ① 높은 덕성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받게 되는 신망.

례: 덕망이 높으신분.

② 덕과 명망.

례: 장군은 지혜와 담력뿐아니라 덕망이 있어야 한다.

덕성(德性: 덕 덕, 성품 성) 높은 인덕을 지니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품성.

례: 고매한 덕성. 덕성에 매혹되다.

도대체, 도무지

【공통뜻】 —

【개별뜻】

도대체 ① 물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여 놀람, 의문, 걱정, 궁금한 심정 등을 힘주어 이르는 부사. 《대체》를 강조하는 말이다.

례: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②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이여 《도무지 또는 전혀》의 뜻을 가진다.

례: 처음에는 뭐가뭔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 없던 일이 차차 손에 익어갔다.

작곡을 떠나서는 도대체 음악예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도무지 주로 뒤에 부정하는 단어와 함께 쓰이여 《아무리 하여도 전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례: 편지봉투에 씌여있는 이름은 도무지 모를 사람이였다.

도리여, 오히려

【공통뜻】 생각과는 다르게.

【개별뜻】

도리여 주로 예측, 기대, 권고 또는 어떤 결과와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례: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는 자기가 더 고맙다고 인사하며 도리여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된 사실 또는 가지고있는 생각, 기대, 예측과는 반대되게.

례: 어데선가 풀벌레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그것은 정적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보태주는듯싶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도리여》와 《오히려》는 서로 바꾸어 쓸수도 있다.

돌, 돐

【공통뜻】 한해를 주기로 한 시간의 단위.

【개별뜻】

돌 어린아이가 태여난 날부터 한해가 되는 날. 주로 두세살까지 쓴다.

례: 돌생일. 돌잔치.

그러나 어떤 기념일, 경축일을 세는 이름수의 단위로서의 《돐》은 제한없이 쓰인다.

돐 어느 한때로부터 꼭같은 동안이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에 그 한동안 즉 한해를 단위로 하여 매해 돌아오는 그날이나 그해.

례: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

동기, 리유, 조건, 까닭, 원인

【공통뜻】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나 요소.

【개별뜻】

동기(動機: 움직일 동, 틀 기) 어떤 사태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례: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다.

리유(理由: 다스릴 리, 말미암을 유) 어떤 까닭이나 근거 또는 이러저러한 구실이나 핑게.

례: 《지각한 리유는?》, 《길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잠간 이야기하느라고…》

조건(條件: 가지 조, 가지 건) 무엇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의존하고있는 요소를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 못하겠습니까?》

까닭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생겨나거나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이나 조건.

례: 도대체 까닭을 알수 없다.

원인(原因: 언덕 원, 인할 인) 《결과》에 상대되는 뜻으로 어떤 현상보다 먼저 일어나면서 그것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사물현상.

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수 없다.

동향, 경향

【공통뜻】 어떤 움직임의 방향.

【개별뜻】

동향(動向: 움직일 동, 향할 향)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 행동 등의 움직임 또는 움직여가는 방향.

경향(傾向: 기울어질 경, 향할 향) 사상이나 행동, 그밖의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거나 기울어지는것.

례: 처음에는 수학에 취미가 있는듯 하더니 커가면서 미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드디여, 마침내, 끝내

【공통뜻】 《마지막에 이르러》 즉 《종당에는》의 뜻.

【개별뜻】

드디여 몹시 바라던대로 끝내, 결국에 가서, 끝끝내 또는 마침내.

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의 날이 드디여 오고야말았다.

마침내 마지막에 드디여 끝끝내.

례: 마침내 옥희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동무들과 휩쓸려 재미나게 놀기 시작했다.

끝내 ① 끝까지 내내.

례: 끝내 들어주지 않다.

② 드디여 마침내. 《끝내》를 특별히 강조하여 《끝끝내》라고도 한다.

례: 영수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끝내 제힘으로 풀고야말았다.

대개, 대체

【공통뜻】 기본적인 큰 선에서 보면.

【개별뜻】

대개(大概: 큰 대, 대개 개) 대부분 또는 대체로.

례: 남자들이 장기를 즐긴다면 녀자들은 대개 윷놀이를 좋아한다.

대체(大體: 큰 대, 몸 체) ① 일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줄거리.

례: 그만큼 함께 일해보면 이곳 사람들 성격의 대체는 짐작할수 있다.

② 부사적으로 쓰이여 《일반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례: 그만하면 대체로 된것 같다.

대비, 대조

【공통뜻】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해보는것.

【개별뜻】

대비(對比: 대할 대, 견줄 비) 두 대상을 맞세워 서로 비교하는것 또는 그 비교.

례: 길고짧은것은 대비해보아야 알수 있다.

대조(對照: 대할 대, 비칠 조) ① 둘이상 대상의 내용을 맞추어보는것.

례: 원문과 대조하다.

②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두 대상을 대비하는것.

례: 두 주인공의 성격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있다.

란발, 람발

【공통뜻】 아무렇게나 내보내는것.

【개별뜻】

란발(亂發: 어지러울 란, 필 발) 총이나 대포, 활 등을 아무렇게나 마구 쏘는것.

례: 겁에 질린 적들은 무턱대고 경기관총과 보총을 란발하기 시작했다.

람발(濫發: 넘칠 람, 필 발) 주로 법령, 규정, 지폐, 문건 등과 같은것을 제정된 규정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만들어 발포하거나 발행하는것.

례: 지페의 람발.

란폭하다, 횡포하다

【공통뜻】 몹시 사납다.

【개별뜻】

란폭하다(亂暴: 어지러울 란, 사나울 폭) 하는짓이 무지하고 막되고 모질다.

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일본의 고래잡이행위.

횡포하다[橫暴: 가로 횡, 사나울 폭(포)] 어떤 만행이나 책동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몹시 란폭하거나 마구 기승을 부리며 포악하다.

례: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횡포한 겨울은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려객선, 유람선

【공통뜻】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

【개별뜻】

려객선(旅客船: 나그네 려, 손님 객, 배 선) 려행하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

례: 그는 기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려객선을 리용하기로 하였다.

유람선(遊覽船: 놀 유, 볼 람, 배 선) 유람하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

례: 대동강에 오고가는 유람선들에서는 행복에 넘친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려관, 숙소, 합숙

【공통뜻】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묵어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곳.

【개별뜻】

려관(旅館: 나그네 려, 집 관) 주로 려행자들을 받아 묵어가게 하는 집 또는 그러한 봉사기관.

례: 봉화산려관.

숙소(宿所: 잠잘 숙, 바 소) 제 집을 떠난 사람이 림시로 묵거나 머물러 잠을 자는 곳. 숙소는 잠자는 곳을 이르는 말로서 집과 같은 건물로 정할수도 있고 야외에 천막을 쳐서 마련할수도 있다.

례: 숙소의 안팎은 정말로 깨끗하고 편리하였다.

합숙(合宿: 합할 합, 잠잘 숙) 여러 사람이 한데 들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 또는 그런 집.

례: 공장합숙. 합숙생활을 하다.

려명, 서광

【공통뜻】 밝아지는것.

【개별뜻】

려명(黎明: 검을 려, 밝을 명) ① 어둠이 밝아진다는 뜻. 새날이

밝을녘.

례: 려명이 깃들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먼데 사람을 가려볼수 없게 어둠이 진하게 깔려있었고…(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② 어둠을 헤치고 광명한 력사의 새 시기가 다가옴을 비겨 이르는 말.

례: 통일의 려명이 밝아오다.

서광(曙光: 새벽 서, 빛 광) ① 동트는 새벽녘의 해빛.

례: 밝아오는 새날의 서광은 우리를 축복하는듯 동쪽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② 찬란한 앞날을 예고해주는 희망의 등대빛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두만강지구에로의 진출은 일제의 탄압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비쳐주었다.

《려명》은 밝다는 뜻을 강조하고있고 《서광》은 빛이라는 뜻을 강조하고있다.

려정, 로정, 장정, 원정

【공통뜻】 —

【개별뜻】

려정(旅程: 나그네 려, 길 정) 려정이란 려행하는 로정 또는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진군길을 말한다.

례: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로 새해의 려정을 시작하였다.

로정(路程: 길 로, 길 정) 일정한 곳을 거쳐서 지나오거나 앞으로 겪게 될 길이나 과정.

례: 우리가 걸어온 로정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찼지만 백전백승한 영광스러운 길이였다.

장정(長程: 긴 장, 길 정) 사람이 걸어야 하거나 걸어온 매우 멀고 먼길.

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20성상의 장정은 우리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다.

원정(遠征: 멀 원, 칠 정) ① 먼곳으로 싸우러 나가는것 또는 먼데를 치는것.

례: 조선인민혁명군의 북만원정.

② 먼곳으로 경기나 시합을 하러 가는것.

례: 원정경기를 떠나다.

련관, 상관

【공통뜻】 관계가 있는것.

【개별뜻】

련관(聯關: 이을 련, 닫을 관) ① 주로 철학적인 용어로서 사물현상이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며 작용하는 관계에 있는것.

례: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과 그것을 이루고있는 개별적요소들, 측면들은 련관속에서만 존재한다.

② 사물현상들사이에 이러저러하게 관계를 맺어 서로 이어져있는것.

례: 섭생과 건강은 서로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상관(相關: 서로 상, 닫을 관) ① 서로서로의 관계를 맺는것 또는 그 관계.

례: 주어, 술어, 규정어, 보어, 상황어는 문장속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성분들이다.

② 무슨 일을 걱정하거나 간섭하는 일.

례: 《필요없는 일에 상관을 말고 저 할 일이나 부지런히 하여라.》

《내가 부모원쑤를 갚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장편소설 《림꺽정》 제1부)

련립제, 련방제

【공통뜻】 국가나 조직을 구성하는 제도.

【개별뜻】

련립제(聯立制: 이을 련, 설 립, 지을 제) 련립하여 조직하는 제도. 주로 련립정부를 의미한다. 또한 여러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련방제(聯邦制: 이을 련, 나라 방, 지을 제) 매개 민족 및 국가 그리고 분렬된 민족의 매 지역이 각각 자기의 최고주권기관과 최고집행기관을 가지면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최고주권기관과 최고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국가제도.

례: 우리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련방제를 실시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한다.

련면하다, 련연하다, 면면하다

【공통뜻】 잇달아 죽 뻗어있다.

【개별뜻】

련면하다(連綿: 이을 련, 솜 면) 주로 혈통이나 력사, 산맥 등과 같은것이 끊어지지 않고 죽 잇닿아있다.

례: 우리 나라의 력사는 인류발생초기부터 시작되여 이 땅에서 련면하면서 변화발전하였다.

련면한 산봉우리들.

련연하다(連延: 이을 련, 뻗을 연) 잇대여 길게 뻗어있다.

례: 아득한 초원 저쪽에서 축축히 젖은 풀발머리를 스치며 마파람이 건들건들 불어와서는 찢어진 솜누데기같은 검은구름들을 걷어가지고 동북쪽 련연한 산발쪽으로 밀어붙였다. (장편소설 《피바다》 제1부)

면면하다(綿綿: 솜 면) ① (《잇고 또 잇다.》의 뜻으로) 죽 잇달아 끊임이 없다.

례: 면면한 산발.

② 사람의 감정이나 정이 서리서리 엉키여 끝이 없다.

례: 그들은 어찌다 서로 만나는 일이 있어도 언제 한번 가슴속의 면면한 정을 털어놓고 말해본 일이 없다.

로선, 방침

【공통뜻】 집권당이 제시하는 전략전술적방안.

【개별뜻】

로선(路線: 길 로, 줄 선) ① 일정한 구간에 정하여놓고 통행하는 길.

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멋쟁이 로선뻐스들이 시내의 거리를 누비며 줄지어 달린다.

② 일정한 정치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나 투쟁의 원칙적방향.

례: 민족문화건설로선.

방침(方針: 모 방, 바늘 침) (당, 국가, 조직 등의) 어떤 사업과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전략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적이며 방향적인 지침.

례: 가격의 일원화방침. 민족대단결5대방침

론설, 사설, 정론

【공통뜻】 사회정치적문제들을 론증하거나 해설한 글.

【개별뜻】

론설(論說: 의논할 론, 말씀 설) 일정한 사회정치적문제나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하여 그의 본질적내용과 합법칙성 그리고 해결방도 등을 리론실천적으로 해설하고 론하는 글.

사설(社說: 두레 사, 말씀 설)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사람들에

게 제때에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기사.

정론(政論: 정사 정, 의논할 론) 예리한 정치적일반화와 형상적표현, 강한 주정토로로써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립장을 강렬하게 표명하는 기사.

료양, 정양, 휴양

【공통뜻】 일정한 기간 쉬는것.

【개별뜻】

료양(療養: 병나을 료, 기를 양) 약수, 온천, 감탕, 모래, 해빛, 물 같은 자연치료요소를 주되는 치료수단으로 하고 여기에 몸단련, 물리치료, 적극적인 휴식 등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허약자와 환자를 치료하며 몸을 추세우는것.

정양(靜養: 고요할 정, 기를 양) 조용히 안정하여 쉬면서 문화휴식도 하고 피로도 풀고 치료도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것.

휴양(休養: 쉴 휴, 기를 양) 명승지나 온천, 약수가 나오는 지대에서 일정한 기간 일을 하지 않고 즐겁게 쉬는것.

루설, 루실, 류실, 유실

【공통뜻】 가지고있던것이 새여나가 잃어버리는것.

【개별뜻】

루설(漏泄, 漏洩: 샐 루, 샐 설) 원래는 물이나 공기, 냄새 같은것이 밖으로 새여나간다는 뜻이였는데 현재는 《비밀 같은것이 밖으로 새여나가다.》의 뜻으로 쓰인다.

례: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루실(漏失: 샐 루, 잃을 실) 새여나가거나 빠뜨리거나 하여 잃어버리는것. 주로 물건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잃어버렸을 때 쓰인다.

례: 전기가 루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류실(流失: 흐를 류, 잃을 실) 물에 떠내려가서 잃어지는것.

례: 이번 장마철에 적지 않은 농경지가 류실되였다.

유실(遺失: 끼칠 유, 잃을 실) 가지고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것.

《유실》은 보통 건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잃어버리는것을 뜻한다.

례: 유실되였던 물건을 다시 찾다.

류동, 류통, 유동, 이동

【공통뜻】 무엇이 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

【개별뜻】

류동(流動: 흐를 류, 움직일 동) ① 액체 같은것이 흘러 움직이는것.

례: 선철은 강철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녹으며 또 녹은것을 부으면 잘 퍼지는 류동성을 가진다.

류동은 주로 류체(액체나 기체)의 이동에 대해서 쓴다.

②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옮겨다니는것.

례: 류동인원. 로력의 류동을 없애다.

류통(流通: 흐를 류, 통할 통) ① 막히는데 없이 흐르고 통하는것.

례: 물의 류통. 공기의 류통.

② 화페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로동생산물의 운동 즉 상품이 돈으로 바뀌고 또 돈이 상품으로 바뀌는 일.

례: 류통망. 류통기간. 상품류통.

유동(遊動: 놀 유, 움직일 동) ① 일정한 자리에 고정되여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것.

례: 조선인민혁명군은 국내와 남북만의 광활한 지역을 유동하면서 적을 치는 대규모적인 유동작전을 벌렸다.

② 물체가 헐거워서 노는것.

례: 유동하는 받침대를 고정시키다.

이동(移動: 옮길 이, 움직일 동) ① 본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여 가는것.

례: 위치의 이동.

② (일정한 조직체나 직장에서) 소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

례: 직장을 이동하다.

류만부동, 요지부동

【공통뜻】 ―

【개별뜻】

류만부동(類萬不同: 같을 류, 일만 만, 아니 부, 한가지 동) 비슷한것이 만가지라고 하여도 다 꼭같지는 않다는것.

례: 《아무리 친부모라도 류만부동이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또 어디에 있겠소!》

요지부동(搖之不動: 흔들 요, 갈 지, 아니 부, 움직일 동) ①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끄떡없거나 움쩍을 안하는것.

례: 힘껏 노를 저었으나 갖풀을 붙인것 같이 배는 요지부동이였다.

②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

례: 도면을 마저 그리게 해달라고 어찌나 끈덕지게 졸랐는지 한번 《아니.》 하면 요지부동이라는 소장도 감심해서 손을 들고말았다.

류사하다, 비슷하다

【공통뜻】 같은데가 많다.

【개별뜻】

류사하다(類似: 같을 류, 같을 사) 한부류 또는 한무리에 넣을만큼 비슷하다.

례: 한가지 기본문제가 풀리면 그와 류사한 다른 문제들도 쉽게 풀려나갈수 있다.

그들은 말이나 행동, 얼굴모습까지 류사하여 남들이 친

형제로 알고있었다.

비슷하다 ① 거의 같다.

례: 고양이는 생김생김이 범과 비슷하다.

② 토가 없는 단어형태 혹은 《～와/과》가 붙은 단어뒤에 쓰이여 《～로 짐작되다.》의 뜻.

례: 저기 오는 사람이 작업반장과 비슷하다.

③ (말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괜찮거나 훌륭하다.

례: 《콤퓨터 다루는 솜씨가 비슷하오.》

류포, 전파

【공통뜻】 널리 퍼뜨리는것.

【개별뜻】

류포(流布: 흐를 류, 베 포) 사상이나 여론 또는 소문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것.

례: 선진과학기술의 류포.

전파(傳播: 전할 전, 뿌릴 파) ①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것.

례: 오늘날 우리의 민족음식 김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② (어떤 사상 같은것을) 배워서 선전하고 해설하여 널리 퍼지고 보급되게 하는것.

례: 선진사상의 전파.

륭성, 번영

【공통뜻】 흥하게 발전하다.

【개별뜻】

륭성(隆盛: 높을 륭, 성할 성) 매우 흥성거리며 기운차게 일어난다는 뜻.

례: 우리의 문학예술은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투쟁모습을 반영하고있다.

번영(繁榮: 성할 번, 영화 영) 명예나 영예가 가득차 행복한것 또는 번성하여 발전하는것.

례: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

《번영》은 흔히 《륭성》과 뜻이 련관되여있으므로 합친말(《륭성번영》)로 자주 쓰인다.

리치, 사리, 원리

【공통뜻】 사물현상의 련관관계를 반영한것.

【개별뜻】

리치(理致: 다스릴 리, 이를 치) 사물현상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는 속내나 원리.

례: 사물현상의 리치를 밝혀가며 알기 쉽게 해설해주다.

사리(事理: 일 사, 다스릴 리) 사물현상의 리치.

례: 어머니는 사리를 따져가며 동생의 잘못에 대하여 타일러주었다.

원리(原理: 언덕 원, 다스릴 리) ① 사물현상의 근본으로 되는 리치.

례: 과학적내용은 반드시 원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터득할수 있다.

원리교양.

② (철학에서) 사물현상의 일반적련관, 그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리치 또는 명제.

례: 철학적원리.

리윤, 리률

【공통뜻】 리득을 나타내는 정도.

【개별뜻】

리윤(利潤: 리로울 리, 불을 윤)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리득.

리윤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사회인 경우에는 사회를 위한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며 사회의 순소득의 한 부분

을 이루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들의 잉여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로서 자본가가 차지하는 소득이다.

리률(利率: 리로울 리, 비률 률) 저금을 하였거나 낡은 사회에서 꾸어준 본래의 돈에 덧붙은 리자의 비률.

례: 리률이 높다.

마치, 망치, 방치

【공통뜻】 무엇을 두드리기 위해 만든 손도구.

【개별뜻】

마치 무엇을 두드리거나 박는데 쓰는 손도구의 한가지. 대가리는 쇠로 만들고 자루가 달려있다. 대가리쪽이 뭉툭하고 다른 한쪽은 좁아지거나 뾰족하게 된것으로서 주로 못을 박기 위해 만들어졌다.

례: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망치 주로 단단한 물건을 두드리는데 쓰는 쇠붙이 또는 쇠붙이와 거의 맞먹는 굳은 물체로 만든 손도구. 마치보다 크고 자루가 길다.

례: 그 대못은 마치로 박는것보다 망치로 박아야 할것 같다.

방치 빨래나 다듬이질 같은것에 쓰이는 방망이.

례: 빨래돌우에 빨래방치가 놓여있었다.

만능, 전능

【공통뜻】 할수 있는 능력.

【개별뜻】

만능(萬能: 일만 만, 능할 능) 만가지에 능하다는 뜻으로 여러가지를 다 할수 있거나 또는 아무 일에서나 서투르지 않고 솜씨있고 익숙하다는 뜻.

례: 그는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막히는데가 없는 만능인재이다.

전능(全能: 오로지 전, 능할 능)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고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풀어나갈수 있다는 뜻.

례: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명백하다, 명확하다

【공통뜻】 정확하고 뚜렷하다.

【개별뜻】

명백하다(明白: 밝을 명, 흰 백) 더 어떻다할 여지없이 뚜렷하고 환하다.

례: 명백한 대답. 명백한 결론. 명백한 문제.

명확하다(明確: 밝을 명, 굳을 확) 똑똑하고 뚜렷하다.

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다.

《명백하다》와 《명확하다》는 뜻이 서로 통하는데가 있기때문에 서로 엇바꾸어 써도 되는 경우가 있다. 례컨대 《명백한 대답》, 《명백한 결론》, 《명백한 문제》 등을 《명확한 대답》, 《명확한 결론》, 《명확한 문제》라고 해도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완전히 꼭같지는 않으므로 문맥에 맞게 잘 가려 써야 한다.

명예, 영예

【공통뜻】 긍지, 자랑스러움.

【개별뜻】

명예(名譽: 이름 명, 칭찬할 예) ① 사회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을만 한 자랑스럽고 떳떳한 이름 또는 그러한 자랑.

례: 명예를 떨치다. 명예를 더럽히다.

② 일정한 칭호나 직명우에 쓰이여 어떤 공로나 업적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뜻으로 특별히 준것임을 나타내는 말.

례: 명예교수. 명예박사. 명예회원.

③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것 또는 존경의 뜻을 표하는것.

례: 명예근무. 명예위병대.

영예(榮譽: 영화 영, 칭찬할 예) 영광스러운 명예.

례: 그는 이번 민족씨름경기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모국, 본국, 자국

【공통뜻】 자기 나라.

【개별뜻】

모국(母國: 어머니 모, 나라 국) 다른 나라에 가 생활할 때 자기의 조국을 그리며 부르는 말. 《모국》의 반대말은 《이국》으로 된다. 《조국》과 어울려쓰이는 경우가 많다.

례: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겠습니다.》

본국(本國: 근본 본, 나라 국)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림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의 국적이 있는 나라를 가리킬 때 쓰는 말.

례: 본국으로 소환하다.

자국(自國: 스스로 자, 나라 국) 남의 나라를 상대하여 자기가 사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 《자국》의 반대말은 《타국》이다.

례: 그는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자국에서는 무상치료를 생각조차 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몰렴치하다, 파렴치하다

【공통뜻】 전혀 렴치가 없다.

【개별뜻】

몰렴치하다(沒廉恥: 빠질 몰,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애당초 렴치가 파묻혀버려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전혀 모른다.

례: 야비하고 몰렴치한 대방의 행동에 그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파렴치하다(破廉恥: 깰 파,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렴치가 깨여

져나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례: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고있는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몰사격, 맹사격, 집중사격

【공통뜻】 드세찬 쏘기.

【개별뜻】

몰사격(沒射擊: 빠질 몰, 쏠 사, 칠 격) 총이나 포를 여러번 나누어 한꺼번에 몰아 쏘는것.

례: 우리 대장 사격구령 한번 웨칠 때
전대동무 겨냥총을 받들어 쥐고서
악악 소리 웨치면서 몰사격바람에
적의 군사 정신없이 막 쓰러진다

(혁명가요 《유격대행진곡》)

맹사격(猛射擊: 사나울 맹, 쏠 사, 칠 격) 맹렬한 사격 즉 몹시 세차고 사납게 불을 뿜어대는 사격.

례: 맹사격을 퍼붓는 적의 화점을 노려보는 영웅의 심장은 순간 비상한 각오로 불타올랐다.

집중사격(集中射擊: 모을 집, 가운데 중, 쏠 사, 칠 격) 목표로 되는 적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하여 화력을 그곳에 집중하여 쏘는 사격.

례: 《분대 사격준비! 앞에 보이는 적락하산병을 집중사격으로 소멸할것!》

못하다, 안하다

【공통뜻】 어떤 일이나 행동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별뜻】

못하다 어떤 행동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조건이나 능력부족

으로 하여 그 행동을 수행할수 없거나 무엇을 이룰수 없다.

례: 그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였다.

안하다 《아니하다》가 줄어든 단어로서 어떤 행동수행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다.

례: 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안한다고 하였다.

《안하다》는 《하지 않다.》와 완전한 뜻같은 말로 된다.

- 참고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	○
시간이 없어서 안 갔다(가지 않았다)	×
가기 싫어서 가지 못했다	×
가기 싫어서 안 갔다(가지 않았다)	○

못뽑이, 장도리

【공통뜻】 못을 뽑는 도구.

【개별뜻】

못뽑이 못을 뽑을수 있게 만든 도구.

례: 못뽑이와 망치.

장도리 못 같은것을 쳐서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마치대가리와 못뽑이가 함께 붙어있는 도구. 《장도리》는 원래는 두드리거나 때리는 물건이였으나 그 뜻이 망치로도 리용되고 못뽑이로도 리용되는 도구의 이름으로 전의되였다.

례: 《장도리가 있는데 망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몽매, 무지, 우매

【공통뜻】 무엇을 분간하지 못하거나 사리에 밝지 못한것.

【개별뜻】

몽매(蒙昧: 어릴 몽, 어두울 매) 정치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깨지 못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것.

례: 세기를 두고 억압과 천대, 무지와 몽매에서 헤매이던 우

리 녀성들이 오늘은 나라의 이름난 과학자로,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다.

무지(無知: 없을 무, 알 지) 배우고 들은것이 없어 알지 못하는것.

례: 지난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노예정책에 의하여 무지에서 깨여나지 못한 우리 인민은 주체의 새시대에 이르러 가장 문화적이며 선진적인 인민으로 되였다.

우매(愚昧: 어리석을 우, 어두울 매) 사상문화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사리에 밝지 못하고 어리석은것.

례: 해방전 일제는 우리 인민을 노예처럼 순종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지 않고 우매하게 만드는 《우민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무균화, 무진화

【공통뜻】 깨끗하게 만드는것.

【개별뜻】

무균화(無菌化: 없을 무, 버섯 균, 될 화) 병균이 전혀 없도록 하는것.

무진화(無塵化: 없을 무, 티끌 진, 될 화) 먼지가 전혀 없도록 하는것.

례: 의약품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무난하다, 무탈하다

【공통뜻】 특별한 애로나 문제될것이 없이 순탄하다.

【개별뜻】

무난하다(無難: 없을 무, 어려울 난) 난관 또는 말썽으로 될것이 없다.

례: 제기된 문제를 무난하게 처리하다.

무탈하다(無頉: 없을 무, 탈 탈) ① 병이나 탈이 없다.

례: 아이들도 다 무탈하게 자란다.

② 스스럽거나 까다로운것이 없다.

례: 서로 무탈한 사이.

③ 트집을 잡힐 까닭이 없다.

례: 그만하면 사위감으로 무탈하다.

문화재, 문화유물, 문화유산, 문화유적

【공통뜻】 선대가 창조하여 남겨놓은 문화적재부.

【개별뜻】

문화재(文化財: 글 문, 될 화, 재물 재)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적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산들의 재보, 물질적인것을 의미한다.

례: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수많이 략탈하거나 파괴해버렸다.

문화유물(文化遺物: 글 문, 될 화, 끼칠 유, 만물 물) 문화분야에서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물건의 총체. 여기에는 여러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해당 시기 사용해온 일용품 등 물질적인 모든것들이 다 포함된다.

례: 문화유물보존관리.

문화유산(文化遺産: 글 문, 될 화, 끼칠 유, 낳을 산) 선조들이 후대들에게 남겨놓은 문화적재부 즉 문화분야의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의 총체.

례: 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문화유적(文化遺蹟: 글 문, 될 화, 끼칠 유, 자취 적) 문화분야에 남아있는 력사적흔적이나 자취.

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적들을 보며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가슴뿌듯이 느꼈다.

미래, 장래

【공통뜻】 앞날.

【개별뜻】

미래(未來: 아닐 미, 올 래) ① 아직은 오지 않았으나 이제 오게 될 앞날.

례: 《래일》, 《래년》, 《백년후》— 이는 모두 미래를 표시한다.

미래를 사랑하라!

② (언어학에서)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시간보다 그뒤에 있게 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순간.

례: 렬차가 방금 도착하였다.(과거)

이제 곧 렬차가 올것이다.(미래)

장래(將來: 장수 장, 올 래) ① 장차 오게 될 날 즉 먼 후날을 의미한다.

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앞날의 일로 되였다.

② 미리 내다보이는 앞길이나 전망.

례: 장래가 유망하다.

《미래》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때》라는것이 강조된다면 《장래》는 《장차 다가올 때》라는것이 더 강조된다. 그리고 《미래》는 단어 《현재》와 《과거》에 상대하여 쓰는 말이지만 《장래》는 보통 그에 상대하여 쓰지 않는다. 《미래》나 《장래》는 보통 상당히 오랜 뒤의 시간을 가리키므로 한시간뒤나 래일 등을 《미래》나 《장래》라고는 하지 않는다.

미만, 이하

【공통뜻】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보다 많지 않음.

【개별뜻】

미만(未滿: 아닐 미, 가득할 만) 일정한 수량이나 한도에까지 채 이

르지 못한 그아래.

례: 10살미만의 어린이(1살부터 9살까지의 어린이)

이하(以下: 써 이, 아래 하) 일정한 수량, 등급, 정도까지 포함한 그아래.

례: 10살이하의 어린이(1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이)

민속무용, 민족무용

【공통뜻】 해당 민족이 즐겨 추는 무용.

【개별뜻】

민속무용(民俗舞踊: 백성 민, 풍속 속, 춤출 무, 뛸 용) 해당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해져내려오고있는 무용.

춤은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민속적》측면을 담을수 있는데 오직 민속적인 측면을 반영한 무용만이 《민속무용》으로 된다. 《민속적》인것은 해당 민족에게만 고유한것이므로 또한 《민족적》이다. 례를 들면 키를 들고 추는 춤은 무엇을 까부르는것이 조선녀성들의 민속과 관련되므로 《민속무용》으로 되는 동시에 키로 무엇을 까부르는것은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인 행동으로 되기때문에 《민족무용》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민속무용》은 《민족무용》으로 불리울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무용》이 《민속무용》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민족무용(民族舞踊: 백성 민, 겨레 족, 춤출 무, 뛸 용) 민족적생활과 풍습, 감정 등에서 나타나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민족적인 고유한 률동으로 표현하는 춤. 민족무용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국가단위로 생활하면서 창조한 문화의 한 형태이다.

반란, 반정, 정변

【공통뜻】 정부를 반대하여 일으키는 폭력적행동이나 사변.

【개별뜻】

반란(反亂: 돌이킬 반, 어지러울 란) (낡은 사회에서) 《통치자들을 반대하는 폭력투쟁》을 통치자들의 립장에서 하는 말.

례: 반란을 일으키다.

반정(反正: 돌이킬 반, 바를 정) ① 란리를 평정하여 바로잡는것. ② 봉건사회에서 어지러워진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나쁜 왕을 내려앉히고 새 왕을 대신 내세우는것.

례: 연산군을 내쫓은 중종의 반정. 《인조반정》.

정변(政變: 정사 정, 변할 변) 무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폭력수단들을 동원하여 국가의 권력을 빼앗아내며 정부를 뒤집어엎고 정권의 요직들을 갈아치우는 돌발적인 정치적사변.

례: 군사정변.

반복, 중복

【공통뜻】 거듭되는것.

【개별뜻】

반복(反復: 돌이킬 반, 다시 복) 어떤 일이나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거듭하는것. 《반복》의 특성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이며 의식적으로 한다는데 있다.

례: 반복훈련. 반복련습.

중복(重復: 무거울 중, 다시 복) 겹치거나 거듭되는것. 《중복》은 어떤 일이나 현상에 다른 일이나 현상이 포개짐을 나타내므로 주로 무의식적이거나 자연적인것에 쓰인다.

례: 글에서 같은 표현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반석같이, 철석같이

【공통뜻】 매우 굳고 든든하게.

【개별뜻】

반석같이(盤石: 소반 반, 돌 석) 주로 《기초, 토대나 주권, 정권, 지반 같은것이 매우 굳건하고 튼튼하게》의 뜻. 《반석》은 넓

고 평평한 바위 즉 매우 안전하고 듬직한 너럭바위를 말한다.

례: 민주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다.

철석같이(鐵石: 쇠 철, 돌 석) 쇠나 돌같이 매우 굳다는 뜻으로 《의지나 믿음, 단결 등이 깨뜨릴수 없이 아주 굳고 단단하게》를 이르는 말.

례: 철석같이 믿다. 철석같은 신념.

반향, 반영

【공통뜻】 어떤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표현.

【개별뜻】

반향(反響: 돌이킬 반, 소리 향) ① (물리에서) 음파 및 라지오파가 장애물에 부딪쳐 되돌아 반사되여 울리는 현상.

② 어떤 사실,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느끼는 태도나 생각 또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 주로 《크다》, 《좋다》, 《나쁘다》 등과 결합된다.

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제적반향은 대단히 크고 좋았다.

반영(反映: 돌이킬 반, 비칠 영) ① (철학에서)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다른 사물의 특성을 복사 또는 재생하는 물질의 일반적속성.

례: 사람에 의한 객관적현실의 인식은 반영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② 어떤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나 의견 또는 그것을 해당 조직이나 일군에게 제기하여 알리는것.

례: 군중의 반영을 듣다.

③ 속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서 내비치는것.

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것은 그의 속생각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발간, 발행, 간행

【공통뜻】 무엇을 찍어내는것.

【개별뜻】

발간(發刊: 필 발, 새길 간) 책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출판물을 찍어내는것. 발간이 먼저 있어야 간행이나 발행이 있게 된다. 발간에는 찍은것을 사회에 내보낸다는 의미는 없다.

례: 신문 《새날》은 1928년 1월 15일 무송에서 발간되였다.

발행(發行: 필 발, 다닐 행) 도서, 신문, 잡지뿐아니라 각종 문건, 증명서(초대장, 참가증 포함), 화폐, 학습장 등을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는것. 간행보다 뜻폭이 넓다.

례: 도서발행, 증명서발행.

간행(刊行: 새길 간, 다닐 행) 출판물을 찍어서 발행하는것. 주로 동사형태 즉 《간행하다, 간행되다》로 자주 쓰인다.

례: 소설과 잡지를 비롯한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였다.

발생, 발상, 발원

【공통뜻】 무엇이 생겨나는것.

【개별뜻】

발생(發生: 필 발, 날 생) 어떤 대상이나 현상 또는 상태가 생겨나는것.

례: 작품의 구성을 째이게 하려면 이야기줄거리를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으로 명백하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상(發祥: 필 발, 상서로울 상) 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거나 기원하는것.

따라서 《발상지》는 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일이 처음으로 생겨난 곳이다.

례: 우리 나라는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이다.

발원(發原: 필 발, 언덕 원) ① (강 같은것의) 흐르는 물이 시작되는 곳.

례: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는 백두산천지이다.

② 사회력사적사변이 일어난 근원지.

례: 3.1인민봉기는 평양에서 발원되였다.

발자국, 발자욱

【공통뜻】 사람이나 짐승이 남긴 자취.

【개별뜻】

발자국 사람이나 동물(길짐승)이 발로 밟은 곳에 생긴 자리.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례: 흰눈우에 찍힌 어린애의 발자국.

《이게 사람발자국인지, 곰발자국인지 분간할수 없구만.》

발자욱 ① ＝발자국

② 걸어온 로정이나 흔적. 추상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례: 항일투사들이 걸어온 발자욱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슴배여있다.

방적공장, 방직공장, 제사공장

【공통뜻】 천, 실을 짜는 공장.

【개별뜻】

방적공장(紡績工場: 길쌈 방, 길쌈 적, 공업 공, 마당 장) 주로 자연섬유(털, 목화, 갈 등으로 만든 섬유)와 화학섬유(비날론, 나이론, 데트론 등)로 실을 뽑는 공장.

례: 청진방적공장.

방직공장(紡織工場: 길쌈 방, 짤 직, 공업 공, 마당 장) 천을 짜는 공장.

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제사공장(製絲工場: 지을 제, 실 사, 공업 공, 마당 장) 주로 고

치나 솜을 켜거나 자아서 실을 뽑는 공장.

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방아간, 정미소

【공통뜻】 낟알을 찧거나 볽는 기구나 설비를 차려놓은 곳.

【개별뜻】

방아간 방아를 차려놓고 낟알을 찧거나 볽는 칸 또는 그 집.

례: 참새가 방아간을 거저 지날가.

정미소(精米所: 정밀할 정, 쌀 미, 바 소)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설비를 차려놓고 벼를 찧거나 쌀을 쓿는 곳.

례: 해방전에 그는 정미소를 차려놓고 운영한 소자산계급이였다.

《방아간》은 그 설비나 기구가 재래식의 수공업적인것이라면 《정미소》는 그보다 좀 발전된 기계나 설비를 차려놓았다는데 차이가 있다.

방언, 사투리

【공통뜻】 일정한 지방의 사람들만이 쓰는 언어.

【개별뜻】

방언(方言: 모 방, 말씀 언) 《지방말》이라는 뜻. 일정한 지역이나 지방사람들속에서 쓰이는 지방적특색을 띠고있는 말. 방언중에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말마디들은 문화어에 오를수 있다.

사투리 옛날부터 일정한 지역 또는 지방에서만 통하는 토배기말로서 《방언》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투리》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서툰 말》, 잘 다듬어지지 못한 말이다. 《사투리》는 문화어규범과 맞지 않는 말로서 언어생활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

번역, 통역

【공통뜻】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일.

【개별뜻】

번역(飜譯: 뒤칠 번, 번역 역) 어떤 나라의 말이나 글을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로 옮겨놓는것.

례: 소설번역. 번역영화.

통역(通譯: 통할 통, 번역 역) 언어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사이에서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듣는 사람의 다른 언어로 옮기여 전달하는것.

례: 영어를 통역하다.

《번역》은 주로 글을 상대로 하며 《통역》은 주로 말을 상대로 한다. 《번역》은 주로 써놓은 글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여 글로 적어놓는 일이며 《통역》은 귀로 말을 듣고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여 입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보건, 의료

【공통뜻】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것.

【개별뜻】

보건(保健: 보존할 보, 건장할 건) 건강을 보호하는것 즉 병에 대한 예방, 치료 및 그밖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증진시키는것.

례: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의료(醫療: 의원 의, 병고칠 료) (주로 일부 단어앞에 쓰이여) 병을 치료하는것.

례: 의료기구. 의료시설. 의료일군.

보물, 보배

【공통뜻】 매우 귀하고 값있는 물건이나 대상.

【개별뜻】

보물(寶物: 보배 보, 만물 물) ① 매우 귀하고 보배로운 물건.

례: 우리 나라에는 금, 은, 동, 철, 흑연,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온갖 보물들이 땅속에 많이 묻혀있다.

② 값있고 귀중한 대상 또는 존재.

례: 보물산. 보물고.

보배 ① 매우 귀하고 소중한 물건.

례: 보배처럼 아끼다.

② 값있고 귀중한 대상 또는 존재를 비겨 이르는 말.

례: 보배공장. 보배광산.

《보배》는 사람에 대하여 비유할수 있지만 《보물》은 사람에게는 비유하지 않는다.

보상, 배상

【공통뜻】 물어주는것.

【개별뜻】

보상(補償: 기울 보, 갚을 상) 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그대신으로 물어주는것 또는 그렇게 무는 돈이나 물건.

② 어떤 일을 하거나 로력을 들인데 대하여 차례지거나 치르는 값.

례: 망국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남녀로소모두가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도 벌렸고 민족적의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군활동도 벌렸다.

배상(賠償: 물어줄 배, 갚을 상) 입힌 손해에 대하여 갚아주는것.

례: 지난날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침략력사를 외곡하면서 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보수당, 수구당, 사설정당

【공통뜻】 진보적인것이 못되는 당파.

【개별뜻】

보수당(保守黨: 보존할 보, 지킬 수, 무리 당) 사회혁명에 대하여 보수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 당.

수구당(守舊黨: 지킬 수, 옛 구, 무리 당)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존재한 새것을 따르지 않고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것을 고집하는 보수당파.

사설정당 (주로 낡은 사회에서) 정치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리용하여 자기 리속을 채우고있는 반동적정객들이 권력을 탈취할 목적으로 옳바른 정강이나 목표도 없이 온갖 권모술수로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당이라는 간판을 붙인 패거리.

봉기, 폭동

【공통뜻】 반동적통치배 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

【개별뜻】

봉기(蜂起: 벌 봉, 일어날 기) 외래침략자들이나 반동적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인민대중이 들고일어나는 대중적투쟁.

례: 3.1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폭동(暴動: 사나울 폭, 움직일 동) 인민대중이 반동적통치배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리는 대중적폭력투쟁.

례: 무장폭동을 일으키다.

강점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린 려수군인폭동.

《폭동》은 《봉기》에 비해 폭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보다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볼수 있다.

봉지, 봉투

【공통뜻】 무엇을 넣기 위하여 종이나 그밖의 얇은것으로 만든 주머니.

【개별뜻】

봉지(封紙: 봉할 봉, 종이 지) 편지나 문건이 아닌 기타것(주로 약, 사탕, 과자, 씨앗 등)들을 넣기 위해 종이나 그밖의 얇은것으로 만든 주머니.

례: 종이봉지. 비닐봉지.

본래는 《봉지》라는 말자체가 무엇을 넣어 봉하기 위하여 종이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가리켰는데 종이보다 질긴 재료가 나오면서 그것으로 만든 주머니도 《봉지》라고 말하게 되였다.

봉투(封套: 봉할 봉, 씌울 투) 편지나 문건, 자료 같은것을 넣어 봉할수 있게 종이나 그밖의 얇은것으로 만든 주머니.

례: 편지봉투.

봉화, 홰불

【공통뜻】 어떤 선구자적이며 선동적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

【개별뜻】

봉화(烽火: 봉화 봉, 불 화) ① 옛날 외적의 침입이나 기타 급한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에 국가적인 통신을 목적으로 이웃고을들에 련락하는 신호로 산봉우리나 높은 곳에 올리던 불.

② (력사발전이나 사회적운동 같은데서) 맨 선참으로 내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발기 또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비겨 이르는 말.

례: 라남의 봉화. 성강의 봉화.

③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탑이나 기념비의 꼭대기에 붉게 타오르는 불 또는 탑의 그 부분.

례: 주체사상탑의 봉화.

홰불 ① 어둠을 밝히기 위해 싸리나 갈대, 노가지나무, 솜뭉치 같은것을 묶어서 만든 홰에 붙인 불 또는 불이 달린 홰.

례: 홰불시위. 홰불을 들고 동굴에 들어갔다.

②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선봉적이며 선동적인것》을 비겨 이르는 말.

례: 어둡던 강산에 서광을 가져다준 보천보의 홰불.

부문, 부분

【공통뜻】 전체에서의 일부.

【개별뜻】

부문(部門: 부서 부, 문 문) 일정한 특성이나 기준에 따라 큰 범위에서 나누어진 령역이나 갈래.

례: 사회과학부문. 경제부문. 중공업부문.

부분(部分: 부서 부, 나눌 분) 전체를 몇으로 가른 개별적인 단위나 그에 해당하는 몫.

례: 기계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났다.

그 책의 3장 부분이 잘못 서술되였다.

분담하다, 할당하다

【공통뜻】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대상에게 나누어 맡기는것.

【개별뜻】

분담하다(分擔: 나눌 분, 멜 담) 어떤 일을 갈라서 맡거나 맡기는것.

례: 일을 골고루 분담해야 전반적공사를 빨리 끝낼수 있다.

할당하다(割當: 벨 할, 마땅할 당) 주로 어떤 량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여러 대상들에 각각 돌아가도록 맡기는것.

례: 작업반별로 공사구역을 할당해주었다.

불법, 비법

【공통뜻】 법을 어기는것.

【개별뜻】

불법(不法: 아니 불, 법 법) 법에 어그러지는것 또는 법을 어기는것.

례: 불법무도한 일제의 조선침략.

비법(非法: 아닐 비, 법 법) 법에 어긋나는 일.

례: 더구나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비법적으로 수색하는데는 저으기 기분이 언짢았다. 꼭 검열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학생들의 면전에서 정정당당하게 할수 있지 않는가?(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비교, 비유

【공통뜻】 서로 견주어 비기는것.

【개별뜻】

비교(比較: 견줄 비, 비교할 교) ① 서로 견주어보는것.

례: 비교도 되지 않게 우월하다.

② (론리학에서) 사물현상들간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사고의 기능 또는 그 고찰의 론리적수법.

례: 나무와 풀의 비교를 통하여 나무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료해하다.

※ 비교하는 문법수단은 《～보다》와 《～만큼》임.

비유(比喩: 견줄 비, 깨우칠 유) ① 어떤 대상이나 현상, 상태를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이나 현상, 상태에 비기여 설명하는것.

례: 용맹한 사나이의 기질을 호랑이에 비유하여 이야기한다.

② 《비유법》의 준말.

※ 비유하는 문법수단은 《～처럼, ～같이, ～인양, ～마냥, ～듯(이)》임.

비망록, 백서

【공통뜻】 외교문서의 하나.

【개별뜻】

비망록(備忘錄 갖출 비, 잊을 망, 기록할 록) 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두는 기록이나 책.

② 외교문서의 하나. 엄중한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정

치법률적측면에 중심을 두고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상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립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표하는 문건.

백서(白書 흰 백, 글 서) 정부 또는 일정한 정치조직이 정책안 같은것을 서술한 문건.(표지를 흰색으로 만들었던 관계에서 생긴 말.)

배당, 배정, 배포

【공통뜻】 나누어주는것.

【개별뜻】

배당(配當: 짝 배, 마땅할 당)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몫을 나누는것 또는 나누어진 몫.

배정(配定: 짝 배, 정할 정)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한 성원에게 나누어 몫을 정하는것.

례: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품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포(配布: 짝 배, 베 포) 주로 출판물 같은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주거나 퍼뜨리는것.

례: 도서배포. 신문배포.

사실혼, 법률혼

【공통뜻】 법률용어로서 혼사를 나타내는 말.

【개별뜻】

사실혼(事實婚: 일 사, 열매 실, 혼인 혼) 정식 약혼식이나 결혼식이 없이 게다가 법적등록이 없이 실지로 부부생활을 하는 결혼.

법률혼(法律婚: 법 법, 법 률, 혼인 혼) 정식 결혼식을 하고 법적등록까지 한 결혼.

사직, 퇴직

【공통뜻】 자기 직무에서 물러서는것.

【개별뜻】

사직(辭職: 말씀 사, 직분 직) 자기가 일하던 직무를 스스로 내놓고 그만두는것. 동사형태 《사직하다》로 많이 쓰인다.

퇴직(退職: 물러갈 퇴, 직분 직) 일정한 직책이나 직무, 일하던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것.

산해진미, 진수성찬

【공통뜻】 맛좋은 음식.

【개별뜻】

산해진미(山海珍味: 산 산, 바다 해, 보배 진, 맛 미) 산과 바다의 진귀한 맛이라는 뜻으로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맛좋은 음식.

례: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리 산해진미를 다 차려놓아도 구수한 토장국이 없으면 구색이 맞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신다.

진수성찬(珍羞盛饌: 보배 진, 부끄러울 수, 성할 성, 반찬 찬) 맛이 좋고 진귀한 음식들을 많이 잘 차린것 또는 그런 음식.

례: 이름도 모르는 바다의 진미를 담은 진수성찬이 그들의 앞에 놓여있었다.

《산해진미》에는 없는것 없이 잘 차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면 《진수성찬》은 푸짐하게 잘 차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다.

상식, 지식

【공통뜻】 교육이나 실천을 통하여 배웠거나 알고있는것.

【개별뜻】

상식(常識: 항상 상, 알 식) 일반적으로 알고있어야 할 보통의 지식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지식.

례: 상식도서. 가정상식. 위생상식.

지식(知識: 알 지, 알 식)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성적인식의 총체.

례: 정치지식. 경제지식. 군사지식. 지식의 탑을 쌓다.

《지식》은 학습이나 실천활동을 통하여 배워서 알게 되며 하나의 전일적체계로 결합되여 일정한 리론을 이룬다는데 《상식》과의 차이가 있다.

상자, 통, 함

【공통뜻】 무엇을 넣어두기 위해 만든 그릇.

【개별뜻】

상자(箱子: 상자 상, 아들 자) 무엇을 넣어두거나 나르기 위하여 널판자, 합판, 판종이, 주름판종이 같은것으로 만든 그릇.

주로는 네모나게 만드는데 그 모양과 꾸밈새는 여러가지이다. 상자의 특성은 특별히 뚜껑을 여닫게 되여있지 않고 고정시켜 닫거나 뚜껑이 없는 상태로 되여있다는데 있다.

례: 포탄상자. 탄약상자. 사과상자.

통 무엇을 담아두기 위하여 나무, 금속, 비닐 등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그릇. 뚜껑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있어도 대개 붙어있지 않다. 모양은 《상자》나 《함》에 비하여 여러가지이다.

례: 물통. 밥통. 간장통. 석유통. 숟가락통.

함 무엇을 넣기 위하여 만든 기구. 상자와 뜻이 비슷하다. 뚜껑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붙어있어 여닫게 되여있으며 그 재질도 나무나 합판뿐아니라 철판으로도 만들수 있다.

례: 목수도구함. 문서함. 카드함.

상장, 표창장

【공통뜻】 어떤 일이나 말은 과업을 잘 수행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여 상으로 주는 증서.

【개별뜻】

상장[賞狀: 상줄 상, 형상 상(장)] 상으로 주는 증서 즉 어떤 일을 잘한데 대하여 선물, 메달 또는 상품이나 상금을 줄 때에 함

께 주는 증서.

이 증서에는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 까닭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또는 주는 기관, 주는 날자 등을 적게 된다.

례: 상장수여식.

표창장[表彰狀: 걸 표, 드러날 창, 형상 상(장)] 어떤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였거나 찬양할만 한 소행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주는 영예로운 증서.

표창장도 표창을 받는 사람의 이름, 표창내용, 지위, 주는 사람이나 기관, 주는 날자 등을 밝힌다. 그러나 《표창장》은 상품이나 상금은 주지 않고 표창장만 주는 경우가 많다.

례: 철남이는 공부를 잘하여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상황, 정황

【공통뜻】 일의 형편.

【개별뜻】

상황(狀況: 형상 상, 하물며 황) 일의 형편.

례: 이쪽 상황을 알려주다. 경기상황.

정황(情況: 뜻 정, 하물며 황) ① 일이 처한 형편 또는 벌어진 정세의 형편.

례: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② (문학예술에서) 《인물성격들과 사건들의 호상관계와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극적국면과 생활바탕》을 이르는 말.

례: 생활의 본질과 시대의 특징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정황은 인간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투행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전투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객관적조건들과 요인들의 총체.

례: 전투에서의 정황판단.

서사시, 서정시

【공통뜻】 시의 한 형태.

【개별뜻】

서사시(敍事詩: 펼 서, 일 사, 글 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거기에 참가한 인간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일정한 이야기줄거리에 담아 묘사한 시의 한 형태.

일반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간의 생활과 투쟁, 업적에 대하여 형상한다.

례: 장편서사시 《백두산》.

서정시(敍情詩: 펼 서, 뜻 정, 글 시) 현실생활에서 받은 시인의 느낌과 충동, 사상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시의 한 형태.

례: 서정시 《나의 조국》.

《서사시》는 있은 사실을 일정한 이야기줄거리에 담아 엮는다면 《서정시》는 시인의 감정정서를 강하게 토로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서사시》에도 시인의 주정토로가 일정하게 있지만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건, 사실의 줄거리인것이다.

서술, 저술

【공통뜻】 글을 쓰는것.

【개별뜻】

서술(敍述: 펼 서, 지을 술) 일정한 내용을 차례에 따라 말하거나 적는것 또는 그 말이나 글.

례: 간단한 서술체계. 내용을 서술하다.

저술(著述: 나타날 저, 지을 술) 책이나 작품, 론문 같은것을 쓰는것 또는 그 책이나 글.

례: 저술사업. 저술을 내다.

《서술》은 일정한 체계안에서 내용을 전개하는것을 의미한다면 《저술》은 하나의 저서를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서한, 편지

【공통뜻】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글.

【개별뜻】

서한(書翰: 글 서, 글 한) ① 공식적인 편지.

례: 공개서한.

② 《편지》를 달리 이르는 말.

편지(便紙: 편할 편, 종이 지) 시간이나 거리관계 또는 다른 조건으로 하여 직접 만나 교제할수 없는 경우에 말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상대자에게 보내는 글.

례: 고향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내다.

편지는 보통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받는 상대만이 알게 된다.

선결, 선차

【공통뜻】 어느것보다 먼저.

【개별뜻】

선결(先決: 먼저 선, 결단할 결)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는것.

례: 무슨 일에서나 성공하려면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선결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선차(先次: 먼저 선, 다음 차) 차례에서의 먼저.

례: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 자재문제를 선차로 해결해야 한다.

선동, 선전

【공통뜻】 사상사업의 한 형태.

【개별뜻】

선동(煽動: 부채질할 선, 움직일 동) 어떤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기는것.

례: 은희는 부녀회원들을 모아놓고 유격대에 보낼 원호물자를

빨리 보내자고 선동을 하였다.

선전(宣傳: 펼 선, 전할 전) 널리 말하여 퍼뜨리고 알리는것.

례: 새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선전.

선집, 전서, 전집, 총서

【공통뜻】 여러 저작을 묶어서 편집한 책.

【개별뜻】

선집(選集: 가릴 선, 모을 집) ① 한 저자의 많은 저작이나 작품들 가운데서 일정한것을 뽑아서 편집한 책.

례: 《**김일성**선집》.

지난해에는 많은 시인들이 자기의 오랜 창작생활에서의 귀중한 열매들을 묶어서 시선집을 출판하였다.

② 여러 사람의 저작이나 작품들가운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뽑아서 묶은 책.

례: 《조선문학선집》.

전서(全書: 온전 전, 글 서) 어떤 분야에 관계되는 저작을 전부 모으거나 또는 전체를 포괄한 지식을 모아 체계잡아서 엮은 책.

례: 조선어학전서. 의학전서.

전집(全集: 온전 전, 모을 집) 한사람의 저작이나 또는 한 부문의 저작을 모두 모아서 한질로 되게 편집한 책.

례: 《**김일성**전집》.

총서(叢書: 떨기 총, 글 서) 같은 분야나 부류의 내용 또는 사상리론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전개한 저서들을 모아둔것.

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선언, 성명

【공통뜻】 자기측의 견해와 립장을 발표하는것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

【개별뜻】

선언(宣言: 펼 선, 말씀 언) ① 국제적조직이나 국가, 정당, 사회단체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 립장, 태도나 자기의 정책, 방침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것 또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 선언문 또는 선언서라고도 한다.

② 자기 의사를 널리 선포하는것.

성명(聲明: 소리 성, 밝을 명) 중요한 정치, 법률적문제,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국제적사변 등에 대한 립장과 태도 같은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것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적인 문서.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성명에는 정부성명, 외교부성명, 외교부 대변인성명, 통신사성명 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나 정당 및 단체들이 련명으로 발표하는 성명도 공동성명이라고 한다. 성명은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성구, 속담

【공통뜻】 오랜 력사적기간에 쓰이면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

【개별뜻】

성구(成句: 이룰 성, 글귀 구)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처럼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

성구는 넓은 의미로서의 《성구》와 좁은 의미로서의 《성구》의 뜻 즉 두가지 뜻을 가진다. 넓은 의미로서의 《성구》는 하나의 전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으로서 속담과 함께 관용구까지 다 포함된다. 《관용구》라는것은 하나의 뜻으로 통일되지는 않으면서 관습적으로 오래 씌여오는 과정에 개별적단어들이 완전히 굳어져 밀착되여 어휘화된 성구를 말한

다. 례컨대 《죽을 쑤다》, 《눈을 팔다》, 《여름을 탄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성구》는 속담을 제외한 굳어진 단어결합을 말한다.

속담(俗談: 풍속 속, 말씀 담) 근로인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활과 투쟁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들의 사회적지향과 견해 같은것을 여러가지 비유의 수법을 써서 간결하게 형상적으로 표현한 말.

례: 발없는 말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수박겉핥기.
우물안의 개구리.

《속담》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여러가지 비유의 수법을 써서 형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성구》와 구별된다.

성례, 혼례

【공통뜻】 혼인하는것.

【개별뜻】

성례(成禮: 이룰 성, 례절 례) 일정한 례식을 갖추어 결혼하는것.

례: 성례를 치르다.

혼례(婚禮: 혼인할 혼, 례절 례) 혼인을 맺는 모든 례절. 여기에는 청혼, 허혼, 약혼, 결혼할 때의 례의가 다 포함된다.

례: 영희는 연구론문을 완성하고야 혼례를 치르었다.

성사, 성취

【공통뜻】 어떤 일을 이루는것.

【개별뜻】

성사(成事: 이룰 성, 일 사)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것. 동사형태 《성사하다》, 《성사되다》, 《성사시키다》

로 많이 쓰인다.

례: 혼사를 성사시키다.

성취(成就: 이룰 성, 나아갈 취) 어떤 일을 목적이나 희망대로 이루거나 어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것. 동사형태 《성취하다》, 《성취되다》로 자주 쓰인다.

례: 평생소원을 성취하다.

성새, 요새

【공통뜻】 군사상방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나 지대.

【개별뜻】

성새(城塞: 성 성, 막을 새) ①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성과 요새를 통털어 이르는 말.

② 《나라를 지켜싸우는 강력한 투쟁력량》을 비겨 이르는 말.

례: 백두산근거지는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성새를 이룬 새로운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였다.

요새(要塞: 요긴할 요, 막을 새) 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튼튼하게 만들어놓은 방어시설 또는 그런 시설이 배치된 곳.

례: 천연요새를 이룬 원시림.

② 《난관을 이겨내고 차지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나 투쟁목표》를 비겨 이르는 말.

례: 물질적요새.

성장, 장성

【공통뜻】 체적이나 량이 커가거나 자라나는것.

【개별뜻】

성장(成長: 이룰 성, 긴 장) 자라나는것 또는 자라서 점점 커지는것.

례: 어린이들의 성장은 매우 빠르다.

주로 생명체에 대해서 쓴다.

장성(長成: 긴 장, 이룰 성) ① 자라서 어른이 되는것.

례: 그는 이 몇해사이에 끌끌한 총각으로 장성하였다.

② 늘어나거나 발전하여 높아지거나 커지는것.

례: 경제의 장성.

소동, 소란, 소요

【공통뜻】 왁작 떠들거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것.

【개별뜻】

소동(騷動: 소란할 소, 움직일 동) ①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일.

례: 놓쳤던 뱀장어를 다시 잡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소동을 일으키다.

②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나 변.

례: 소동이 진압되다.

소란(騷亂: 소란할 소, 어지러울 란) 왁작하게 떠드는 일이나 뒤숭숭하고 시끄러운것.

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문제를 조용조용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다간 점점 더 복잡해질수 있소.》
소란한 세상.

소요(騷擾: 소란할 소, 시끄러울 요) ① 시끄럽게 떠들썩한것.

례: 운동장의 소요.

②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소동.

례: 몇달째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측의 처사에 항의하여 로동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공통뜻】 푸른 숲을 이루어놓는 일.

【개별뜻】

수림화(樹林化: 나무 수, 수풀 림, 될 화) 나무로 숲을 이루어놓는것.

나무로 숲을 이루는 일은 산과 들, 바다가 그 어디에서나 할수 있다.

원림화(園林化: 동산 원, 수풀 림, 될 화)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로 공원이나 유원지, 정원 등을 록화하는것. 원림화에는 나무심기, 꽃밭조성, 잔디심기 등이 속한다.

과수원화(果樹園化: 과실 과, 나무 수, 동산 원, 될 화) 나라의 곳곳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과일동산을 이루어놓는것.

례: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익금, 수입금

【공통뜻】 얻게 된 돈.

【개별뜻】

수익금(收益金: 거둘 수, 더할 익, 쇠 금) 리득으로 더 얻게 되는 돈.

례: 수익금을 높이다.

수입금(收入金: 거둘 수, 들 입, 쇠 금) 벌어들인 돈.

례: 한달동안의 수입금을 통계하였다.

시기, 시대

【공통뜻】 력사적인 어느 한때.

【차이뜻】

시기(時期: 때 시, 기약할 기) 어떤 일이 있었거나 현상이 진행되는 때.

례: 항일혁명투쟁시기.

시대(時代: 때 시, 대신할 대) 일정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갈라놓은 력사적기간.

례: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시험, 실험

【공통뜻】 무엇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지 다루어보는것.

【개별뜻】

시험(試驗: 시험할 시, 경험할 험) ① 배운 지식이나 기술기능의 수준과 숙련정도를 일정한 절차로 검열평가하는 형식의 한가지. 필답, 구답, 실기 등이 있다.

례: 대학입학시험. 졸업시험.

② 사물을 실지로 다루어보거나 겪어보아서 그 성질이나 상태를 알아보는것.

례: 시험포전. 그의 담력을 시험해보다.

실험(實驗: 열매 실, 경험할 험) 연구대상에 의도적으로 일정한 작용을 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사업. 과학연구를 위하여 진행하는 과학실험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진행하는 학교실험이 있다.

례: 실험장치. 실험연구. 실험시간.

조선사람들을 세균무기실험대상으로 삼은 일제의 극악한 만행.

실패, 패배, 랑패, 참패

【공통뜻】 초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

【개별뜻】

실패(失敗: 잃을 실, 패할 패) 잘못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일로 되는것.

례: 이번 실험에서까지 실패한 강기사의 심정은 착잡하기가 이를데없었다.

패배(敗北: 패할 패, 패배할 배) 싸움이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것.

례: 한번 패배하였다고 락심하는것은 진정한 체육인의 태도

가 아니다.

랑패(狼狽: 이리 랑, 이리 패) ① 바라던 일이 실패되거나 바로잡을 길이 없이 되는것.

례: 매사에 조심하면 랑패가 없는 법이다.

② 희망과 기대에 어그러져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나 그러한 형편.

례: 《그렇게 하다가 헛일이 되면 랑패 아니요.》

참패(慘敗: 참혹할 참, 패할 패) ① 참혹하게 패배하는것 또는 그러한 패배.

례: 제2차 세계대전은 파쑈제국주의렬강들의 대참패로 막을 내렸다.

② 승부를 겨루는 경기나 경쟁 같은데서 대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만큼 크게 지는것.

례: 남수는 자만하던 나머지 이번 바둑경기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심오하다, 심원하다

【공통뜻】 깊이가 있다.

【개별뜻】

심오하다(深奥: 깊을 심, 깊을 오) 사상이나 리론 등이 매우 깊이가 있다.

례: 그 소설은 인간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새겨주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속에서 애독되고있다.

심원하다(深遠: 깊을 심, 멀 원) 내용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고 그 유래로 보아 뿌리가 대단히 깊다.

례: 내외정세를 관찰하는품이 리치가 정연하고 내놓은 경륜이 또한 심원하고도 드티는데가 없었다.(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상)

심원한 뜻. 심원한 진리. 연원이 심원하다.

생사존망, 흥망성쇠

【공통뜻】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극단.

【개별뜻】

생사존망(生死存亡: 날 생, 죽을 사, 있을 존, 망할 망) 《사는가 죽는가, 존재하는가 없어지는가.》의 뜻.

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다.

흥망성쇠(興亡盛衰: 일 흥, 망할 망, 성할 성, 약할 쇠) 흥하고 망하고 하는것과 성하고 쇠하고 하는것.

례: 조국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자가당착, 자승자박

【공통뜻】 제스스로 하는 행동.

【개별뜻】

자가당착(自家撞着: 스스로 자, 집 가, 부딪칠 당, 닿을 착) 제스스로가 부딪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모순됨을 비겨 이르는 말.

례: 그는 헤여날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였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스스로 자, 노 승, 스스로 자, 얽을 박) 제가 꼰 새끼로 제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한 말과 행동으로 어쩔수 없는 곤경에 빠져 헤여날수 없게 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례: 조인수는 완전히 이제는 겁에 질려 증언대를 바라보았다. 이거야말로 자승자박이다.(장편소설 《승자와 패자》 제3부)

자료, 재료

【공통뜻】 무엇을 만드는데 바탕으로 되는 감.

【개별뜻】

자료(資料: 바탕 자, 헤아릴 료) ① 무엇을 만들거나 이루는데 쓰

이여 바탕으로 되는 감.

례: 자료를 장만하다. 건축용자료.

② 무엇을 학습하고 연구하며 판단하고 리해하는데 바탕으로 쓰이는것.

례: 문헌자료. 학습자료. 정세자료. 력사자료.

③ 무엇을 료해하고 알아낸 결과. 얻어진 재료.

례: 료해자료. 취재자료. 정보자료.

④ 콤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였거나 처리하려고 준비한 수자나 문자, 기호들의 모임으로 된 정보.

례: 자료기지.

재료(材料: 재목 재, 헤아릴 료)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감. 재료의 특성은 반드시 그 성질을 그대로 보존한다는데 있다.

례: 건설재료. 물감재료.

장입구, 주입구, 취입구

【공통뜻】 무엇을 넣기 위한 구멍.

【개별뜻】

장입구(裝入口: 꾸밀 장, 들 입, 입 구) 로 같은것에 원료나 연료를 차례로 쌓이게 넣는 구멍.

주입구(注入口: 물부을 주, 들 입, 입 구) ① 액체 같은것을 일정한 공간에 부어넣기 위한 구멍.

례: 물탕크의 주입구.

② 주물에서 주물공간에 쇠물을 넣기 위한 구멍.

취입구(吹入口: 불 취, 들 입, 입 구) 공기 같은것을 불어넣는 구멍.

례: 그는 쇠물이 사품치는 로안을 살피며 취입구로 파철과 함께 산소도 동시에 취입하였다.

저해하다, 저애하다

【공통뜻】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다.

【개별뜻】

저해하다(沮害: 멈출 저, 해로울 해)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밀막아 해를 끼치다.

례: 담배는 사람들의 건강을 저해한다.

저애하다(沮碍: 멈출 저, 막힐 애) 일이 순조롭게 못되도록 가로막아나서다.

례: 쓸데없는 고집은 사업을 저애한다.

전구, 전선

【공통뜻】 싸우는 곳.

【개별뜻】

전구(戰區: 싸움 전, 갈피 구) 일정한 규모에서 독자적으로 맡아 전투하는 구역.

례: 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새 희망과 용기를 가다듬고 투쟁의 새 전구를 향해 떠났다.(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광복의 해발》)

전선(戰線: 싸움 전, 줄 선) ① 적과 맞붙어 직접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지역.

례: 전선과 후방.

② 군대의 큰 집단이 작전적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지역.

례: 동부전선. 서부전선.

③ 줄기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일정한 사회적분야나 령역을 전투에 비겨 이르는 말.

례: 경제전선. 문화전선.

④ 사회적운동이나 정치투쟁을 공동으로 벌리기 위한 여러 사회력량의 련합 또는 그러한 조직체.

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전략, 전술

【공통뜻】 전쟁이나 투쟁에서 의거하는 방침.

【개별뜻】

전략(戰略: 싸움 전, 간략할 략) 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규정한 방침.

례: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수준에로 올려세우려면 우선 경제전략을 잘 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한편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②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일정한 전쟁단계에서 전쟁전반을 이끄는 작전방침.

례: 전략적방침.

전술(戰術: 싸움 전, 꾀 술) ①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시그시 취하는 행동방침.

전략이 최종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전기간 내세운 방침이라면 전술은 일정한 단계에서 그시그시 내세우는 방침이다.

례: 조성된 정세에 따라 그때그때 전술을 잘 짜는것은 우리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② 전쟁에서 군사전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전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군사작전의 한 방법.

례: 전술적방안.

③ 전투에서 적용되는 여러가지 전법과 술법.

례: 전술훈련. 전술을 익히다. 령활한 전술.

④ (체육에서) 경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운영과정에 선수들이 적용하는 활동형식과 방법을 규정하는 술법.

례: 4.2.4체계로 전술을 짜다.

⑤ 무엇을 처리하는 술책.

례: 인해전술. 일행천리전술.

전민항쟁, 전민항전

【공통뜻】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싸우는것.

【개별뜻】

전민항쟁(全民抗爭: 온전 전, 백성 민, 겨룰 항, 다툴 쟁) 예속된 나라들에서 강점자들과 그 추종세력에 항거하여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싸우는 폭력투쟁.

례: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킨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전민항전(全民抗戰: 온전 전, 백성 민, 겨룰 항, 싸움 전)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격퇴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체 인민이 떨쳐나선 전쟁.

례: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는 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이 사생결단하고 떨쳐나선 전민항전이였다.

전호, 점호, 참호, 엄페호

【공통뜻】 적탄의 피해를 입지 않게 땅에 파놓은 구뎅이.

【개별뜻】

전호(戰壕: 싸움 전, 구뎅이 호) 화력으로부터 인원과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보호하며 사격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설비한 구조물.

례: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전시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

점호(點壕: 점 점, 구뎅이 호) 한사람씩 들어가게 점점이 떨어져 판 전호.

참호(塹壕: 구뎅이 참, 구뎅이 호) 개별적사수들의 점호와 기관총이나 그밖의 무기의 좌지 그리고 엄페호들이 있는 좁고 긴 전호.

례: 부상병을 업고 참호를 따라 대대지휘부에까지 다달은 간호장은 그를 무조건 후송시켜 수술시킬것을 상급에게 제기했다.

엄폐호(掩蔽壕: 덮을 엄, 가릴 폐, 구뎅이 호) 유생력량이나 무기, 전투기술기재가 적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들어가있을수 있게 우를 덮어 가린 구뎅이.

정거장, 정류소, 주차장

【공통뜻】 차가 서는 곳.

【개별뜻】

정거장 [停車場: 머무를 정, 수레 차(거), 마당 장]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차가 머무르도록 일정하게 시설을 갖춘 역.

례: 나는 신의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급히 정거장으로 나갔다.

정류소(停留所: 머무를 정, 머무를 류, 바 소) 일정한 구간을 다니는 전차나 뻐스가 도중에 머무르게 되여있는 지정된 장소.

례: 뻐스정류소.

주차장(駐車場: 머무를 주, 수레 차, 마당 장) 차를 세워두게 되여있는 지정된 장소.

례: 주차장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온 뻐스들이 질서정연하게 서있었다.

정상적, 경상적

【공통뜻】 《그 상태를 유지하는》의 뜻.

【개별뜻】

정상적(正常的: 바를 정, 항상 상, 적실할 적) 《본래의 옳바른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는》의 뜻.

례: 모든 기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있었다.

경상적(經常的: 지날 경, 항상 상, 적실할 적) 《절대로 변동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늘 계속되는》의 뜻. 《경상적》의 《경》자가 《법》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눌러져 변경시킴이 없이 늘 계속하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례: 경상적인 생산적소비.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갖추다.

주요하다, 중요하다

【공통뜻】 중하고 요긴하다.

【개별뜻】

주요하다(主要: 주인 주, 요긴할 요) (여러가지 요인, 요소 또는 고리가운데서) 주되고 중요하다.

례: 성과의 주요한 요인. 문제해결의 주요한 방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요한 기관은 심장과 두뇌이다.

중요하다(重要: 무거울 중, 요긴할 요) 그 의의나 역할로 보아 소중하고 요긴하다.

례: 중요한 임무. 중요한 사업.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모두 회관으로 모입시다.》

《주요하다》는 여러가지 중요한것들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준동, 책동

【공통뜻】 모략과 계책으로 감행하는 적대적인 행동.

【개별뜻】

준동(蠢動: 꾸물거릴 준, 움직일 동) 겨울내 잠자던 벌레가 봄이 오면 꿈지럭거리며 움직이듯이 잠자코 있던 부정적세력이 때가 오거나 기회가 조성되면 못된짓을 은밀히 꾸미고 활동하는것.

례: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책동(策動: 꾀 책, 움직일 동) 어떤 부정적인 계책을 꾸미거나 행동을 하는것 또는 적대적인 행동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움직이게 하는것. 《준동》보다 뜻폭이 넓다.

례: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단합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할것이다.

준렬하다, 준절하다

【공통뜻】 매우 엄하다.

【개별뜻】

준렬하다(峻烈: 높을 준, 매울 렬) 사정없이 매우 엄하고 호되다.

례: 지배인 현영호는 리윤서의 준렬한 말을 들으며 창주에 대한 그의 경고는 바로 자기에게 주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언짢았다. (장편소설 《거센 흐름》)

준절하다(峻切: 높을 준, 간절할 절) ① 산이 깎아지른듯이 가파롭다.

례: 준절한 령마루.

② 마음이나 태도가 엄격하고 단호하며 절절하다.

례: 자그마한 얼굴에 비해 널직한 이마밑에서는 언뜻 보면 평범한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속깊이에서 준절한 빛이 어린 눈동자가 조용히 빛나고있었다.

준절한 어조. 준절한 비판.

중구난방, 호미난방

【공통뜻】 어려운 처지에 놓인것.

【개별뜻】

중구난방(衆口難防: 무리 중, 입 구, 어려울 난, 막을 방) ① 군중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것.

②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놓고 제각기 사방에서 떠들어대면 막아내기 어려운 난처한 립장에 빠진다는것.

례: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물어대는 소리에 최병규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설레설레 머리를 내저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호미난방(虎尾難放: 범 호, 꼬리 미, 어려울 난, 놓을 방) 범의 꼬리를 잡고 놓기 어렵다는 뜻으로 매우 어려운 일을 시작해놓고

계속하자니 베차고 그만두자니 손해를 입을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것.

례: 작업장을 돌아본 반장은 난처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호미난방격이로구만!》

중도반단하다, 중둥무이하다

【공통뜻】 무엇을 마무리하지 않다.

【개별뜻】

중도반단하다(中途半斷: 가운데 중, 길 도, 절반 반, 끊을 단)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에서 흐지부지 그만두다.

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친다고 하여도 일단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하지 말아야 한다.

중둥무이하다 원래 《중동무이하다》라는 말이 모음조화현상으로 바뀐 말이다. 《중동무이하다》라는 뜻은 하던 일이나 말을 끝맺지 않고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끊어서 무지른다는 뜻이다. 《중동》의 뜻은 사물의 중간이 되는 부분이란 뜻이며 《무이하다》는 하는 일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끊어서 거절한다는 뜻이다.

례: 남의 말을 중둥무이하고 제 말만 하다.

중대하다, 중차대하다

【공통뜻】 대단히 중요하다.

【개별뜻】

중대하다(重大: 무거울 중, 큰 대)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하다.

주로 어느 한 부분이나 대상에 국한시켜 해당한 문제가 매우 무겁고 큰 문제임을 강조할 때 쓴다.

례: 회의에서는 생산정상화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토론되였다.

중차대하다(重且大: 무거울 중, 또 차, 큰 대) 중하고 크다는 뜻으

로 《중대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성격상 광범위한 분야 또는 여러 측면에서 중대성을 강조할 때 쓴다. 여기서 《차》(且)는 동시행동 또는 동시상태를 나타내는 접속토 《며, 면서》의 기능 혹은 접속부사 《또한》, 부사처럼 쓰이는 《동시에》의 뜻을 나타낸다.

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과업이다.

증원, 지원

【공통뜻】 도와주는것.

【개별뜻】

증원(增援: 더할 증, 당길 원) 사람수를 늘여서 도와주는것.

례: 춘기작전에 들어선것을 알게 된 적들은 며칠전부터 급급히 새로운 증원무력을 끌어들여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

지원(支援: 고일 지, 당길 원) 지지하여 돕는것.

례: 우리의 사회주의농업은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다.

중책, 중임

【공통뜻】 중요한 과업

【개별뜻】

중책(重責: 무거울 중, 꾸짖을 책)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이나 직책.

례: 기업소는 발전소건설을 올해중으로 끝낼 중책을 맡았다.

중임(重任: 무거울 중, 맡길 임) ① 무겁고 중대한 임무.

례: 대군을 거느릴 중임을 맡았다.

② 거듭하여 같은 직무에 임명되는것.

지령, 지시

【공통뜻】 우에서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것.

【개별뜻】

지령(指令: 가리킬 지, 하여금 령) 웃기관이 아래단위에 지시하는 명령.

례: 생산지령. 지령을 주다.

지시(指示: 가리킬 지, 보일 시) ① 웃기관이나 조직 또는 웃사람이 아래에 무엇을 하라고 가리켜 요구하는것 또는 그러한 내용.

례: 전보지시. 명령과 지시.

② 어떤 방향과 대상 같은것을 손으로 가리켜보이는것.

례: 지시봉. 목표지시. 지시손가락.

지위, 직위

【공통뜻】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

【개별뜻】

지위(地位: 땅 지, 자리 위) 사람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사물현상인 경우에는 《여러 사물현상들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르는 말.

례: 지위를 차지하다. 사회적지위.

직위(職位: 직분 직, 자리 위) 직무나 직책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위치나 행정적등급.

례: 직위가 오르다. 책임적인 직위에서 일하다.

《지위》는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직위》는 《직무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데 차이가 있다. 《직위》라고 할 때는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교장》, 《련대장》, 《부장》 등 구체적인 행정적등급을 가리킨다.

지탄, 탄핵

【공통뜻】 규탄하는것.

【개별뜻】

지탄(指彈: 가리킬 지, 탈 탄) 찍어서 규탄하거나 비난하는것.

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지켜온 량심을 본의아니게 저버리고 민족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이런 말을 하는것입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

탄핵(彈劾: 탈 탄, 꾸짖을 핵) 죄상을 들어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며 책망하거나 규탄을 하는것.

례: 탄핵을 받다. 탄핵을 당하다.

직종, 업종

【공통뜻】 종류.

【개별뜻】

직종(職種: 직분 직, 씨 종) 직무상의 종류 또는 직업의 종류.

례: 큰 학습장에 연필로 넙적넙적하게 쓴 글씨인데 이름밑에 직종도 있고 나이도 밝혔다.

업종(業種: 업 업, 씨 종) 사회적분업에 따라 세부로 갈라지는 일의 여러가지 부문 또는 형태.

례: 채취공업. 농업. 방직공업. 수산업. 림업.

집결, 집합

【공통뜻】 모이는것.

【개별뜻】

집결(集結: 모을 집, 맺을 결) 한자리에 모이는것.

례: 그가 도착하니 이미 집결한 부상자들은 다 떠나간 뒤였다.

집합(集合: 모을 집, 합할 합) 일정한 성원 또는 대오가 한군데 모여서 합치는것.

례: 집합구령이 내렸다. 그는 가족들을 한바퀴 돌아보고 봉임의 앞에 서서 무엇인가 말하려는듯 하다가 빽 돌아서서 대렬로 달려갔다.(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제1부)

징병, 징용

【공통뜻】 강제로 끌려나가는것.

【개별뜻】

징병(徵兵: 부를 징, 군사 병) (낡은 사회에서) 통치기관이 일정한 나이의 성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어가는것 또는 그렇게 끌려나온 군인.

례: 전선의 형세가 불리해지자 일제는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으로 끌어갔다.

징용(徵用: 부를 징, 쓸 용) 낡은 사회에서 국가가 방대한 로동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마구 강제로 불러내여 일을 시키는것.

례: 해방전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 현해탄을 건너갔던 조선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릴수 없다.

재물, 재부, 재산

【공통뜻】 가치가 있는 물건.

【개별뜻】

재물(財物: 재물 재, 만물 물) 돈이나 또는 재산으로 되는 물건.

례: 재물에 눈이 어둡다. 재물을 탐내다. 재물을 긁어모으다.

재부(財富: 재물 재, 부유할 부) ① 값있는 모든 재산과 물질적부 또는 그 원천으로 되는것.

례: 나라의 재부. 문화적재부.
우리 나라에 있는 산과 바다, 강들은 다 귀중한 인민의 재부이다.

② 가치있고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것.

례: 지식은 사람의 재부중의 재부이다.

재산(財産: 재물 재, 낳을 산) 사람들의 생산적 및 소비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소유관계가 규정되여있는 물질적부. 다시말하여 개인이나 가정 또는 집단이 가지고있는 재물 즉 가치를 가

진 물건의 총체.

례: 재산실사.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애호관리하다.
재산이 많다. 재산을 모으다.

제한, 제약

【공통뜻】 일정한 한계에서 억제하는것.

【개별뜻】

제한(制限: 지을 제, 한정할 한) ① 정해진 한도.

례: 시간의 제한. 나이의 제한.

② 정해진 정도범위를 넘지 못하게 억누르는것.

례: 제한조치를 취하다.

③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그보다는 오르지 못하는것.

례: 지난 시기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착취하던 암담한 그 시절에는 인간의 그 창조성은 제한된것이였다.
(장편소설 《령마루》)

제약(制約: 지을 제, 언약 약) 사물의 존재나 발전에 일정한 제한을 주거나 받는 작용을 하는것 또는 그러한 작용.

례: 서로 제약관계에 있는 두 현상.

착취, 압박, 억압

【공통뜻】 (낡은 사회에서) 근로대중을 억누르고 못살게 구는것.

【개별뜻】

착취(搾取: 짤 착, 취할 취) (낡은 사회에서)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가진자 또는 그 앞잡이들이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로동생산물을 독점하거나 략탈하여 가지는것.

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의 도용으로 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방법이 더욱 교활해지고있다.

압박(壓迫: 누를 압, 다가들 박) ① (낡은 사회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자유를 억누르는것.

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② 힘을 주어 누르는것.

례: 가슴을 압박하다.

억압(抑壓: 누를 억, 누를 압) ① (낡은 사회에서) 기를 펴지 못하게 남을 억누르는것.

②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으며 억누르고 탄압하는것.

례: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였다.

천대, 학대

【공통뜻】 사람을 업신여기며 모질게 대하는것.

【개별뜻】

천대(賤待: 천할 천, 기다릴 대) 업신여겨서 천하게 대우하거나 대하는것 또는 함부로 다루거나 마구 굴리는것.

례: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학대(虐待: 모질 학, 기다릴 대) 혹독한짓으로 모질게 대하며 남을 괴롭히는것.

례: 량반관료들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를 못이겨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늘어만 갔다.

천추만대, 후손만대

【공통뜻】 대를 이어 오래 이어지는것.

【개별뜻】

천추만대(千秋萬代: 일천 천, 가을 추, 일만 만, 대신할 대) 수천년 세월이라는 의미에서 끝없이 오랜 기간을 이르는 말.

《추》는 《년》(해)을 이르는 말.

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투쟁업적.

후손만대(後孫萬代: 뒤 후, 손자 손, 일만 만, 대신할 대) 길이길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자손을 이르는 말.

례: 오늘의 이 간고한 전투는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첨입식, 집초식

【개별뜻】

첨입식(尖入式: 뾰족할 첨, 들 입 또는 들어갈 입, 법 식) 뾰족한 송곳으로 요진통을 찔러 구멍을 빨리 내듯이 방어나 공격을 하는 적의 전투서렬을 한 지점에서 뚫고들어가 전반을 장악하는 방식.

례: 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진행하다.

집초식(集焦式: 모을 집, 불탈 초, 법 식) 광선 또는 열에네르기를 한곬으로 모아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

사상사업을 집초식으로 벌린다는것은 걸린 고리를 풀수 있는 어느 한 측면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사람들의 심장에 불이 일도록 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린다는 뜻.

례: 오늘날 경제건설의 선행부문에 대한 경제선동을 집초식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초고, 추고, 탈고

【공통뜻】 원고를 만들어 완성하는 공정.

【개별뜻】

초고(草稿: 풀 초, 벼짚 고) 초벌로 쓴 원고.

례: 장편소설의 초고. 학위론문의 초고.

추고(推敲: 밀 추, 두드릴 고) 초보적으로 만든 글의 원고를 잘 다듬거나 고치는것.

례: 추고작업.

탈고(脫稿: 벗을 탈, 벼짚 고) 원고의 집필을 완전히 끝내는것 다시말하여 초고와 추고단계를 거쳐 원고를 출판에 회부하는것.

추도, 추모, 애도

【공통뜻】 죽은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는것.

【개별뜻】

추도(追悼: 따를 추, 슬플 도) 죽은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며 추모하는것.

례: 추도식. 추도사. 추도모임. 추도곡.

추모(追慕: 따를 추, 생각할 모) 죽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생각하는것.

례: 억울하게 쓰러진 어린것의 슬픈 죽음을 추모하는양 어지럽게 날아예돌던 산새무리들도 멀리로 날아가고 푸른 연기만이 감돌았다.(장편소설 《태양의 아들》)

애도(哀悼: 슬플 애, 슬플 도)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가슴아파하는것.

례: 애도의 뜻을 표시하다.

추동하다, 충동하다

【공통뜻】 부추기다.

【개별뜻】

추동하다(推動: 밀 추, 움직일 동) 어떤 일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부추기거나 떠밀어주다.

례: 그들의 공연은 길지 않았으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건설의 마지막전투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충동하다(衝動: 찌를 충, 움직일 동) ① 흥분할 정도의 강한 자극을 일으키다.

례: 마음에 큰 충동을 느끼다.

② 남을 부추기거나 또는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는것.

례: 남의 충동을 받아서 한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한것이다.

치레, 치장

【공통뜻】 보기 좋게 하는것.

【개별뜻】

치레 꾸미거나 손질하여 본래의 모양보다 보기 좋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감.

례: 수식사적인 치레가 없이 순수 군사용어들로 엮어진 보고는 20분도 못되여 끝났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치장(治粧: 다스릴 치, 화장 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일정한 감을 가지고 주로 사람의 얼굴 또는 몸을 가꾸거나 매만져 손질하는것.

례: 하루일을 끝낸 처녀들은 산뜻한 여름옷으로 곱게 치장하고 문화회관으로 갔다.

체계, 체제

【공통뜻】 전일적으로 결합되고 이루어진 질서.

【개별뜻】

체계(體系: 몸 체, 계통 계) ① 하나하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일적인것으로 결합되고 조직되여있는것.

례: 론리가 서고 체계가 정연한 강연.

② 글의 구성에서 독자성을 가진 완결된 한 부분.

례: 다음 체계로 넘어가다.

③ 《사업질서》를 간략하여 이르는 말.

례: 일군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체계.

③ (체신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구성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같은 목적을 위해 동작하는 계.

례: 통신정보체계.

체제(體制: 몸 체, 지을 제)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조직의 질서나 제도.

례: 봉건적통치체제. 정치체제.

체온계, 한난계, 온도계

【공통뜻】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

【개별뜻】

체온계(體溫計: 몸 체, 따뜻할 온, 계교 계) 몸의 온도를 재는 계기. 사람몸의 정상온도는 36∼36.5℃이므로 체온계의 온도표시 눈금도 보통 35℃−40℃까지로 표시된다.

한난계(寒暖計: 찰 한, 따뜻할 난, 계교 계) 매우 찬 온도와 더운 온도를 다 잴수 있게 만들어진 계기. 주로 대기온도를 재게 되여있다. 무더운 여름날의 온도와 몹시 추운 날의 낮은 온도까지 잴수 있는 눈금이 다 표시되여있다.

온도계(溫度計: 따스할 온, 법 도, 계교 계) ① 물체의 온도를 재기 위한 계기. 온도계에는 물질의 열팽창현상을 리용한 팽창온도계, 밀폐된 부피에서 온도변화에 따라 압력이 변하는 현상을 리용하여 만든 압력계식온도계, 반도체에서 생긴 열기전력을 리용한 열전온도계, 가열된 물체의 복사현상을 리용하여 만든 복사온도계, 온도변화에 따라 도체나 반도체의 전기저항이 변하는 현상을 리용하여 만든 저항온도계 등이 있다.

② 실내온도를 재기 위한 계기. 이 온도계는 주로 따스한 온도만을 재게 되므로 보통 눈금이 령하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통솔, 통제

【공통뜻】 거느려서 관리한다는것.

【개별뜻】

통솔(統率: 거느릴 통, 거느릴 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 또는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것.

례: 군대를 틀어쥐고 통솔하다.

통제(統制: 거느릴 통, 지을 제) ① 질서, 규률, 제도, 규정, 규범 같은것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도록 검열단속하고 제재하는것 또는 그러한 대책이나 조치.

례: 법적통제. 사회적통제.

강한 통제가 요구된다.

② 일정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권력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막는것.

례: 통제상품.

③ 어떤 일을 잘하도록 틀어쥐고 이끌어주며 도와주는것.

례: 학습통제.

태업, 파업

【공통뜻】 로동자들이 경제적요구를 내들고 벌리는 투쟁의 한 형태.

【개별뜻】

태업(怠業: 게으를 태, 업 업) ①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일을 태공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떨구는 방법으로 경제적손실을 주는것.

각종 방법으로 작업능률을 낮추는 형태,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내는 형태, 공장안의 질서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물란케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저애하는 형태 등이 있다.

례: 태업투쟁.

②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것.

파업(罷業: 파할 파, 업 업) 로동자들이 개별적자본가나 정부에 자기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제히 작업을 중지하는것.

주로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로동조건의 보장 등 경제

적요구를 제기하고 단행되나 때로는 이러한 요구와 함께 정부의 반동적시책, 침략과 전쟁정책 등을 반대하는 정치적요구를 들고 벌어지기도 한다. 경제파업, 정치파업, 총파업, 련대성파업 등이 있다. 태업보다는 높고 폭동보다는 낮은 형태의 투쟁이다.

례: 파업을 벌리다.

파란곡절, 우여곡절

【공통뜻】 앞에 전진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어 생기는 곤난.

【개별뜻】

파란곡절(波瀾曲折: 물결 파, 물결 란, 굽을 곡, 꺾을 절) 어지러운 물결처럼 순탄하지 않게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곤난이나 시련 또는 애로를 이르는 말.

례: 전진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우여곡절(紆餘曲折: 얽힐 우, 남을 여, 굽힐 곡, 꺾을 절) 길이 우불구불 구부러지고 꺾이여있어 전진하기 어려운 곤난을 이르는 말.

례: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의 성공을 안아온 젊은 연구사는 끝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판가리, 판가름

【공통뜻】 결과를 내는것.

【개별뜻】

판가리: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내는것.

례: 판가리싸움.

판가름: 옳고그른것을 갈라서 판단하는것.

례: 누가 옳고그른가를 판가름합시다.

편견, 편중

【공통뜻】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것.

【개별뜻】

편견(偏見: 치우칠 편, 볼 견)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보는것 또는 그러한 견해.

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일군들의 사업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금물이다.

편중(偏重: 치우칠 편, 무거울 중) ①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것.

례: 배에 짐을 편중하여 실으면 위험하다.

② 무엇이 고르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되는것.

례: 어느 한쪽에만 편중해서 힘을 넣으면 안된다.

편리, 편의

【공통뜻】 합리적인것.

【개별뜻】

편리(便利: 편할 편, 리로울 리) 주로 무엇을 사용하는데서 불편이 없게 합리적으로 되여있는것.

례: 편리한 시설. 교통이 편리하다.

편의(便宜: 편할 편, 마땅 의) 주로 사람들이 일하거나 생활하는데서 마땅히 좋고 편리하게 된것.

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다.

편성, 편집, 편찬

【공통뜻】 묶어서 만들다.

【개별뜻】

편성(編成: 엮을 편, 이룰 성) ① 일정한 사람들로 대오나 조직을 짜는것.

례: 대렬편성. 부대편성. 학급편성.

② 출판보도부문이나 영화촬영부문 같은데서 여러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골라 엮어 도서, 신문, 잡지, 방송물, 록화물 등을 만드는 일.

례: 기술편성. 영화편성.

③ 운수부문에서 객차 또는 화차들을 계획대로 묶는 일.

례: 렬차편성.

편집(編集: 엮을 편, 모을 집) ① 도서나 잡지, 신문이나 벽보 같은것을 일정한 내용이나 체계 또는 구성에 따라 엮고 짜서 인쇄, 발행할수 있게 만드는 일.

례: 신문편집. 도서편집.

② 출판물 또는 방송물을 내기 위하여 원고나 록음, 영화 같은 것을 검토하고 수정보충하여 완성하는 일.

《편집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편집계획, 원고의뢰, 집필원고 또는 직관물의 완성, 교열 등 전반사업이 다 포괄된다.

례: 편집사업은 출판보도물의 과학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

편찬(編纂: 엮을 편, 모을 찬)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미 나온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여 일정한 체계로 묶어 엮는것.

례: 사전편찬. 교과서편찬.

포탄, 폭탄

【공통뜻】 터쳐서 유생력량을 살상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폭발물.

【개별뜻】

포탄(砲彈: 대포 포, 탈 탄) 포에 재워서 목표를 사격하는 탄약.

례: 포탄이 날아가다. 포탄을 쏘다.

폭탄(爆彈: 터질 폭, 탈 탄) ① 몰려있는 유생력량, 갖가지 전투장비와 군사시설들을 소멸하고 파괴하는데 쓰이는 위력있는 폭발

물. 주로 비행기로 날라서 목표를 향하여 떨어뜨린다.

례: 폭탄이 터지다. 폭탄을 떨구다.

② (주로 《성명》, 《선언》, 《발언》. 《연설》 등과 함께 쓰이여)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나 단호하고 결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례: 폭탄성명. 폭탄같은 선언.

표명, 표시, 표식, 표현

【공통뜻】 무엇을 알수 있게 하는것.

【개별뜻】

표명(表明: 겉 표, 밝을 명) 의사나 태도를 겉으로 명백히 하는것.

례: 회의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은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표시1(表示: 겉 표, 보일 시) 생각이나 태도, 립장, 감정 등을 겉으로 드러내여보이는것.

례: 희망의 표시. 찬성의 표시. 기쁨의 표시.

표시2(標示: 표할 표, 보일 시) 표식으로써 나타내보이는것 또는 나타낸것.

례: 밑줄을 그어 표시를 해두다.

표식(標識: 표할 표, 알 식) 다른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 일정한 특징이나 표시.

례: 표식이 뚜렷하지 못하면 찾기 어렵다.

표현(表現: 겉 표, 드러날 현) ① 의사나 감정을 드러내여 나타내는것.

례: 웃음이나 울음은 감정의 표현.

② 사상감정을 언어로 드러내는것.

례: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어떤 복잡한 사상이나 섬세한 감정도 다 훌륭히 나타낼수 있다.

③ 어떤 본질적이거나 내적인것이 외적으로 발현되는것 또는 그 발현.

례: 의미와 표현. 표현과 리해.

④ 눈앞에 나타나보이는 사물의 이러저러한 모양과 상태 즉 현상을 이르는 말.

례: 우리 생활에서 주인답고 자각적인 훌륭한 표현들이 수많이 나타나고있다.

풍만하다, 풍성하다, 풍족하다, 풍요하다

【공통뜻】 무엇이 많거나 넉넉하다.

【개별뜻】

풍만하다(豐滿: 풍년 풍, 가득할 만) ① 무엇이 아주 많아서 가득찼다는 뜻으로 《넉넉할 정도로 매우 풍성하다.》를 이르는 말.

례: 한창 무르익은 가을은 봄에 비해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 통털어 온 산과 들이 풍만해졌고 가을향기가 진하게 풍기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② 무엇이 빈약하지 않고 원만하고 만족스럽다.

례: 풍만한 결실. 풍만한 정서.

③ 몸이 보기 좋게 부한것을 이르는 말.

례: 풍만한 몸.

풍성하다(豐盛: 풍년 풍, 성할 성) ① 무엇이 풍부하게 많다.

례: 해빛을 받아 얼어붙은 눈벌은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겉은 그렇게 얼음판처럼 번들거리지만 밑에는 아직 풍성한 눈이 깔려있어서 자칫하면 정갱이까지 쑥쑥 빠져들기도 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고난의 행군》)

② 살이 져서 몸집이 좋다.

례: 평소엔 옷차림 같은데 그리 관심하지 않던 그가 오늘만은 옥양목으로 지은 새옷차림이여서 살팍진 몸집이 더 풍성하고 젊어져보였다.(장편소설 《우리 마을》)

③ 사랑과 은정 같은것이 가슴에 넘칠 정도로 깊고 넓다.

례: 그렇게도 눈물많다는 이 나라 어머니들,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도 너무나 가난하여 사랑조차 자식들에게 줄길이 없는 불쌍한 이 나라의 어머니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풍족하다(豐足: 풍년 풍, 만족할 족) 만족할만큼 넉넉하다.

례: 풍족한 생활.

어디를 돌아봐도 풍족한 생활이였고 잔손질이 간 아담한 살림이였다.

풍요하다(豐饒: 풍년 풍, 넉넉할 요) ① 주로 먹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재부가 풍부하고 넉넉하다.

례: 풍요한 들판. 풍요한 가을. 풍요한 살림살이.

② 정신문화적부가 찬란하고 풍부하다.

례: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의 풍요한 재부를 쌓아나가다.

폐막, 폐식, 폐정

【공통뜻】 어떤 모임이 끝나는것.

【개별뜻】

폐막(閉幕: 닫을 폐, 장막 막) 어떤 공연의 막을 닫거나 집체모임 또는 회의가 끝나는것.

례: 폐막이 된 후에도 관중들의 박수는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축전폐막식. 회의폐막식.

폐식(閉式: 닫을 폐, 법 식) 식을 닫는다는 뜻으로 어떤 의식의 끝냄을 이르는 말. 《폐식사》란 의식을 끝마칠 때 인사삼아 하는 말.

폐정(閉廷: 닫을 폐, 법정 정) 재판정 즉 범죄자를 재판하는 장소의 문을 닫는것 또는 판결되였음을 이르는 말.

례: 개정, 폐정을 선포하다.

학교, 학원

【공통뜻】 전문적으로 교수교양을 진행하는 교육기관.

【개별뜻】

학교(學校: 배울 학, 학교 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정된 체계와 과정안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기관 즉 일반적인 교육체계에 속하는 교육기관.

례: 학교운동장에서는 신입생들을 축하해주는 모임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학원(學院: 배울 학, 집 원)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교수교양하는 학교.

례: 평양외국어학원.

한정, 제한

【공통뜻】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미리 정해놓는것.

【개별뜻】

한정(限定: 한정 한, 정할 정) 일정한 대상의 수량,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정하는것.

례: 나를 소생시키려는 의사선생님들의 사랑에는 한정이 없었다.

제한(制限: 지을 제, 한정 한) ① 한도를 제정하는것 또는 그 한도.

례: 시간의 제한을 받다. 나이의 제한을 받다.

② 정해진 정도범위를 넘지 못하게 억누르는것.

례: 엄격한 시간과 통제. 제한조치를 취하다.

허사, 허탕

【공통뜻】 무슨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

【개별뜻】

허사(虛事: 빌 허, 일 사) 헛된 일. 노력을 들였으나 이루지 못한 일을 가리킨다.

례: 전사들은 어둠속에서 강을 분간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다.(중편소설 《락동강》)

허탕 일정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벌려놓은 일이 아무 소득도 없음을 이르는 말.

례: 《행여나 해서 갔다가 허탕만 치고말았군.》

해설, 설복

【공통뜻】 깨우쳐주는것.

【개별뜻】

해설(解說: 풀 해, 말씀 설)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것. 동사 《해설하다》형태로 쓰인다.

례: 참관자들은 숨을 죽이고 강사의 해설을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설복(說服: 말씀 설, 옷 복) 충분히 깨닫고 납득이 가도록 타이르고 깨우쳐주는것. 동사 《설복하다》형태로 쓰인다.

례: 그는 영철이를 설복하여 다시 광산으로 데려왔다.

환담, 덕담

【공통뜻】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담화.

【개별뜻】

환담(歡談: 즐거울 환, 말씀 담) 정답고 즐겁게 이야기하는것 또는 그러한 이야기.

례: 그들은 즐겁게 환담을 하며 음식을 나누다가 저녁늦게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덕담(德談: 덕 덕, 말씀 담) 앞으로 잘되기를 축하하는 《덕》이 되는 말.

례: 옛날에는 설날에 친구나 젊은이들을 만나면 《과거에 급제하라.》, 《생남을 하라.》, 《재물이 생기라.》 하면서 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많이 했다고 한다.

까부르다, 까부리다, 까불다

【공통뜻】 ㅡ

【개별뜻】

까부르다 주로 낟알 같은것을 키에 담고 그것을 추슬러서 섞여있는 잡것을 날리다.

례: 키로 낟알을 까부르다.

까부리다=꼬부리다 주로 작은 물체 또는 가는 선을 구부리다.

례: 새끼손가락을 까부리다.

까불다 ① 이리저리 가볍고 빠르게 흔들리다.

례: 상우에 놓은 초불이 간들간들 까불고있었다.

② 가볍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다.

례: 그애는 나불나불 까부는 일도 없고 늘 입이 무거웠다.

빤드름하다, 뻔하다

【공통뜻】 무엇이 어떻다는것이 그대로 알리다.

【개별뜻】

빤드름하다 ① 어떤 곳이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다.

례: 빤드름한 골짜기. 여기서는 거리가 빤드름하게 보인다.

② (어떤 일의 결과나 누구의 속내가 어떠하리라는것이) 아주 빤하다.

례: 속이 빤드름하게 보이다.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야 빤드름한 사실은 부인할수 없다.

뻔하다(빤하다) ① (눈에 보이는것이) 뚜렷하고 훤하다.

례: 뻔하게 보이다.

② (일의 결과나 남의 속내가 어떻다는것이) 뚜렷하다.

례: 《그 동무가 우리와 함께 행동하리라는것은 물어보나마나 뻔합니다.》

안전, 안정

【공통뜻】 상태가 편안한것.

【개별뜻】

안전(安全: 편안할 안, 온전 전) 사고, 사건이 생길 위험이 없이 온전한것.

례: 안전대책. 안전을 보장하다. 안전한 길.

안정1(安定: 편안할 안, 정할 정) ① 어떤 물체나 바탕 등이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게 자리잡는것.

례: 안정을 얻다. 안정을 잃은 굴대. 추를 안정시키다.

② 일정한 상태로 고착되여 안전한 상태로 된것 또는 움직임이나 흐름이 고르로운 상태로 된것.

례: 인민생활의 안정.

안정2(安靜: 편안할 안, 고요할 정) ① 마음이나 정신상태 같은것이 편안하고 고요한것.

례: 마음의 안정.

② 병치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가지는것.

례: 수술후에는 반드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전》의 반대말은 《위험》이며 《안정》의 반대말은 《동요》이다.

앞날, 전망

【공통뜻】 다 같은 미래.

【개별뜻】

앞날 ① 앞으로 닥쳐올 날이나 때.

례: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이다.

② 일정한 때까지 앞으로 남은 날.

례: 설명절까지는 앞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명절준비를 다그쳐야 하겠소.

③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세월.

례: 인생말년에 그는 앞날을 더 값있게 살리라 결심했다.

④ 전날.

례: 앞날에 비해서 오늘은 따스하다.

⑤ 앞으로 겪어나가거나 살아나갈 나날.

례: 앞날이 양양한 청춘들. 희망에 넘치는 앞날.

전망(展望: 펼 전, 바랄 망) ① (넓고 먼곳을) 멀리 바라보는것 또는 멀리 바라다보이는 경치.

례: 숲이 빽빽하고 그러면서도 두툼하게 솟아오른 언덕우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환하였다.(장편소설 《피바다》)

② 장래를 미리 헤아려 앞을 내다보는것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나 장래에 예견되는 상태.

례: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

《전망》은 장래가 바라보이는 앞날이라는 뜻으로서 좋은 뜻빛갈을 가지고있다.

연료, 원료

【공통뜻】 무엇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

【개별뜻】

연료(燃料: 불탈 연, 헤아릴 료) ① 타면서 열을 내는 물질 즉 열을 얻기 위하여 때는 재료. 여기에는 석탄, 각종 기름, 땔나무 등이 속한다.

례: 연료공급소. 고체연료. 액체연료.

② 특수한 에네르기를 얻기 위하여 일정한 장치에 넣고 작용시키는 물질.

례: 핵연료.

원료(原料: 언덕 원, 헤아릴 료)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재료. 원료는 생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것 없이는 생산이 이루

어질수 없다.

례: 공업원료. 원료기지를 꾸리다.

운영, 운용

【공통뜻】 —

【개별뜻】

운영(運營: 운전할 운, 경영할 영) ① 자동차, 뜨락또르, 렬차와 같은 운수수단들을 관리하고 움직여나가는 일.

례: 지하철도를 운영하다.

② 기관, 기업소나 일정한 조직을 관리하고 움직여 그 기능이나 임무를 실현해나가는 일.

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한다.

운용(運用: 운전할 운, 쓸 용)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려쓰는것. 동사 《운용하다》형태로 쓰인다.

례: 모든 운수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공사를 앞당겨 끝냈다.

문맥과 장면에 맞는 언어운용.

유력하다, 위력하다

【공통뜻】 힘이 있다.

【개별뜻】

유력하다(有力: 있을 유, 힘 력) ① 세력이 있다.

례: 유력한 인물.

② (무슨 일을 하거나 처리해나가는데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

례: 그렇게 말할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위력하다(威力: 위엄 위, 힘 력)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력량이나 영향이) 강하며 위엄있다.

례: 자력갱생은 경제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다.

1등, 1위

【공통뜻】 첫번째.

【개별뜻】

1등(一等: 한 일, 무리 등) 첫째 등급 또는 으뜸.

례: 송이는 학과실력에서 학교적으로 1등이다.

1위(一位: 한 일, 자리 위) 어떤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는데서 첫번째.

임면, 임명

【공통뜻】 일정한 직무조동과 관련된 단어.

【개별뜻】

임면(任免: 맡길 임, 면할 면) 일정한 직무를 맡기거나 일정한 직무에서 해임시키는것.

《임면권》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직무를 맡기거나 해임시킬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례: 임면절차.

임명(任命: 맡길 임, 목숨 명) 일정한 직무를 맡게 하는것. 《간부임명》이라고 하면 일정한 직위에 새로운 사람을 등용했을 때의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례: 그가 우리 공장에 기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내려온지는 오래지 않다.

임무, 의무

【공통뜻】 해야 할 일.

【개별뜻】

임무(任務: 맡길 임, 힘쓸 무) 맡아서 해야 할 일 또는 맡겨진 일.

례: 학생의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의무(義務: 옳을 의, 힘쓸 무) 사회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

례: 의무와 권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질서.

입적, 입직

【공통뜻】 일정한 자리에 들어감.

【개별뜻】

입적(入籍: 들 입, 호적 적) 일정한 곳에 들어가는 호적을 올리는것.

례: 박사원입적

입직(入職: 들 입, 직분 직) 직장에 들어가는것.

례: 공장에 입직하다.

위탁, 위임

【공통뜻】 책임을 맡기는것.

【개별뜻】

위탁(委託: 맡길 위, 부탁할 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자기대신 해주거나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부탁하여 보관관리해주도록 그 책임을 맡기는것.

《위탁물》, 《위탁품》은 일정한 계약밑에 남에게 맡겨둔 물건, 물품을 말하고 《위탁금》은 남에게 맡겨둔 돈, 《위탁수매》는 국가수매를 개인에게 맡기고 수매한 량에 따라 보수를 주는 수매방법, 《위탁판매》는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을 일정한 조건밑에서 개인에게 맡겨 팔게 하는것을 말하며 《위탁부화》는 뻐꾸기와 같이 제가 알을 까는것이 아니라 딴 새의 둥지에 알을 넣어 까는 현상을 말한다.

위임(委任: 맡길 위, 맡길 임) 어떤 일을 책임지워 맡기는것 또는 그 맡긴 책임.

례: 전권을 위임하다.

의정, 의안

【공통뜻】 회의 같은 모임의 의논과 관련된 문제.

【개별뜻】

의정(議程: 의논할 의, 길 정) 회의에서 토의할 문제와 그 토의의

차례.

례: 회의의정을 통과시키다.

의안(議案 의논할 의, 책상 안) 회의에서 토의되는 안건.

례: 의안의 첫째 문제를 토론하다.

완공, 완성

【공통뜻】 시작한 일을 끝내는것.

【개별뜻】

완공(完工: 완전할 완, 공업 공) 공사가 다되여 끝나거나 공사를 다 하여 마치는것.

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되였다.

완성(完成: 완전할 완, 이룰 성) 일정한 사업을 완전히 다 이루는것.

례: 분업로동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단계의 공정을 맡아보는 로동자를 《완성공》이라고 부른다.

《완공하다》는 주로 건설대상에 대해서만 쓰이지만 《완성하다》는 쓰이는 분야가 그에 비해 넓다.

3. 자연과 관련된 어휘

가느다랗다, 가느스름하다, 가늘다

【공통뜻】 일정한 길이를 가진 대상의 둘레가 작거나 너비가 좁다.

【개별뜻】

가느다랗다 매우 가늘거나 가는 느낌이 있다.

《가늘다》를 강조하는 말로서 《보통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늘다.》의 뜻을 가진다.

례: 그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육중한 몸을 유지하는지 놀랍기만 했다.

가느스름하다 좀 가늘거나 가늘어보이다.

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

가늘다 일정한 길이를 가진 대상이 실하지 않거나 넓지 않다.

례: 줄기가 가는 나무. 가늘게 그은 줄칸.

가랑비, 는개비, 보슬비, 안개비, 이슬비

【공통뜻】 다같이 가늘고 약하게 내리는 비.

【개별뜻】

가랑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게 내리는 가는비.

는개비 이슬비보다 가늘고 안개비보다는 좀 굵은 비.

보슬비 보슬보슬 가볍고 약하게 내린다는 뜻으로 《가랑비》와 《이슬비》를 합쳐서 이르는 말.

안개비 는개비보다도 더 가는, 말그대로 안개로 보이는 가장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 이슬만 한 크기로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가장자리, 모서리, 모퉁이

【공통뜻】 일정한 대상의 끝에 가까운 자리.

【개별뜻】

가장자리 가(어떤 겉면이 끝나는 부분 또는 그 가까이)에 가까운 부분 또는 둘레가 되는 부분이나 선.

례: 아침해살에 가장자리가 발기우리해진 숲우에서 수백수천마리의 참새들이 까맣게 하늘로 날아오른다.(장편소설 《백양나무》)

눈가장자리에 잡힌 잔주름.

모서리 ① 모가 난 물건의 가장자리.

례: 책상모서리.

② 축구경기에서 네 모퉁이의 구석.

례: 《모서리공》은 국제공용어 《코너》로 쓰게 되여있다.

③ 다면체에서 면들의 경계를 이루고있는 선분.

모퉁이 ① 한쪽구석 또는 구부러지거나 꺾이여 돌아간 곳.

례: 운동장모퉁이.

② 요긴한 부분 또는 시간상 중요한 어느 한 계기.

례: 힘든 모퉁이를 솔선 담당하다.

바쁜 모퉁이에 가서 빠지면 《락오자》라는 루명을 쓰게 된다.

가죽, 거죽

【공통뜻】 겉을 이루는 말.

【개별뜻】

가죽 사람이나 동물의 몸의 껍질을 이루고있는 질긴 부분.

례: 손등의 가죽이 벗겨지도록 주먹으로 기둥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끼가죽 16장이면 이런 외투를 만들수 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거죽 ① 물체의 겉부분.

례: 붉은 천으로 거죽을 씌운 책.

② 옷, 이불 같은것의 겉을 이루는 천.

례: 거죽은 진홍색양단이고 안은 하얀 옥양목인데 며느리 향심이가 자기들의 결혼때 동포들이 마련해준것이라고 자랑하던 이불이였다.(장편소설 《해빛만리》)

가지, 아지

【공통뜻】 원줄기에서 갈라져나간 줄기.

【개별뜻】

가지 순수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줄기.

례: 갓 심은 나무가 빨리 자라 벌써 가지가 뻗어나갔다.

아지 식물의 어린 가지 또는 가는 가지.

《가지》를 정서적으로 표현한 느낌이 있다. 우리 말에는 이런 류형의 단어들이 많다. 례컨대 개의 새끼를 《강아지》로, 새끼소는 《송아지》로, 새끼말은 《망아지》 등으로 표현한것들이 그러하다.

가쯘하다, 그쯘하다

【공통뜻】 같은 종 또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러 대상의 갖춤새를 이루다.

【개별뜻】

가쯘하다 층이 나지 않게 가지런하다.

례: 가쯘한 이발.

그쯘하다 어느 하나도 부족하거나 빠진데가 없이 다 갖추어져있다.

례: 《그 집 자식들은 다 그쯘하게 자라났수다. 맏이는 박사, 둘째는 인민배우, 셋째는 공훈체육인…》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부엌세간.

갈바람, 마파람, 새바람, 하늬바람

【공통뜻】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지은 바람의 이름.

【개별뜻】

갈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서풍》.

례: 봄철 갈바람에 여우가 눈물 짓는다.

마파람(마바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남풍》.

례: 문을 열면 훈훈한 마파람을 타고 솜털같은 버들꽃이 날아와 증손의 볼을 간지럽혔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

새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동풍》.

례: 밤이 되였는데도 이날따라 바람은 자지 않아 수수밭은 마치 새바람을 맞은 바다여울처럼 술렁거리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하늬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북풍》.

례: 해질무렵부터 일기 시작한 하늬바람은 전선줄을 울리고 어딘가의 함석지붕을 덜그렁거리면서 자꾸만 외투자락을 다리에 휘감아주군 한다.

《마파람》이 보통 훈훈하고 부드러운 바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하늬바람》은 춥고 센 바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갈마바람》은 《서남풍》을, 《새마바람》은 《동남풍》을 의미한다.

감돌다, 에돌다

【공통뜻】 어떤 물체의 둘레를 돌다.

【개별뜻】

감돌다 《감돌다》는 동사 《감다》와 《돌다》가 합쳐진 단어로서 《감아돌다》의 뜻을 가진다.

① 일정한 둘레를 가진 물체에 닿으며 따라 빙빙 돌아가다.

례: 청류벽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물.

② 허공이나 어떤 둘레의 언저리를 빙빙 돌다.

례: 갈매기떼 감도는 정다운 포구로 풍어기 날리며 고기배들이 돌아온다.

에돌다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거나 어떤 물체나 곳의 둘레를 돌다.

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에돌아가다.

산굽이를 에돌아 달리는 전기기관차.

갑자기, 급작스레, 별안간, 불시에

【공통뜻】 뜻하지 않게 빨리 또는 생각밖에 문득.

【개별뜻】

갑자기 급작스레 미처 어쩔 사이없이. 《돌연히》와 같은 말로서 초래된 현상이 생각할 사이도 없이 빨리 또는 뜻밖에 문뜩. 《급작스레》, 《별안간》, 《불시에》를 두루 대신하여 쓸수 있는 뜻폭이 넓은 단어이다.

급작스레 미처 어쩔 사이없이.

례: 소나기가 급작스레 쏟아지는 바람에 모두 옷이 흠뻑 젖었다.

별안간(瞥眼間: 눈깜짝일 별, 눈 안, 사이 간) ① 매우 짧은 동안 즉 눈깜빡할 사이(순간).

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별안간 눈앞이 번쩍했다.

② 갑자기.

례: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말씀 없다가 왜 별안간 떠나시려고 합니까?》

불시에(不時: 아니 불, 때 시) 제시간이 아닌 때 또는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례: 어머니는 열흘동안 출장간다고 하던 아들이 불시에 나타나자 몹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불시에 떠오르는 생각. 불시착륙.

강, 내, 하천

【공통뜻】 흐르는 물줄기.

【개별뜻】

강(江: 강 강) 큰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비교적 물량이 많은 물줄기. 강은 흔히 바다에까지 직접 흘러들어가 바다와 합쳐지는 큰 물줄기이다. 큰강의 지류로서 다시 강의 이름을 단 작은 강들도 있다. 《보통강》과 《합장강》은 대동강의 지류이며 《장자강》은 《압록강》의 지류이다.

내 땅거죽의 물들이 모여흐르는 물줄기.

내는 보통 《강》보다 얕은 물줄기로서 내가 합쳐져 강을 이룬다. 그런데 《천》은 강과 맞먹는 비교적 깊고 큰 물줄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의 《남대천》, 《어랑천》은 《금진강》이나 《장자강》, 《례성강》보다 물량에 있어서나 그 깊이에 있어서 못하지 않으나 강이름을 달지 않은것을 볼수 있다.

하천(河川: 강 하, 내 천) 강과 크고작은 모든 내를 합쳐서 이르는 말. 《하천공사》라고 하면 강이나 시내의 뚝을 쌓거나 물밑바닥을 파내는 등의 물길을 보수정리하는 공사를 이르는 말이다. 《하천》을 《강하천》이라고도 한다.

강가, 강반, 강변

【공통뜻】 강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

【개별뜻】

강가 강물이 뭍에 잇닿은 부분 또는 그 가까이.

《강가》의 《가》는 《어떤 걸면이 끝나는 부분 또는 그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뒤붙이이다. 《창문가에 놓은 화분》이라고 하면 창문과 거의 잇닿은 곳에 화분을 놓았다는 뜻이고 《강가에 내다놓은 아이》라는 뜻은 자칫하면 아이가 강물에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물과 가까운 곳이기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강반(江畔: 강 강, 두둑 반) 강가의 판판한 땅.

례: 대동강반에서 벌어진 오락회.

강변(江邊: 강 강, 가 변) 강가를 이르는 말.

《강가》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강변》의 《변》은 《곁》 또는 《변두리》라는 뜻으로서 《가》보다는 조금 범위가 크다고 할수 있다. 례컨대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주체사상탑》을 보통 《대동강가에 자리잡은 주체사상탑》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강풍, 광풍

【공통뜻】 센 바람.

【개별뜻】

강풍(强風: 굳셀 강, 바람 풍) 속도가 빠르고 세기가 강한 바람.

례: 강풍이 요란히도 몰아치더니 나무허리가 뭉청 꺾어져나갔다.

광풍(狂風: 미칠 광, 바람 풍) 미친바람이라는 뜻으로 사납게 휘몰아치는 어지러운 바람.

례: 광풍이 불었다. 바람은 산을 온통 들었다놓을듯이 마구 불어닥쳤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거대하다, 막대하다

【공통뜻】 규모나 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크다.

【개별뜻】

거대하다(巨大: 클 거, 큰 대) 규모나 력량, 범위가 엄청나게 크다. 주로 성과나 승리, 업적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의 규정형으로 많이 쓰인다.

례: 오늘 우리는 력사에 전례없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있다.

막대하다(莫大: 말 막, 큰 대) 량이나 가지수가 엄청나게 크거나 많다. 주로 들이였거나 바치였거나 잃어버렸거나 하였을 때의 경우 즉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쓰인다.

례: 막대한 경제적손실.

겨를, 짬시간

【공통뜻】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얻게 되는 여유시간.

【개별뜻】

겨를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데 돌릴수 있는 시간적여유. 주로 《겨를이 있다.》, 《겨를이 없다.》의 결합형태로 자주 쓰인다.

례: 경수는 몇번이고 대꾸를 하려 했으나 영호는 그에게 말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짬시간 어떤 일을 하다가 잠간 겨를이 생기는 짧은 시간.

례: 외국어공부는 통시간을 얻어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짬시간을 리용하여 꾸준히 하여야 소득이 있다.

격동, 격발

【공통뜻】 어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것.

【개별뜻】

격동(激動: 격동할 격, 움직일 동) 급격하게 움직이는것 또는 몹시 흥분되고 충동되는것.

례: 격동상태. 심장의 격동.

격발(激發: 격동할 격, 필 발)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것.

례: 망국의 비운으로부터 격발된 민족의 자각이 활화산처럼 분출하였다.

경치, 풍치

【공통뜻】 자연의 모습.

【개별뜻】

경치(景致: 별 경, 이를 치) 눈에 바라보이는 자연이나 지리적환경의 풍경, 모양. 보통 경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

례: 경치가 좋다. 경치가 아름답다. 경치에 매혹되다.

풍치(風致: 바람 풍, 이를 치)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 또는 격에 어울리는 멋. 보통 풍치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

례: 풍치를 돋구다.

모란봉의 풍치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한다.

《풍치림》이라는 말은 《경치를 훌륭하고 멋지게 하기 위하여 심어가꾸는 숲》이라는 뜻이다.

고랑, 이랑

【공통뜻】 곡식을 심기 위해 밭을 일군 상태.

【개별뜻】

고랑 밭의 두둑과 두둑사이 홈이 진것.

례: 밭고랑을 째다.

이랑 갈아놓은 밭이나 논의 한 두둑을 이르는 말. 고랑과 두둑을 아울러 이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례: 《이 밭의 이랑이 100개이니 한사람이 스무이랑씩 김을 맨다쳐도 5명은 있어야 하겠구만.》

고작해서, 기껏해서

【공통뜻】 다하여 겨우.

【개별뜻】

고작해서 《기껏해서》의 뜻외에 그것이 전부라는 뜻도 있다.

례: 《하루종일 해왔다는 땔나무가 고작해서 이게 다냐.》

기껏해서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한계에서 다.

례: 《나이가 들어보이지만 기껏해서 스무살이라오.》

고임돌, 주추돌

【공통뜻】 무엇을 밑에서 받치는 돌이나 어떤 일의 발전에서 밑받침을 하는것.

【개별뜻】

고임돌 ① 물건의 밑을 받쳐서 고이는 돌.

례: 든든한 고임돌우에 세운 기둥.

② 《어떤 일의 발전에서 튼튼한 밑받침이 되는 역할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례: 조국을 받드는 억년 드놀지 않는 고임돌이 되자.

주추돌 ① 집을 비롯한 건물의 기둥밑에 고이는 돌.

례: 주추돌을 놓다.

② =고임돌 ②

례: 자립경제는 곧 나라의 독립을 위한 튼튼한 터전이 되고 주추돌로 되는것이다.

곡식, 낟알, 량곡, 알곡

【공통뜻】 낟알과 관련되는 단어.

【개별뜻】

곡식(穀食: 낟알 곡, 먹을 식) 식량으로 되는 벼, 밀, 보리, 조, 수수, 피, 기장, 강냉이, 팥, 콩 등을 통털어 이르는 말.

《오곡》은 《벼, 기장, 조, 보리, 콩》을 이르는 말이다.

례: 곡식과 사람은 가꾸기에 달렸다.

낟알 ① 곡식의 열매를 통털어 이르는 말.

례: 낟알줏기. 낟알털기.

② 쌀알.

량곡(糧穀: 량식 량, 낟알 곡) 량식으로 되는 낟알.

례: 량곡수매.

알곡 ① 낟알로 된 곡식을 통털어 이르는 말.

례: 알곡생산. 알곡작물과 공예작물.

작업반의 올해 알곡수확량을 추정하다.

② 쭉정이나 잡것을 골라낸 곡식.

례: 선별한 알곡.

③ 깍지를 벗긴 곡식.

례: 겉곡과 알곡.

골, 곬

【공통뜻】 밋밋하고 평평한 면이나 자리에 길게 패이거나 우묵하게 들어간것.

【개별뜻】

골 ① 얕게 패인 긴 홈이나 길게 자리난 금.

례: 강냉이이삭에 송곳으로 골을 내다. 량미간에 깊은 골이 패이다.

② 산마루와 산마루 또는 언덕과 언덕사이에 이루어진 좁고 홈진 땅 즉 골짜기.

례: 깊은 골과 험준한 산발.

③ 고랑.

례: 골을 째다.

곬 ① 한쪽으로 틔여나가는 방향이나 길.

례: 《…거기서는 반일부대들이 하도 여러 갈래다나니 곬을 잡기 힘들어합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뢰》)

② 물고기떼들이 늘 다니는 일정한 길.

례: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물고기의 곬을 알아야 한다.》

③ 《지리》 간석지등판에 이루어져있는 골짜기.

무엇이 길게 패이고 트이여나갔다는데서 《골》과 뜻이 통하나 그 크기와 정도, 추상화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뜻을 가진다.

곱다, 아름답다

【공통뜻】 어떤 대상이 마음에 들게 예쁘거나 좋다.

【개별뜻】

곱다 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상이 마음에 들게 아름답다.

례: 얼굴이 곱다. 목소리가 곱다.

② 만져보는 느낌이 썩 보드랍고 거칠지 않다.

례: 살결이 곱다.

③ 상냥하고 부드럽다.

례: 성품이 곱다.

④ 얌전하거나 점잖다.

례: 밥을 곱게 먹는다.

⑤ 조금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례: 곱게 놓여나오다.

⑥ 순조롭게 또는 순순히.

례: 곱게 순응하다.

⑦ 정당하고 떳떳하다.

례: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곱게 살다.

⑧ 손색이 없이 알뜰하다.

례: 그릇을 곱게 쓰다.

⑨ 흔적도 없이 모조리.

례: 기름때가 곱게 지워지다.

아름답다 ① 사물현상의 상태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낼만큼 이쁘고 곱다.

례: 아름다운 조국강산. 처녀가 참 아름답게 생겼다.

② 들리는 소리가 감정정서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낼만 하다.

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다.

③ (사람들사이의 관계 즉 언행, 소행, 덕행, 도덕, 협조정신 등이)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르고 훌륭하다.

례: 아름다운 미풍량속. 아름다운 소행.

구뎅이, 웅뎅이

【공통뜻】 우묵하게 패인 땅.

【개별뜻】

구뎅이 땅이 우묵하게 패인 곳. 주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파놓은것을 념두에 두고 사용하는 때가 많다.

례: 철남은 구뎅이를 깊이 파고 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웅뎅이 움푹 패여 물이 고여있는 땅. 주로 《물》과 결합되여 쓰이는데 자연적으로 생긴것을 념두에 두는 때가 많다.

례: 물웅뎅이.

- 참고

웅뎅이를 파다 × 구뎅이를 파다 ○

구렁텅이, 함정

【공통뜻】 빠지면 나오기 어렵게 깊이 패인 구뎅이.

【개별뜻】

구렁텅이 다시 헤여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움푹 패인 험하고 깊은 구뎅이나 웅뎅이 또는 사람이 당한 그러한 처지.

례: 헤여나올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함정(陷穽: 빠질 함, 함정 정) ① 짐승을 잡기 위하여 평평한 땅에 구뎅이를 판 다음 그우에 약한 너스레를 치고 흙을 덮어 땅바닥과 같이 만든것.

례: 함정에 빠진 호랑이.

② 함정에 빠지면 다시 나올수 없다는 뜻에 비유하여 《걸리면 빠져나올수 없게 만들어놓은 장소나 환경》을 이르는 말.

례: 유인조는 적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다가 함정속에 몰아넣군 하였다.

구석지다, 후미지다

【공통뜻】 위치가 으슥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개별뜻】

구석지다 ① 위치가 중앙이나 복판에서부터 떨어져 구석쪽에 치우쳐 있다.

례: 구석진 자리.

② 번화한 도시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례: 구석진 산골.

후미지다 ① 푹 패이거나 굽어서 휘여들어간 곳이 깊거나 심하다.

례: 후미진 골목. 후미진 바다가.

② 매우 구석지고 으슥하다.

례: 《인가 하나 없는 후미진 산속에서 사람이 그리워 어떻게 사나요?》

그슬다, 그을다

【공통뜻】 해빛이나 불, 연기의 영향을 받다.

【개별뜻】

그슬다 볕이나 불에 겉만 좀 타게 되다.

례: 감자를 불에 살짝 그슬려 먹으면 그 맛이 참 좋다.

그을다 볕이나 연기에 오래 쐬여 빛이 검게 되다.

례: 가마밑이 연기에 거멓게 그을었다.

근방, 주변

【공통뜻】 무엇을 기준으로 멀지 않은 곳.

【개별뜻】

근방(近方: 가까울 근, 모 방)=근처(近處: 가까울 근, 곳 처)

① 무엇에 가까운 곳.

례: 학교근방에 우리 집이 있다.

② =주변

례: 이 근방에는 인가가 없다.

주변(周邊: 두루 주, 가 변) 어떤 대상의 둘레 또는 변두리.

례: 학교주변에는 여러가지 키높은 나무들이 서있고 공원과 유희장도 있다.

금시, 방금, 금방

【공통뜻】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이제.

【개별뜻】

금시(今時: 이제 금, 때 시) 이제 막. 이제 바로.

례: 하늘을 보니 금시 소낙비가 쏟아질것 같다.

방금(方今: 모 방, 이제 금) 바로 지금 또는 바로 조금전.

례: 방금 도착한 렬차에서는 손님들이 내렸다.

- 참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	방금전에만 하여도	○
금시 들어온 소식입니다	×	금시전에만 하여도	×

금방(今方: 이제 금, 모 방) 이제 바로.

례: 그도 명치끝까지 눈물이 잔뜩 괴여올라서 금방 눈굽으로 쏟아져나올것 같은것을 입술을 꼭 깨물고 참았다.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기간, 기한

【공통뜻】 일정한 때 또는 동안.

【개별뜻】

기간(期間: 기약할 기, 사이 간) 일정한 때로부터 일정한 때까지의 동안.

례: 시험기간. 총결기간

기한(期限: 기약할 기, 한정 한) 어느때라고 미리 정해놓은 시간.

례: 기한을 앞당기다. 기한을 정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공통뜻】 정상이 아니다.

【개별뜻】

기이하다(奇異: 기이할 기, 다를 이) 기묘하고 야릇하다.

례: 기이하게 생긴 벌레. 기이한 현상.

그무렵 마을에는 참으로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이상하다(異常: 다를 이, 항상 상) ①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다.

례: 이상한 걸음. 이상한 목소리.

② 의심스럽다.

례: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나이의 뒤를 밟았다.

괴상망측하다, 해괴망측하다

【공통뜻】 꼴불견으로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 다같이 부정적색채(조소)를 띤다.

【개별뜻】

괴상망측하다(怪常罔測: 괴이할 괴, 항상 상, 없을 망, 헤아릴 측) 어떤 모양이나 상태가 꼴불견으로 이상하거나 정상이 아니다.

례: 괴상망측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것은 백의민족의 고상한 풍속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다.

해괴망측하다(駭怪罔測: 놀랄 해, 괴이할 괴, 없을 망, 헤아릴 측) 놀랄 정도로 괴이하거나 정상이 아니다.

례: 박공은 최공을 치고 최공은 문공을 치고 문공은 박공을 치는 해괴망측한 삼각싸움이 벌어졌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괴상하다, 괴이하다

【공통뜻】 정상이 아니다.

【개별뜻】

괴상하다(怪常: 괴이할 괴, 항상 상) 보통생각으로는 짐작하기 어렵

게 이상하다. 주로 모양, 상태와 관련하여 많이 쓰인다.

례: 괴상한 옷차림. 괴상한 모습. 괴상한 사람.

괴이하다(怪異: 괴이할 괴, 다를 이)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게 이상하고 야릇하다.

례: 분명 떠났다고 전화까지 걸어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정말 괴이한 일이다.

괴이한 사실. 괴이한 현상.

광막하다, 광활하다

【공통뜻】 매우 넓다.

【개별뜻】

광막하다(廣漠: 넓을 광, 아득할 막) 끝이 보이지 않게 아득히 넓고넓다.

례: 광막한 대지. 광막한 지평선. 광막한 벌판.

광활하다(廣闊: 넓을 광, 넓을 활) 무엇에 포함되는 령역이나 지역이 매우 넓다.

례: 고구려는 광활한 령토를 가진 천년강국이였다.

나절, 반나절, 한나절

【공통뜻】 하루의 낮을 갈라놓은 시간.

【개별뜻】

나절 ① 하루낮의 절반.

례: 한나절. 반나절.

② 낮의 어느무렵이나 동안.

례: 점심나절.

불완전명사로서 반드시 일정한 단어에 붙어 쓰인다.

반나절 한나절의 반쯤되는 동안 즉 하루낮을 넷으로 나눈 하나가 되는 동안.

례: 오후 반나절이나 기다렸다.

한나절 나절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하루낮의 반.

례: 하루일을 한나절에 끝냈다.

날씨, 일기

【공통뜻】 대기의 운동과 변화상태.

【개별뜻】

날씨 그날그날의 기압, 구름, 습도, 비, 바람, 눈, 기온 등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운동과 변화상태.

례: 오늘날씨가 참 좋다.

일기(日氣: 날 일, 기운 기) =날씨

례: 일기요소에는 기압, 구름, 습도, 비, 바람, 눈, 기온 등과 같은것이 속한다.

- 참고

일기예보 ○

날씨예보 ×

낱낱이, 샅샅이

【공통뜻】 빠짐없이 모두, 죄다.

【개별뜻】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죄다.

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제의 조선녀성강제련행에 대한 죄상이 낱낱히 폭로되였다.

《낱낱이》는 주로 《발가놓다》, 《폭로하다》, 《까밝히다》, 《끄집어내다》, 《말하다》, 《터놓다》, 《고발하다》, 《생각해내다》 등과 같은 말, 생각과 관련된 동사들과 결합하여 쓰인다.

샅샅이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구석이나 틈새기까지 모두.

례: 《잃어버린 농기구는 포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야겠다.》

《살살이》는 주로 《찾다》, 《뒤지다》, 《훑다》 등과 같은 동사와 결합되여 쓰인다.

너르다, 넓다

【공통뜻】 공간적으로나 평면적으로 또는 마음이나 생각이 좁지 않다.

【개별뜻】

너르다 ① 공간적으로 자리를 크게 차지하다.

례: 창고가 너르다.

② 마음이나 생각이 옹졸하지 않고 대범하거나 크다.

례: 속이 너른 사람.

넓다 ① 너비나 차지한 면적이 크다.

례: 길이 넓다. 땅이 넓다. 넓은 방.

② 마음쓰는 도량이 크다.

례: 마음이 넓다.

③ 포괄하는 내용이 많거나 미치는 범위가 크다.

례: 지식이 넓다. 견해가 넓다.

④ 아는 사람이 많다.

례: 얼굴이 넓어서 못 얻어오는것이 없다.

너머, 넘어

【공통뜻】 막혀있는 어떤 물체를 건너.

【개별뜻】

너머 고개, 담, 령 등과 같은 키높은 물체의 건너쪽을 가리키는 명사. 주로 산, 고개, 령, 집 등 높은 물체와 관련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침단어로 쓰인다.

례: 하늘높이 떴던 연이 멀리 산너머로 날아가 떨어지면 어린이들은 강을 건느고 산을 넘어 먼곳까지 달려가 자기의 연을 주어오기도 하였다.

안개는 산너머로 사라졌다.

넘어 동사 《넘다》의 말뿌리에 이음토 《어》가 붙은 형태단어. 이음토 《어》는 방식을 나타낸다. 례컨대 《아버지는 산넘어 바다건너 먼곳에 갔단다.》에서 《산넘어》는 《산을 넘어》의 뜻으로 쓰인다.

《너머》는 명사로서 대상을 가리키며 《넘어》는 동사로서 행동을 나타낸다.

너비, 넓이, 폭

【공통뜻】 평면의 크기.

【개별뜻】

너비 (평면이나 물체의 길이를 전제로 하여) 가로의 크기.

례: 천의 너비. 판자의 너비. 도로의 너비. 복도의 너비.

넓이 일정하게 차지하는 평면의 크기 즉 면적.

례: 길이가 10m, 너비가 5m안에 들어가는 땅의 넓이는 50㎡이다.

폭 ① =너비

례: 길의 폭. 광폭천.

② 천이나 그밖의 얇은 물건을 같은 길이로 잘라 가로 잇거나 또는 그것을 여러겹으로 포개여놓았을 때 그 매 부분.

례: 무늬가 서로 다른 여러폭의 천으로 무어진 장식보.

③ 그림이나 기발의 천.

례: 기폭. 화폭.

④ 일판을 벌리는 잡도리.

례: 일하는 폭이 보통이 아니다.

⑤ 사고하거나 고찰하는 령역이나 범위.

례: 생각의 폭을 넓히다.

⑥ 지식의 령역이나 범위.

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리론.

⑦ 사람들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도량, 아량.

례: 폭넓은 성격의 소유자.

⑧ 이름수의 단위.

례: 그림 한폭. 세폭의 기발.

너저분하다, 지저분하다

【공통뜻】 어지럽다.

【개별뜻】

너저분하다 질서없이 널려져있어 어지럽다.

례: 성호는 창고앞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재목을 한곳에 차곡차곡 쌓아서 정돈했다.

지저분하다 깨끗하지 못하게 거칠고 어지럽거나 행동이 너절하거나 질서가 없다.

례: 지저분한 시궁창에 빠진 병아리 한마리가 삐용삐용 엄지닭을 부른다.

지저분한 말. 지저분한 싸움.

너절하다, 더럽다

【공통뜻】 깨끗하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하다.

【개별뜻】

너절하다 ① 갖춤새가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

례: 집을 너절하게 거두다. 너절한 옷차림.

② 더럽고 시시하다.

례: 너절한 행동. 너절한 변명.

③ 거칠고 실속없다.

례: 일을 너절하게 조직하다.

더럽다 ① 때, 찌끼 같은것이 많아서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역하다.

례: 더러운 구정물. 더러운 냄새.

② 마음이나 하는짓이 못되고 고약하다.

례: 더러운 심보. 더러운짓.

③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시시하다.

례: 일이 참 더럽게 되였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공통뜻】 모자라지 않다.

【개별뜻】

넉넉하다 ① 어떤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

례: 예비부속품을 넉넉하게 마련하다.

② 살림이 모자라지 않고 쓰고도 남을만 하다.

례: 살림이 넉넉하다.

충분하다(充分: 채울 충, 나눌 분) 필요하거나 요구되는것이 만족스럽게 넉넉하다.

례: 작업조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졌다.

준비를 충분하게 갖추다.

- 참고

살림이 넉넉하다	○	준비를 충분하게 갖추다	○
살림이 충분하다	×	준비를 넉넉하게 갖추다	×

년력, 달력, 력서, 일력, 월력

【공통뜻】 다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의 체계를 적어놓은것.

【개별뜻】

년력(年曆: 해 년, 책력 력) 년별로 볼수 있는 력서. 한장으로 모두 나타낸다.

달력 ① 달별로 한장씩 갈라 날자, 요일 등을 적은것.

② 한해동안의 달, 날자, 요일, 24절기 등의 천문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날자에 따라 알수 있게 적은것.

③ 《월력》, 《일력》을 두루 이르는 말.

력서(曆書: 책력 력, 글 서) ① 책력.

책력은 해와 달 등 천체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무한히 긴 시간을 계산할수 있게 정한 단위의 체계 또는 그것을 적은 책을 말한다.

② =달력 ①

일력(日曆: 날 일, 책력 력) 하루에 한장씩 넘기게 만든 력서.

《일력교양자료》는 매일매일 있은 의의있는 사변적인 사실을 놓고 사람들을 교양할수 있게 만든 자료묶음이다.

월력(月曆: 달 월, 책력 력) =달력 ①

노새, 버새

【공통뜻】 —

【개별뜻】

노새 하늘소의 수컷과 말의 암컷이 쌍붙임을 하여 생겨난 동물이다.

이 짐승의 특징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며 체중과 체통에 비하여 힘이 매우 센데다가 인내성이 강하고 몹시 이악하여 하늘소보다 유익한 부림짐승으로 알려지고있다.

버새 말의 수컷과 하늘소의 암컷이 쌍붙임을 하여 생겨난 짐승이다.

이 짐승의 특징은 생활력이 매우 약하고 힘까지 약한데다가 인내성이 없고 이악하지 못하여 아무 일도 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짐승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이따금 어디에도 기여 못하는 무맥한 인간, 아무 일도 할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버새》라는 별명을 붙여 놀려주기도 한다.

누긋하다, 눅진하다

【공통뜻】 메마르지 않다.

【개별뜻】

누긋하다 ① 굳거나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하다.

례: 보슬비라도 내리더니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땅이 누긋해졌다.

② 성격이나 마음이 유순하거나 늘어지다.

례: 마음을 누긋하게 먹다.

세 아들이 장난을 심하게 할 때에는 짜증이 나다가도 네활개를 펴고 자는것을 볼 때면 어딘가 어머니로서의 누긋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눅진하다(녹진하다) ① 본래 질기거나 굳던 성질의 물질이 약간 물렁물렁하거나 누긋한 기운이 있다.

례: 메말랐던 땅이 눅진해졌다.

② 천이나 종이 같은것에 물기가 약간 있다.

례: 그는 치마에 눅진하게 물을 뿌리고 다리미질을 시작했다.

눅눅하다, 축축하다

【공통뜻】 물기가 있다.

【개별뜻】

눅눅하다 ① 어지간히 물기가 있거나 누기가 차다.

례: 줄곧 비가 오는 장마철이여서 방안은 눅눅한감이 났다.

② 강말라서 꿋꿋한 느낌이 있던 물질이 좀 무르고 부드러워지다.

례: 풀먹인 천은 밤이슬을 받아 눅눅하게 되였다.

축축하다 물기가 많아 젖어있다.

례: 소낙비를 맞아 속내의까지 축축하게 젖었다.

눈, 싹, 움

【공통뜻】 씨앗이나 식물체에서 새로 돋아나는 부분.

【개별뜻】

눈 꽃 또는 줄기와 잎으로 자랄 식물의 싹이나 그 싹이 튼 자리.

례: 감자눈. 보리눈.

꽃눈은 앞으로 꽃이 피여날 눈으로서 잎눈보다 짧고 통

통하다.

싹 ① 식물의 씨앗이나 뿌리, 줄기, 가지 같은데서 새로 돋아나오는 어린 잎과 연한 줄기.

례: 양지쪽에서는 벌써 봄풀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다.

② 새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물현상의 시초.

례: 《그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를 떠메고나갈 어린 싹들이 아닙니까.》

사랑의 싹이 움트다.

움 ① 식물의 새로 돋아나는 싹.

례: 새로 돋은 뾰족뾰족한 움.

② (파나 싱아 같은것의) 해빛을 받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는 밑둥부분.

례: 희고 연한 움.

③ 새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물현상의 시초.

례: 어둠속에서 얼어들었던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생의 움이 터오르고있었다.(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우의 단어들을 식물이 자라나는 단계에 따라 본다면 맨 처음이 《눈》, 다음이 《움》, 그 다음이 《싹》이라고 볼수 있다.

늦가을, 마가을

【공통뜻】 가을철이 끝나가는 시기.

【개별뜻】

늦가을 가을철이 다 끝나가는무렵 즉 《가을철》전체를 놓고 말할 때 마지막무렵에 해당하는 가을철을 말한다. 《늦가을》은 보통 《초가을》에 대조되는 말로 쓰인다.

례: 늦가을의 락엽이 발밑에 떨어진다.

마가을 한창 고비를 지난 마지막무렵의 가을철. 《한창인 고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런 고비가 지나간 가을을 말한다. 즉 《한여름》, 《한가을》에 대조되는 단어가 《마여름》, 《마가을》이다.

례: 마가을의 찬바람.

《늦가을》과 《마가을》은 보통 같은 뜻으로 쓰인다.

늪, 못, 호수

【공통뜻】 일정한 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

【개별뜻】

늪 땅바닥이 넓고 깊이 패여져 늘 물이 괴여있는 곳. 일반적으로 호수보다 크기가 작고 깊이가 얕으며 밑바닥에 진탕이 많고 말풀따위의 식물이 우거져있다. 작은 규모의 자연못이라고 볼수 있다.

례: 늪에서 고기를 기른다.

못 땅우의 흐르지 않는 물집(물주머니). 넓은 의미에서는 늪, 저수지, 호수 등이 다 못에 속한다. 못에는 자연못과 인공못이 있다.

례: 《련못》은 련꽃이 피여난다고 지은 이름이고 《양어못》은 고기를 기른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며 《분수못》은 분수가 뿜어오른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호수(湖水: 호수 호, 물 수) 넓은 땅에 일정한 깊이로 많은 량의 물이 고여있는 곳. 비교적 규모가 큰 못이라고 할수 있다. 호수에는 인공호수와 자연호수가 있다.

례: 하천과 호수.

두텁다, 두껍다

【공통뜻】 두께가 엷지 않다.

【개별뜻】

두텁다 ① =두껍다 ①

례: 널판자가 두텁다.

② 서로 맺은 사랑, 의리, 친선, 우정관계가 매우 깊다.

례: 두터운 사랑. 두터운 친선.

③ 돌려지는 믿음, 신임이 매우 크다.

례: 두터운 신임.

두껍다 ① 일정하게 두께가 있다.

례: 두꺼운 널판자. 책이 두껍다.

② 전의된 뜻으로 주로 《낯》, 《얼굴》, 《낯가죽》 등과 같은 단어와 결합되여 《부끄러운줄 모르거나 체면이 없다.》의 뜻을 가진다.

례: 낯가죽이 두껍다.

둔덕, 언덕

【공통뜻】 땅이 비탈지게 두드러진 곳.

【개별뜻】

둔덕 두두룩하게 언덕이 진 곳.

례: 둔덕우에 올라서보니 사방은 무연한 논밭이였다.

언덕 ① 땅이 좀 높게 비탈진 곳.

례: 농촌집들은 어디에 가보아도 대개 농경지를 다치지 않고 언덕이나 산기슭에 건설되였다.
강언덕. 밭언덕. 산언덕. 집언덕.

② 《달성하거나 도달해야 할 희망찬 목표나 그러한 수준에 이른 단계》를 이르는 말.

례: 《포부의 언덕이 높을수록 결심도 그만큼 높아야지. 리상의 봉우리가 저절로 발밑에 놓이는줄 아오?》(중편소설 《불꽃》)

③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의거해야 할 미더운 대상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례: 어린것은… 말없이 오빠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응석도 트집도 달게 받아주던 어머니가 돌아갔으니 어린것이 이제는 어디서 비벼댈 언덕을 찾겠는가?(장편소설 《연풍호》)

둔중하다, 육중하다

【공통뜻】 몸집이나 행동이 가볍거나 날씬하지 못하다.

【개별뜻】

둔중하다(鈍重: 둔할 둔, 무거울 중) ① 몸체가 몹시 크고 육중하다.

례: 드디여 둔중한 전동기가 빠른 회전을 시작했다.

② 소리가 둔하고 무겁다.

례: 골짜기에 울려오는 둔중한 대포소리.

육중하다(肉重: 고기 육, 무거울 중) 몸집 또는 덩지가 몹시 크거나 생김새가 투박하여 보기에도 대단히 무겁다.

례: 육중한 몸집. 육중한 기계.

들, 벌

【공통뜻】 평평한 땅.

【개별뜻】

들 풀이나 나무가 있는 넓게 트인 평평한 땅 또는 논이나 밭으로 되여있는 넓은 땅.

례: 기름진 들이 펼쳐졌다.

벌 넓은 들.

례: 오곡이 무르익은 농장벌에 랑만에 넘친 농장원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대륙, 대주

【공통뜻】 지구상의 크게 나누어진 일정한 지역.

【개별뜻】

대륙(大陸: 큰 대, 뭍 륙) 대양 또는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넓은 륙

지의 부분. 유라시아대륙, 아프리카대륙, 북아메리카대륙, 남아메리카대륙, 오스트랄리아대륙, 남극대륙이 있다.

대주(大洲: 큰 대, 물가 주) 대륙과 거기에 달린 섬들까지 포괄하는 지구겉면을 편의상 크게 나눈 단위. 대주는 지구상의 륙지를 크게 나눈 단위인 《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안주로 나누며 남극주를 대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마개, 뚜껑

【공통뜻】 무엇을 덮거나 막아놓은것.

【개별뜻】

마개 아구리나 구멍 같은데에 끼워서 막는 물건. 동사 《막다》에서부터 나온 명사이다.

마개는 병마개와 같이 아구리의 안으로 들이밀어 끼우거나 또는 밖으로 덧끼워 안의것이 아구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며 또는 밖의것이 아구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례: 고무마개. 병마개.

뚜껑 ① 그릇, 상자 같은것의 아구리를 덮게 된 물건.

례: 나무함뚜껑. 독뚜껑. 남비뚜껑.

② 책 같은것의 앞뒤에 씌운 두꺼운 표지.

례: 책뚜껑을 깨끗이 씌운 소설책.

마개는 주로 구멍이나 아구리를 안으로 틀어막거나 밖으로 덧끼워 막는것을 가리키고 뚜껑은 주로 덮거나 씌워서 막는것을 가리킨다.

마주치다, 부딪치다

【공통뜻】 두 대상이나 물체가 마주 닿거나 뜻밖의 어떤 정황에 맞다들다.

【개별뜻】

마주치다 ① 마주 닿다.

례: 두 물체가 마주치다.

② 눈길이 서로 맞다.

례: 눈이 마주치다.

③ 뜻하지 않게 만나다.

례: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치다.

④ 어떤 경우를 당하다.

례: 뜻밖의 일에 마주치다.

부딪치다 ① 갑자기 세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례: 담벽에 머리를 부딪치다.

②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다들거나 부닥치다.

례: 뜻밖의 사실에 부딪치다.

《**마주치다**》의 ①과 《**부딪치다**》의 ①은 두 대상이나 물체가 마주 향하여 닿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부딪치다》는 보통 갑자기 세게 마주 닿는다는 점에서 《마주치다》와 차이나고있다.

마지막, 끝

【공통뜻】 시간적으로 맨 나중.

【개별뜻】

마지막 시간적으로나 차례에서 맨 나중이나 맨끝.

례: 그는 발전소공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전투장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열성적으로 일했다.

끝 ① 시간, 공간, 사물 등에서 맨 마지막한계점.

례: 백두산천지에서 한나산 끝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우리 나라.

② 긴 물건에서 마지막의 량쪽부분.

례: 막대기의 량끝.

③ 《시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의 결과를 나타낸다.

례: 그는 무슨 일에서든지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을 가지고있다.

많다, 크다

【공통뜻】 일정한 기준을 넘다.

【개별뜻】

많다 ① (수나 량이) 일정한 기준보다 더 있다.

례: 산에 나무가 많다. 지하자원이 많다. 수입이 많다.

② (정도가) 일정한 수준보다 더하다.

례: 경기장은 많은 관람자들로 가득찼다.

《많다》는 《적다》의 반대말이다.

크다 ① 주로 부피, 길이, 높이, 둘레 같은것이 보통정도를 넘다.

《크다》는 《작다》의 반대말이다.

례: 키가 크다. 큰 나무.

② 규모, 범위, 강도 같은것이 보통정도이상으로 대단하다.

례: 공장의 규모가 크다. 활동범위가 크다.

③ 소리가 굵고 높다.

례: 큰 목소리.

④ 힘, 능력, 세력이 세거나 강하다.

례: 큰 힘을 발휘하다.

⑤ 무엇이 량적으로 많다.

례: 큰 수. 큰돈.

⑥ 임무나 책임이 무겁다.

례: 책임이 크다.

⑦ 생각하는품이나 행동하는바가 대담하다.

례: 담이 크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다.

⑧ 심리적충동, 감정, 느낌 같은것이 정도이상으로 세다.

례: 큰 행복. 큰 슬픔.

⑨ 품은 뜻이나 희망, 리상, 포부, 의욕 같은것이 대단히 높다.

례: 큰뜻을 품다.

⑩ 결함, 과오, 범죄 등이 아주 심하고 무겁다.

례: 과오가 크다.

⑪ 사람의 역할이나 사회적위치 같은것이 매우 두드러지다.

례: 큰 인물.

⑫ 난관, 애로 같은것이 보통정도를 넘다.

례: 장애가 크다.

《많다》는 주로 수량적인것을 념두에 둔다면 《크다》는 부피나 길이, 규모 같은것을 념두에 둘 때 쓴다.

모닥불, 우등불

【공통뜻】 밖에 피우는 불.

【개별뜻】

모닥불 검불이나 삭정이, 잎나무 따위를 모아 피우는 불 또는 불더미. 우등불보다는 세기가 좀 약한데 모기를 비롯한 곤충류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데도 리용한다.

례: 청년분조논뚝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르고있었다.

몹시 부끄럽거나 더없이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통 《모닥불을 뒤집어쓴듯》의 표현으로 비유한다.

우등불 추위를 막기 위해 주로 나무토막이나 땔나무 같은것을 쌓아놓고 크게 피우는 불.

례: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떠들썩하게 노래춤판을 펼쳤다.

물질대사, 신진대사

【공통뜻】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변화.

【개별뜻】

물질대사(物質代謝: 만물 물, 바탕 질, 대신할 대, 사례할 사) 생

물체에서 진행되는 화학적변화 즉 생물체를 이루는 물질들을 만들고 보존하며 물질이 에네르기로 리용될수 있도록 변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

례: 모든 동식물 즉 생명체는 물질대사가 이루어져야만 자기의 생존을 유지한다.

신진대사(新陳代謝: 새 신, 베풀 진, 대신할 대, 사례할 사) ① 생물체가 생리적작용에 의하여 낡아진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이는 일.

례: 이번에 출품한 고려약들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면서도 인체에 아무러한 영향도 주지 않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히 좋은 약들이다.

② 낡은것은 물러나거나 없어지고 새것이 대신 생겨나거나 들어앉는것.

례: 공장의 기계들도 이제는 신진대사를 한셈이다.

묽다, 질다

【공통뜻】 물기가 보통정도보다 많다.

【개별뜻】

묽다 ① 주로 죽, 풀 같은것이 보통정도에 비해 물기가 매우 많다.

례: 풀을 묽게 쑤다. 묽은 죽. 묽은된장.

② 물감이나 약, 그밖의 기본성분에 섞어야 할 물의 량이 지나치게 많다.

례: 물감을 묽게 타다. 잉크가 묽어졌다. 묽은 류산.

③ 사람이 대가 약하고 맺힌데가 없이 무르다.

례: 그는 손탁이 묽고 전개력도 부족하다.

사람이 의지가 강해야지 그렇게 묽어서야 어떻게 난관을 이겨내며 싸우겠는가.

질다 ① 떡떡 달라붙을 정도로 물기가 많다. 주로 땅이나 길, 밥 등과 같은것이 질적질적할 정도로 물기가 많다는 뜻이다.

례: 반죽이 질다. 밥이 질다. 땅이 질다.

② (《입》과 함께 쓰이여) 말이 몹시 걸죽하고 험하거나 대상 또는 환경을 가림이 없이 말이 많거나 헤프다.

례: 《그렇게 입이 질어서야 무슨 실수인들 하지 않겠소.》

《묽다》는 《질다》와 비슷한 뜻도 있지만 《질다》에는 없는 뜻도 더 있으므로 뜻폭이 같지 않다.

밀영지, 숙영지

【공통뜻】 사람들이 머무를수 있게 꾸린 거처지.

【개별뜻】

밀영지(密營地: 빽빽할 밀, 경영할 영, 땅 지) 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은밀하게 지어놓은 병영들이 있는 곳.

례: 베개봉밀영지. 간백산밀영지.

숙영지(宿營地: 잠잘 숙, 경영할 영, 땅 지) 군대나 유격대 또는 일정한 단체나 성원들이 행군도중 혹은 답사로정에 천막을 치거나 잠자리를 마련하고 림시로 묵는 곳.

례: 청봉숙영지.

바치다, 받치다

【공통뜻】 —

【개별뜻】

바치다 존경하거나 받들어야 할 대상에게 드리거나 올리다. 또는 받았거나 빌렸던것을 반환하다.

례: 어머니조국에 심장을 바치다.

받치다 ① 밑에서 괴거나 받들다.

례: 긴 장대로 빨래줄을 받치다.

② 어떤 물건의 속에 다른것을 껴대다.

례: 검은 양복에 푸른 샤쯔를 받쳐입었다.

박산, 박살

【공통뜻】 들부셔 없애거나 파괴해버리는것.

【개별뜻】

박산(撲散: 칠 박, 흩어질 산) ① 깨여져 산산이 부서지는것.

례: 창문유리가 돌멩이에 맞아 박산이 났다.

② 일이나 계획 같은것이 파탄되는것.

박살(撲殺: 칠 박, 죽일 살) ① 때려서 죽이는것.

례: 《그 자식을 왜 그대로 둬? 박살을 내야지.》

② =박산 ②

발파, 폭파

【공통뜻】 폭발물을 터치여 파괴하는것.

【개별뜻】

발파(發破: 필 발, 깰 파) 어떤 굳은 대상물 또는 바위 같은데에 폭약을 재워넣고 폭발시켜 그것을 마스거나 터뜨리는것.

례: 발파작업. 10만산발파.

폭파(爆破: 터칠 폭, 깰 파) ① 어떤 물체를 폭발물을 터치여 파괴해버리는것.

례: 숱한 로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한의 원철로가 폭파되자 사람들은 서로 울고웃으며 기쁨을 터치였다.

② 낡고 반동적인 사회제도나 사상 같은 사회적현상을 파괴하여 송두리채 없애버리는것.

례: 《왜놈들이 살판치는 이놈의 세상을 콱 폭파해치웠으면 좋겠다.》

본디, 본래

【공통뜻】 처음부터.

【개별뜻】

본디 ① 처음부터나 원래 또는 본시.

례: 본디 늪과 습지였던 이 고장이 오늘은 토지정리에 의해 기름진 논판으로 전변되였다.

② 원체 또는 원래의 모습.

례: 사실 옥실이는 작년 한해동안에 몰라보게 자랐다. 재작년만 해도 본디를 못 벗었는데 이젠 처녀꼴이 쏙 박혔다.(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1부)

본래(本來: 근본 본, 올 래) 사물현상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때 즉 처음.

례: 본래는 흰 바탕이였는데 거기에 붉은 칠을 하고 글을 썼다.

《본디》와 《본래》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같은 의미로 어울려쓰일수 있다.

부각, 조각

【공통뜻】 무엇을 새기는것.

【개별뜻】

부각(浮刻: 뜰 부, 새길 각) ① 고유한 조선말로 《돋을새김》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모양이나 형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도록 새기는것》을 이르는 말. 그와 반대로 움푹 패여들게 새기는것은 《오목새김》이라고 한다. 《부각》을 동사형태로 쓸 때에는 주로 《부각하다》, 《부각시키다》로 많이 쓴다.

례: 장식부각무늬들이 새겨진 놋그릇들이 세척공정으로 넘어가고 여러차례의 세척을 거쳐 번쩍번쩍 윤기나는 눈부신 놋그릇제품들이 생겨난다.

② 어떤 사건이나 대상, 장면, 인물 같은것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떠오르거나 안겨오게 하는것.

례: 주인공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다.

조각(彫刻: 아로새길 조, 새길 각) 새기거나 빚어서 자연과 사물현상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미술의 한가지.

립체적인 형태묘사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현실을 조형적으로 반영한다. 조각은 그 재료에 따라 《금속조각》, 《돌조각》, 《석고조각》, 《나무조각》 등으로, 조각내용에 따라 《기념비조각》, 《일반조각》, 《초상조각》, 《장식조각》 등으로,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는 환각, 오목새김, 돋을새김, 선새김, 뚫음새김 등으로 나눈다.

《조각》은 도드라지게 하거나 움푹 패여들어가게 하거나간에 일정한 모양이나 형상을 새기는것을 이르므로 《부각》은 《조각》의 한가지 형상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부담, 부하

【공통뜻】 짐을 걸머지는것.

【개별뜻】

부담(負擔: 질 부, 멜 담) ① 어떤 임무나 책임을 맡아서 걸머지는 것 또는 걸머진 책임이나 임무.

례: 정신적부담. 육체적부담.

오래도록 와보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담들이 저 어린것의 어깨에 그대로 실리고말것이 아닌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② 무엇을 짊어지우는것 또는 그 짐.

례: 짐군에게 부담을 잔뜩 지워가지고 호기있게 들어올줄만 알았다. (장편소설 《고향》)

③ 전날에 말에 실어나르는 짐이나 농짝.

례: 행차의 기구는… 안장마 하나, 부담 하나, 마부 셋, 하인 하나뿐이나 마부와 하인들이 길을 휩쓰는것과 말탄 량반들의 위엄있는품이 무슨 별성행차만 못하지 않았다. (장편소설 《림꺽정》 제4부)

부하(負荷: 질 부, 멜 하) ① 짐을 지는것 또는 그 짐.

② 맡겨지거나 들씌워진 부담.

례: 평소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는데 잠들어버린 지금에는 그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부하를 감수해내지 못하였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③ 전력과 동력을 소비하는 대상 또는 소비되는 그 전력이나 동력의 량. 전동기, 전열기, 전등 및 그밖의 전기기계, 기구 등에 소비되는 전력과 같은것을 말한다.

례: 개폐기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절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④ (체신에서) 출력을 얻는 증폭기의 출구단자에 련결된 장치.

부러지다, 불거지다

【공통뜻】 —

【개별뜻】

부러지다 꺾어져서 접쳐지거나 동강이 나다.

례: 부러진 지팽이. 날개부러진 독수리.

어디선가 와지끈 하고 나무가지가 부러져나갔다.

불거지다 ① 어떤 물체의 거죽으로 툭 삐여져나오다.

례: 어항속에 눈이 툭 불거져나온 금붕어 두마리가 꼬리를 치며 헤엄치고있었다.

②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두드러지게 커지다.

례: 《더 급한 일이 불거졌으나 파의를 하든 않든 들어가서 의논해보자.》(장편소설 《림꺽정》 제4부)

일부 사람들이 《부러지다》를 《불거지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불거지다》는 비규범어이므로 반드시 《부러지다》로 써야 한다.

비바람, 빗바람

【공통뜻】 비 그리고 바람.

【개별뜻】

비바람 비와 바람을 함께 이르는 합성명사.

례: 비바람에 잘 견디고 수확이 높은 품종.

빗바람 비를 몰아오면서 부는 바람.

례: 갑자기 빗바람이 휘몰아쳐서 우산을 뒤집어놓아 옷을 홀딱 적시였다.

비치다, 비끼다

【공통뜻】 —

【개별뜻】

비치다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례: 해가 비치는 교실.

② 빛을 받아 물체의 그림자가 나타나다.

례: 물우에 비친 한그루의 어린 소나무.

③ 영화나 환등, TV 등과 같은것의 영상이 막에 나타나보이다.

례: 화면에 비치다.

④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를 통하여 저편에 있는 물체가 드러나보이다.

⑤ 남의 일이나 말에 참견하다.

례: 남의 일에 비치기 좋아하는 사람.

⑥ (타동사)비추다.

례: 전지불로 비치다.

⑦ 상대편의 의향을 떠보기 위해 그가 비슷이 알아차릴수 있게 에둘러 말하다.

례: 내가 푸초에 대해 슬쩍 비치였더니 그는 대뜸 만두소로는 제격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비끼다 ① 비스듬히 비치다.

례: 저녁노을이 비끼다.

바야흐로 비끼기 시작한 석양이 온 우주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다가오고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② 어떤 감정이나 표정, 모습 등이 얼굴에 나타나다.

례: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잔뜩 비껴있었다.

③ =비치다 ②

례: 물우에는 한그루의 어린 소나무가 비껴있었다.

산림, 삼림

【공통뜻】 식물이 빼곡이 들어차거나 우거진 곳.

【개별뜻】

산림(山林: 산 산, 수풀 림) 산과 거기에 있는 숲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산림》은 산과 떼여놓고 말할수 없으며 산이 아닌 곳의 우거진 숲은 《산림》이라고 말할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숲》이란 나무 또는 풀이 우거져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산림》이란 산에 나무와 풀이 우거져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된다.

례: 울창한 산림. 산림애호. 산림감독원. 산림조성사업.

삼림(森林: 숲 삼, 수풀 림) 나무가 우거지거나 빼곡이 들어찬 숲. 삼림은 풀이나 잡관목이 아니라 주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말한다. 삼림은 산이 아닌 평야지대에도 있을수 있다.

례: 《삼림대》란 주로 나무가 분포된 지대를 말한다.

산천, 산촌

【공통뜻】 —

【개별뜻】

산천(山川: 산 산, 내 천) 《산과 내》라는 뜻으로 《자연일반》을 이르는 말.

례: 조국산천. 산천경개.

산촌(山村: 산 산, 마을 촌) 산속에 있는 마을.

례: 산촌마을. 산촌역. 산촌의 저녁.

삼기탕, 삼계탕

【공통뜻】 삼이 들어간 보약

【개별뜻】

삼기탕(蔘氣湯: 인삼 삼, 기운 기, 끓을 탕) 꿀물로 닭은 만삼과 단너삼, 개구리기름에 물을 붓고 푹 끓여 쪄낸 약탕. 이 약탕은 산후 허약한 녀성들에게 보약으로 쓰인다.

삼계탕(蔘鷄湯: 인삼 삼, 닭 계, 끓을 탕) 닭을 잡아 내장을 빼버리고 그대신 속에 인삼을 넣고 고은 보약의 한가지. 허약한 사람들의 영양과 원기를 돋구는데 효과적인 약이다. 일명 《계삼탕》이라고도 한다.

설피다, 성기다

【공통뜻】 촘촘하지 않다.

【개별뜻】

설피다 ① 사이가 배지 않고 뜨다.

례: 아지가 뻗은 나무는 설피게 심어야 한다.
천이 설피다.

② 솜씨가 거칠거나 행동이 덜렁하다.

례: 설핀 바늘질이니 인츰 꿰여질수밖에…

성기다 이리저리로 사이가 떠서 빈자리가 많다.

례: 성긴 머리카락. 모가 성기게 돋았다.

숭엄하다, 장엄하다

【공통뜻】 엄숙하다.

【개별뜻】

숭엄하다(崇嚴: 높을 숭, 엄할 엄) 거룩하고 엄숙하다.

례: 맹세문이 랑독되는 장내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숭엄한 태도. 숭엄한 모습.

주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하여 많이 쓰이는 형용사이다.

장엄하다(莊嚴: 씩씩할 장, 엄할 엄) 기상이 씩씩하고 위엄있거나 웅장하고 엄엄하다.

례: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이 아침해살을 받아 더욱 웅장해 보였다.

주로 모양이나 소리와 관련하여 많이 쓰인다.

스미다, 잦다

【공통뜻】 액체 같은것이 밑으로 새여들어서 없어지다.

【개별뜻】

스미다 ① 좁은 틈으로 새여들거나 새여나오다.

례: 관개수로를 따라 흘러든 생명수는 마르고 탄 벌마다 적시며 땅속으로 스며든다.

싸늘한 바람이 문짬으로 스며든다.

② (어떤 마음, 기운 등이) 깃들거나 배여들다.

례: 선조들의 애국심이 그대로 스민 을밀대와 최승대.

잦다 ① 액체가 날아나거나 스며들면서 차차 졸아서 밑바닥에 깔리다.

례: 가마속의 밥물이 잦아들다.

② 속으로 깊이 스미거나 배이다.

례: 물이 땅으로 잦다.

③ (설레이거나 드세차던 기운이) 잠잠해지거나 가라앉거나 하다.

례: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좀 잦아졌다.

시각, 시간

【공통뜻】 어느 한때.

【개별뜻】

시각(時刻: 때 시, 새길 각) ① 시간의 흐름에서의 어느 한때.

례: 영광의 그 시각은 드디여 왔다.

② 짧은 시간.

례: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한 시각이 새롭다.

시간(時間: 때 시, 사이 간) ① 초, 분, 시로 헤아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상.

례: 시간이 흐르다. 진실이 밝혀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② (철학에서) 사물현상의 운동, 발전의 계기성과 지속성을 특징짓는 물질의 객관적존재형식.

례: 시간과 공간.

③ (이름수의 단위로 쓰이여) 하루의 24분의 1의 동안.

례: 8시간로동제. 1시간.

④ 일정한 어느 한때.

례: 학습하는 시간. 휴식시간.

《시간》은 흐르는 성질을 가진다면 《시각》은 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새별, 샛별

【공통뜻】 별.

【개별뜻】

새별 보통때는 잘 보이지 않던것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며칠동안 수천수만배로 그 밝기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오랜 시간을 끌면서 점차 본래상태에로 되돌아가는 별. 마치 없던 별이 새로 나타난것 같이 보인다.

샛별 새벽에 동쪽하늘에 밝게 나타나는 금성.

례: 우리가 마을에 도착한 때는 샛별이 반짝이는 이른새벽이였다.

금성이 동쪽에 떠있을 때는 《샛별》이라고 하지만 저녁에 서

쪽하늘에 보일 때는 《샛별》이 아니라 《개밥바라기》라고 말한다.

새새끼, 열중이

【공통뜻】 엄지가 못되는 연약한 새끼새.

【개별뜻】

새새끼=새끼새 갓 까나온 새 또는 엄지를 따라다니며 엄지의 보호속에 먹이를 얻어먹는 연약한 새.

열중이 ① 갓 날기 시작한 새새끼.

② 늦가을에 깐 병아리로서 겨울에도 엄지가 못되는 닭.

례: 열중이 맛본 족제비.

작다, 적다

【공통뜻】 평균수준이나 보통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개별뜻】

작다 ① 주로 부피, 넓이, 높이, 길이, 둘레 등이 보통정도나 평균수준보다 못하거나 비교되는 대상의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례: 몸집이 작다. 키가 작다. 체적이 작다. 옷이 작다.

② 힘, 세력 등이 보잘것없거나 약하다.

례: 력량이 작다. 세력이 작다.

③ 책임이나 일, 과오나 범죄 같은것이 중하지 않고 가볍다.

례: 작은 일.

④ 소리 같은것이 귀에 들리는 정도가 약하다.

례: 말소리가 작다.

⑤ 생각하거나 마음쓰는것이 넓지 못하고 시시하다.

례: 통이 작다.

⑥ 규모, 정도 같은것이 보잘것없거나 대수롭지 않다.

례: 작은 문제. 규모가 작다. 가치가 작다.

처음에는 조합의 범위에서 작게 시작한 공사였으나 몇해가 지나는 사이에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방대한 공사로 되였다.

《작다》는 《크다》의 반대말이다.

적다 주로 수나 량이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례: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로력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제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해야 한다.

잘룩하다, 잘쏙하다

【공통뜻】 어느 한 부분이 가늘다.

【개별뜻】

잘룩하다 ① 길게 생긴 물체의 한 부분이 홀쭉하게 가늘다.

례: 잘룩한 허리.

② 길게 솟거나 두둑진 부분의 꺼진 모양이 우묵하다.

례: 잘룩한 손잡이.

잘쏙하다 어느 한 부분이 움쏙 들어가 가늘다.

례: 분조장 옥이는 허리를 잘쏙하게 동여매고 논발에 들어섰다.

적적하다, 한적하다, 호젓하다

【공통뜻】 환경이 들끓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다.

【개별뜻】

적적하다(寂寂: 고요할 적) ① 조용하고 쓸쓸하다.

례: 우리가 모두 집을 떠나버리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적적해하실가.

②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

례: 《적적할 때는 내 볼기짝 친다.》

한적하다(閒寂: 한가할 한, 고요할 적) 한가하고 적적하다.

례: 지난날의 한적하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된 공장 도시.

호젓하다 ① 외따로 떨어져 적적하고 외롭다.

례: 호젓한 산골의 외딴집.

② 마음이 외롭다.

례: 호젓한 마음. 호젓한 생각.

③ 알릴듯말듯 조용하고 그윽하다.

례: 호젓한 웃음.

절거덕하다, 떨거덕하다

【공통뜻】 무엇이 맞부딪쳐 소리나다.

【개별뜻】

절거덕하다(절거덕거리다) 주로 굳은 물체(쇠붙이 같은)가 가볍게 맞부딪치며 소리나다.

례: 웃방에서 절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봉남이가 열쇠를 잠그는 소리였다.

떨거덕하다(떨거덕거리다) 주로 크고 굳은 물체가 맞부딪쳐 둔하고 센 소리가 토막으로 끊기여나다.

례: 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적재함우에서는 빈 궤짝들이 마주치는 소리가 떨거덕떨거덕하며 요란하게 들렸다.

정갈하다, 정결하다

【공통뜻】 정하고 깨끗하다.

【개별뜻】

정갈하다 ① 함부로 어지럽힐수 없을 정도로 정하고 깨끗하다.

례: 정갈하고 아늑한 방. 정갈하게 핀 꽃송이. 정갈한 샘물.

② 아담하고 말쑥하다.

례: 얼굴이 곱살스럽고 정갈한 사람.

③ 흠잡을데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다.

례: 정갈하게 다듬어지고 섬세하게 가공된 갖가지 대리석들.

정결하다(淨潔, 精潔: 깨끗할 정, 깨끗할 결; 정할 정, 깨끗할 결) 더럽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정하고 깨끗하다.

례: 식탁보는 방금 갈아덮은것이여서 흠잡을데 없이 정결하고 반듯하였다.

정지, 중지

【공통뜻】 무엇인가 진행되지 않는것.

【개별뜻】

정지(停止: 머무를 정, 그칠 지) 움직이지 않고 멎어있는 상태나 자세.

례: 정지상태에서 본 눈금.

중지(中止: 가운데 중, 그칠 지) 움직이거나 활동하던 대상 또는 어떤 일을 도중에서 멈춰세우거나 그만두는것.

례: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도,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될것을 바라고있다.

지하, 땅속

【공통뜻】 땅의 밑부분.

【개별뜻】

지하(地下: 땅 지, 아래 하) ① 땅밑이나 땅속.

례: 수천척 지하막장. 지하철도. 지하자원.

② 낡은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을 비합법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분야.

례: 지하에서 활동하다.

땅속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땅의 부분.

례: 땅속에 묻힌 석탄. 땅속식물.

- 참고

지하활동 ○

땅속활동 ×

징조, 징후

【공통뜻】 앞으로 일에 대한 예견.

【개별뜻】

징조(徵兆: 부를 징, 억조 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것으로서 예견적인것.

례: 잘될 징조가 보인다.

저녁노을이 붉게 타는것은 래일 날씨가 개일 징조이다.

징후(徵候: 부를 징, 기후 후)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나 표징.

례: 막장을 돌아보던 그는 천정에서 돌부스레기가 떨어지는 듯 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였다.

차례지다, 차려지다

【공통뜻】 —

【개별뜻】

차례지다 일정한 차례에 따라 해당한 몫이 배당되다.

례: 나에게는 새 책가방과 학습장이 차례졌다.

차려지다 잔치, 연회, 음식상 같은것이 마련되거나 갖추어지다.

동사 《차리다》의 말뿌리에 방식을 나타내는 이음토 《～여》가 붙고 거기에 보조동사 《지다》가 붙어 《이루어지다》의 뜻을 나타낸다.

례: 잔치상이 차려지다.

찬란하다, 찬연하다

【공통뜻】 빛나다.

【개별뜻】

찬란하다(燦爛: 빛날 찬, 무르익을 란) ① 빛이 사방으로 내뻗쳐

눈부시게 밝고 빛나다.

례: 무지개가 찬란하다. 찬란한 아침해살.

② 어떤 일이나 사물현상이 매우 훌륭하고 빛나다.

례: 《우리 민족은 찬란한 문화와 풍부한 재부를 창조하여 동방에서 슬기롭고 문명한 국가를 창건하였습니다.》(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상)

찬연하다(燦然: 빛날 찬, 그럴 연) 눈부시게 빛나다.

례: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듯 오각별 찬연한 공화국기발이 경기장 하늘높이 올랐다.

침몰, 침하

【공통뜻】 배가 물에 가라앉는것.

【개별뜻】

침몰(沈沒: 잠길 침, 빠질 몰) 어떤 타격으로 배가 파손되여 물에 가라앉는것.

례: 배가 침몰되다.

침하(沈下: 잠길 침, 아래 하) 의도적으로 물속에 내려앉는것.

례: 잠수함이 드디여 침하하기 시작하였다.

퀴퀴하다, 퀘퀘하다

【공통뜻】 냄새가 구리거나 또는 하는짓이 비루하다.

【개별뜻】

퀴퀴하다 ① 냄새가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약간 구리다.

례: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다.

② 하는짓이 비루하고 역겹다.

례: 사람은 사소하게나마 퀴퀴한 뒤구석도 없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

퀴퀴한 소리. 퀴퀴한짓.

퀘퀘하다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구리터분하다.

례: 《지금 어느때라고 퀘퀘하게 아직도 그 문제를 들고나온단 말이요.》

※ 구리터분하다는것은 냄새가 구리거나 하는짓이나 성미가 맑고 깔끔하지 못하고 더러움을 뜻함.

탐스럽다, 호함지다

【공통뜻】 마음에 흐뭇하게 드는것을 나타낸 말.

【개별뜻】

탐스럽다 어떤 모양이 탐낼 정도로 소담스럽고 보기 좋다.

례: 탐스러운 벼이삭.

포동포동한 탐스러운 손으로 가야금줄을 잡아뜯는 모양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입가에는 행복의 미소가 넘쳐났다.

호함지다 마음이 흐뭇할만큼 탐스럽다. 원래 방언이던것이 문화어에 들어왔다.

례: 가지마다 붉게 익은 사과알이 호함지게 주렁주렁 달렸다.

호함진 눈이 내리다. 호함진 얼굴.

틈, 틈사리

【공통뜻】 사이가 있는것.

【개별뜻】

틈 ① 벌어져 생긴 짬이나 공간.

례: 바위에 생긴 틈. 사람들 틈에 끼우다.

② 겨를. 무엇을 할만 한 시간적짬을 가리킨다.

례: 숨돌릴 틈도 없다.

③ 일을 하는데서 빈구석이나 설친 곳.

례: 최영식은 실패한 실험결과를 놓고 자기의 연구사업과정을 돌이켜보며 어디에 틈이 있었는가 하는것을 곰곰히 따져보았다.

④ 어떤 행동을 할만 한 기회나 조건.

례: 그는 아까부터 놉쇠를 지꿎게 바라보며 말을 걸 틈을 노리고있었다.(장편소설 《높새바람》 상)

⑤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이가 벌어진것.

례: 우리들사이에 틈이 생긴것은 바로 그 일때문이였다.

틈사리 《틈》의 말체로 쓰인다.

례: 벽체에 틈사리가 생겨 메우다. 틈사리에 끼우다.

《틈》보다는 뜻폭이 좁다.

허술하다, 허줄하다

【공통뜻】 허름하고 보잘것없다.

【개별뜻】

허술하다 ① 허전하고 보잘것없다.

례: 물고기라도 잡아서 식탁을 허술치 않게 차리고싶었다.

②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례: 사람을 허술하게 보다. 남의 말을 허술하게 여기다.

③ 허름하고 좋지 못하다.

례: 허술한 옷차림. 허술한 집.

④ 잘 째이지 못하고 성긴데가 있다.

례: 《사실 오늘 왜적이 쳐들어오게 된것도 다… 국방이 허술해졌기때문에 생긴 화단이였다.》(장편소설 《평양성사람들》)

허줄하다 ① 주로 몸차림새 같은것이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례: 옷을 허줄하게 입은데다가 머리단장까지 하지 않아 본판은 잘 생긴 총각이라고 하지만 어느 처녀도 눈여겨보질 않았다.

② 헐고 너절하다.

례: 봉이네는 살림이 펴이기 시작하자 집안의 허줄한 가구부터 윤기도는 새 가구로 교체해버렸다.

해발, 해볕, 해살

【공통뜻】 해의 빛.

【개별뜻】

해발 사방으로 뻗은 해살.

례: 눈부신 해발이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새벽어둠은 서서히 가셔졌다.

해볕 해빛이 내는 뜨거운 기운. 해의 빛을 열의 측면에서 이르는 말이다.

례: 해볕에 검실검실 탄 얼굴. 뜨거운 해볕.

해살 해에서 내리쪼이는 빛살.

례: 눈부신 아침해살이 숲속을 뚫고들어와 자연의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꺼풀, 껍데기, 껍질

【공통뜻】 겉을 싸고있는 물질.

【개별뜻】

꺼풀 껍질이나 껍데기의 얇은 막과 같은것.

례: 꺼풀이 일다. 꺼풀이 벗겨지다.

껍데기 ① 닭알, 조개 또는 딱딱한 열매 같은것의 겉을 싸고있는 단단한 물질.

례: 호두껍데기. 밤껍데기.

② 속에 무엇이 들어간것의 겉.

례: 이불껍데기.

③ 어떤 물건의 겉.

례: 껍데기가 두껍다.

껍질 ① 생물체의 겉을 이루는 물질.

례: 사과껍질.

② (매미, 뱀 같은) 동물이 벗어놓은 허울.

례: 뱀껍질. 매미껍질.

③ 어떤 물건의 걸까풀.

례: 껍질주조.

꼬리, 꽁지, 꽁무니

【공통뜻】 뒤부분

【개별뜻】

꼬리 ① 주로 길짐승의 꽁무니 뒤부분에 삐져나온 비교적 가늘고 길게 생긴 부분

례: 서해갑문은 큰 룡 한마리가 꼬리를 치며 서해와 대동강을 가로막아 누워있는것 같다.

② 어떤 물건의 맨 끝부분.

례: 치마꼬리.

③ (어떤 사물, 현상의) 맨 뒤끝.

례: 눈섭꼬리가 올라가붙었다.

꽁지 주로 날짐승의 꽁무니에 꼬리처럼 붙은 깃.

례: 파랗게 잎이 핀 느티나무가지에는 삭정이를 문 까치가 앉아 꽁지를 까불고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꽁무니 ① 등골뼈의 아래 끝부분.

② 엉뎅이를 중심으로 한 몸의 뒤부분.

례: 꽁무니에 도끼를 찬 나무군.

꽃망울, 꽃봉오리

【공통뜻】 꽃이 피기 전 봉긋하게 엉기여있는 상태.

【개별뜻】

꽃망울 어린 꽃봉오리.

례: 봉긋봉긋 부풀어오르는 꽃망울.

꽃봉오리 ①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봉오리》에서의 《봉

오리》는 《산봉우리》에서 《봉우리》와 같으므로 봉긋이 솟아 오른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례: 봄비가 내리더니 뒤울안의 살구나무에 꽃봉오리들이 금시 피여날것처럼 볼록하게 부풀었다.

②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린 세대.

례: 소년단원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싸이다, 쌓이다

【공통뜻】 속이 보이지 않게 하다.

【개별뜻】

싸이다 무엇을 속에 넣고 보이지 않게 하다. 또는 둘레를 쳐서 가리우거나 막히게 하다.

례: 구름에 싸인 달.

쌓이다 많은 물건을 거듭 포개여 더미가 되게 하다.

례: 탈곡장에는 벼낟가리가 무드기 쌓이였다.

씨, 씨앗

【공통뜻】 새로운 동식물의 발생과 번식의 근원으로 되는 종자.

【개별뜻】

씨 ① 열매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물질 또는 열매 그자체.

례: 살구씨. 사과씨. 목화씨.

② 새로운 동물의 발생과 번식의 근원으로 되는 개체.

례: 씨암닭.

③ 앞으로 자라나거나 커질수 있는 근원을 비겨 이르는 말.

례: 《그들은 지금 어디에 깊숙이 숨어서 또 새로운 씨를 뿌리고있을것입니다.》(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④ 어떤 가문의 혈통이나 근원을 속되게 이르는 말.

례: 씨종자도 없이 모조리 죽여버리다.

⑤ =씨앗 ①

례: 모판에 씨를 뿌리다.

씨앗 ① 주로 곡식, 남새 같은것을 심기 위한 종자.

례: 좋은 씨앗을 고르다. 밭에 씨앗을 뿌리다.

② 앞으로 커지고 자라나서 목적을 이룩할수 있는 요소나 근원을 비겨 이르는 말.

례: 사랑의 씨앗을 뿌리다. 행복의 씨앗.

쪼각, 쪼박

【공통뜻】 전체나 옹근것에서 떨어져나간 부분.

【개별뜻】

쪼각 ① 어떤 물체에서 떨어져나온 작은 부분. 쪼박보다 뜻폭이 넓다.

례: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 돌멩이에 창문유리가 산산쪼각이 났다.

구름쪼각. 철판쪼각. 벽돌쪼각.

② 이름수의 단위로 쓰인다.

례: 한쪼각. 두쪼각으로 나누다.

쪼박 ① 천, 종이, 비닐과 같이 엷은것으로 된 물건의 작은 부분.

례: 헝겊쪼박을 무어서 방석을 만들었다.

② 이름수의 단위로 쓰인다.

례: 천 한쪼박도 아껴쓰다.

아가리, 아구리

【공통뜻】 어떤 대상의 속으로 들어가거나 통하는 구멍의 어구.

【개별뜻】

아가리 ① =아구리

례: 배낭아가리. 굴아가리.

②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례: 아가리에 자시오 할 땐 마다하다가 처먹으라 해야 먹는다.

범아가리. 뱀아가리.

아구리 어떤 대상의 속으로 들어가거나 통하는 구멍의 어구.

례: 갱아구리. 병아구리. 독아구리. 가마니아구리.

※ 어구—드나드는 곳의 첫머리.

어렴풋하다, 어슴푸레하다

【공통뜻】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개별뜻】

어렴풋하다 ① 기억이나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하다.

례: 어렸을 때 일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른다.

② 빛이 훤하지 않고 희미하다.

례: 어렴풋하게 안겨오는 건물의 형체. 달빛이 어렴풋하게 비치다.

③ 소리가 뚜렷하지 못하고 겨우 들리게 가늘고 약하다.

례: 어렴풋한 목소리. 어렴풋하게 들리다.

④ 풋잠이 들거나 얕은 잠에 든 상태에 있다.

례: 어렴풋한 잠에 들다.

어슴푸레하다 ①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어둑하고 희미하다.

례: 두껍게 쌓인 눈들은 어둠속에서 어슴푸레한 흰색을 드러냈다.

② 기억이 몹시 희미하거나 정신이 흐리마리하다.

례: 지나간 일들이 어슴푸레하게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③ 똑똑히 들리지 않고 희미하다.

례: 멀리서 어슴푸레하게 들리다.

어마어마하다, 으리으리하다

【공통뜻】 겉모습이 대단히 크거나 요란하다.

【개별뜻】

어마어마하다 ① 매우 놀랍게 굉장히 크고 대단히 요란하다.

례: 사람들은 이렇듯 어마어마하게 크고 구조가 복잡한 기계

를 아직 스무살도 안되였을 단발머리처녀가 혼자서 다루고있는데 대해 다시금 놀랐다.

② 매우 엄숙하여 조심스럽고 두려운 느낌이 있다.

례: 게다가 안경까지 쓰고 개화장을 들고나서니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고급관리의 외모를 갖추게 되였다.

으리으리하다 모양이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굉장하다.

례: 보석주단을 깐 평양산원의 홀은 궁전처럼 으리으리하였다.

《어마어마하다》가 주로 두려울 정도로 요란한것을 나타낸다면 《으리으리하다》는 좀 화려한 느낌을 준다.

엉키다, 얽히다

【공통뜻】 가릴수 없게 뒤섞이다.

【개별뜻】

엉키다 《엉기다》의 강조를 나타내는것으로서 무엇이 한데 뭉치여 붙거나 뒤섞이다.

례: 피가 엉키면서 점점 굳어진다.

얽히다 ① 여러 가닥의 줄에 이리저리 얼크러져 막 감기다.

례: 칡넝쿨이 얽히다.

② 갈피를 찾기 어렵게 뒤섞이다.

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영구, 영원

【공통뜻】 끝없이 오랜 시간.

【개별뜻】

영구(永久: 길 영, 오랠 구)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이 끝없이 오랜것 또는 오랜 동안.

례: 영구갱도. 영구주택. 영구기관. 영구화점. 영구보존.

영원(永遠: 길 영, 멀 원) 시간이 끝없이 오랜것 또는 오래도록 계속하여 변함이 없는것.

례: 영원불멸.

잇달다, 잇닿다

【공통뜻】 이어지다.

【개별뜻】

잇달다 (무엇을 또는 무엇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달다.

례: 그의 선창에 모두 잇달아서 노래를 불렀다.

잇닿다 ① 서로 이어지며 맞닿다.

례: 압록강과 두만강은 모두 백두산천지와 잇닿아있다.

② 직접 련결되다.

례: 혈육의 정으로 잇닿은 동포애.

③ 어디에 미치거나 이르다.

례: 따뜻한 손길이 잇닿아있다.

《잇달다》는 타동사로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붙이다.》라는 뜻이고 《잇닿다》는 자동사로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붙다.》는 뜻이다. 또한 규정형으로 쓰일 때 《잇달다》는 《잇단》으로 되고 《잇닿다》는 《잇닿은》으로 된다.

례: 한줄로 잇단 련결차. 한줄로 잇닿은 책상.

4. 기타 어휘

곧바로, 곧장, 곧추

【공통뜻】 거침이 없이.

【개별뜻】

곧바로 ① 조금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게 면바로.

례: 교환수의 익숙하고 날랜 솜씨는 곧바로 상대방을 찾아 내군 했다.

②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굽어지거나 에도는 일이 없이 곧게.

례: 승용차 한대가 행길우에 나타나더니 곧바로 우리들이 모여서있는 뜨락에 달려와 멎었다.

곧장 ① 도중에 어디에 들리거나 다른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례: 나는 수업이 끝나자 곧장 집으로 왔다.

② 옆으로 에돌거나 중도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추.

례: 짐을 부리자마자 곧장 떠났다.

곧추 ① (굽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례: 무릎을 곧추세우다.

일행은 달빛 부드럽게 흐르는 월청촌 앞벌을 곧추 질러 행군하고있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

② 직각이 되도록 곧게.

례: 못을 곧추 내리박다.

③ =곧장

례: 곧추 집으로 오다.

우리는 발갈이하는 남정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곧추 포

대산으로 올라갔다.

《~거니와》, 《~려니와》

【공통뜻】 두가지 사실을 이어주는 이음토.

【개별뜻】

《~거니와》 어느 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실이나 현상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례: 일에서 모범이거니와 학습에서도 모범이다.

보기도 좋거니와 맛도 좋다.

《~려니와》 《~거니와》와 기본적으로 뜻이 같으나 주로 《미래》나 《가정》,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에 쓰인다.

례: 래일도 가려니와 모래도 가야지.

너도 최우등생이려니와 그도 또한 틀림없이 최우등생일 것이다.

《~고》, 《~며》, 《~면서》

【공통뜻】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을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이어주는 이음토.

【개별뜻】

《~고 》 ① 시간적으로 앞선 사실을 뒤의 사실과 이어준다.

례: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동무들과 함께 물놀이장에 간다.

② 먼저 한 행동이 뒤의 행동의 방식으로 되도록 이어준다.

례: 뻐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③ 다음에 오는 행동의 조건 또는 근거로 되도록 이어준다.

례: 너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④ 보조적으로 쓰이는 《있다, 말다, 싶다》를 앞의 동사와 결합시켜 현재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례: 먹고있다. 보고싶다.

⑤ 《말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전달하다, 하다, 쓰다》 등의 동사앞에 오는 단어에 붙어 간접옮김법의 기능을 수행한다.

례: 글자가 너무 작다고 말하였다.

⑥ 렬거되는 단어에 붙어 어느것도 가리지 않고 다 포함시킨다는 뜻을 가진다.

례: 영수는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책상에 마주앉기만 하면 다른데 정신을 팔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다.

《～며》 용언인 경우 《ㄹ》를 제외한 나머지 받침소리아래에서는 《～으며》로 쓰인다.

①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례: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며
바위돌이 골짜기를 쳐부신다
(장편서사시 《백두산》)
그는 진보적인 문인이였으며 열렬한 애국자였다.

② 토 《～면서》와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해당 행동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한다.

③ (체언의 용언형으로 쓰이면서 풀이는 하지 않고) 나란히 렬거함을 나타낸다.

례: 창문이며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④ 《～며 ～며》의 형식으로 쓰이면서 두가지이상의 행동을 엇바꾸어 잇달아 실현함을 나타낸다.

례: 발에 신을 꿰며 말며 밖으로 달려나간다.

《～고》가 주로 뒤의 행동보다 앞선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다면 《～며》는 주로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쓰인다. 이 경우에는 《～면서》와 거의 같은 뜻을 나타낸다.

나란히 이어주는 단위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앞의 용언에 먼저 《～고》를 붙이며 그 다음 용언에는 《～며》를 붙여쓴다.

례: 학생들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다.

아버지는 뜨락또르운전수이고 어머니는 농장원이며 나는 학생이다.

《～면서》 용언의 《ㄹ》받침을 제외한 받침뒤에서는 《～으면서》로 쓰인다.

① 앞의 행동 또는 상태가 뒤의 행동, 상태와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례: 영수는 책을 읽으면서 요점을 발취했다.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것은 건강에 해롭다.

② (형용사와 체언의 용언형으로 쓰이여) 어떤 상태가 동시적으로 있음을 서술하는데 쓰인다.

례: 달면서도 새큼한 맛이 있다.

그는 로동자이면서 시인이다.

《～구려》, 《～그려》

【공통뜻】 감탄을 나타내는 토.

【개별뜻】

《～구려》 ① 알림을 나타내면서 새롭게 인식된 사실에 대한 감탄을 표시한다.

례: 《묘향산은 정말 아름답구려.》

② 무엇을 부드럽게 명령함을 나타낸다.

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구려.》

《～그려》 맺음토로 끝난 문장뒤에 붙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강조해주는 특수한 토.

례: 《그러고보니 아주머님댁에서는 하나도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려.》(장편소설 《두만강》 제1부)

《～구려》는 그자체가 문장의 맺음토로 되지만 《～그려》는 맺음토가 붙은 단어뒤에 다시 붙어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그러나, 그런데

【공통뜻】 앞의 문장에 맞세워서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이음말.

【개별뜻】

그러나 앞의 문장에서 서술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부정하며 다음 내용을 이어줄 때 쓰인다.

례: 우리는 래일 동물원에 간다. 그러나 비가 오면 가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앞의 문장의 내용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인 설명을 가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서술할 때 쓰인다.

례: 우리는 지금 양각도축구경기장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한 동무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있다.

《～과/～와》, 《～랑/～이랑》

【공통뜻】 둘이상의 대상을 나란히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토.

【개별뜻】

《～과/～와》(구격토) 《과》는 자음으로 끝난 소리마디밑에서, 《와》는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밑에서 쓰인다.

① 나란히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례: 모진 바람과 눈보라가 일다.

학교와 가정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야 한다.

②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례: 군중과 담화한다. 영수와 만났다.

③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례: 마음씨가 비단결과 같구만.

《～랑/～이랑》(도움토) 《랑》은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나 대상화된 단위에, 《이랑》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쓰인다.

① 어떤 행동의 상대로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례: 동무들이랑 같이 동물원에 놀러 갔다.

② 나란히 들어서 이어줌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주로 렬거되는 여러 대상을 하나하나 찍어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된다. 《랑, 이랑》에는 친밀하고 애칭적인 색채가 있으므로 주로 문학작품들에서 긍정적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에 붙으며 부정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잘 붙지 않는다.

- 참고

《토끼랑, 다람이랑, 고슴도치랑…》 ○

《승냥이랑, 여우랑, 족제비랑…》 ×

《～나마/～이나마》, 《～마저, ～조차》

【공통뜻】 양보를 나타내는 도움토.

【개별뜻】

《～나마/～이나마》 양보의 뜻이 강하게 나타난다. 《～나마》는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서, 《～이나마》는 말줄기가 자음으로 끝난데서 쓰인다.

례: 해방전 우리 집 살림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하루 두끼씩 죽이나마 차례졌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간 후에는 죽마저 없어 굶기를 밥먹듯 했다.

《～마저, ～조차》 주로 체언에 붙어서 달갑지 않은 일을 양보하여 포함시키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 토들은 부정의 뜻을 가진 《없다》, 《～지 않다》, 《～지 못하다》와 자주 결합되여 쓰인다.

례: 《너마저 안 가겠다는거냐?》

해방전 우리 집에서는 밥은 고사하고 죽조차 변변히 먹지 못했다.

《~나마/~이나마》는 양보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도움토 《~라도/~이라도》를 대신하여 쓸수 있지만 《~마저, ~조차》는 《~라도/~이라도》로 대신하여 쓸수 없다. 례를 들면 《그나마 있었으니 다행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조차(그마저) 있었으니 다행이다.》라고 쓸수 없다.

《~던》, 《~든》

【공통뜻】 다같이 동사, 형용사 또는 체언의 용언형에 붙는 토.

【개별뜻】

《~던》 어떤 사실이나 목격한것이 말하는 시간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용언이나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례: 《어제 우리가 말하던 정화동무입니다.》

어제날 머슴이였던 곽칠성이가 오늘은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다.

《~든》 용언의 줄기 또는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서 여러 사실이 선택되는 형식으로 렬거되면서 그 어느것도 개의치 않음을 나타낸다.

례: 두성아바이는 누가 보든말든 오직 자기의 깨끗한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30년을 하루와 같이 일해왔다.

《~던가》, 《~든가》

【공통뜻】 —

【개별뜻】

《~던가》 동사, 형용사,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면서 과거에 있었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반말말차림으로 물어보는 맺음토.

례: 《형님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과수농장에서 올해 사과를 얼마나 생산했던가?》

《그 식당 국수가 맛있던가?》

《~든가》 어느것으로 선택되여도 개의치 않는 어떤 사실을 가상하여드는 뜻을 나타내면서 뒤의 사실에 이어주는 이음토.

례: 날씨가 흐린것을 보니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무엇이고 올것 같다.

련락이 안되면 사람이 오든가 할것이다.

《~던지》, 《~든지》

【공통뜻】 용언 또는 체언의 용언형에 붙는 토.

【개별뜻】

《~던지》 ① 동사, 형용사의 말줄기 또는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서 지나간 사실을 돌이켜 생각을 하나 잘 몰라하는 뜻을 나타낸다. 보통 《모르다》, 《생각나지 않다》, 《떠오르지 않다》가 어울리쓰인다.

례: 《어느 모임에서 그 동무를 보았던지 잘 생각이 나지 않소.》

《그가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던지 모르겠소?》

② 어떤 사실의 근거로 됨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례: 날씨가 어찌나 추웠던지 짐승들마저 얼씬하지 않았다.

춘해는 최우등을 한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발을 동동 구르며 오빠에게 자랑했다.

《~든지》 어느것으로 선택되여도 개의치 않는 어떤 사실을 가상하여드는 뜻을 나타내면서 뒤의 사실에 이어주는 이음토이다.

례: 《가든지 말든지 빨리 결심채택을 해야지 그렇게 망설이기만 하면 해를 넘길수 있소.》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든지》는 《~든가》와 뜻이 비슷하나 《~든지》는 어느것으로 선택되여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 더 강조되고 《~든가》는 가상하는 뜻이 더 강조되는 차이를 가진다. 《~던지》에는 지난

때 지속되던 사실을 회상하는 뜻이 있으나 《~든지》에는 그런 뜻이 없고 순전히 선택하는 뜻만 있을 때 쓴다.

《~대도》, 《~돼도》

【공통뜻】 방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토 《~여》에 도움토 《~도》가 붙어 뒤에서 꺾이지 않을 불굴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이는 입말의 문법적줄임형태.

【개별뜻】

《~대도》 《다 하여도》의 줄임형태.

례: …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가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돼도》 《~가/이 되여도》 또는 《~게 되여도》의 줄임형태.

례: …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 백옥처럼

(가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랴》, 《~리》

【공통뜻】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

【개별뜻】

《~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 부정의 뜻을 담고있다.

례: 지나온 그 기슭에 남긴것 없다면
우리 어이 웃으며 돌아볼수 있으랴

(가사 《추억》)

《우리 어이 웃으며 돌아볼수 있으랴》에서 《돌아볼수 있으랴》는 《돌아볼수 있겠는가, 돌아볼수 없을것이다.》라는 의미로 리해할수 있다.

《~리》 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

례: 높은 산 낮아져 바다가 된다 해도
인민들은 한마음 끝까지 따르리

(가사 《축원》)

② 의지, 결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

례: 한생을 값있게 살리.

《~랴》가 《~ㄹ수 있겠는가, ~ㄹ수 없다》의 의미를 지니고있다면 《~리》는 《~ㄹ것이다》의 의미를 지니고있다. 《~랴》에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면 《~리》에는 부정의 의미가 없다.

《~러》, 《~려》

【공통뜻】 목적을 나타내는 이음토.

【개별뜻】

《~러》 공간에서의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말뿌리에 붙어 주로 행동의 목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토는 대개 《가다》, 《오다》, 《나가다》, 《다니다》 등과 같이 움직임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와 어울려쓰인다.

례: 공부하러 가자.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다.
뽕따러 가세.

《~려》 동사(《하다》, 《생각하다》, 《결심하다》, 《마음먹다》 등)에 붙어 의도를 나타낸다. 《~려》는 《~려고》와 같은 뜻으로서 언제나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뜻을 가진다. 《~러》는 다른 토와 결합되여 쓰이는 일이 없지만 《~려》는 《~려거든》, 《~려고》, 《~려니》 등 다른 토와 결합하여 쓸수 있다. 그리고 《~려》가 쓰이는 단어에는 같은 의도를 나타내는 《~고저》를 대신하여 쓸수 있지만 《~러》가 쓰이는 단어에는 《~고저》를 대신할수 없다. 그러므로 《~려》

인가 《~러》인가를 가려쓰기 어려운 단어에는 《~고저》를 붙여보고 말이 통하면 《~려》를 쓰고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를 붙여야 한다. 례컨대 《일하러 간다.》를 《일하고저 간다.》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과학자가 되려 한다.》는 《과학자가 되고저 한다.》라고 표현할수 있기때문에 《~려》를 써야 한다.

《~로서》, 《~로써》

【공통뜻】 조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토.

【개별뜻】

《~로서》 조격토 《~로》에 강조토 《서》가 붙어 자격의 뜻을 나타낸다.

례: 이번 회의에 그는 학생대표로서 참가하였다.

《~로써》 조격토 《~로》에 강조토 《써》가 붙어 재료 또는 수단의 뜻을 나타낸다.

례: 벽돌로써 벽체를 쌓다.(재료)

그물로써 고기를 잡다.(수단)

※ 조격토 《~로》의 의미적기능.

례: 비닐로 만든 물통.(재료)

전권대표로 참가했다.(자격)

오늘로 경기가 끝난다.(시간)

성실한 태도로 일한다.(양식)

칼로 자르다.(수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원인)

취재차는 농촌으로 달린다.(방향)

- 참고

《~로서》 와 《~로써》의 구별방법

자격을 나타낸다고 볼것인지,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낸다고 볼것인지 가

리기 어려워 《~로서》를 써야 할지, 《~로써》를 써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다른 말로 바꾸어보아 말이 되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

① 《로서》를 써야 할 때에는 《~이라고》, 《~인데》, 《~의 처지인데》와 같은 말을 붙여서 뜻이 통하면 쓴다.

례: 인민을 선생으로서 여기다.=인민을 선생이라고 여기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안되지.》=《학생인데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안되지.》

② 《~로써》를 써야 할 때에는 《~을 가지고》와 같은 말을 붙여서 뜻이 통하면 쓴다.

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는다.

자격의 뜻으로 표현된 문장성분은 주어와 관련되고 수단의 뜻으로 표현된 문장성분은 술어와 관련된다.

례: 그는 연구사로서 20년 남짓이 일해왔다.

약으로써 벌레를 잡는다.

《~ㅁ으로 하여》, 《~ㅁ으로써》, 《~므로》

【공통뜻】 원인을 나타내는 토.

【개별뜻】

《~ㅁ으로 하여》 동사 《하다》를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에 련결시켜 그런 사실에 대한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례: 나는 선생님의 사심없는 학습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은 최우등생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ㅁ으로써》 용언을 체언화한 바꿈토 《ㅁ》에 조격토 《으로》와 그 뜻을 강조하는 토 《써》가 덧붙어서 《~여서》, 《~여가지고》의 뜻으로 쓰인다.

례: 4월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함으로써 2.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므로》 이음토로서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되 말줄기가 모음

으로 끝난데 붙으며 《ㄹ》이외의 자음으로 끝난데서는 결합모음 《으》를 요구한다. 원인, 근거를 나타내면서 뒤의 결과에 이어준다. 주로 글말에 쓰이는 토이다.

례: 작업이 아름차므로 힘껏 해야 한다.

《~마냥》, 《~인양》

【공통뜻】 무엇에 비유할 때 쓰이는 언어적단위.

【개별뜻】

《~마냥》(토) 체언이나 용언의 체언형에 붙어 문장에서 용언과 결합시켜 같음을 비유할 때 쓰인다.

례: 탈곡장에는 산더미마냥 낟알이 쌓여있다.

《~인양》(불완전명사) 체언에 붙어 《처럼, 같이》의 뜻을 나타낸다.

례: 솟아오르는 보름달인양 환하게 생긴 얼굴.

만약, 만일

【공통뜻】 어떤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

【개별뜻】

만약(萬若: 일만 만, 같을 약)=만일

례: 《만약 비가 오면 마중갈테니 넌 걱정말고 공부나 잘 해라.》

만일(萬一: 일만 만, 한 일) ① 혹시나하는 미심스러운 경우.

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② 부사형태 《만일에》로 쓰이여 가정적조건을 전제로 함을 나타낸다. 이때에는 《만약》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례: 만일에 래일 그가 도착한다면 우리는 함께 정양소로 갈 수 있다.

《~면서》, 《~다면서》

【공통뜻】 두가지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음토.

【개별뜻】

《~면서》 동사 또는 형용사의 말뿌리에 직접 붙어서 동시행동 또는 동시상태를 나타내는 이음토.

례: 귀엽스러우면서 복스럽다.

《~다면서》 《<무엇을 어찌하다 또는 어떻게 하다.>라고 하면서》의 줄임형태로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옮길 때 쓰인다.

례: 며칠후에 돌아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어머니는 매일과 같이 직장에 전화를 걸어 묻군 한다.

《~므로》, 《~로/~으로》

【공통뜻】 다같이 우리 말의 토로서 조건적인 뜻을 가진다.

【개별뜻】

《~므로》 원인, 근거를 나타내는 이음토로서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례: 많은 비가 내리므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원인)

《~로/~으로》 원인, 수단, 방식 등을 나타내는 격토로서 체언과 결합한다.

례: 할아버지는 지난해에 병으로 돌아가셨다.(원인)
할머니는 칼로 무우를 깎으신다.(수단)
그들은 능란한 솜씨로 일한다.(방식)

반드시, 반듯이

【공통뜻】 —

【개별뜻】

반드시 어떤 행동이나 실현이 틀림없이 꼭.

례: 결의목표를 반드시 수행할데 대한 열렬한 호소.
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반듯이 반듯하게.

례: 반듯이 생긴 얼굴. 책상과 걸상을 반듯이 놓다.

그는 두팔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반듯이 누웠다.

벌써, 이미

【공통뜻】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서.

【개별뜻】

벌써 ① (시간 또는 과정의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느낄 때) 어느새.

례: 벌써 열두시가 넘었다.

《아니, 벌써 갔다왔느냐?》

② 이미 그전에.

례: 그들은 올해계획을 벌써 끝낸지 오래다.

이미 ①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 즉 이전에.

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내가 이미 읽은 책이다.

② =벌써

례: 첫번째 객주집은 이미 가까이 있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은하수》)

③ 전부터.

례: 이미 알고있는 사이이다.

《벌써》와 《이미》는 많은 경우 엇바꾸어 쓸수 있지만 《어느새》의 뜻을 나타낼 때는 《벌써》를 써야 한다.

서서히, 천천히

【공통뜻】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속도가 더디게.

【개별뜻】

서서히 주로 상태의 변화가 완만하게.

례: 시꺼먼 구름이 덮여 어둡던 하늘이 서서히 개이기 시작했다.

흐렸던 개울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주로 운동의 속도가 뜨게.

례: 천천히 걸어간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린다.

- 참고

천천히 걸어가다	○	천천히 달리다	○
서서히 걸어가다	×	서서히 달리다	×

설마, 설사

【공통뜻】 —

【개별뜻】

설마 입말에서 미래시간토와 함께 되묻는 형식의 문장에서 쓰이면서 《아무리 하기로서니 또는 아무리 하여도》의 뜻으로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데 쓰인다.

례: 《설마 그렇게야 되겠나?》

설사 동사, 형용사에 《∼더라도》, 《∼지라도》, 《∼지언정》 등과 맞물려 쓰이면서 《가정하여》 혹은 《일러서》의 뜻을 나타낸다.

례: 설사 그랬다고 하자.

설사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

《∼시오》, 《∼세요》

【공통뜻】 입말체의 토로서 명령을 정중하게 하는데 쓰인다.

【개별뜻】

《∼시오》 순수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맺음토.

주로 웃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명령할 때 쓰는 맺음토이다.

《∼십시오》라고 하되 그것도 명령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 또는 부탁의 억양으로 써야 한다.

이 토를 쓰는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것은 일부 사람들속에

서 발음할 때 《～시요》로 들린다고 하여 쓸 때에까지 맺음토 《～세요》처럼 《요》를 붙여 《～시요》라고 잘못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바로잡는것이다.

《～세요》 존경토 《～시》와 《～어요》가 어울린 《～시어요》가 줄어든 높임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문법적형태.

① 동사에 붙어 주로 명령을 정중하게 나타내는데 쓰인다.

례: 어서 이야기하세요.

② 알림 또는 물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례: 《할아버님께서 저기 오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실지, 실재, 실제

【공통뜻】 진짜나 현실적인것.

【개별뜻】

실지(實地: 열매 실, 땅 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즉 머리속에서 상상하거나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현실속에 벌어지거나 존재하는 환경, 처지, 조건 등을 의미한다.

다른 명사와 결합되여 쓰이거나 부사 《실지》(실지로)의 형태로도 쓰인다.

례: 들은것보다 실지가 더 훌륭하다. 실지동작. 실지체험. 실지생활.

실재(實在: 열매 실, 있을 재) 실지로 존재하는것.

동사 《실재하다》형으로 쓰인다.

례: 실재한 인물.

실제(實際: 열매 실, 즈음 제) 실지에 접한 경우.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되여 쓰이거나 《로》가 붙어 부사적으로 쓰인다.

례: 근로대중이 실제로 덕을 보게 하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실제로 남은 돈은 얼마 안된다.

자주, 자꾸

【공통뜻】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개별뜻】

자주 시간적으로 동안이 뜨지 않게 여러번 되풀이하여.

례: 나는 고향에 편지를 자주 보내군 한다.

자꾸 쉬지 않고 여러번 잇달아서.

례: 지난밤에는 갓난애기가 자꾸 울어 한잠도 자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오다.

정녕, 진정

【공통뜻】 감동되였을 때 쓰는 부사로서 《참으로》.

【개별뜻】

정녕 ① 틀림없이 꼭 반드시.

례: 《나는 네가 정녕 그럴줄 안다.》
《정녕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단 말인가?》

② 참으로.

례: 그는 정녕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다.

진정(眞情: 참 진, 뜻 정) ① 명사로 쓰일 때에는 거짓이 없는 참된 정이나 진실한 마음.

례: 진정을 털어놓다. 진정으로 말하다.

② 부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정말 또는 참으로》의 뜻으로 쓰인다.

《정녕》과 《진정》은 시나 정론, 웅변글에서 자주 쓴다.

정말, 참말

【공통뜻】 사실 그대로의 말.

【개별뜻】

정말 ①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른말. 흔히 《거짓말》에 반대되는 말이다.

례: 《네가 최우등을 했다는게 정말이냐?》

② (부사로 쓰이여) 들은바나 말한바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그대로.

례: 《우리가 바라던대로 정말 통일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③ 틀림없이.

례: 《정말 오겠니?》, 《정말 올게.》

④ 말그대로 대단히.

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전 정말 부끄러워요.》

⑤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실지로.

례: 《나는 이제 와서야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는것 같소.》

⑥ (감동사로 쓰이여) 어떤 일에 대하여 심각한 느낌을 나타낼 때 쓰인다.

례: 《정말, 깜빡 잊었구나!》

참말 ①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 《꾸며하는 말》과 상대되는 말이다.

례: 참말과 거짓말.

《아이참, 세상에 그런 거짓말 같은 참말도 있을가?》

② (부사로 쓰이여)=정말(말체)

례: 내 동무들은 참말 좋은 동무들이다. 참말 기쁘다.

③ (《참말로》형으로 쓰이여) 《정말로》, 《진실로》의 뜻.

례: 《참말로 기특한 아이들이로군!》

④ (《참말이지》형으로 쓰이여) 《바른대로 말하여》, 《정말이지》, 《사실그대로》의 뜻.

례: 《참말이지 우스워 못 견디겠어.》

⑤ (감동사로 쓰이여) 어떤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거나 동의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 쓰인다.

례: 《참말, 금강산은 명산이로군!》

줄곧, 줄창

【공통뜻】 끊어지거나 그치지 않고 잇달아서.

【개별뜻】

줄곧 끊어지거나 그치지 않고 계속 또는 처음부터 같은 상태로 내처 잇달아서. 《줄곧》이 《줄창》보다 《시종일관 같은 모양, 같은 상태, 같은 속도》라는 뜻이 더 부여된다.

례: 근호는 무엇인가 줄곧 생각에 잠겨 혼자서 빙긋이 웃기도 하고 또 시무룩해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한나절을 줄곧 걸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줄창 끊어지거나 그치지 않고 내처 잇달아서.

례: 마가을의 변덕스런 날씨가 지나가고 요즘은 줄창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해질녘이 다되여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도 뻐스는 줄창 달리고 또 달리였다.

《줄곧》과 《줄창》은 뜻이 같으므로 엇바꾸어 쓸수 있다.

한참, 한창

【공통뜻】 –

【개별뜻】

한참 시간이 얼마간 지나는 동안. 명사, 부사로 쓰인다.

례: 문을 두드린지 한참만에야 주인이 나와서 눈여겨보다가 유격대임을 알아보고 반겨맞아주었다.

《한참》을 《훨씬》의 뜻으로 쓰는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 참고

이 가방이 그 가방보다 훨씬 낫다 ○

이 가방이 그 가방보다 한참 낫다 ×

한창 ① (명사) 흐무러지게 무르익거나 활짝 피여나거나 제대로 다 크거나 하는 경우에 가장 성한 상태 또는 그렇게 되는 시기.

례: 지금 운동장에서는 축구경기가 한창이다.
벼가을이 한창이다.

② (부사로 쓰이여) 가장 성하게.

례: 한창 물이 올라 통통해진 꼬투리들은 콩풍작을 알리는 듯 하였다.

또렷이, 뚜렷이

【공통뜻】 똑똑히 알아볼수 있게.

【개별뜻】

또렷이 뒤섞이거나 희미하지 않고 하나같이 똑똑히 알아볼수 있게.

례: 눈섭을 또렷이 그리다. 또렷한 목소리.

뚜렷이 흐리거나 섞갈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례: 길을 뚜렷이 밝히다. 눈우에 뚜렷이 난 발자국. 뚜렷한 사실.

《뚜렷이》는 규모가 좀 큼직한 맛을 주고 《또렷이》는 《뚜렷이》보다 좀 작은 그리고 좀 귀여운 맛을 준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뜻빛갈을 서로 달리하는 우리 말 모음의 성질과 관련되여있다. 조선어에는 밝은모음계렬에 속하는 《ㅏ, ㅑ, ㅗ, ㅛ, ㅘ…》로 된 단어와 어두운모음 《ㅓ, ㅕ, ㅜ, ㅠ, ㅡ, ㅔ, ㅟ, ㅢ…》로 된 단어가 뜻비슷한것들이 많은데 밝은모음으로 된 단어들은 주로 밝은것, 얕은것, 귀엽고 작고 복스러운것들을 련상케 하며 어두운모음으로 된 단어들은 주로 어둡고 깊은것, 굵고 미운것을 련상케 하므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에 따라 다르게 쓸수 있다.

띠다, 띄다

【공통뜻】 —

【개별뜻】

띠다(띠우다) ① 끈이나 띠 같은것을 두르다.

례: 혁띠를 띠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혁띠를 띠우다.

② 어떤 임무나 직책 같은것을 맡아 지니다.

례: 중요한 임무를 띠다.

③ 어떤 색갈을 지니거나 드러내다.

례: 붉은 색갈을 띠다. 홍조를 띠다.

밑바탕에 푸른 색갈을 띠우다.

④ 어떤 기운이나 감정, 표정 같은것을 나타내다.

례: 생기를 띠다.

얼굴에 노기를 띠우고 말했다.

⑤ 어떤 성질을 지니다.

례: 이중성을 띠다. 전기를 띠다.

《띠우다》는 《띠다》에 상토 《우》가 붙어 시킴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띄다(띄우다) ① 눈에 나타나보이다.

례: 눈에 띄다.

② 쇠를 달구었다가 식히여서 뜨게 하다.

례: 쇠를 띄우다.

③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이가 있게 하다.

례: 사이를 좀 띄여놓다.

④ 편지나 소식, 전하는 사람을 보내다.

례: 사람을 띄워보내다.

아무튼, 아무쪼록, 어떻든, 어쨌든

【공통뜻】 어찌되였든.

【개별뜻】

아무튼 사정은 아무렇게 되였든지간에.

례: 아무튼 앓지 말고 건강하여 맡은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① 될수 있는대로.

례: 《아무쪼록 맡은 과업을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② 바라건대 부디.

례: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어떻든 사정은 어떠하든 즉 어떻게 하든.

례: 어떻든 우리는 기어이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어쨌든 사정은 어찌되였든.

례: 일이 바로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에》, 《～에게》

【공통뜻】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토.

【개별뜻】

《～에》 주로 비활동체명사에 대하여 쓰며 간혹 활동체명사에도 쓰는 경우가 있다.

례: 꽃에 물을 준다.

《고향에 알려주오.》

인민에 대한 사랑.

《～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하여 쓴다.

례: 부모들에게 전해주었다.

소에게 여물을 준다.

비록 사람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직접 사람을 가리키는가 또는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된 어떤 조직이나 단위를 가리키는가에 따라 고려해서 써야 한다. 즉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를 써야 한다.

5. 찾아보기

ㅈ

ㄲ, ㄸ, ㅃ, ㅆ, ㅉ

ㅇ